

濟州市龍潭洞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

第十一輯

李圭
康昌和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市

1993



제주시 용담동 유적 원경

제주시 용담동 유적 전경



발 간 사

옛부터 우리고장 제주시는 제주도의 중심지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번의 제주시 용담동 유적 발굴조사에 의해 제주도 탐라후기의 문화를 밝혀줄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묶어 「제주시 용담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굴조사된 용담동 유적은 통일신라시대인 고대 탐라국의 제사유적으로써 고대탐라후기의 문화와 당시 생활상을 밝혀줄 중요한 고고학적 사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시 관내에는 용담동 용관묘 유적을 비롯한 돌무덤 등 선사유적과 고대 역사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적들에 대한 꾸준한 발굴조사와 연구작업이 이루어져 학문적, 문헌적 자료로 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원류, 다시 말씀드리어서 선사문화와 고대의 역사문화를 캐어내고 규명하는 학술적 연구작업은 역사의 올바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도시화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대문화의 발굴조사와 학술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학계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고대 탐라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학술적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보고서 발간을 위해 그 동안 애써오신 제주대학교 이청규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1993년 5월 일

제주시장 김 태 환

축 사

이번에 고대 탐라 후기의 문화연구에 귀중한 史料가 될 「제주시 용담동 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물질지상화, 첨단화 문명에 휩싸여 있는 이 시점에서 잊혀져가는 옛 선인들이 창조한 역사적 문화상을 시대적으로 밝히는데 꾸준히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의 유적지 발굴 조사는 제주도의 時·空을 通한 문화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는 자긍심과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시는 조선조 행정 중심지인 제주목 관아지였기 때문에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제주시가 기획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탐라 선조들의 혼이 서린 생활상을 찾고, 정리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의 성과가 하나 하나 거두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굴 조사된 「제주시 용담동 유적」은 비증있는 탐라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史料로 매우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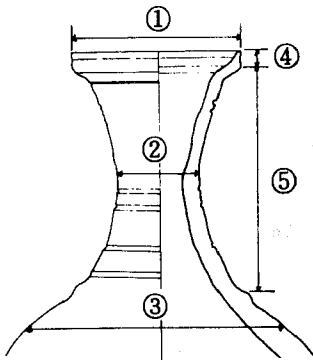
따라서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 보존하는데 투자와 관심을 쏟는 것은 문화의 뿌리를 규명하고 아득한 옛날부터 찬연한 문화를 창조한 선인의 왕성한 창의력을 이어받아 그 위에 뿌리있고 수준 높은 문화를 새롭게 이 고장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데 목적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 용담동유적」 발굴은 史的 意味와 함께 앞으로 우리세대가 文化創造를 함에도 큰 뜻이 있는 작업이었다 생각하며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제주시 용담동 유적」 보고서가 발간되기 까지 애쓰신 김태환 제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히, 이청규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조사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1993년 5월 일

제주시의회의장 현 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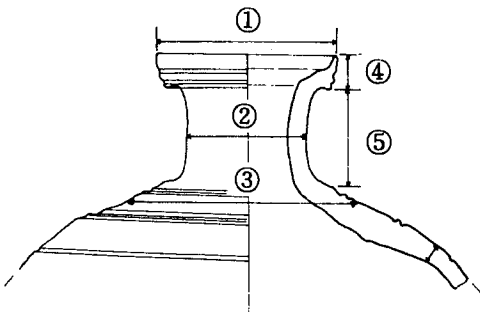
일 러 두 기

本 報告書는 기왕에 보고된 통일신라시대도기의 기종 명칭 뿐만 아니라 세부명칭에 대해 각기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출토된 도기에 대한 세부명칭과 계측한 범위를 제시 함으로써 읽는이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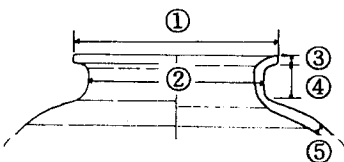
* 장경병

- ① 복원입지름 ② 경부지름 ③ 건부폭
④ 구단부높이 ⑤ 경부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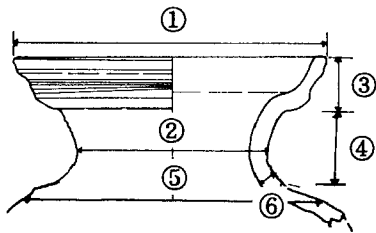
* 단경병

- ① 복원입지름 ② 경부중간폭 ③ 건부폭
④ 구단부높이 ⑤ 경부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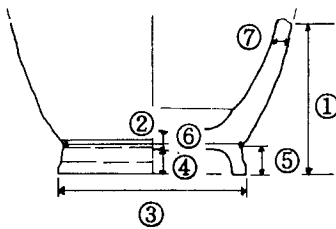
* 단경호

- ① 복원입지름 ② 경부중간폭 ③ 순부높이
④ 경부높이 ⑤ 기벽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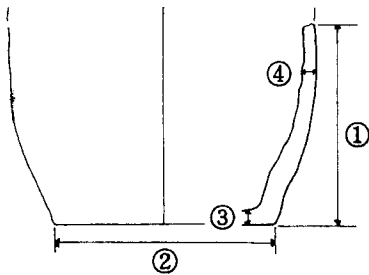
*** 대호 · 장경호**

- ① 복원입지름 ② 경부중간폭 ③ 구단부높이
④ 경부높이 ⑤ 전부폭 ⑥ 기벽두께



*** 굽저부**

- ① 현재높이 ② 저부지름 ③ 굽지름
④ 굽내부높이 ⑤ 굽들린높이
⑥ 저부두께 ⑦ 기벽두께



*** 평저부**

- ① 현재높이 ② 저부지름 ③ 저부두께
④ 기벽두께

* 유물의 출토위치는 세분핏트명칭과 출토층위를 명시하였으며 약식표기로 핏트명을 'N', 출토층위를 'L'로 하여 서술하였다. (예 : N20L20~30)

* 본 보고서의 도기구연분류중, 호류와 용류의 구분은 유물이 모두 파편인 점을 감안하여 일괄로 묶어 정리하였다.

* 본 보고서를 서술함에 있어, 유구·유물에 관한 용어는 대부분 한글로 서술되어졌다. 읽는이의 양해를 구한다.

차 례

발간사 / 5

축 사 / 6

제1장 조사개요 / 15

제2장 유적의 위치와 문헌적 검토 / 16

제3장 조사 내용 / 27

제4장 출토 유물 / 53

제5장 고 찰 / 200

제6장 맺음말 / 226

표지설명

용담동유적 출토 도기의 문양

題字：謹齊 金 順 謙

도 면 목 차

- | | |
|---|--|
| <p>도면1 용담동유적 위치도 (25000/1)</p> <p>도면2 용담동유적 유적분포도 (5000/1)</p> <p>도면3 용담동유적 주변지형도 (1200/1)</p> <p>도면4 용담동유적 발굴구획도</p> <p>도면5 남북단면 층위도</p> <p>도면6 동서단면 층위도</p> <p>도면7 1991년도 TEST-PIT조사(유물출토상태)</p> <p>도면8 용담동유적 유구, 유물 노출상태</p> <p>도면9 유물노출상태(하층)</p> <p>도면10 장경병의 구연부(1)</p> <p>도면11 장경병의 구연부(2)</p> <p>도면12 단경병의 구연부(1)</p> <p>도면13 단경병의 구연부(2)</p> <p>도면14 단경병의 구연부(3)</p> <p>도면15 단경병의 구연부(4)</p> <p>도면16 단경병의 구연부(5)</p> <p>도면17 단경병의 구연부(6)</p> <p>도면18 단경병의 구연부(7)</p> <p>도면19 단경병의 구연부(8)</p> <p>도면20 단경병의 구연부(9)</p> <p>도면21 단경병의 구연부(10)</p> <p>도면22 단경병의 구연부(11)</p> <p>도면23 단경호의 구연부(1)</p> <p>도면24 단경호의 구연부(2)</p> <p>도면25 단경호의 구연부(3)</p> <p>도면26 단경호의 구연부(4)</p> | <p>도면27 단경호의 구연부(5)</p> <p>도면28 단경호의 구연부(6)</p> <p>도면29 단경호의 구연부(7)</p> <p>도면30 대호·대옹의 구연부(1)</p> <p>도면31 대호·대옹의 구연부(2)</p> <p>도면32 대호·대옹의 구연부(3)</p> <p>도면33 대호·대옹의 구연부(4)</p> <p>도면34 병·호의 견부(1)</p> <p>도면35 병·호의 견부(2)</p> <p>도면36 병·호의 견부(3)</p> <p>도면37 굽저부편(1)</p> <p>도면38 굽저부편(2)</p> <p>도면39 굽저부편(3)</p> <p>도면40 평저부편(1)</p> <p>도면41 평저부편(2)</p> <p>도면42 평저부편(3)</p> <p>도면43 평저부편(4)</p> <p>도면44 평저부편(5)</p> <p>도면45 평저부편(6)</p> <p>도면46 평저부편(7)</p> <p>도면47 평저부편(8)</p> <p>도면48 평저부편(9)</p> <p>도면49 평저부편(10)</p> <p>도면50 중국도자기편</p> <p>도면51 금동·철제 과대금구</p> <p>도면52 철제검편</p> <p>도면53 철제도편</p> <p>도면54 철제 화살·소형도끼</p> |
|---|--|

도면55 철제 못
 도면56 철제 환 및 기타 철제품
 도면57 유리구슬 및 동제 손가락
 도면58 가락바퀴 및 솥돌
 도면59 인화문 도기편 (1)
 도면60 인화문 도기편 (2)
 도면61 인화문 도기편 (3)

도면62 점렬문 · 돌대문 도기편
 도면63 파상선문 도기편 (1)
 도면64 파상선문 도기편 (2)
 도면65 파상선문 도기편 (3)
 도면66 파상선문 도기편 (4)
 도면67 파상선문 도기편 (5)
 도면68 격자문 도기편

사 진 목 차

사진1 제주시 용담동 유적 원경 (남에서)
 사진2 유적 원경 (서에서)
 사진3 용담동 유적 근경 (남에서)
 사진4 테스트핏트 조사광경 (남에서; 1991년 조사)
 사진5 테스트핏트내 유물노출상태
 사진6 발굴지 조사전 상태 및 발굴 핏트 구획 상태
 사진7 동쪽핏트 굴착 과정 (북동에서)
 사진8 발굴 광경 (남에서)
 사진9 전체핏트 상층 발굴상태 (북에서)
 사진10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서에서)
 사진11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동에서)
 사진12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남에서)
 사진13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북에서)
 사진14 남쪽 잡석매립부분 (북에서)
 사진15 적석매립부 노출상태 (동에서)
 사진16 적석매립부 노출상태 (동에서)
 사진17 유물밀집부분 상층제거후 (남서에서)
 사진18 유물밀집부분 유물 수거 제거작업

- 사진19 유물밀집부분내 적석시설 및 유물노출상태 (북상에서)
- 사진20 유물밀집부 상층제거후 상태 (남에서)
- 사진21 S1W1 핏트내 유물분포상태 및 적석상태 (북상에서)
- 사진22 중심독 근처의 바닥 상태 (동상에서)
- 사진23 유물밀집부분 바닥 노출상태 (동상에서)
- 사진24 층위상태 : 중심독에 나타난 유물퇴적상태 (서에서)
- 사진25 층위상태 : 중심독에 나타난 층위상태 (서상에서)
- 사진26 1991년 발굴 테스트핏트내 유물출토상태 (남에서)
- 사진27 유물출토상태 (1)
- 사진28 유물출토상태 (2)-장경병, 단경병, 대호편
- 사진29 유물출토상태 (3)-광견호, 단경병
- 사진30 유물출토상태 (4)-사각편병, 흑유병
- 사진31 유물출토상태 (5)-파상선문 대호
- 사진32 유물출토상태 (6)-광견병
- 사진33 유물출토상태 (7)-파상선, 인화문도기편, 흑유병
- 사진34 장경병의 구연부 (1)
- 사진35 장경병의 구연부 (2)
- 사진36 단경병의 구연부 (1)
- 사진37 단경병의 구연부 (2)
- 사진38 단경병의 구연부 (3)
- 사진39 단경병의 구연부 (4)
- 사진40 단경병의 구연부 (5)
- 사진41 단경병의 구연부 (6)
- 사진42 단경병의 구연부 (7)
- 사진43 단경병의 구연부 (8)
- 사진44 단경병의 구연부 (9)
- 사진45 단경병의 구연부 (10)
- 사진46 단경병의 구연부 (11)

- | | |
|---------------------|--------------------------------|
| 사진47 단경호의 구연부 (1) | 사진66 평저부편 (3) |
| 사진48 단경호의 구연부 (2) | 사진67 평저부편 (4) |
| 사진49 단경호의 구연부 (3) | 사진68 평저부편 (5) |
| 사진50 단경호의 구연부 (4) | 사진69 평저부편 (6) |
| 사진51 단경호의 구연부 (5) | 사진70 평저부편 (7) |
| 사진52 단경호의 구연부 (6) | 사진71 평저부편 (8) |
| 사진53 단경호의 구연부 (7) | 사진72 평저부편 (9) |
| 사진54 대호·대웅의 구연부 (1) | 사진73 평저부편 (10) |
| 사진55 대호·대웅의 구연부 (2) | 사진74 중국도자기편 |
| 사진56 대호·대웅의 구연부 (3) | 사진75 금동·철제 과대금구 |
| 사진57 대호·대웅의 구연부 (4) | 사진76 철제검편 |
| 사진58 병·호의 견부 (1) | 사진77 철제도편 |
| 사진59 병·호의 견부 (2) | 사진78 철제 화살·소형도끼 |
| 사진60 병·호의 견부 (3) | 사진79 철제 못 |
| 사진61 굽저부편 (1) | 사진80 철제 환 및 기타 철제품 |
| 사진62 굽저부편 (2) | 사진81 유리구슬 및 동제 손가락 |
| 사진63 굽저부편 (3) | 사진82 가락바퀴 및 숫돌 |
| 사진64 평저부편 (1) | 사진83 인화문도기편 일괄 |
| 사진65 평저부편 (2) | 사진84 파상선문·점선문 및 기타
문양도기편 일괄 |

제1장 조사 개요

이 보고서는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311번지 소재 통일신라시대 유적을 발굴조사한 내용을 정리 보고한 것이다. 유적은 1991년 5월, 제주향교(제주시 용담1동 298번지) 내에 고인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고인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유적 발견지점은 제주향교 서쪽 능선으로, 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집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이곳의 흙을 채취하며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서 통일신라시대 인화문도기 등 각 종의 그릇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견한 그 해에 제주시청 문화예술과에 즉시 통보되었고 약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동유적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제주시 학술용역 의뢰로 발굴을 실시하게 되었다. 용역비는 1,560만원(보고서인쇄비 포함)이었고 발굴기간은 1992년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38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 김원룡 (전한림대학교 교수)

한병삼 (국립중앙박물관장)

조사위원 임효재 (서울대학교 교수)

최몽룡 (서울대학교 교수)

조사단장 이청규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조사원 강창화 (제주대학교 박물관)

오세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한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행정담당 박경홍 (제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보조원 양운호 (제주대 사학과 4년)

박용범 (제주대 사학과 2년)

김정선 (제주대 사학과 3년)

김종찬 (제주대 사학과 2년)

김경주 (제주대 사학과 2년)

고정민 (제주대 사학과 2년)

방문배 (제주대 사학과 2년)

오연숙 (제주대 사학과 2년)

김영심, 강경선, 강은실, 이미자 (제주대 사학과 1년)

이번 보고서의 작성은 이청규의 감수를 받고 강창화가 작성하였다. 유구의 실측과 사진촬영은 강창화, 김경주, 방문배가 담당하였고, 도기실측은 오연숙, 고정민이 하였다. 유물의 탁본은 박용범이, 유물의 정리와 편집은 김정선이 맡아 수고하였다.

현장발굴조사와 보고서 간행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준 제주 시청 문화예술과의 金東鉉과장, 金南根계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제2장 유적의 위치와 문헌적 검토

1. 제주도의 인문지리적 환경

제주도는 홍적세 제4빙기에 중국대륙은 물론 한반도, 일본열도, 그리고 대만섬 등과 연속되어 있었으나, 충적세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처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되었다. 현재 주변지역에서 제주도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視認각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 중에서도 전남해안지역이다. 특히 양 지역 사이에는 여러 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그 근접성을 더욱 높여 준다. 같은 남해에 위치한 쓰시마는 경남 해안지역에서의 視認度와 근접도가 보다 높으며, 이러한 지리적 관계 때문에 한반도에서 제주도와 쓰시마에 각각 전래되는 문화요소에 차이를 보인다.

항해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상고시대에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동북 아시아의 항로는 연안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그러한 연안항로에서 벗어나, 중-한-일의 교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으며, 원거리 항해술이 발달한 隋唐시대 이후에나 중국과 일본과의 직접 항해가 가능하였음이 고대문헌기록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가 같은 섬이라 할지라도 서해안과 남해안의 연안부속도서와 달리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육지로부터의 문화유입정도가 보다 미약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변천과정을 육지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일정집단이 지속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공간 혹은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작은 서남해안의 부속도서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상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화변천과정에 지속성이 유지된다.

제주도는 1950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샷갓모양을 이루고 있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해안에서 내륙지방으로 가면서 高低차이가 심하다. 온난한 照林地대는 제주도의 저지대에 한정되며, 따라서 촌락입지의 기후조건이 유리한 해발 100미터 미만의 낮은 해안지대에 유적의 분포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해안지역은 어로활동에 유리함은 물론, 토양의 풍화도가 높아 농경에도 유리하다. 그중 서북과 서남해안지역은 제주도 4대토양군 중 토양의 풍화도가 보다 높은 舊嚴토양군의 집중분포지역으로 이 일대에 토기출토량이 많은 것은 또한 토기원료인 점토가 풍부한 지대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이해된다. 아울러 침수성이 높은 현무암지대로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고 用水조건이 좋지 않은 제주도에서 그나마 湧泉水와 하천이 발달한 해안지대에 더욱 촌락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용암동굴이 많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하천변이나 해안 절벽에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바위그늘도 적지 않아, 사람들이 은거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많이 제공하는 곳이 해발 100미터미만의 해안지대인 것이다.

2. 유적의 위치와 환경(도면 1~3 사진 1~3)

이 유적이 자리한 지점은 제주시 해안가 언덕이다. 해안에서의 거리는 300m정도이며, 유적의 표고는 17.5m로 주변대지보다 약 15m가량 높은 구릉상면이다.

유적의 동서 150m지점에 병문천과 제주한천이 자리하고 있어 언뜻보기에 삼각지를 연상케 한다. 서쪽의 한천은 바닷물의 만조시에는 유적 바로 앞까지 배를 댈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바다와 연결하는 부분의 용연은 여름밤에 보름달이 등실 떴을 때의 정취가 선경같아서 '龍淵夜帆'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기도 하다. 자리한 지점에서 내려다보면, 앞 한천 하구의 용연포구를 중심으로 확 트인 바다와 동한드기 벌판이 한 눈에 들어온다.

유적주변은 기원전 2세기로부터 탐라전기(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¹⁾ 18세기경에 移轉 건축한 濟州鄉校가 유적내에 포함되며 특히 향교 부속건물중

1) 유적주변은 제주탐라시대의 고인돌, 유물산포지와 초기철기시대의 분묘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康昌和, 1992, 「先史遺蹟」, 「濟州市의 文化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 第9輯, pp. 19~50.

도면2 용담동유적 유적분포도 (5000/1)

3. 문헌적 검토*

고대 제주에 관한 기록은 「三國史記」, 「高麗史」, 중국의 「三國志」 魏志 東夷傳, 「隋書」, 「唐書」, 일본측의 「日本書紀」, 「續日本記」 등에 기술되어 있다. 문헌기록상에 제주도의 역사는 크게 1105년 탐라군 설치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탐라 상고시대라 할 수 있다. 그 기록에 나타난 내용의 대부분은 대외 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그 변천과정은 교류대상지역 혹은 국가의 바뀔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²⁾ 대체로 대외관계 특히 고대 중앙집권국가와의 附庸관계의 변화는 제주도의 대내적인 권력구조는 물론 상대국가의 국가체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1) 제1기

아직 한반도 국가에 대한 부庸관계나 朝貢관계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이며, 기록상으로는 제주도에 國主 등의 정치적 권력자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문헌기록에 州胡가 中韓과 교역한다고 하였는데,³⁾ 중한은 대체로 육지에서 제주도와 시인도와 거리를 볼 때, 전남 해안지역에 자리잡은 마한일 가능성이 높다. 후대에 마한을 복속시킨 백제와의 조공관계는 이 시기의 교류 관계가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로서는 475년 熊津遷都 이전으로, 영산강 이남의 전남 해안지역에 마한이라는 토착세력이 자리잡고 있고, 백제는 그 문화적·정치적 영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던⁴⁾ 시기이다. 마한은 아직 중

* 이 글은 제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요지 내용에서 발췌 보완하였다.

이청규, 1993, 「상고시대 제주도문화의 연구」, 제9회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요지, pp. 15~18.

2) 森公長, 1986,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七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118, 위 논문은 700년 이전까지를 다룬것으로 본고의 시기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3) 「三國志」 魏書 東夷傳

「又州胡國 在馬韓之西海中 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市賈中韓」

「後漢書」 東夷傳 韓條

「馬韓之西海島上 有州胡國 其人短小 髮頭衣韋 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

4) 임영진, 1993, 「全南地方 百濟初期 墓制의 變遷」 호남고고학회 창립총회 발표요지.

양집권국가의 체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주도와의 조공관계를 성립시키지 못하였다.

2) 제2기

이 시기는 다시 두 단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단계(475-500)는 백제가 수도를 금강유역인 공주로 천도하였으나, 중앙은 물론 지방에 대한 통제체제를 확립시키지 못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 탐라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친 기록이 전하는데,⁵⁾ 이는 이즈음에 고구려 長壽王-文咨王이 한반도에서 백제를 크게 제압하던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위축된 백제에 대해 탐라가 명실상부한 부庸관계를 맺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바, 476년 文周王때 조공⁶⁾은 탐라 자체에 외교의 주체세력이 등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주왕 때 조공의 댓가로 받은 恩率 벼슬은 제주도 대내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500-660년)는 백제로 볼 때 공주-부여시대로, 東城王 이후 마한지역까지 통치력을 확대한 단계이다. 이 때에야 비로소 탐라가 백제에 실질적인 부庸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⁷⁾ 백제가 威德王때 탐라를 대신하여 隋나라와 외교관계를 갖는 기록을 보아,⁸⁾ 외교권이 백제에 위임되었음이 확인된다. 고대왕권국가인 백제에 대해서 주변小國인

5)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記, 文咨王 7年

十三年夏四月 遣使人魏朝貢 世宗引見其使內悉佛於東堂 悉佛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等王府 實兩賊是爲 世宗曰 高句麗世荷上獎 專制海外 九夷黠虜 實得征之 瓶罄壘恥 誰之咎也 昔方貢之愆 責任連率 卿宜朕志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栓披害群 輯寧東裔 使二邑還復墟 土毛無失常貢也

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文周王 2年 4月.

二年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7)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東城王 20年 8月.

「二十年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8) (1)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威德王 36年.

「二十六年 隋平陳 有一戰船漂至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國界 王資送之甚厚 竝遣使奉表賀平陳 高祖善之 下詔曰 百濟王既聞平陳 遠令奉表 往復至難 若逢風浪 便致傷損 百濟王心迹淳至 朕已委知 相去雖遠 事同言面 何必數遣使來相體悉 自今已後 不須年別入貢 朕亦不遣使往 王宜知之」

탐라가 조공을 바치고 실질적으로 부용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라에서는 敵對의으로 인식됨이 皇龍寺 9층탑 造營기록에 보이며,⁹⁾ 伽耶와의 관계 기록은 아예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에 이르러서도 고대국가 백제는 중앙집권의 통치체제 속에 탐라를 완전하게 편입시키지 못하였다. 탐라의 우두머리를 칭하는 명칭으로 國主, 왕이 있어 그 자치권이 인정되었으며, 이로써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일정지위가 확립된 지배엘리트가 제주도에 자리잡았음을 알 수가 있다.¹⁰⁾

3) 제3기

3기는 다시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 (660-680년)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

(2) 「北史」, 百濟傳.

平陳之勢 戰船漂至海東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 文帝善之 下詔曰 彼國懸隔 來往至難 自今以後 不須年別入貢 使者無蹈而去

其南海行三日 有耽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獐鹿 附庸於百濟

(3) 「隋書」 百濟條.

國西南 人島居者十五所 皆有城邑 平陳之勢 有一戰船 漂至海東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 高祖善之 下詔曰 百濟王心迹淳至 朕已委知 相去雖遠 事同言面 何必數遣來相體悉 自今以後 不須年別入貢 朕亦不遣使往 王宜知之 使者無蹈而去

其南海行三月 有耽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獐鹿 附庸於百濟.

(4) 「北齊」 魏書.

自此歲常貢獻 正始中 世祖於東堂引見其使內悉佛 內悉佛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 維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等王府 實兩賊是爲 世宗曰 高麗世荷上將 專制海外 九夷桎虜 實得征之 瓶罄壘恥 誰之咎也 昔方貢之愆 責任連率 卿宜宣朕旨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擯披害群 輯寧東裔 使二邑還舊墟 土毛無失常貢也

9) 「三國遺事」, 東都成立記.

又海東名賢安弘撰 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南 皇龍寺建九層塔 則麟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穢貊

10) 寬敏生, 1989,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紀研究」 262.

려를 멸망시켰지만, 唐의 군사적·정치적 압력을 받음과 아울러, 백제·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완전히 평정하지 못한 단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라는 신라로부터 附庸압력을 받지만¹¹⁾, 백제 관직인 佐平을 갖고, 백제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일본과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¹²⁾ 일본서기에 외교주체로 王, 王子,

11) 신라와의 부庸관계 기록은 662년과 679년에 나온다.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文武王6年條.

「二年 二月六日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文武王19年條.

「十九年 二月 發使略耽羅國」

12) 「日本書紀」, 「續日本紀」에 나타난 서기 660년에서 678년까지의 탐라와 일본과의 관계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關係記錄에 의한 年代	記 錄 內 容
661년(齊明 7년) 5월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貢獻(伊吉連博德書云 申酉年正月 二十五日 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東歸 七日行到檀岸山明 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搗 便即招慰 嶋人王子阿波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二三日 奉進朝倉之朝 耽羅入朝始於此時.) (「日本書紀」 권 26)
665년(天智 4년) 8월	秋八月……耽羅遣使來朝(「日本書紀」 권27)
666년(天智 5년) 정월	正月戊寅 是日耽羅遣王子姑如等貢獻
667년(天智 6년) 7월	秋七月己巳 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
669년(天智 8년) 3월	三月己丑 耽羅遣王子久麻伎等貢獻 丙申賜耽羅王五穀種 是日 王子久麻伎等罷歸.
674년(天武 2년) 윤6월	潤六月壬辰 耽羅遣王子久麻藝 都羅宇麻等朝貢 秋八月戊申 因命大宰 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之即位 由是唯除質使以外不召 則汝等親所見 亦時寒波險 久淹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仍在國王及使者 久麻藝等肇賜爵位 其爵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之佐平位 則白筑紫返之. (「日本書紀」 권29)
676년(天武 4년) 8월	四年八月壬申朔 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 九月戊辰 耽羅王故如 到難波. 五年二月癸巳 耽羅客賜船一艘. 秋七月戊戌 耽羅客歸國. (「日本書紀」 권29)

佐平과 實名인물이 등장하는데,¹³⁾ 대외적으로 신라의 압력에 저항하고 일본과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정도로 탐라의 정치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지배체제의 위계가 형성되어 前에 비해 정치조직이 한단계 발전되었다고 보이나, 세습체제를 확립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2단계(680-700년)는 신라가 당세력을 축출하고, 한반도 남부지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중앙집권적 전제왕권체제를 모색하는 聖德王 이전 단계이다. 678년 당세력을 축출한 바로 다음 해에 신라가 탐라를 使略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탐라 외교권이 신라에 위임되는 본격적인 신라부庸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오히려 탐라는 백제관직명인 좌평을 그대로 갖고 있다.¹⁵⁾

678년(天武 6년) 8월	六年八月戊午 耽羅遣王子都羅朝貢. 七年春正月己卯 耽羅人向京. (『日本書紀』 권29)
----------------	---

13) 당의 문헌에서도 王이란 명칭으로 등장한다.

『冊府元龜』 外臣部 朝貢條

『龍朔元年八月 多蔑國王摩如失利 多福國王難修強宜說 耽羅國王儒李都羅等 竝遣來朝各貢方物 三國皆林邑之南邊 海小國也城』

14) 『資治通鑑』 唐紀 高宗 麟德2年條

麟德二年……劉仁軌 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 浮海西還 耽羅國一曰髡羅 居新羅武州南島上 初附百濟 後附新羅 會祠泰山 高麗亦遣太子福男來侍祠.

15) 678년 이후 탐라와 일본과의 통교사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左平벼슬의 사용은 688, 693년 기사에 보인다.

關係記錄에 의한 年代	記 錄 內 容
680년(天武 8년) 9월	八年九月庚子 遣耽羅使人等返之共拜朝廷. (『日本書紀』 권29)
685년(天武 13년) 10월	十三年冬十月辛巳 是日 縣犬養連手襪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十四年八月癸巳 遣耽羅使人等還之. (『日本書紀』 권29)
688년(持統 2년) 8월	二年八月辛亥 耽羅王 遣佐平加羅來獻方物. 九月戊寅 饗耽羅佐平加羅等筑紫館 賜物各有差. (『日本書紀』 권30)
693년(持統 7년) 11월	七年十一月壬辰 賜耽羅王佐平等 各有差. (『日本書紀』 권30)

3단계(700-780년)에 이르면 신라는 중앙집권적 전제왕권체제를 확립한 단계로, 탐라는 신라에 실질적인 부庸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오히려 소원한 관계로 바뀌었으며, 이를 반영한 것이 제주도에도 표류한 일본인을 억류하였다는 778년조 『續日本紀』 관계기록이다.¹⁶⁾

4단계(780-925년)는 지방호족세력이 득세하고 중앙집권체제가 약화된 신라 下代로서, 신라 중앙정부의 탐라에 대한 통제력 또한 약화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조공관계기록이 유일하게 전하는 것은 哀莊王 때인데,¹⁷⁾ 애장왕 때는 더욱 왕권이 쇠약해진 때로서, 이 조공 사실이 탐라에 대한 강화된 통제력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제4기

고려가 들어선 이후 탐라군이 설치되기까지의 제4기는 2단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단계(925-1000)는 고려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成宗 이전 단계에 해당된다. 한반도의 단일 중앙집권국가인 고려에 대한 조공관계이기 때문에, 탐라는 막바로 고려가 들어선 이후 실질적인 부庸관계를 맺은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가 고려에 복속된 925년에 탐라가 고려에 方物을 바친 기록이 이를 방증한다.

2단계(1000-1105)에는 성종연간에 확립된 지방행정구획과 지방관 파견제도를 바탕으로 고려의 탐라에 대한 통제력은 보다 강화되었으나, 아직 제주도를 고려의 한 지방으로서 탐라군으로 편입하지 못한 단계이다. 이 시기에 고려 정부는 구당사를 파견하여

778년(光仁 9년) 11월	九年十一月壬子 遣唐第四船來泊 隆摩國甌嶋郡 其判官 海上眞人 三狩等漂着耽羅嶋 被嶋人略留但錄事韓國連源等 陰謀解纜而去 率遣衆四十餘人而來歸. (『日本書紀』 권35)
794년	四九年…因以平定 比自林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七國 仍移兵西廻至古爰津 屠南蠻多彌多禮 以賜百濟. (『續日本紀』)

16) 『續日本紀』 권35, 光仁 9年 11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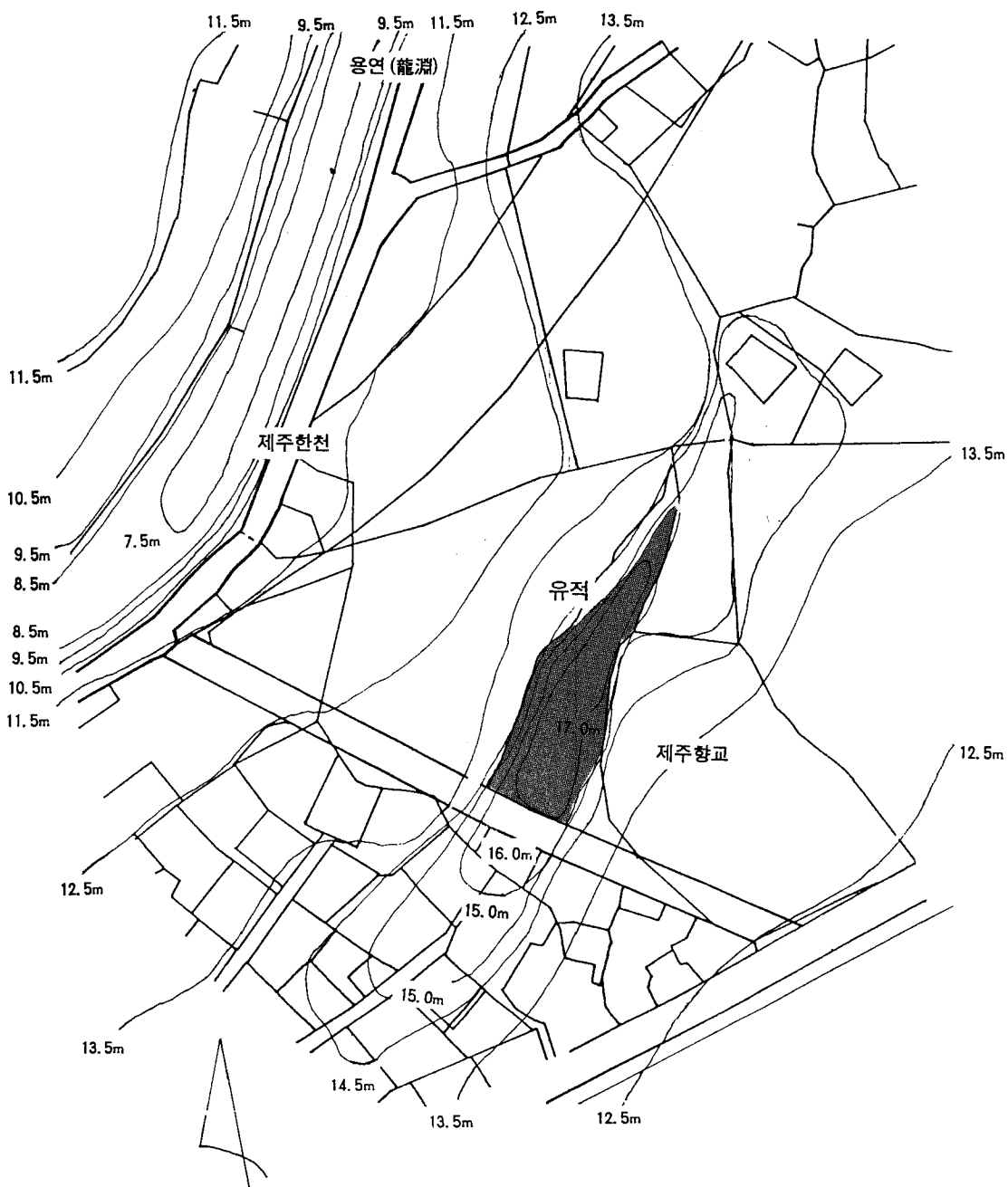
「九年十一月壬子 遣唐第四船來泊 隆摩國甌嶋郡 其判官 海上 眞人 三狩等漂着耽羅嶋 被嶋人略留 但錄事韓國連源等 陰謀 解纜而去 率遣衆四十餘人而來歸」

1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哀莊王 2年.

「二年冬十月 耽羅國遣使朝貢」

일종의 간접통치를 시행하는데, 이를 고려의 번국체제라 할 수 있다.¹⁸⁾ 1504년 이후 기록에 성주, 왕자, 도내라는 각기 다른 성씨집단이 보이는 바, 이는 이 시기까지도 탐라의 정치적 세력이 일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분립되었음을 시사하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8) 고창석, 1982, 「탐라군현에 대한 일고찰-고려전기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論文集』 14.



도면3 용담동유적 주변지형도 (1200/1)

제3장 조사 내용

1. 발굴전 현상(도면 2, 3, 4 사진 2, 3, 7, 8)

유적은 제주향교가 자리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능선의 동편 일부이다. 능선은 아랫밭(용담1동312번지)과 높이 차이가 2-3m로, 서편으로 가면서 점차 경사져 내려가 하천(제주한천)으로 이어진다. 유적 서쪽의 대지에는 최근에 민가와 목재소가 들어서 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천시장(일명 도깨비시장)이 자리했던 지점으로 이 유적이 들어선 동산의 흙이 흘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돌담벽을 만들었다.

이 능선에는 제주향교 3동 건물을 에워싼 높이 2.5m의 돌담이 길게 둘러져 있다. 발굴지점은 이 담장의 동편밖 능선이다. 발굴지점의 남쪽에는 야채가 심어져 있고 북쪽은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평판측량과 등고측량의 결과 동고서저, 남고북저의 지형이나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나타났다.

2. 조사방법(도면4 사진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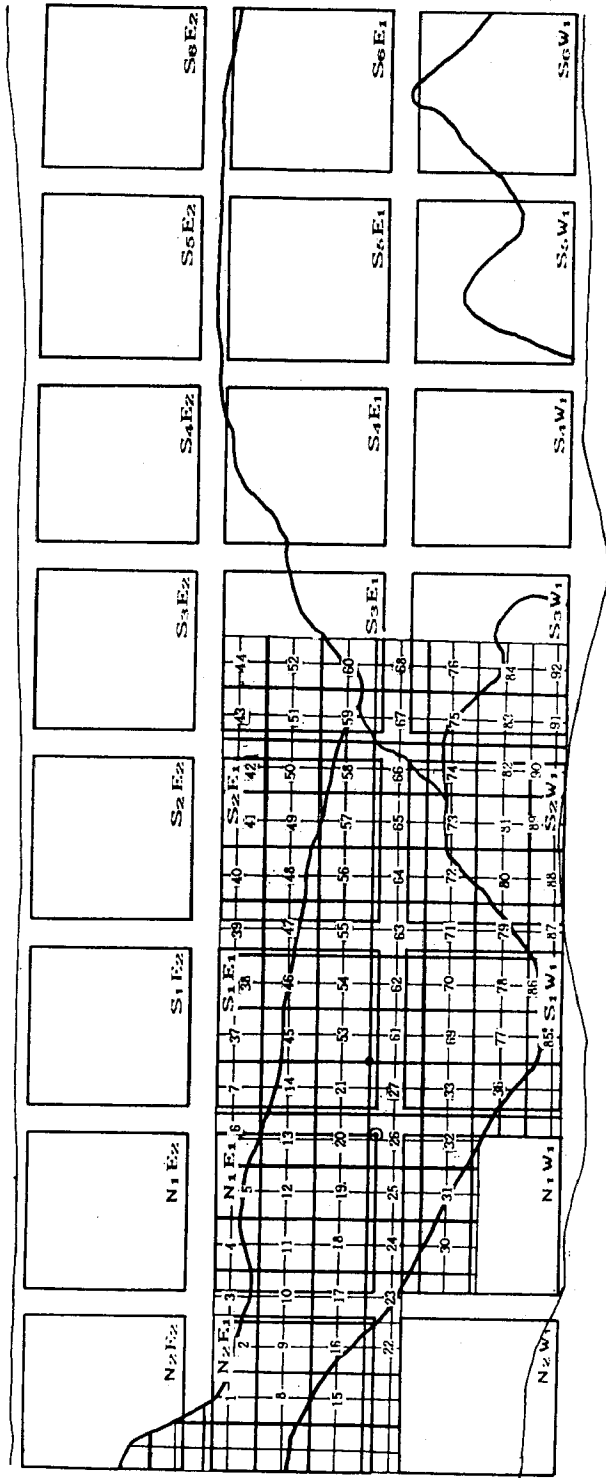
발굴 대상 전체 면적에 대해 남북중앙선을 관통하는 N40°E방향으로 중심축을 잡고 3×3m 크기의 pit, 50cm 폭의 baulk로 구획한 바둑판식 발굴을 실시하였다. 포토제거후 각 핏트의 유물노출상황과 생토암반층의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 유물이 집중된 구역(N1E1, N1W1, S1W1, S2W2, S1E1)에 대해서 세분발굴핏트를 바둑판식으로 구획하였다. 이 구역내에는 잡석과 도기 등이 너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50×50cm의 작은 핏트로 세분하여 유물을 조사, 수거하였으며 층위는 남겨둔 중심독을 근거로 파악하였다.

3. 발굴 경과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38일간 실시되었고 그 경과를 조사일지로 대신한다.

일 시	조 사 일 지 내 용
1991. 4. 27	제주시 용담1동 311번지에서 다량의 인화문陶器가 노출된 구덩이를 발견. 통일신라시대 유적임을 확인함.
1991. 5. 3~5. 10	기간중 맑음. 패인구덩이를 중심으로 test pit조사(도면7, 사진 4, 5). 찍은무늬(印花文)가 시문된 병, 호편과 대호편 다량 수습.
1992. 4. 16	맑음. 현장 투입. 현장점검.
4. 17~19	발굴조사구역내 잡초제거. 발굴조사구역 중 전년도 조사지점에 대한 비닐제거. 발굴구역내 핏트구획 : 3×3m크기의 핏트를 총 24개 구획하여 바둑판식 발굴을 계획함(발굴구획도 : 도면4 참조).
4. 20~30	맑음. 총 24개 핏트에 대한 굴착작업. S3W1, S3E1, S3E2 핏트 남쪽부분은 적석유구가 노출됨. E2남북 구역은 바로 생토암반이 노출됨. D.P.주변은 유물이 집중되어 매립된 유물구역으로 확인됨.
5. 1~10	대체로 흐림. E2남북구역과 S3남쪽부분에 대한 작업완료(통일신라시대 유물 분포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임을 확인). 유물집중노출범위내 세분핏트구획(핏트구획도 참조 : 도면4).
5. 11~18	대체로 맑음. 세분핏트내의 굴착작업. 중심독을 중심으로 동편의 유물 노출핏트는 유물포함층이 20cm이내이고 서편으로 갈수록 내려와 52cm까지 유물층이 확인됨. 중심독 부분에서 철제유물과 동제순가락, 과대편이 출토되었음.
5. 19~22	대체로 흐림. 중심독 제거작업을 실시함. 토층상에 나타나는 시기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면토층의 층위 확인. 10cm 간격의 평면유물수거를 실시하였으나 유물구성과 토색변화 등 유물층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없었음. 원래 경사진 동편에서 서편으로 유물이 무질서하게 섞여 내린 흔적을 동서단면에서 확인.
1992. 5. 23	흐림. 유물정리, 포장. 현장 철수.

계주참고



도면4 용담동상저 배굴구획도

4. 층 위 (도면5, 6 사진24, 25)

맨 상층은 경작층으로 이용되는 흑갈색경작층과 잔디가 약 10cm정도 두께로 입혀진 표토층이다. 이 표토층에서는 최근 쟁기질한 이랑과 작물을 재배했던 원형구덩이가 나타난다. 이 표토층에도 일부 유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란과 경작에 의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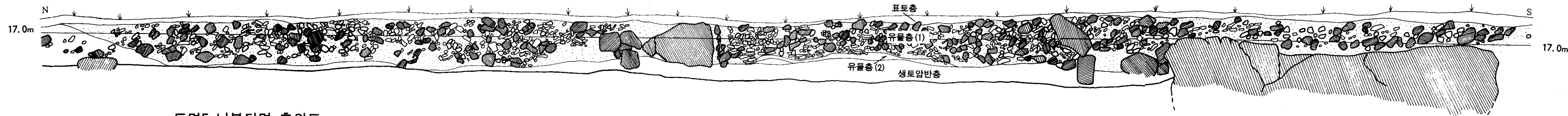
지표층 아래로는 두께 16~42cm의 흑갈색점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자갈한 냇돌, 잡석, 할석과 함께 다량의 토기편이 섞여 있는 층이며 동 유적의 주 문화층이다.

이 층위밑으로 두께 10~12cm의 점성이 강한 흑갈색부식토층이 이어진다. 이 층위는 상층과는 달리 자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물량도 상층에 비해 매우 소량이다. 아마도 상층 유물이 흘러 내려온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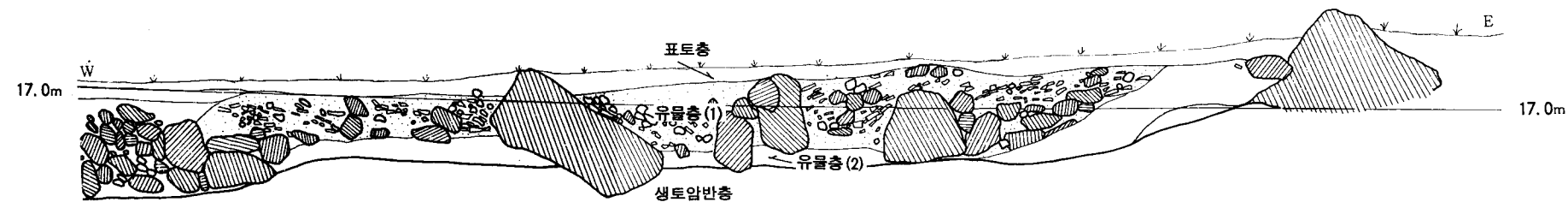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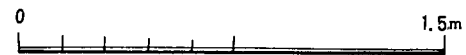
맨 아래층은 유물포함층에 한해 지표하 52cm부터 생토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동편은 지표하 12cm부터 막바로 생토암반층이 연결된다. 동고서저의 생토 암반 굴곡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층위를 「表」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층 위 명	깊 이	층위두께	층 위 내 용
표토층 (흑갈색경작토층)	지표하 10~15cm	8~15	흑갈색 경작층. 경작시의 작물재배 구덩이, 쟁기질 도랑이 나타남.
유물층(1) (흑갈색점토층)	지표하 32~42cm	27~35	자갈한 냇돌, 잡석, 할석과 함께 다량의 토기편 등이 섞여 있음.
유물층(2) (흑갈색부식토층)	36~52cm	8~10	소량의 도기 포함. 상층에 자갈 함량이 매우 적음.
생토층 (생토암반층)	가장 낮은곳 지표하 52cm부터		암반층. 암반 굴곡이 매우 심함.

유물층(1)과 유물층(2)는 토층내에 포함된 자갈과 유물의 함유량의 차이에 의해 구분하였을 뿐 시기차가 있는 문화층으로 해석하기엔 어렵다. 동 유적의 층위는 유물의 출토 상태에 따른 뚜렷한 층위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고 또한 생토암반층이 동편에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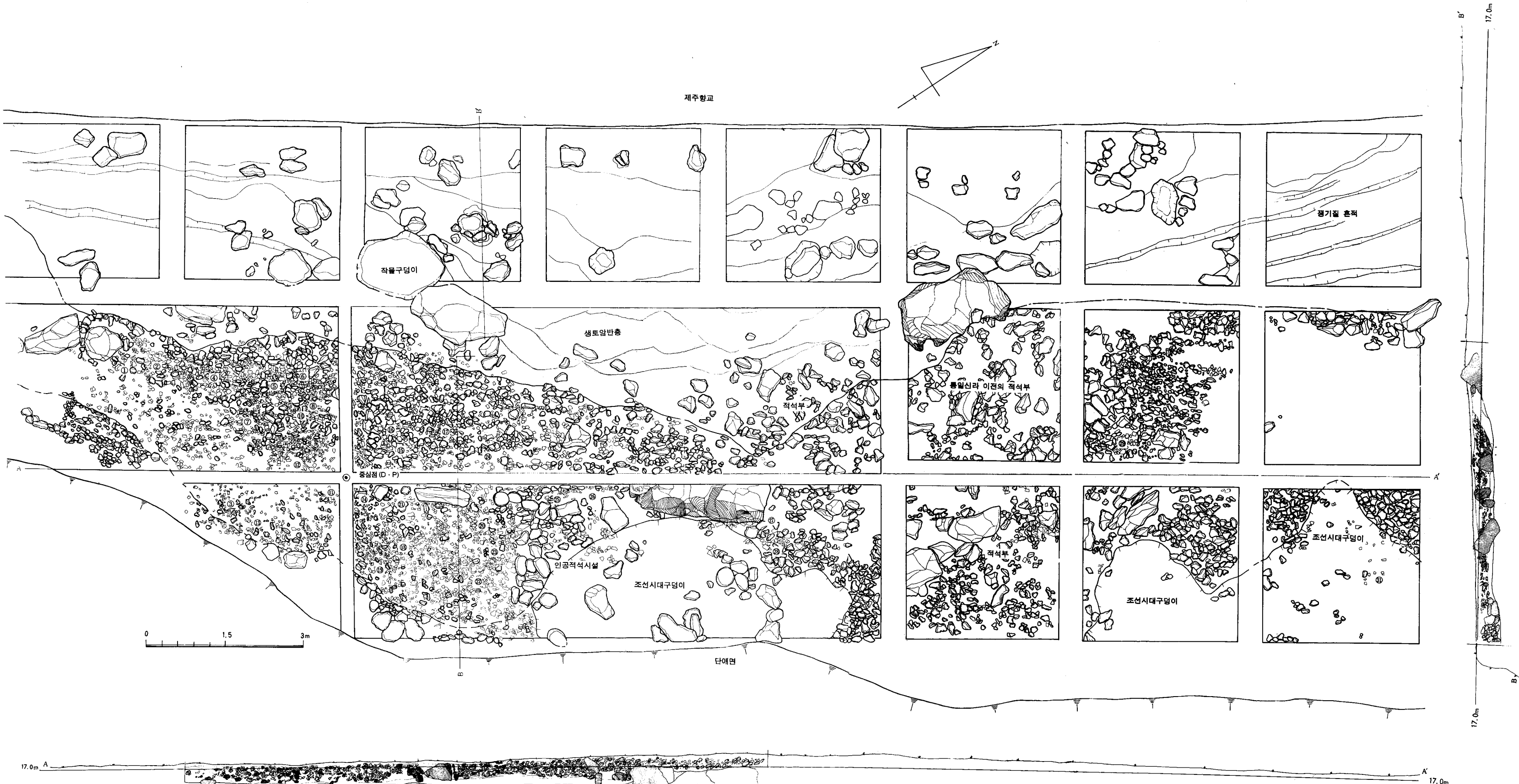
도면5 남북단면 총위도



도면6 동서단면 총위도

* 일러두기
○ : 토기군
● : 함석·괴석등의 집석

* 유물주기
① 단경호편
② 단경병편
③ 사각병저부편
④ 단경호편
⑤ 평저부편
⑥ 평저부편
⑦ 단경병편
⑧ 대호편
⑨ 중국자기편
⑩ 단경호편
⑪ 저부편
⑫ 숯돌
⑬ 철편
⑭ 흑유병편
⑮ 장경호편
⑯ 흑유병편
⑰ 단경호편
⑱ 단경호편
⑲ 인화문도기편
⑳ 파상선문도기편
㉑ 점선문도기편
㉒ 중국자기편
㉓ 대호편
㉔ 철편
㉕ 대호편
㉖ 단경호편
㉗ 적갈색토기편
㉘ 백자편
㉙ 백자편
* 대표적인 유물만을 수록, 주기하였음.



도면8 용담동유적 유구·유물 노출상태

편으로 경사져 내려가고 있어, 동편과 서편의 유물포함층의 구분도 애매하다. 발굴 당시 몇개의 도기편에 한해 동일 개체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개체의 편이 상층과 하층 구분없이 여기저기에서 출토되어 층위상의 변화는 읽을 수 없었고 또한 당시 낮은 쪽으로 유물이 버려진 시기상의 변화를 고찰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유 구

발굴대상 전체면적을 지표아래 10cm 부위에서 모든 핏트를 노출시켜 전체유구의 윤곽을 잡고자 하였다. 노출된 상태는 중심독의 교차점(D.P)을 중심으로 좌우에 폭2m, 길이 11.2m의 유물이 다량으로 매립된 부분과 적석무더기, 조선시대의 원형구덩이, 현대 작물재배구덩이, 쟁기작업시의 이랑굴착선이 노출되었다.

1) 유물집중 매립부(도면8,9 사진10~13, 17~21)

이 유물 매립부는 동쪽암반레벨이 서쪽으로 오면서 내려가는 경사레벨에 잡석과 도기편으로 꽉 채워진 부분이다. 이 유물의 분포범위는 동쪽의 생토암반의 하강선과 서쪽의 교란층의 중간부분까지 드러났다. 동편 암반하강면과 유물분포층의 구분은 소량의 도기편과 잡석군으로 구분되며 서편교란층은 조선시대이후에 교란된 부위로 잡석으로 채워져 있고 생토까지 타원형구덩이로 패여 있었다. 아마도 이 구덩이들은 원래의 통일신라도기 매립부를 파괴했으리라 보아진다.

유구의 전면 노출 결과, 도기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범위는 동서방향의 장축 11.2m, 단축 5.4m로, 유물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S1E1, S2E1, N2E1, N1E1 핏트내이다(도면8 사진9).

유물집중지 북동쪽경계는 생토암반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간간이 도기편이 확인되며 생토암반의 굴곡이 심하여 유물분포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쪽경계는 대형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이 부위는 잡석만으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지점에 대한 조사는 10cm 간격으로 평면삭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유물의 공간분포에 맞춰 살펴보면, 지표하 10-25cm지점은 기준점중심의 4개핏트가 생토암반경계부의 잡석군을 제외하고 잡석보다 토기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층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유물은 흑유장경병편, 사각편병저부편, 중국계 도자기저부편, 대호편, 숯돌 등

이 노출되었다.

지표하 25~35cm지점은 세분핏트를 구획하여 굴착하였다. S1W1핏트에서 넷돌과 할석이 적석된 인공적인 유구시설물이 드러났고(도면8 사진16참조), 세분핏트27에서 청동제유물과 철제화살촉, 파상밀집대호편, 세분핏트69에서 금동제과대, 주름무늬병편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유물과 잡석군이 섞인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표하 40cm지점은 잡석이 전혀없고 구슬과 과대편이 확인되었다. 도기유물이 극히 소량 분포하고 있었다(도면9 사진21).

바닥부분은 대형 할석이 군데 군데 불규칙하게 놓여 있어(도면9 사진22) 인위적인 시설물로 판단하기 어렵다. N1E1핏트의 바닥에는 2열로 휘어져 내려가는 석렬이 확인되었다. 이 시설물의 용도는 알 수 없다. 도기편이 적석 틈새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2) 적석 매립부(도면8, 9 사진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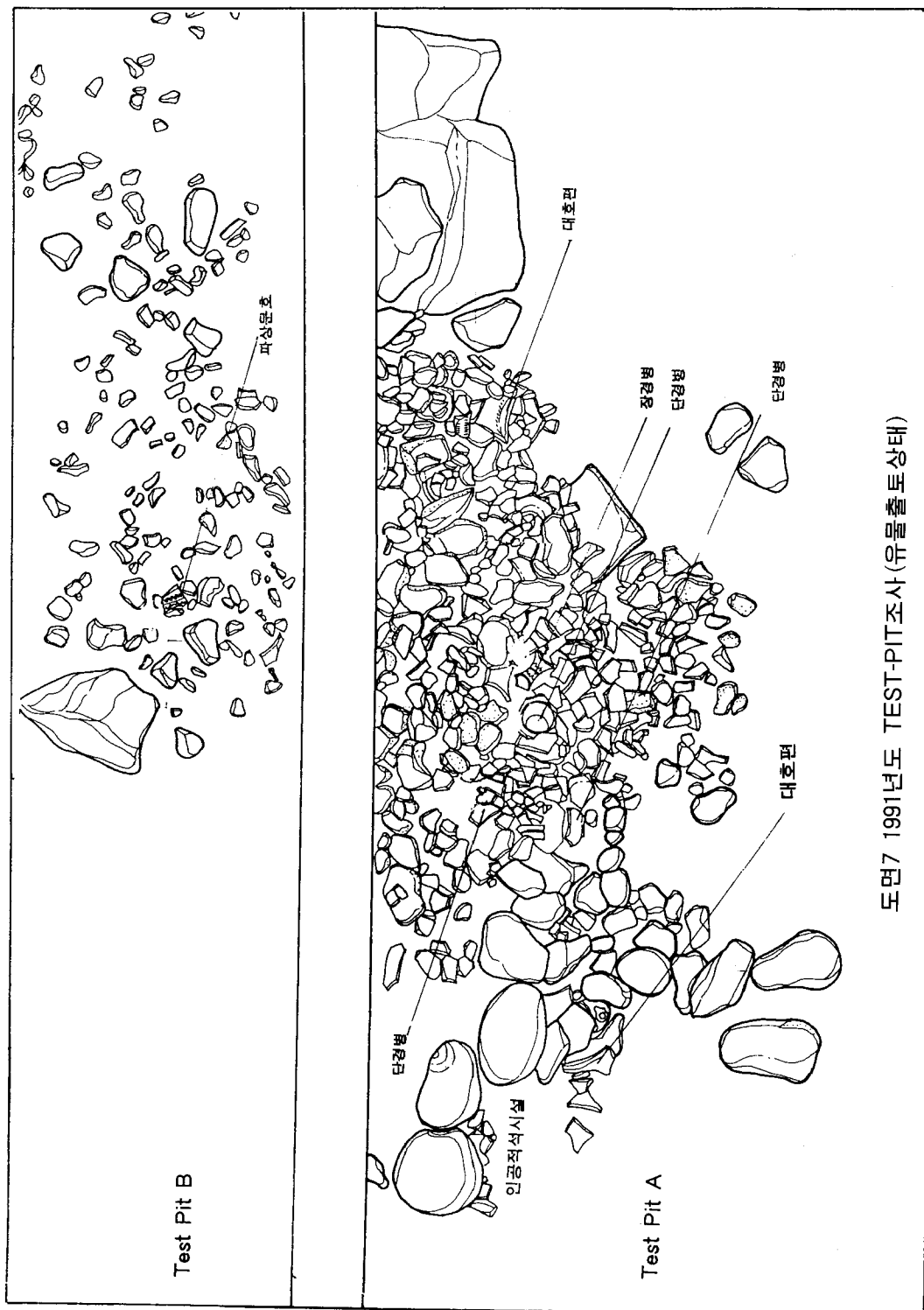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잡석으로만 채워져 있는 적석부분은 S3W1, S3E1, S4E1, S4W1, S5W1, S5E1 핏트에서 확인되었다. 매립된 구성물 중 잡석 무더기 속에 광지1식 적갈색토기편이 확인되고,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매립부가 먼저 있었을 경우 이 부분을 매립할 때 교란될 가능성이 높는데, 유물매립부가 교란되지 않았다. 이로보아 시기적으로 유물매립부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편의 생토암반레벨과 동일하게 하기위해 이 부분을 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형구덩이군(도면8 사진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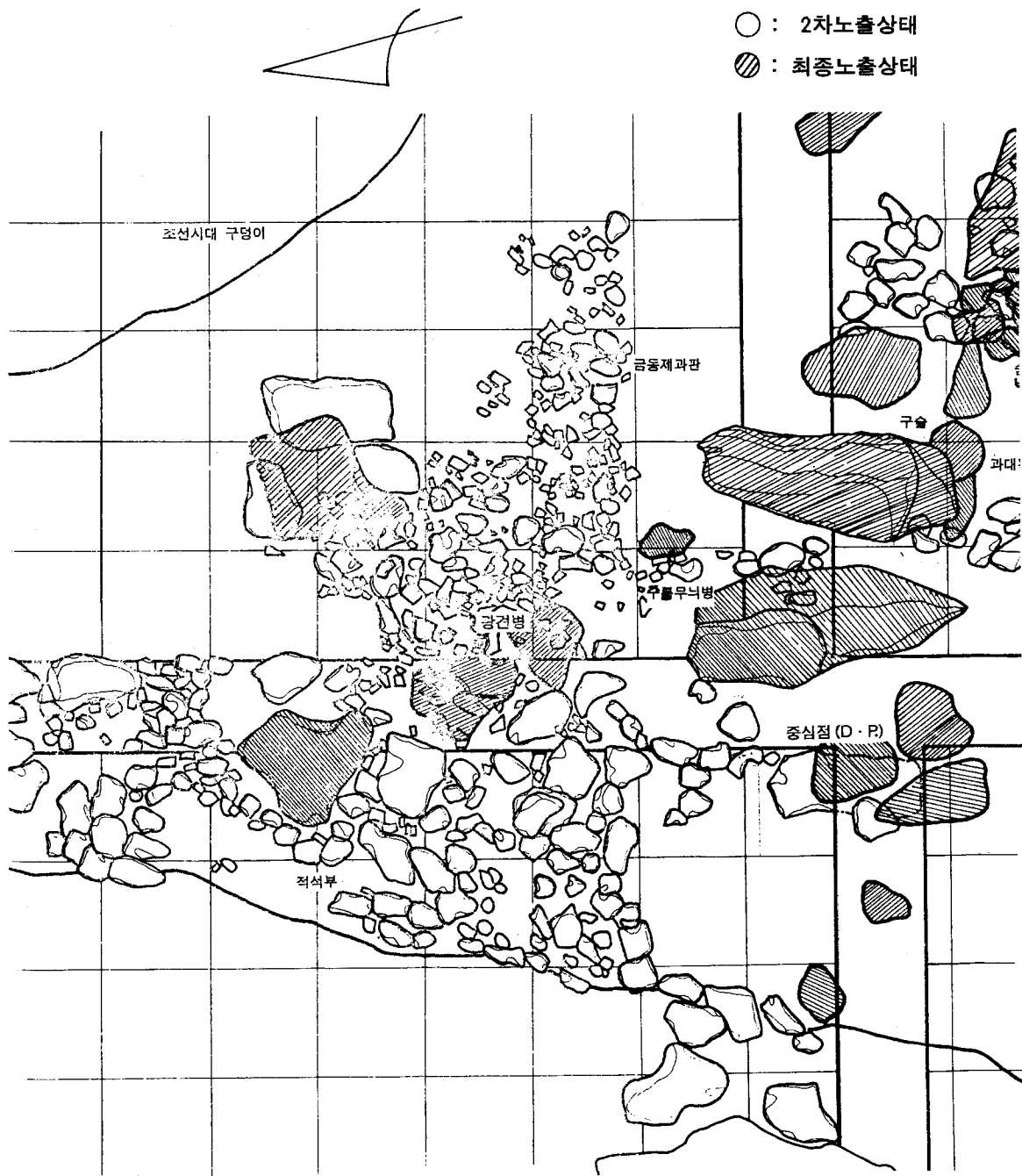
E2구역에 국한되어 확인되었다. 원형구덩이는 이 적석부를 파고 들어간 구덩이로 흑갈색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다. 남쪽부분의 모든 구덩이에서 분청사기와 백자편이 확인되어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도면9)

생토암반위에 쟁기자국이 4열이상 확인되고 E2열 핏트내에 지름 10·20·30~45cm의 불규칙한 둥근 구덩이들이 확인된다. 이 능선부에 농사를 짓기위해 작물을 재배했던 구덩이로 판단되는 데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도면7 1991년도 TEST-PIT조사 (유물출토상태)



도면9 유물노출상태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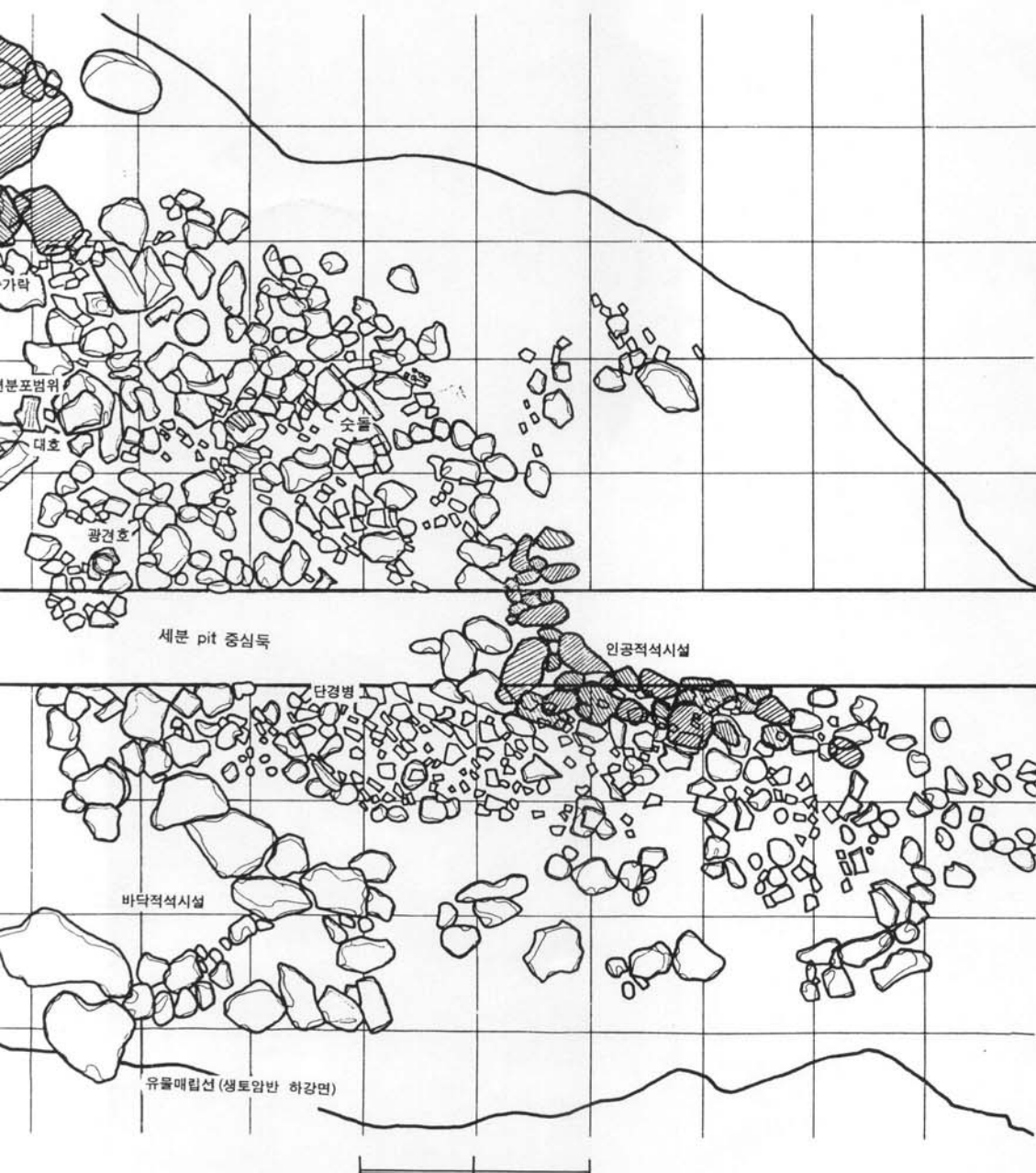




사진1 제주시 영남동 유적 유경 (남에서)



사진2 유적 원경 (서에서)



사진3 용담동 유적 근경 (남에서)



사진4 테스트피트 조사광경 (남에서; 1991년 조사)



사진5 테스트피트내 유물노출상태



사진6 발굴지 조사전 상태 및 발굴 핏트 구획 상태



사진7 동쪽핏트 굴착 과정 (북동에서)



사진8 발굴 광경 (남에서)



사진9 전체핏트 상층 발굴상태 (북에서)



사진10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동에서)

사진11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서에서)





사진12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남에서)



사진13 유물밀집범위 상층 노출상태 (북에서) - 42 -



사진14 남쪽 잡석매립부분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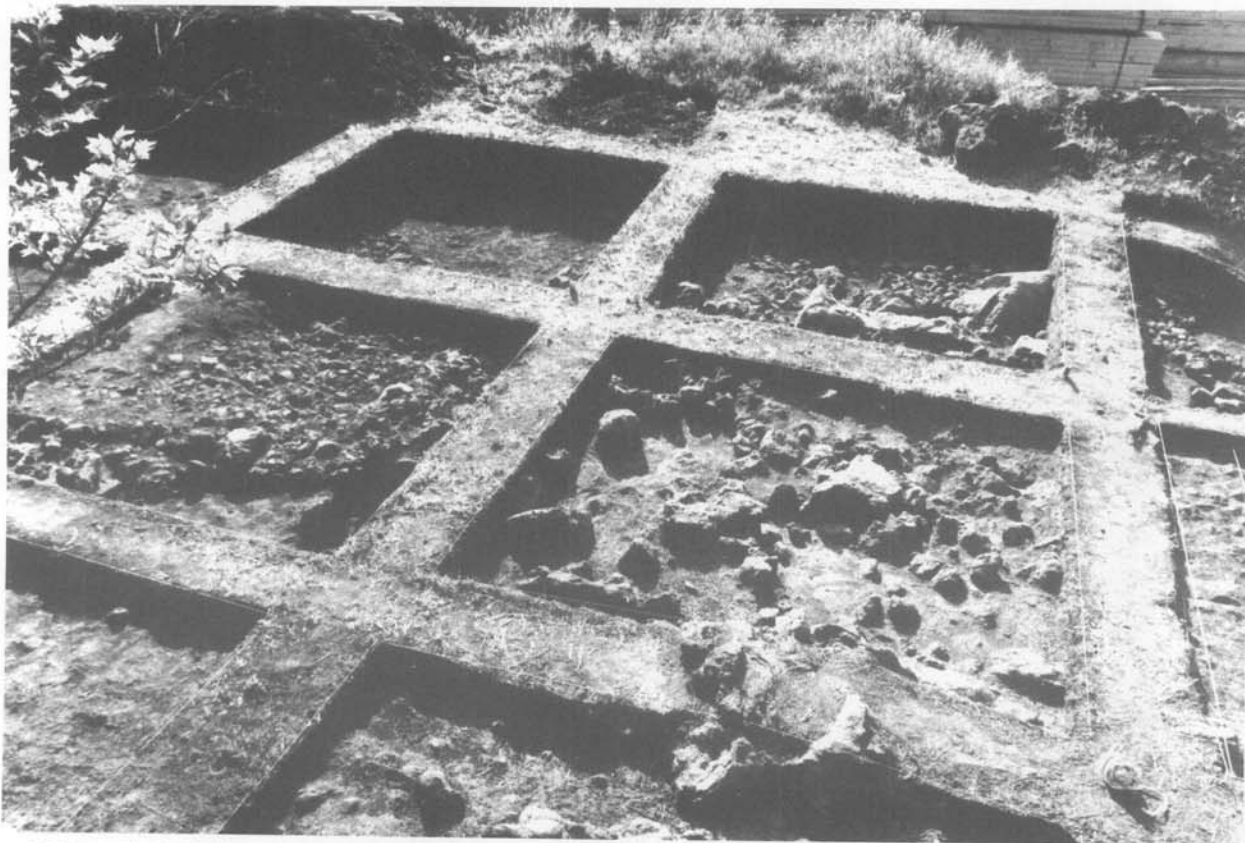


사진15 적석매립부 노출상태 (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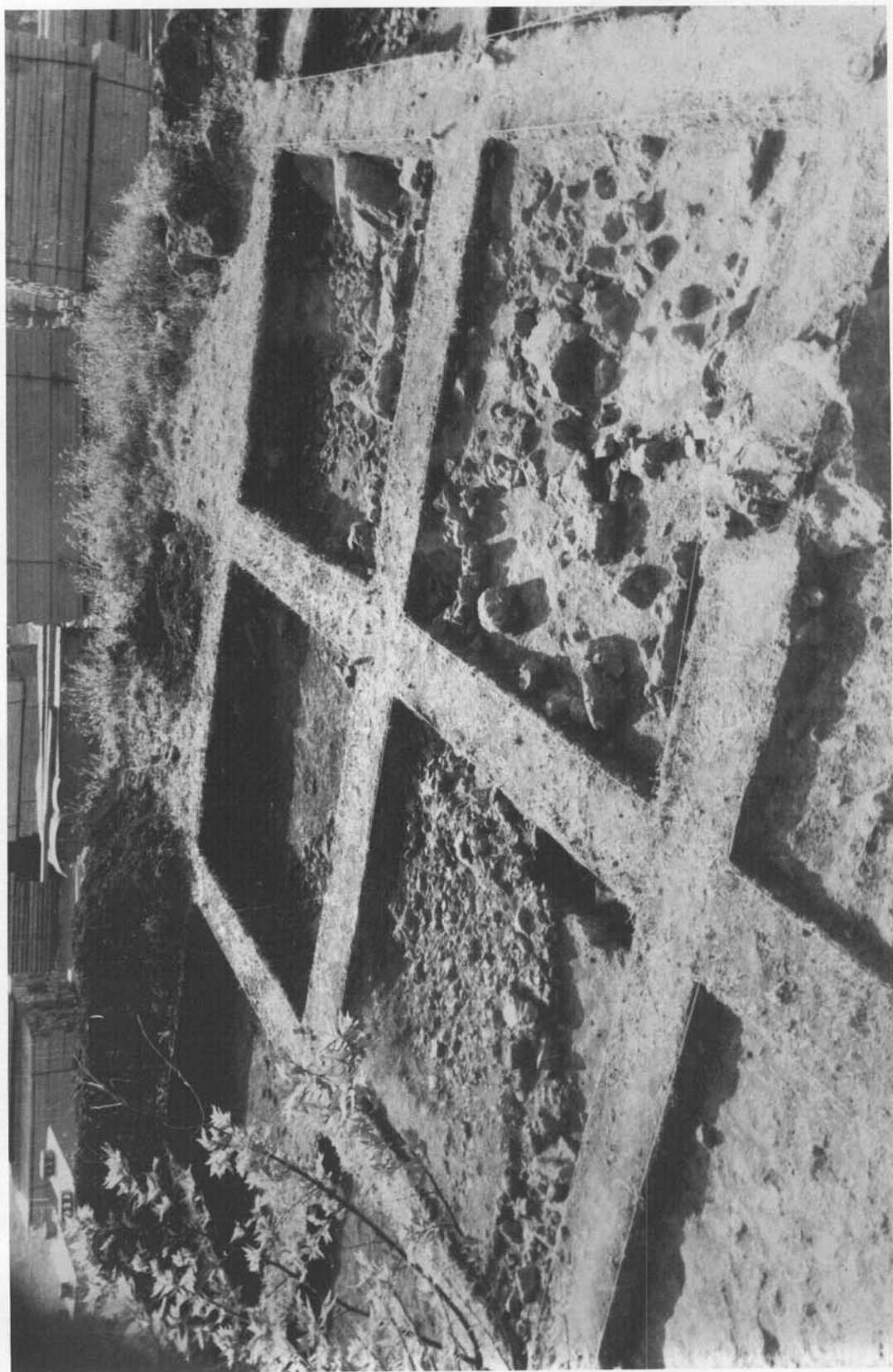




사진17 유물밀집부분 상층제거후 (남서에서)



사진18 유물밀집부분 유물 수거 제거작업



사진19 유물밀집부분내 적석시설 및 유물노출상태 (북상에서)



사진20 유물밀집부 상층제거후 상태 (남에서)



사진21 S1W1 피트내 유물분포상태 및 적석상태 (북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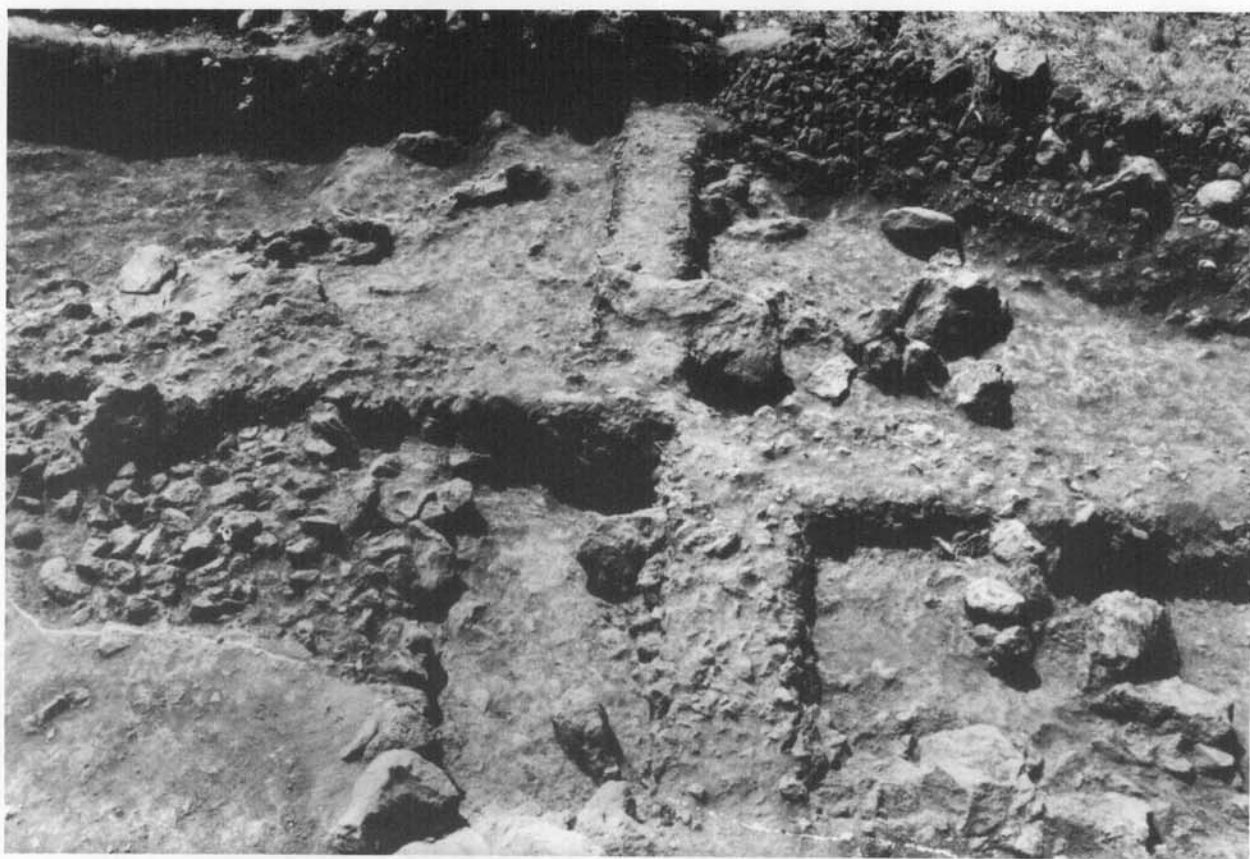


사진22 종심독 근처의 바닥 상태 (동상에서)



사진23 유물밀집부분 바닥 노출상태 (동상에서)



사진24 총위상태 : 중식독에 나타난 유물퇴적상태 (서에서)



사진25 총위상태 : 중식독에 나타난 총위상태 (서에서)



사진26 1991년 발굴 테스트핏트내 유물출토상태 (남에서)



사진27 유물출토상태 (1)



사진28 유물출토상태 (2)



사진29 유물출토상태 (3)



사진30 유물출토상태 (4)



사진31 유물출토상태 (5)



사진32 유물출토상태 (6)



사진33 유물출토상태 (7)

제4장 出土 遺 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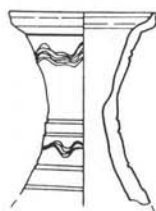
제1절 陶 器 類

이 유적에서 출토된 도기의 기종은 병과 호에 국한된다. 병은 장경병, 단경병 위주이고 호는 단경호, 장경호, 대호로 나누어 진다. 이 보고서는 동 유적에서 출토된 개별개체의 모든 구연부를 전제로 기술하였으나, 실측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의 그릇 명칭은 종래 회청색경질토기, 인화문토기, 도질토기 등의 '土器'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陶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신석기전기에 사용한 그릇에서부터 통일신라말기까지의 그릇 모두 흙을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하여 '土器'라는 명칭으로 통칭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흙을 원료로 만든 그릇은 크게 토기(Earthen ware), 도기(Stone ware), 자기(Porcelain)로 나눌 수 있다. 陶器는 窯業工學的인 分類에 의하면, 吸收率이 20%이하이고 태토는 粘土質에 石英·陶石 및 소량의 長石을 포함하고 있다. 施油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燒性溫度는 1200℃정도이다. 투명도는 不透明하다.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속성은 두드리면 탁음이 나며 금속용기로 굽어서 회미한 상처를 낼 수 있다. 대형용기 제작에 용이한 질이다. 도기는 다시 軟質·硬質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괄로 기술하였고 연질도기인 경우에 회색연질도기라 표기하였다.

1. 長頸瓶의 구연부

이 유적에서 출토된 장경병은 경부모양에 따라 크게 나팔모양과 원통모양으로 나눌 수 있고 시문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A형



B형

분 류	목의 형태와 특성
A-1형	나팔모양. 경부직경이 10cm이상되며 경부 중간에 2중 침선대와 경부와 경계짓는 1조 돌대문이 형성되어 있는 형. 반구부는 1cm미만이며 경부 중앙의 침선대를 경계로 상하에 3~4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는 형.
A-2형	나팔모양. 경부직경이 8-10cm이며 경부중간에 2중의 침선대만이 형성되어 있는 형. 경부와 건부 경계선에 돌대문이나 무늬가 없는 형.
A-3형	나팔모양. A-2형과 동일. 경부에 2조 침선대가 상하에 간격을 두어 배치된 형.
A-4형	나팔모양. 경부 직경이 5cm이며 경부, 건부 모두 무문이며 흑유가 시유된 형. 건부가 직각으로 동체부로 내려가는 형.
B-1형	원통형. 경부 직경이 10cm이상 되며 경부에 침선대가 없고 무문인 형. 경부와 건부의 경계 돌대문이 형성되어 있는 형.
B-2형	원통형. 경부에 문양이 없으며 경부 중앙에서 하단으로 5점 이상의 나선형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는 형.

출토된 장경병의 각 속성을 살펴보면,

* 용담동유적 출토 장경병 속성표

도면번호	현 고	구순부직경	경부지름	구단부높이	경부높이	순부두께	기벽두께	건부폭	동체폭
10-1	8.6	6.6	3.1	0.7	8.0	0.6	0.7	?	
10-2	7.5	6.2	3.0	0.5	7.5	0.3	0.6	?	
10-3	6.2	?	3.1	?	?	?	0.5	?	
10-4	6.7	?	3.4	?	?	?	0.6	?	
10-5	7.6	6.2	2.6	0.6	6.3	0.5	0.5	?	
10-6	7.5	?	3.8	?	?	?	0.6	?	
10-7	4.2	?	3.4	?	?	?	0.6	?	
10-8	5.6	?	3.1	?	?	?	0.5	?	
10-9	7.8	?	4.0	?	6.2	?	0.7	11.4	
11-1	7.7	?	4.6	?	?	?	0.6	?	
11-2	4.6	?	4.4	?	?	?	0.4	?	
11-3	7.8	6.0	4.1	1.0	?	0.6	0.6	?	
11-4	5.2	?	3.7	?	?	?	0.6	7.2	
11-5	11.7	4.4	2.3	?	7.3	0.4	0.8	10.4	

11-6	11.6	7.0	4.3	0.8	8.0	0.6	0.7	14.6
11-7	6.0	?	3.4	?	?	?	0.4	?
11-8	8.4	?	4.6	?	?	?	0.7	?

각 형의 도기에 대한 세부 속성을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술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면,

1) A-1형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0-1	34-1	회청색. 경부중앙에 2줄침선대 형성. 침선대 위로 2줄의 파상선이 그려졌으나 일부분 5줄의 침선대가 시문되어 있다. 침선대 하단에는 2줄의 파상문이 돌려져 있고 경부 하단과 구단부 바로 아래로 1條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다. 구단부는 약간 외반되어 있으며 견부에서 경부로 올라가는 경계부분에는 침선대를 2중으로 돌려 돌대문을 만들었다. 토기내면에는 경부와 동체부를 따로 만든 흔적이 보이며 손누름과 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내부에는 물손질 흔적과 회전흔이 보이나 경부 하단 내부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출토위치 : (N69) (L20-30)
10-2	34-2	회청색. 경부 중앙에 정연한 2줄의 침선대가 돌려있고, 침선대 상단으로 파폭있는 파상선문이 미미하게 시문되어 있다. 침선대하단으로 5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외면 시문후, 물손질하는 과정에서 파상무늬가 이그러진 상태이다. 내면은 울퉁불퉁하게 물손질되어 있고 구단부에서 아래로 대칼을 연속하여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구단부에 회전흔이 나타나 있다. 출토위치 : (N20) (L20-30)
10-3	34-3	회청색. 경부 침선대상단과 구단부 결손. 경부 중앙에 2줄의 침선대를, 하단부에 파폭있는 파상문이 음각되어 있다. 외면에 물손질·빗질흔이 나타나며, 내면에 물손질·대칼흔이 보인다. 경부와 견부를 따로 만들어 성형한 흔적이 단면에서 확인된다. 출토위치 : (N68) (L20-30)

10-4	34-4	<p>녹갈색. 경부 중앙에 2줄 심선대 형성. 경부 상단에 9줄 파상문. 하단에 7줄 파상문이 시문되었고, 견부와 경부 접합부분에 1조 돌대문이 돌려져 있다. 내면에는 굵은 빗질흔적이 보이고 경부 내면상단에 4줄의 나선형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녹색 자연유가 착유되어 있다.</p> <p>출토위치 : (N27) (L40)</p>
------	------	--

2) A-2형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0-5	34-5	<p>회청색. 경부 중앙에 2줄의 침선대가 돌려져 있고 경부외면에 무늬는 시문되지 않았다. 구단부는 1단으로 구순까지 직각으로 올라가며 목 윗면에서 구단으로 벌어진 외반 각도가 심하다. 경부 하단에는 1조의 가는 돌대문이 형성되어 있다. 내면은 빗질흔과 회전흔이 보인다. 기 벽이 매우 얇으며 반구부내면과 견부 외면에 자연유가 입혀 있다.</p> <p>출토위치 : (N25) (L25-27)</p>
10-6	34-6	<p>외면에 녹갈색 자연유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입혀져 있고 내면은 회청색계통이다. 경부 상단과 견부 상단에 1조의 음각대와 돌기대가 형성되어 있다. 내면은 빗질흔과 나선형 회전대가 역력하게 남아있다. 견부와 경부를 따로 부착 성형한 흔적이 보인다.</p> <p>출토위치 : (N62) (L20-30)</p>
10-7	34-7	<p>암청색. 경부 상단과 구단부는 결실되어 있고, 어깨 부분이 그릇의 최대 폭을 이루는 광경상의 병편이다. 내면에는 경부와 견부를 따로 성형할 때 나타나는 손누름 흔적이 보이며 경부를 써리질하여 늘릴 때 나타나는 균열선이 보인다.</p>
10-8	34-8	<p>외면색조가 소성시 불받는 차이에 의해 회청색과 갈색자연유로 양분되어 있다.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고, 경도는 매우 강하다. 토기 내면에는 회전대흔과 빗질흔이 보인다.</p> <p>출토위치 : (N70) (L25-30)</p>
10-9	34-9	<p>회청색. 경부 중앙에 굵은 2조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고 견부 상단에는</p>

		<p>2조의 침선대를 돌려 굵은 돌대문을 부각시켰다. 견부에는 밀집 3조 파상선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 경부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 그은 빗질흔이 보이며 견부와 경부 집합부분에는 손누름 접합흔이 남아 있다.</p> <p>출토위치 : (N69) (L30-40)</p>
11-5	35-5	<p>연회청색. 長頸小壺瓶片. 전체적으로 경부와 동체상단, 동체상단과 동체하단을 단계적으로 부착 성행하였음을 도기 단면에서 알 수 있다. 경부는 중앙에 가는 2조 침선대가 돌려져 있고 구단부는 결실되어 알 수 없으나 구단부 밑으로 미세한 1조 음각대와 중앙 2조 침선대 밑으로 밀집세로선문이 열지어 돌려져 있다. 동체는 납작마름꼴로, 상단에 경부와 구분짓는 1조 돌대가 돌려져 있고 중앙에 2조 침선문대가 시문되어 있다. 중앙 침선대를 사이에 두고 안에 평행밀집단사선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몸체상단과 하단은 급격히 내반되면서 납작해지며 경계에 둔탁한 3조 침선대가 지나간다. 외면에 회전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회전흔과 빗질흔이 보인다.</p> <p>출토위치 : (N62) (L30-35)</p>

3) A-3형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1-1	35-1	<p>회청색. 경부에 미미한 2조 침선대가 상하에 배치되어 있다. 견부에 스킷 돌대문이 돌려져 있고 직각으로 올라가는 낮은 구단부가 형성되어 있다. 외면에 미세한 빗질흔과 회전대흔이 보이며 내면에는 상하 사선으로 그어진 빗질흔이 역력하다.</p>

4) A-4형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1-2	35-2	<p>흑갈색의 시유가 도기 내외면에 전면 착유된 상태이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점토질이며 속심색은 명갈색을 띤다. 외면에 미세한 빗렬이 보인다. 내면에는 손가락을 사용해 아래에서 위로 경부를 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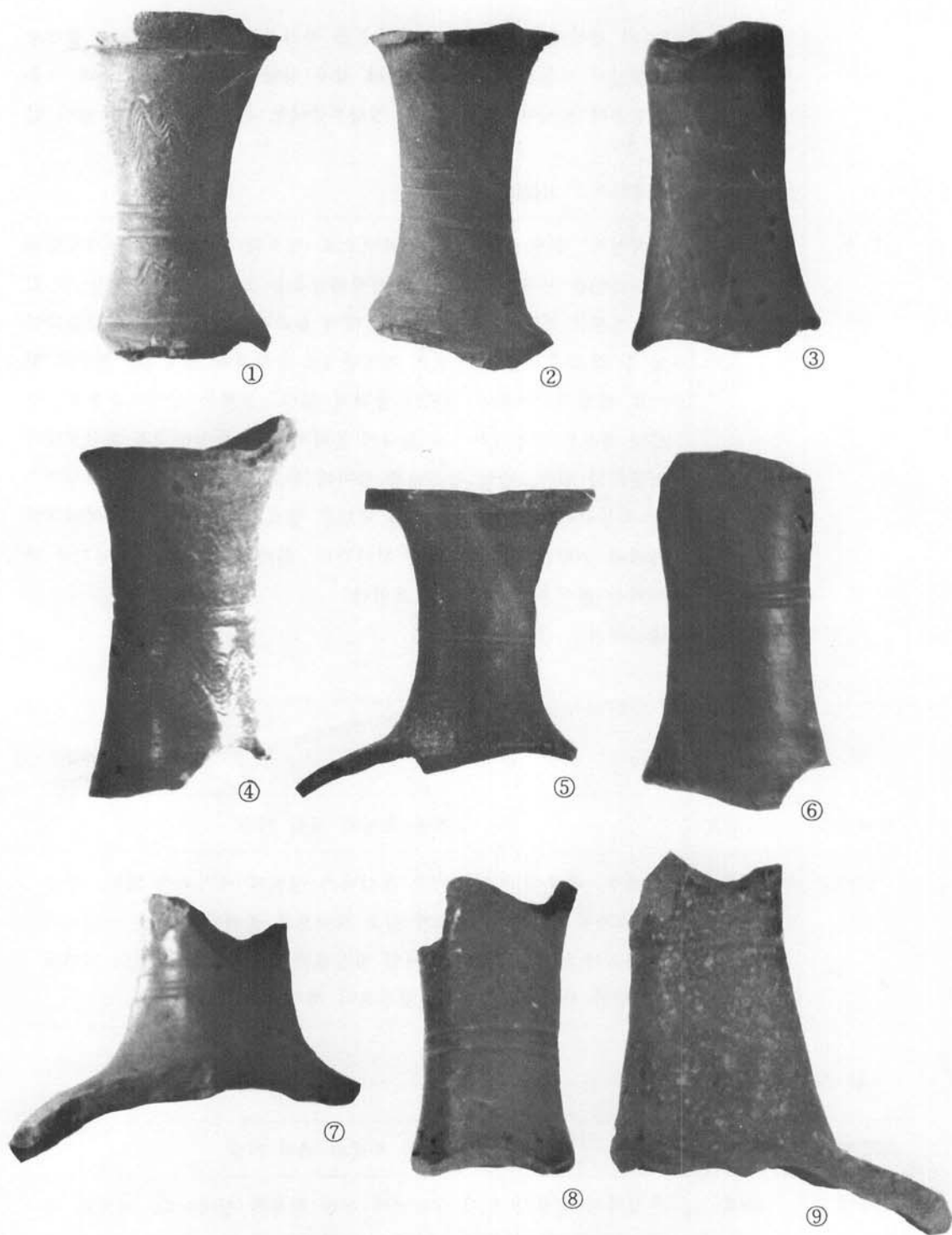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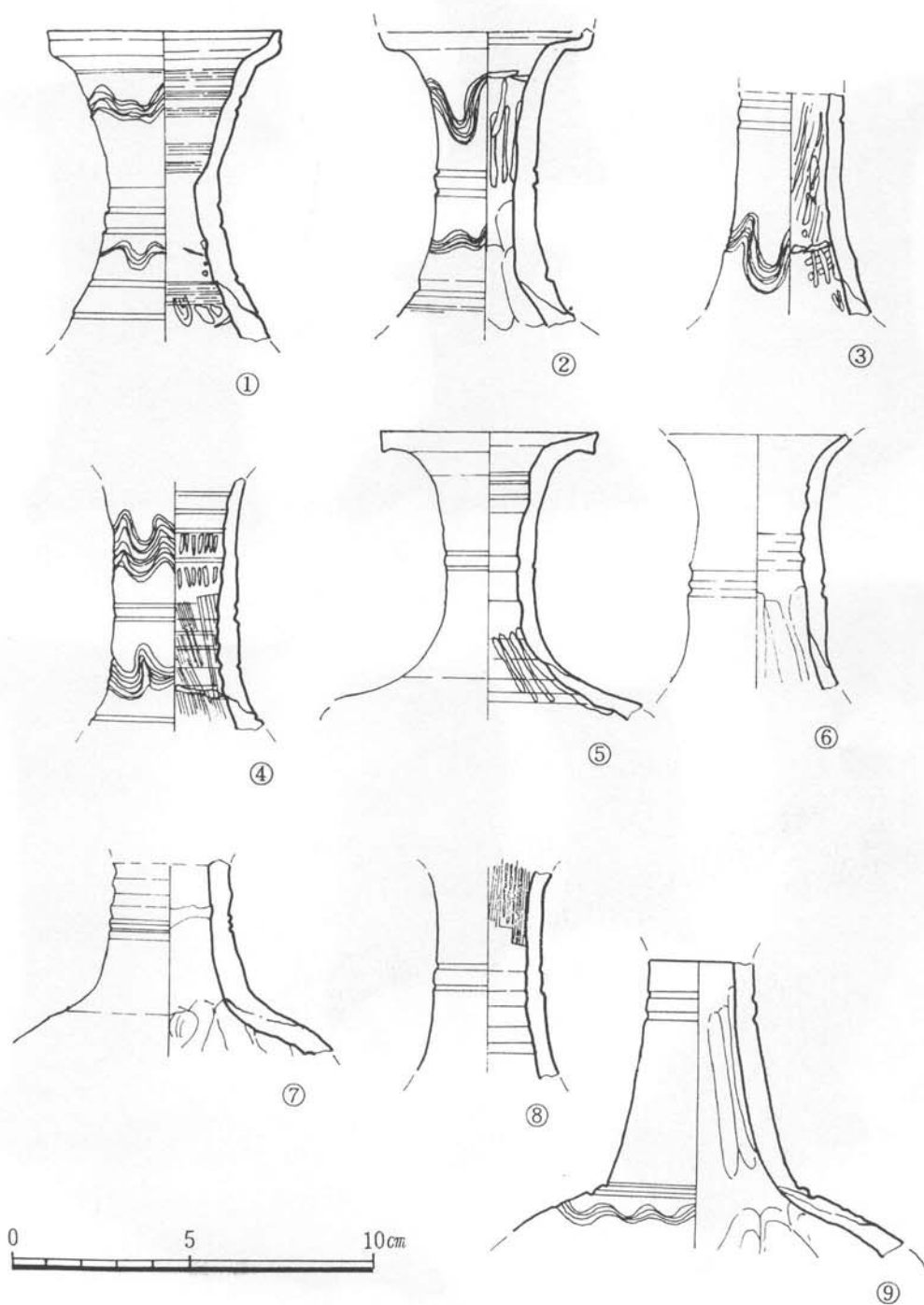


사진34 장경병의 구연부 (1)



도면10 장경병의 구연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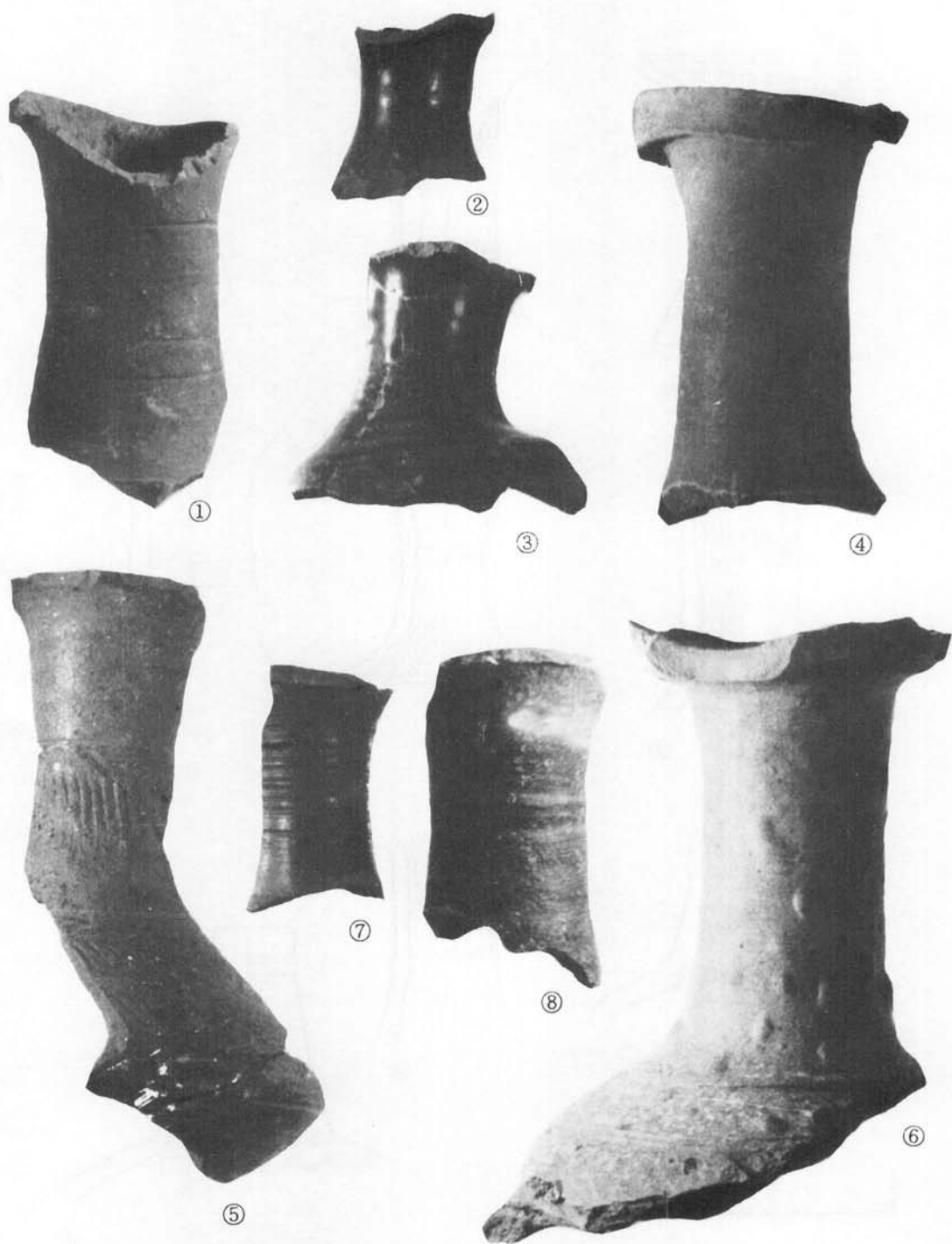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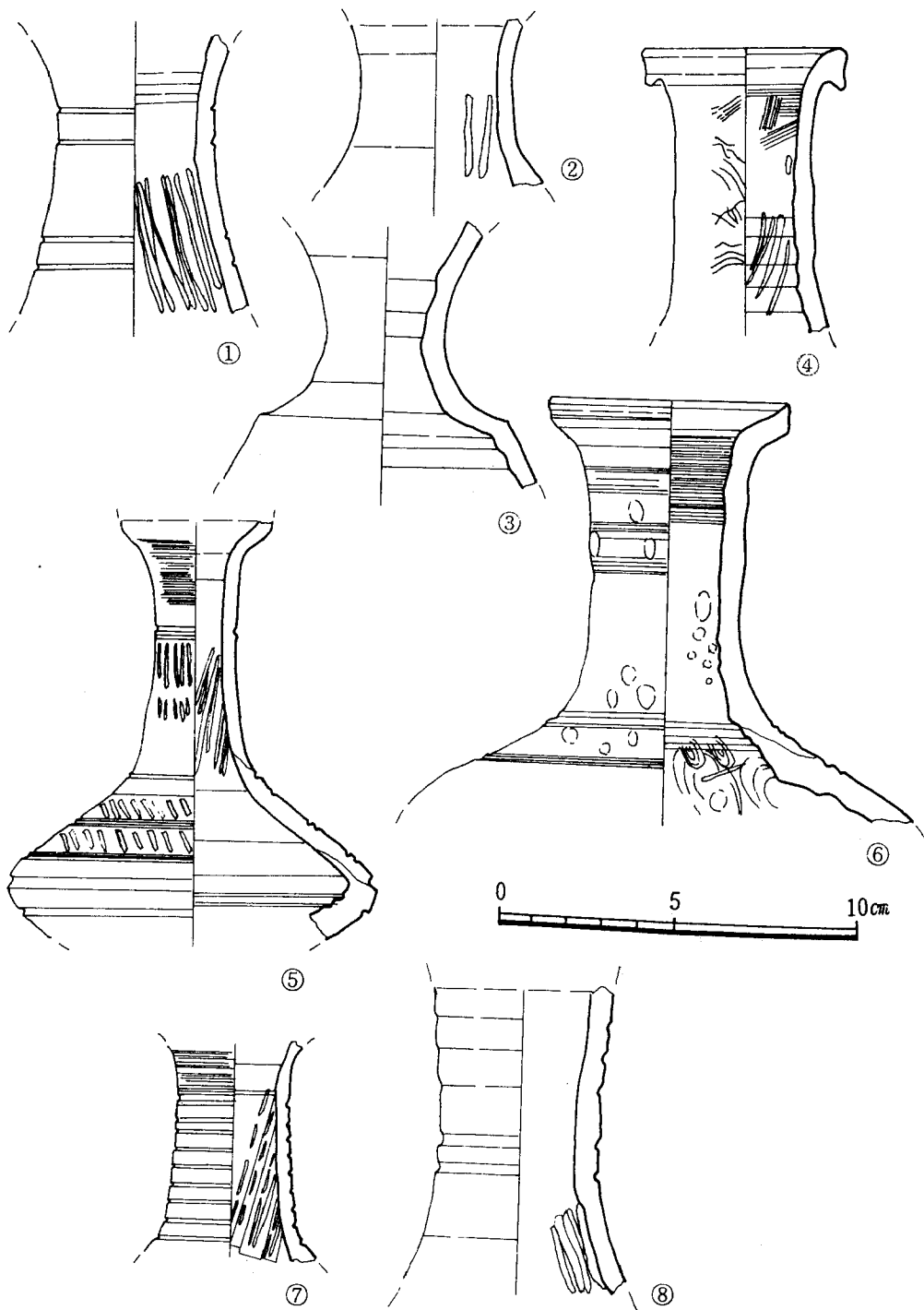


사진35 장경병의 구연부 (2)



도면11 장경병의 구연부 (2)

		작한 흔적이 보인다.
11-3	35-3	흑갈색의 시유가 내외면에 고르게 착유되어 있다. 건부에서 동체로 내려가는 부분이 뚜렷하게 턱져 있다. 내면에는 회전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려져 있다.

5) B-1형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1-4	35-4	연회청색. 연질에 가깝다. 경부에 침선대가 없는 무문이다. 반구부는 직각으로 뭉뚱하게 1단으로 처리하였고 순부는 말아서 둥글게 내부로 처리하였다. 토기외면에 물손질한 잔 빗질 흔적이 보이며, 내부에는 썩리질하여 빗질한 흔적이 보인다. 건부접합부분에 동물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출토위치 : (N25) (L25-27)
11-6	35-6	연회청색. 반구부는 경부에서 부드럽게 외반하는 형태로 미세하게 2단으로 처리되어 있다. 경부 하단에 건부와 구분짓는 1조 돌대문과 건부 중앙에 2조 선조대가 돌려져 있다. 구단부 내면과 건부의 면에 반점처럼 자연유가 흩어져 있으며 경부 내외면에 듬성 듬성 기포가 보인다. 경부내면 상단은 녹색의 자연부가 잘 입혀진 상태이다. 건부하단에는 2조 파상선이 미세하게 시문되어 있다. 외면에 미세한 빗질흔과 내면에 손누름 흔적이 관찰된다. 건부내면에는 울퉁불퉁한 기포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다. 출토위치 : (N36) (L35-37)

6) B-2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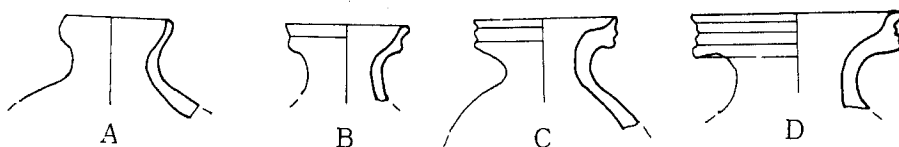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1-7	35-7	암갈색. 경부 전면에 9조 나선형 침선문이 돌려져 있다. 침선폭은 0.25cm이고 침선간격은 0.35cm이다. 외면에 회전흔이 보이며 내면에는 연회청색으로 술질자국이 겹겹이 나타나 있다. 출토위치 : (N63) (L20-30)

11-8	35-8	<p>녹갈색. 경부 중앙에 4조 선조대가 돌려져 있다. 외면에 자연유가 거칠게 착유되어 있고 가는 회전흔이 보인다. 내면은 연회청색으로 사선밀집빚질흔과 회전흔이 확인된다.</p> <p>출토위치 : (N62) (L20-30)</p>
------	------	--

2. 단경병의 구연부

이 유적에서 출토된 기종 중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었고 종래 한반도에서 보고된 각종 병의 구연부가 확인된다. 보고서의 일관 기술을 위하여 몇가지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구연부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크게 4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형 : 구단부에 세경홈이 없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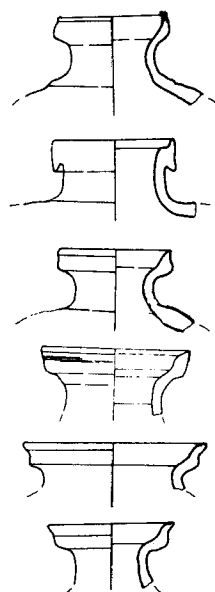
C형 : 2단 음각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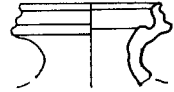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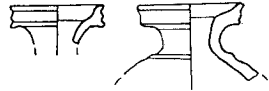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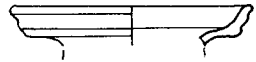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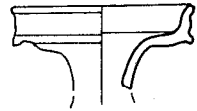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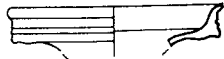
B형 : 1단 음각대 형성.

D형 : 3단 음각대 형성.

크게 분류된 4형을 세분하여 정리하면,

형분류	반 구 형 태
A-1	구단부가 표주박의 입술 모양인 형.
A-2	구단부 아래에 깊은 홈이 패이면서 구단부 하단이 귀퉁 모양으로 형성된 형.
A-3	경부가 구단부에서 급격히 벌어지고 내부는 반구형식으로 처리된 형. 구순부폭이 경부폭 보다 2배이상 되는 형.
A-4	구단부가 직각으로 혹은 둥글게 처리된 형.
B-1	구단부 하단이 밑으로 내려가며 경부에서 구단부로 경사져 올라가는 형. 구단부에서 구순부로 외반되는 형.
B-2	구단부 하단에서 상단으로 경사져 올라가며 구단 중간에 가는 홈줄이 단을 이룬 형태.



형분류	반 구 형 태	
C-1	경부에서 구단부로 거의 직각으로 꺾이며 구단부에서 구순부로 내반되어 있는 형. 구단부 하단을 돌출되게 처리하였으며 홈줄대를 중앙에 배치한 형.	
C-2	구단부의 경사는 직각으로 구순부로 올라가며 구단 하단부를 돌출시킨 형 (C-2-a) 과 돌출시키지 않은 형 (C-2-b). 홈줄대를 가운데가 아닌 상·하단에 치우쳐 배치.	
C-3	구단부가 나팔입모양으로 급격히 외반되며 구순부 끝이 둥글게 마무리되면서 완전 외반한 형태. 구단하폭보다 구단상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형.	
C-4	구단부가 내반하여 구순부로 이어지며 경부에서 구단부로 이어지는 선이 부드럽게 외반되면서 이어지는 형.	
C-5	경부에서 구단부로 부드럽게 경사져 올라가고 구단부와 구순부의 폭이 거의 동일하며 2줄의 홈줄대를 구단부 상하에 치우쳐 배치한 형. 구단부 하단과 구순부가 돌출되고 구단부 중앙은 들어간 형.	
D-1	경부에서 구단부로 심하게 외반되며 구단부를 직각으로 성형한 형. 구단부 밑의 한단을 밑으로 처지게 처리한 형.	
D-2	구단부 밑이 평평하고 구단부 밑이 1단 처짐없이 곧바로 올라간 형.	

1) A형

(1) A-1형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구단부의 최대폭을 段 중앙에 둔 형식이다.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2-1	36-1	암갈색 자연유가 시유되었고 내경된 구단부내면 하단에 깊은 홈이 형성되어 있다.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p>출토위치 : (N62) (L20-30)</p> <p>복원구경 6.0cm, 구단부높이 1.2cm, 경부폭 2.0cm, 두께 0.45cm.</p>
12-2	36-2	<p>회청색.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고 표주박 입술모양의 구단부이다. 구순부는 평평하게 처리되어 있고 내경되던 구단부 끝이 구순부에 이르러 약간 외반되면서 나선형으로 돌려져 있다. 경부와 견부를 따로 만들어 부착 성형한 흔적이 내면에 보인다. 견부와 구분하기 위한 돌대가 미미하게 보이며 내면에는 손누름 정리흔적과 회전흔이 관찰된다.</p> <p>출토위치 : (N26) (L20-25)</p> <p>복원구경 7cm, 구단부높이 1.1cm, 경부폭 2.4cm, 두께 0.52cm.</p>
12-3	36-3	<p>회청색. 자연유가 입혀져 있고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다. 경부에서 단부로 이어지는 선이 완만하게 경사져 올라가다가 단부 하단에 이르러 급격히 꺾인다. 구단부 하단 턱에서 구순부로는 내반되며 단부 하단에 1조 침선대가 만들어져 있다. 구순부는 평평하게 처리하였다. 토기내면에 회전흔이 보인다.</p> <p>출토위치 : (N62) (L25높이-27)</p> <p>복원구경 4.9cm, 구단부 1.2cm, 경부폭 2.2cm, 두께 0.6cm.</p>
12-4	36-4	<p>회색. 경질. 구단부는 내반되었고 구단부 상단에 1조의 침선대가 형성되었다. 구순부는 안으로 경사져 내려가게 처리되었으며, 견부접합부에 1조 돌대가 형성되어 있고, 경부에는 회전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p> <p>출토위치 : (N69) (L30-40)</p> <p>복원구경 : 5.8cm, 구단부높이 1.2cm, 경부폭 2.7cm, 두께 0.6cm.</p>

(2) A-2형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2-5	36-5	<p>흑색. 구단부 하단이 내리워진 형. 소성시 이물질이 구단부에 부착되어 있고 구순부 내면은 1조 음각대로 처리되어 있다.</p> <p>출토위치 : (N18) (L30-35)</p> <p>복원구경 6.2cm, 구단부높이 1.2cm, 경부폭 2.4cm, 두께 0.45cm.</p>

12-6	36-6	<p>흑색. 구단부 하단이 경부 상단보다 0.5cm 내려와 있다. 구단부 내면 상단은 반구상태로 1조 침선대가 구분되어 진다. 내면에는 회전흔과 대칼 같은 도구로 문지른 흔적이 보인다.</p> <p>복원구경 5.8cm, 구단부높이 1.5cm, 경부폭 2.0cm, 두께 0.4cm.</p>
12-7	36-7	<p>회청색. 구단부 중앙에 아주 가는 침선대가 지나가며 구단내부는 입술부분에서 반구상을 이루며 올라간다. 표면과 내면에 모두 회전흔이 확인된다.</p> <p>복원구경 8cm, 구단부높이 1.3cm, 경부폭 2.8cm, 두께 0.25cm.</p>
12-8	36-8	<p>회청색. 구단부 중앙에 미미한 돌출대가 지나가며 내경된 구순부 내부는 턱이 저 있다. 내외면에 모두 회전흔이 확인되며 견부와 경부를 구분짓는 돌대분이 형성되어 있다.</p> <p>복원구경 7.2cm, 구단부높이 1.2, 경부폭 2cm, 두께 0.5cm.</p>

(3) A-3형

도면번호	사진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술
12-9	36-9	<p>명갈색. 좁은 목에 급격히 벌어져 올라가는 구단부 형성. 구단부 하단과 구순부가 돌출되어 있고 구단부 턱이 경부 상단보다 0.5cm정도 내려온 형. 밝은 녹색 유가 입혀 있으며 외면은 물손질이 잘 되어 있다. 내면은 물손질이 덜 되어 거칠다. 구순부 내면은 0.5cm정도 내려와 턱을 만들었다.</p> <p>출토위치 : 1991년 조사(L20-25)</p> <p>복원구경 9cm, 구단부 1.4cm, 경부폭 4.6cm, 두께 0.3cm.</p>
12-10	36-10	<p>흑갈색. 암갈색 유가 전면에 시유되어 있고 좁은 목에 급격히 벌어져 올라가는 구단부 형성. 구순부 내면은 1.3cm정도 내려와 단을 처리. 내면은 녹색을 띠며 회전흔이 뚜렷하다.</p> <p>출토위치 : 1991년 조사(L20-25)</p> <p>복원구경 12cm, 구단부 1.75cm, 경부폭 5.2cm, 두께 0.4cm.</p>
12-11	36-11	<p>회청색. 구순부 단은 평평하게 처리했고 목에서 구단부로 급격히 벌어지는 형.</p>

		출토위치 : (N21) (L30-40) 복원구경 5.2cm, 구단부 0.7cm, 경폭 2.0cm, 두께 0.2cm.
12-12	36-12	회청색. 짧은 경폭에 급격히 벌어져 넓어진 구단부 형성. 구단내부는 완만하게 평퍼짐하게 처리. 구순부내부 단을 낮게 처리. 출토위치 : (L20-25) 복원구경 4.4cm, 구단부 0.6cm, 경폭 1.9cm, 경부 1.8cm, 두께 0.35cm.

(4) A-4형

도면번호	도판번호	색 조	복원입지름	구단부높이	경부높이	경부지름	두 계
13-1	37-1	회청색	5.6	0.4	?	4.0	0.4
13-2	37-2	암갈색	6.0	0.9	?	3.5	0.5
13-3	37-3	회청색	7.2	0.7	?	3.8	0.6
13-4	37-4	회청색	8.5	1.4	?	4.4	0.6
13-5	37-5	암갈색	7.6	1.3	?	4.4	0.4
13-6	37-6	회청색	6.1	0.8	2.1	4.0	0.6
13-7	37-7	회청색	4.4	1.0	?	2.6	0.4
13-8	37-8	암갈색	4.5	0.6	1.3	2.2	0.4
13-9	37-9	명갈색	3.8	0.6	1.0	2.6	0.6
13-10	37-10	녹갈색	4.2	0.7	3.4	2.7	0.5
13-11	37-11	녹갈색	8.2	1.5	?	3.8	0.5
14-1	38-1	회청색	6.0	1.0	2.0	4.0	0.6
14-2	38-2	회청색	5.6	0.9	1.6	5.0	0.6
14-3	38-3	회청색	6.9	1.0	1.8	4.0	0.5
14-4	38-4	회청색	8.8	0.8	?	6.2	0.5
14-5	38-5	회청색	6.8	1.0	?	4.1	0.5
14-6	38-6	명갈색	8.0	1.4	?	4.9	0.5
14-8	38-8	회청색	9.0	0.9	?	8.0	0.7
14-9	38-9	회청색	8.0	1.2	2.0	5.4	0.8
14-10	38-10	명갈색	8.2	0.8	3.1	4.8	0.6

모두 짧은 목에 구단부가 낮게 성형되어 있고 구단부에 1조의 음각대를 돌린 형이다.
도면13-1·2·3은 단경호에 가까우나 구연의 폭과 동체로의 연결이 작은 小形瓶片으로 여겨진다.

도면13-5는 A-4형에 해당하며 구단부에 침선대없이 직각으로 처리되어 있다. 도면 13-6은 침선구분없이 구단이 '〈'로 처리되어 있으며 구순부는 뾰족하게 마무리되어 있다.

도면13-7·8·9·10은 입지름이 5cm미만인 작은 소형병편이다. 도면13-9는 짧은 목에 동체중간에 최대폭을 둔 조선시대의 油瓶과 유사한 기형으로 동체전면에 단사선문과 격자문이 짙은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도면13-10은 경부내외면에 회전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도면 14-1·2·3·5는 홀구연형식으로 구단부를 처리한 형태로 물손질수법과 회전흔이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면 14-4는 구순부면을 평평하게 처리하였고 석영, 장식, 운모편이 태토에 혼입되어 있다. 도면 14-6은 구단부에 심조대없이 직각으로 올라가 구순부내면에 경사지게 턱을 두었다.

도면14-8은 광전상의 어깨에, 목이 외반되어 연결되고 다시 구단부분은 선조대없이 외반되면서 구순부로 이어진다. 구순부는 영성하게 말아 마감하였다. 내면에 물손질흔적, 어깨와 목의 경계부에는 손누름흔적이 관찰된다. 동체중앙 외면에는 씨리질하여 물손질한 이그러진 격자문이 남아있다.

도면14-9는 동체중앙에 그릇의 최대폭을 둔 기형이다. 전부상에는 2조의 침선대가 나선형으로 돌려져 있고 곱게 물손질되어 있다. 부드럽게 외반되는 경부와 침선구분없는 구단부가 올라가 순부를 둥글게 마감하였다. 목 내면에 회전흔이, 경부와 전부경계부에는 실로 자른 듯한 흔적이 남아 있다.

2) B형

도면 번호	도판 번호	복원 입지름	구단부 높이	경부 높이	경부 지름	두께	도기의 특징과 일반 서술
15-1	39-1	5.4	1.1	1.8	3.2	0.6	회청색. 경부에서 단부로 각져 올라가며 내면에 회전흔이 보임. 태토가 정선되지 못하며 석영, 장식편이 태토에 혼입됨. 출토위치 : N62 L20-30

15-2	39-2	7.2	1.2	1.4	4.0	0.4	회청색. 구순부 내면 하단과 구단부 1단 턱을 동시에 형성. 속심은 회색. 연질. 출토위치 : N62 L20-30
15-3	39-3	7.4	1.4	2.0	4.4	0.6	회색. 연질. 장식, 운모가 혼입됨. 구단부 내부 하단 홈은 둥글고 넓게 단을 만듦. 출토위치 : N28 L10-25
15-4	39-4	8.2	1.2	-	5.0	0.5	암청색. 속심 회색. 연질. 구순부단은 경사지게 내반. 내, 외면에 회전흔.
15-5	39-5	10.2	1.2	1.6	7.4	0.6	회청색. 속심 회청색. 경질. 구단부는 하단이 짧은 단으로 처리되었고 구순부도 둥글게 돌대형식으로 되어 있음. 구단부 내면에 1단 돌대가 만들어져 있다. 출토위치 N32 L25-30
15-6	39-6	9.4	1.0	2.4	5.4	0.6	회갈색. 속심 회색. 구순부 내면은 경사져 내려가다가 각진 홈으로 단을 처리하고 있다.
15-7	39-7	6.6	1.4	-	2.6	0.6	암청색. 태토 정선. 구단 중앙에 얇은 홈줄 형성. 외면에 회전흔.
15-8	39-8	7.2	1.8	?	4.0	0.40	암청색. 자연유 시유. 속심 갈색. 구단 하단을 날카롭게 처리. 구순부 둥글게 마무리. 내면 턱 높게 처리.
15-9	39-9	7.6	1.2	2.2	6.2	0.40	회청색. 구단부 1단 홈 뚜렷. 내면단을 2단 처리. 내외면에 회전흔. 출토위치 N63 L30-40
15-10	39-10	7.8	1.2	2.1	4.0	0.50	회청색. 경부에서 구단부로 경사져 둥글게 처리. 내반 턱 2단. 구순부 내면 경사 처리. 내외면에 뚜렷한 물손질과 회전흔.

15-11	39-11	7.4	0.9	2.0	4.0	0.40	회청색. 내면 흙 1단 처리. 구순부 뽕 죽 끝처리. 회전흔 관찰됨. 출토위치 : N63 L30-40
15-12	39-12	9.8	1.4	?	6.4	0.45	회색. 연질. 구순부 경사지게 처리. 구 단부 내면 1단 턱 처리. 출토위치 : N18 L20-30
15-13	39-13						암갈색. 시유. 빙렬 일부 잔존. 출토위치 : N20 L20-30

3) C형

(1) C-1형

도면 번호	도판 번호	복원 입지름	구단부 높이	구경부 높이	구경부 지름	두께	도기의 특징과 일반 서술
16-1	40-1	6.5	1.2	?	4.6	0.50	회청색. 구단부 내반. 구순부 평평하게 처리. 내면 1단 흙처리. 석영, 장식, 운 모 함유.
16-2	40-2						회청색. 구단부 외반. 구단부에 미미한 2 줄 침선대 형성.
16-3	40-3	8.0	1.6	1.6	3.8	0.35	회색. 경질. 내면 부드럽게 1단 처리. 단 밑에 미미한 나선형 2줄 침선대.
16-4	40-4	7.0	1.3	2.3	5.0	0.30	흑갈색. 자연유 시유. 내반되는 구순부 형성. 내면 깊은 1단 턱처리. 구단부에 나선형 2조 침선대 형성.
16-5	40-5	8.3	1.5	?	4.0	0.40	명갈색. 구단 하단턱 돌출. 구순부 평평 하게 처리.
16-6	40-6	5.2	1.2	?	2.4	0.40	회청색. 구단부 외반. 내외면에 회전흔 뚜렷.

16-7	40-7	9.0	?	?	5.0	0.80	흑갈색. 구단부 외반. 내면 1단 턱 형성. 출토위치 : N1 L20-30
16-8	40-8	9.4	1.2	2.2	6.8	0.55	회청색. 구단부 직선으로 처리. 구단부 중간에 균일한 돌대 형성. 태토 매우 정 선. 회전흔 관찰됨. 출토위치 N20 L20-30
16-9	40-9	8.2		?	3.6		회청색. 구단부 내부 돌대는 미미하게 처 리.
16-10	40-10	7.2	1.3	?	3.6	0.45	회청색. 속심 황갈색. 내면에 2단 턱 형 성.
16-11	40-11	9.0	1.4	?	5.8	0.50	회청색. 자연유. 태토 정선. 구단부 내 반. 직각처리. 회전흔 관찰.
16-12	40-12		1.6			0.40	흑갈색. 시유. 구단부 외반. 내림턱 돌출 안됨. 구단부 둥글게 처리.

(2) C-2형

도 면 번 호	도 판 번 호	복 원 입지름	구단부 높 이	경 부 높 이	경 부 지 림	두 겹	도기의 특징과 일반 서술
17-1	41-1	6.4	1.6	?	3.8	0.60	녹청색. 구단부 내반. 균일한 두께와 높 이로 3조 돌대 형성. 구단부 내부 깊은 1 조 침선대로 단 형성. 태토에 석영, 장 석, 운모 함유.
17-2	41-2	6.0	1.4	?	3.2	0.40	녹청색. 시유. 구단부 내단 경사지게 처 리.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 함유.
17-3	41-3	5.0	1.0	1.0	3.4	0.50	회청색. 구단부 내반. 뚜렷한 3조 돌대선 이 구단부에 형성됨.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 함유.

17-4	41-4	7.8	1.2	?	5.6	0.45	청녹색. 시유. 구단부 중앙에 미미한 1조 돌대 형성. 경부상단에 음각선 형성.
17-5	41-5	8.8	1.0	?	5.0	0.40	회청색. 구단부 3조 돌대 형성. 구순부 평평하게 처리. 내면은 정연한 물손질. 태토 정선.
17-6	41-6	7.4	1.4	?	4.0	0.65	흑갈색. 구단부 3조 돌대선. 내반. 구순부 내부 경사져 내려가고 1단 홈 형성.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 함유.
17-7	41-7	4.8	1.2	?	2.6	0.60	녹청색. 내부 턱없이 막바로 내려옴. 구순부 평평하게 처리. 구단부 심하게 내반. 자연유 반점이 형성됨. 출토위치 : N26 L20-25
17-8	41-8	7.6	1.4	?	3.8	0.40	흑갈색. 구단하 경부상에 2조 침선 처리. 구순부 평평하게 처리. 구순부가 넓게 처리된 C-4형에 가까움. 석영, 장석이 혼입됨.
17-9	41-9						회청색. 구단부 심하게 내반. 구단내부에 깊은 홈이 패임. A-1형 무단구연병과 유사함. 속심 황갈색.
17-10	41-10	5.2	1.2	?	2.4	0.35	회청색. 구순부 직각. 동일한 높이와 너비의 3줄 돌대문이 구단부에 형성됨. 내부 1단 턱줄 형성. 구순부 둥글게 처리.

(3) C-3형

도면 번호	도판 번호	복원 입지름	구단부 높이	경부 높이	경부 지름	두께	도기의 특징과 일반 서술
18-1	42-1	7.0	1.4	?	3.2	0.40	회청색. 내면이 벗겨져 나가고 사립이 태토에 다량 함유됨.
18-2	42-2	5.8	1.4	2.0	4.2	0.60	회청색. 구단부 약간 내반. 구단부 하단 돌대의 돌출정도가 심함. 석영, 장식, 운모가 태토에 혼입됨.

18-3	42-3	8.4	1.4	?	4.0	0.50	회청색. 회색 자연유가 입혀짐. 구순부는 밖으로 둥글게 마감시키면서 안으로 경사지게 처리. 경부위에 선명한 1조 침선대가 둘러짐.
18-4	42-4	8.0	1.2	2.4	5.8	0.55	담갈색 시유도기편. 구단부에 1조침선대가 둘러지고 구순부는 밖으로 둥글게 마무리하면서 안으로 경사지게 처리. 경부상단부에 기포 형성. 회전흔.
18-5	42-5	8.8	1.6	?	6.2	0.40	회청색. 깊은 구단내부 둔턱.
18-6	42-6	8.0	1.2	1.8	4.6	0.70	회청색. 건부상단에 경부와 구분짓는 1조 돌대문 형성. 구단부는 구순부에 와서 약간 외반. 구단부 내부 넓은 둔턱 형성. 건부와 경부 접합부분에 손누름 흔적. 경부 내부 회전흔 뚜렷.
18-7	42-7	7.8	1.2	?	6.2	0.35	회청색. 구단부내부 기포 형성. 경부 손누름으로 세리질 자극.
18-8	42-8	9.0	1.4	?	6.4	0.40	회청색. 구단부에서 경부로의 내부처리는 둔턱없이 내려가고 구단부 하단부에 1조 침선대가 돌아감.
18-9	42-9	12.4	1.0	?	7.2	0.60	회청색. 구순부는 둥글게 마감되고 둔탁하게 처리됨. 경부 하단에 2조 침선대가 둘러짐.
18-10	42-10	7.0	1.2	3.4	5.0	0.70	회색연질도기. 낮은 구단에 깊은 침선대 형성. 구순부는 돌출시키면서 납작하게 처리.
18-11	42-11	6.4	0.8	2.2	5.6	0.35	회청색. 구단부는 외반되고 3조돌대문이 형성됨. 구단부 하단 바로 위에 깊은 심조대. 건부상에는 2조 침선대가 1cm 간격을 두고 나선형으로 돌아감. 내면에는 회전흔이 확인되며 경부와 건부 접합부분에 손누름 마감수법이 보임. 출토위치 : N77 L30-40

(4) C-4형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색조	복원 입지름	구단부 높이	경부 높이	경부 지름	두께	출토위치
19-1	43-1	회청색	7.0	1.0	?	3.4	0.50	N21 L30-40
19-2	43-2	회색	10.0	1.4	?	5.0	0.45	
19-3	43-3	황갈색	10.0	1.7	?	3.4	0.40	N26 L35-50
19-4	43-4	연회색	12.0	2.0	?	5.6	3.50	
19-5	43-5	회청색	9.8	1.8	?	3.2	0.45	N33 L40-45
19-6	43-6	황갈색	8.4	1.3	?	3.2	0.30	
19-7	43-7	회청색	10.8	1.8	?	4.6	0.50	N21L30-40
19-8	43-8	회갈색	10.2	1.6	?	3.0	0.40	N20L20-30
19-9	43-9	황갈색	10.6	1.7	?	6.6	0.35	
19-10	43-10	담녹색	12.2	1.6	?	7.4	0.30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19-1	구단부와 경부 외면에 회전흔이 뚜렷하고 구단부 내면은 1단의 턱을 형성하고 있다. 속심은 황갈색 색조를 띠고 있으며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다.
19-2	구단부하단과 구순부가 돌대형식으로 둥글게 마감되면서 돌출되어 있고 구단부 중간 돌대는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다. 구단부 내면에 1단의 턱이 만들어져 있다.
19-3	시유도기. 속심 황갈색. 구단부 하단턱이 아래로 내려가고 구순부는 둥글게 마감하면서 내면쪽으로 1단의 턱을 만들며 부드럽게 내려갔다.
19-4	자연시유가 흘러내리면서 구단부 돌대턱이 덮혀졌다. 구순부는 둥글게 마감되었고 내면은 수직으로 내려와 깊은 1단의 내경턱을 만들고 있다.
19-5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고 높은 구단에 하단은 급하게 아래로 내려가고 구순은 수평으로 깎아 내렸다.
19-6	속심은 황갈색. 구단에서 구순부로 이어지는 선이 급히 외반된다.
19-7	구단부 하단과 구순부 단이 심하게 돌출되어 있다. 속심은 황갈색.
19-8	구단면은 매우 울퉁불퉁하게 처리되었고 속심은 회청색으로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다.

19-9	시유도기. 구단부 바로 위로 1단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속심은 황갈색.
19-10	구순부 등글게 처리. 구단부 하단 돌대턱이 심하게 내려와 있고, 그늘면에 빗질 흔적.

(5) C-5형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색조	복원 입지름	구단부 높이	경부 높이	경부 지름	두께	출토위치
20-1	44-1	회청색	9.0	1.2	?	4.0	0.50	N18 L20-30
20-2	44-2	회청색	11.2	2.6	?	6.2	0.45	
20-3	44-3	흑갈색	11.2	1.3	?	7.2	0.40	
20-4	44-4	회청색	8.0	1.8	1.8	6.6	0.50	
20-5	44-5	회색	7.6	1.4	?	3.4	0.40	
20-6	44-6	회청색	9.4	1.4	?	5.4	0.50	N50L20-30
20-7	44-7	암청색	8.0	1.2	?	4.8	0.35	
20-8	44-8	암청색	7.8	0.8	?	3.0	0.40	
20-9	44-9	녹갈색	10.4	2.2	?	4.8	0.30	
20-10	44-10	회청색	8.0	1.2	?	4.2	0.30	
20-11	44-11	회청색	17.6	2.0	?	13.6	?	
20-12	44-12	회청색	13.6	1.9	?	9.2	0.50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20-1	도기전면에 기포형성. 구순부 외반. 경부에서 구단부는 심하게 벌어짐. 구순부는 심하게 말아올려 깊은 홈줄이 형성됨. 속심은 황갈색.
20-2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속심은 연한 황갈색 계통. 구단부 하단이 삼각형으로 돌출되어 있다. 구순부 하단에는 2조의 침선대가 지나간다.
20-3	짧은 돌대가 구단부 하단과 구순부에 형성됨. 내면에 회색 슬립 형성.
20-4	구단부 하단이 턱이 지면서 뚜렷한 4조 돌대문 형성. 구순부 끝처리는 등글게 마감하였고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20-5	연질 계통. 구순부 평평하게 마감되어 있고, 내면에 회전흔이 관찰됨.

20-6	급하게 외반되는 구순부. 속심 기포형성. 황갈색.
20-7	낮은 구단부. 뚜렷한 구단부 3조 돌대선. 내외면에 회전흔. 속심은 황갈색.
20-8	동체에서 구단부 급하게 벌어짐.
20-9	좁은 3조 돌대선이 구단부에 형성됨. 구순부 둥글게 마감. 녹갈색 자연유가 입혀짐. 태토가 정선되지 못하며 내면이 일부 결손됨.
20-11	넓게 벌어진 반구부. 구순부 상면 중간에 1조 침선대. 내외면에 회전흔 관찰됨.
20-12	넓게 벌어져 나간 구연부.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함유됨.

4) D형

도 면 번 호	도 판 번 호	색 조	복 원 입지름	구단부 높 이	경 부 높 이	경 부 지 림	두 께	출 토 위 치
21-1	45-1	회청색	7.4	1.2	?	4.4	0.40	
21-2	45-2	회갈색	8.2	1.4	?	4.8	0.52	
21-3	45-3	회청색	7.6	1.8	2.6	5.2	0.50	
21-4	45-4	암갈색	8.2	1.8	2.0	4.4	0.40	
21-5	45-5	암갈색	9.0	1.6	?	5.2	0.45	
21-6	45-6	암갈색	9.8	1.4	?	5.2	0.50	
21-7	45-7	회청색	10.2	1.4	2.4	6.6	0.40	
21-8	45-8	회청색	12.0	1.8	?	7.8	0.50	
21-9	45-9	회청색	10.8	1.6	?	7.4	0.45	
21-10	45-10	명갈색	9.6	2.0	?	4.6	0.30	
21-11	45-11	암갈색	11.4	1.8	?	6.0	0.35	

암갈색 색조를 띤 도기편은 모두가 시유도기이다. 이들 도기편은 뚜렷한 4조 돌대로 구단부를 처리하였고 구순부는 평평하게 마감하였다. 도기 내외면에 회전흔이 모두 나타나며 도면 21-4만이 5조 돌대로 구단부를 만들었는데 구순부가 둥글게 마감되었고 구단 내면 턱이 깊게 만들어졌다. 도면 21-1과 21-11 도기편은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되었으며 구순부 상면에 1조 음각대가 지나간다.

5) 기타 瓶구연부

도면번호	도판번호	색 조	복원입지름	구단부높이	경부높이	경부지름	두 계
22-1	46-1	암갈색	9.0	1.4	?	5.2	0.5
22-2	46-2	회청색	8.9	1.4	?	5.9	0.5
22-3	46-3	회청색	11.6	2.0	?	8.2	0.9
22-4	46-4	녹갈색	9.0	0.8	2.1	7.8	0.5
22-5	46-5	회 색	5.4	1.2	?	3.2	0.4
22-6	46-6	회청색	10.6	1.0	?	7.6	0.5
22-7	46-7	회청색	6.2	0.9	?	5.1	0.8
22-8	46-8	명갈색	8.8	1.2	?	5.7	0.5
22-9	46-9	회청색	9.4	1.0	?	6.4	0.6
22-10	46-10	회청색	10.6	0.6	?	6.4	0.5
22-11	46-11	회청색	11.8	2.8	?	7.6	0.8

도면22-1은 구단부하단에 1조 음각대를 돌리고 밑단을 하강시켰으며 구단내면이 깊게 패이면서 홈이 형성되어 있다. 내외면이 고르게 정선되어 있고 경부상단에 회전흔이 관찰된다.

도면22-2는 구단내면으로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턱이 만들어져 있고 구단부외면은 중간에 1조 돌기대가 형성되어 있다. 내외면에 회전흔이 관찰된다.

도면22-3은 구순부는 둥글게 마감하여 돌출시켰고 구단부하단도 비스듬히 내려 돌출시켰다. 구단부중간에 2조 돌기대가 돌려져 있다. 석영, 장식, 운모편이 확인된다.

도면22-4는 구순부는 얇게 외반되고 내면은 비드듬히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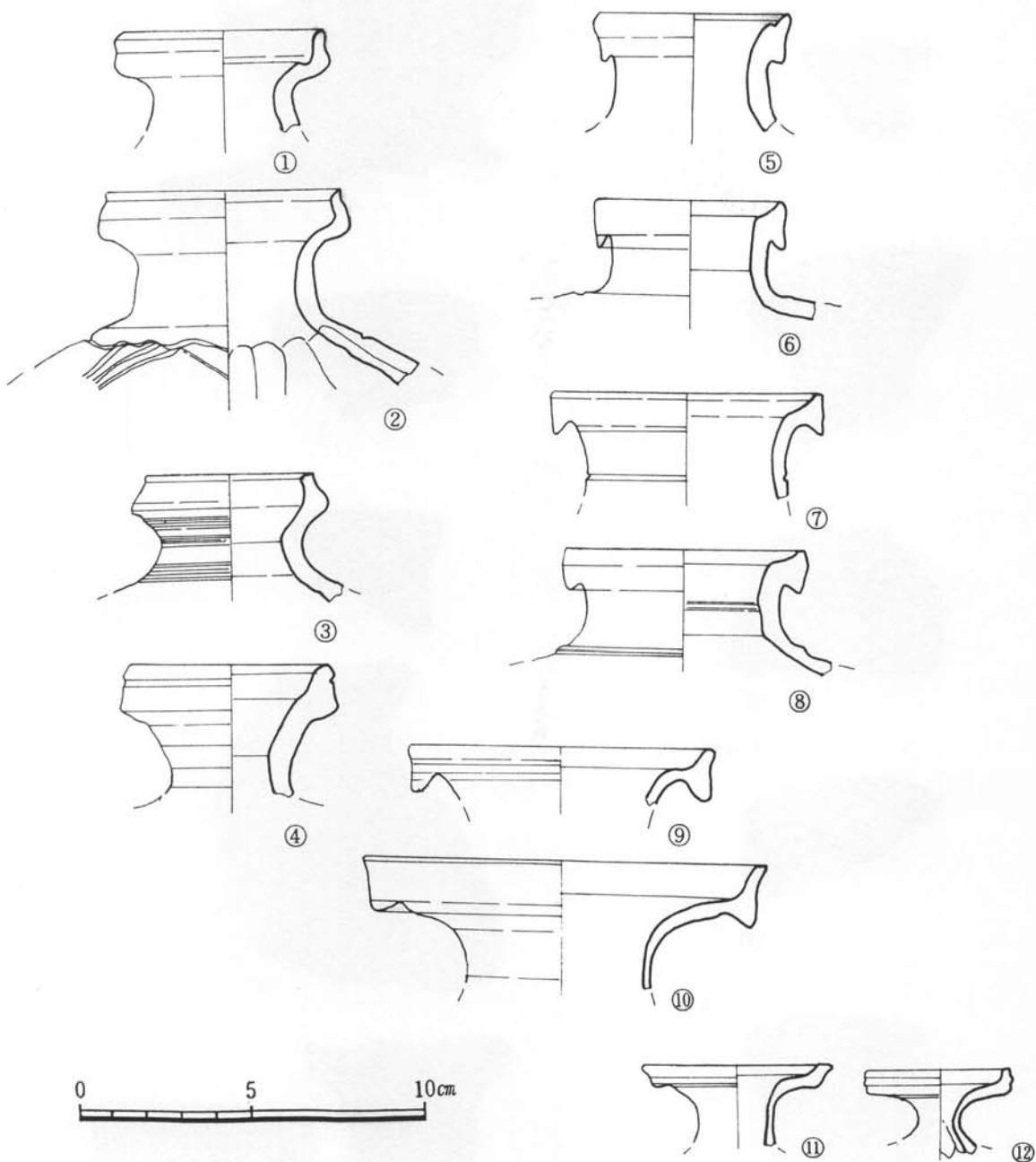
도면22-5는 홀구연 A-1과 유사한 형으로 구단부가 내반되면서 외면에 2조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고 구순부는 평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도면22-7은 구단부에 뚜렷한 3조 돌기대가 형성되어 있다. 도기 내외면에 회전흔이 뚜렷하고 외면에 흰 잿물이 흩어져 있다. 속심은 황갈색 색조를 띤다.

도면22-8은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고 가는 회전흔이 뚜렷하다. 구단부 내면턱은 부드럽게 처리되었고 구단부 외면에는 상하에 2조 침선대가 나선형으로 돌아간다. 속심은 황갈색조를 띤다.



사진36 단경병의 구연부 (1)



도면12 단경병의 구연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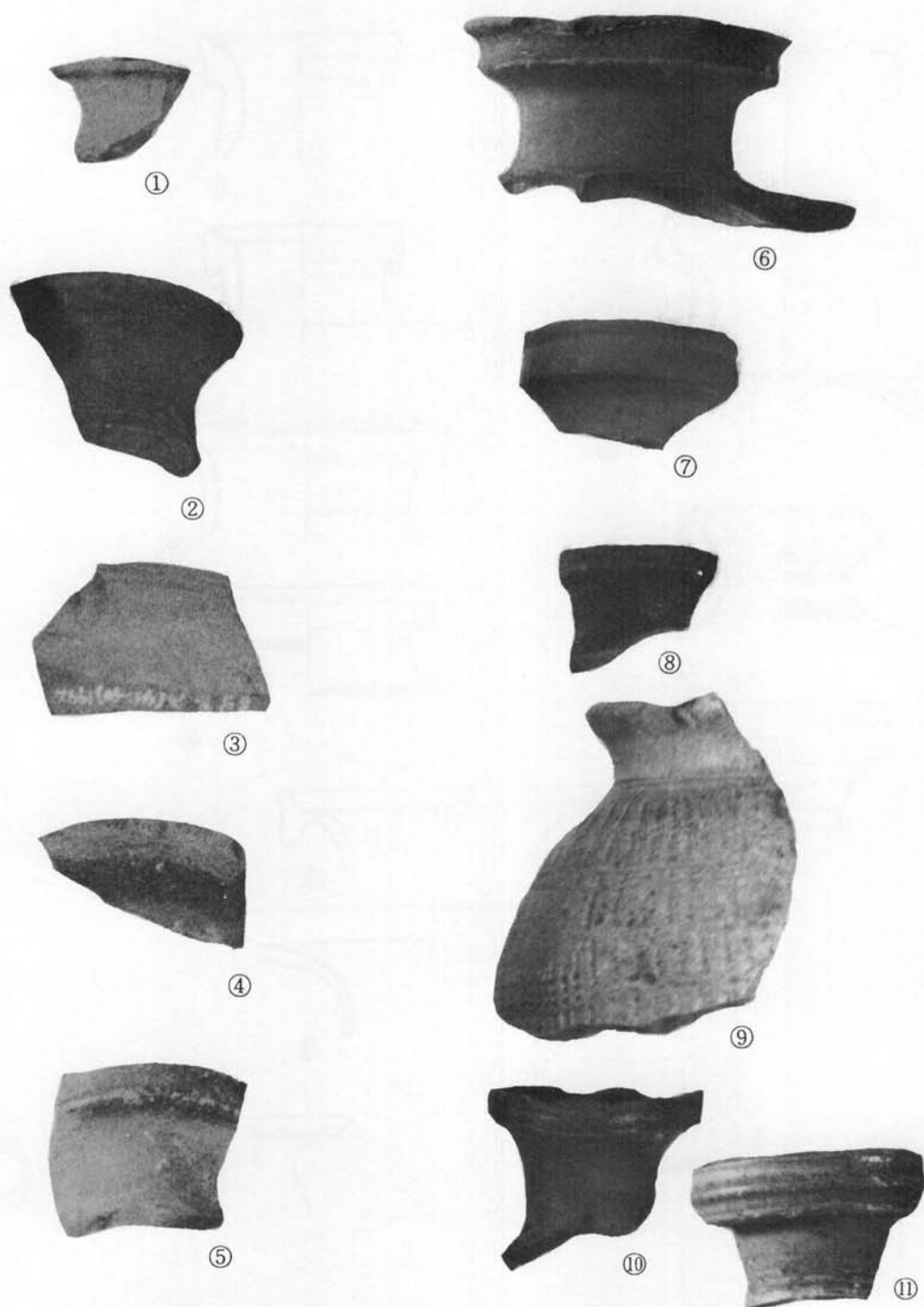


사진37 단경병의 구연부 (2)



도면13 단경병의 구연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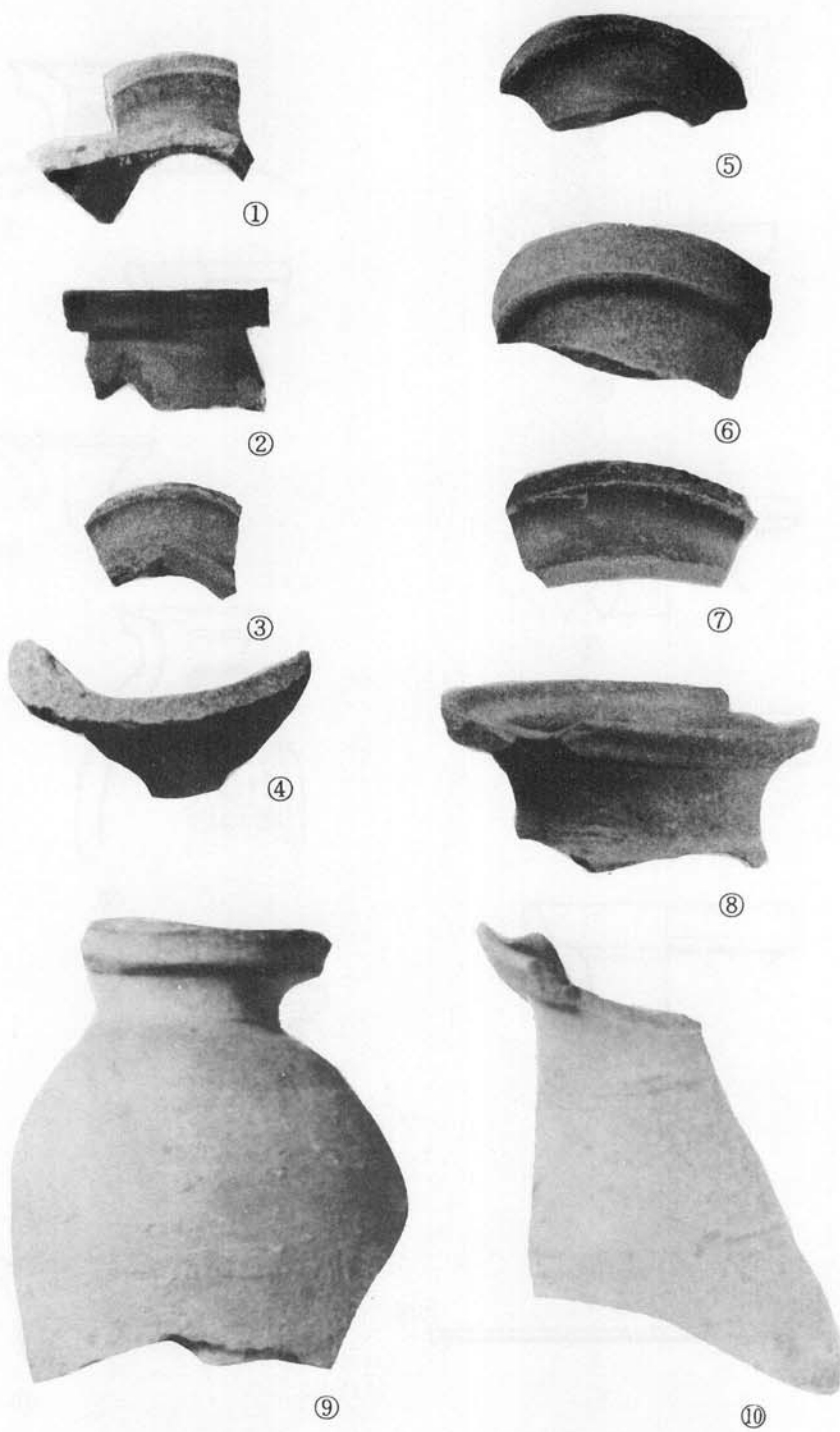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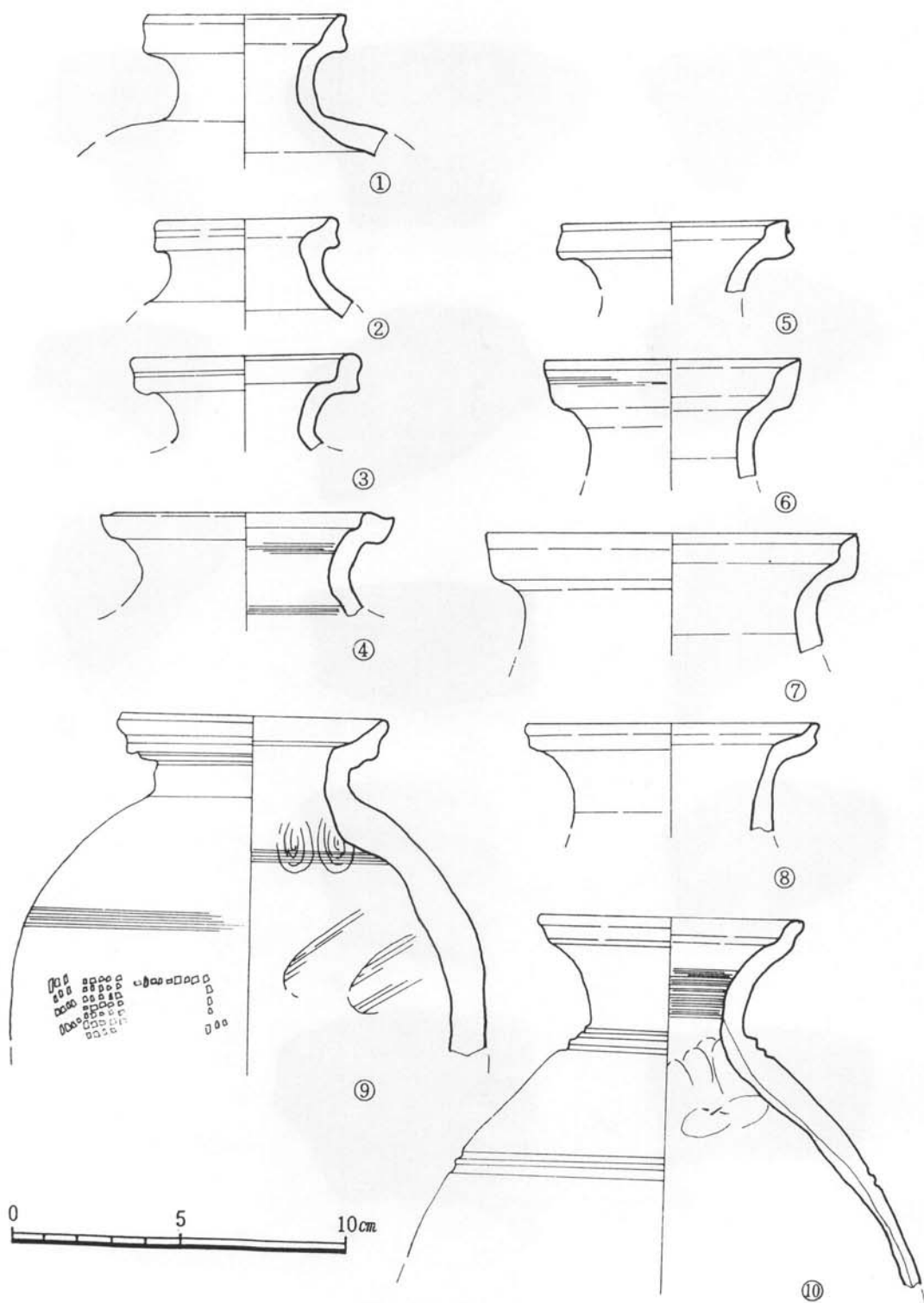


사진38 단경병의 구연부 (3)



도면14 단경병의 구연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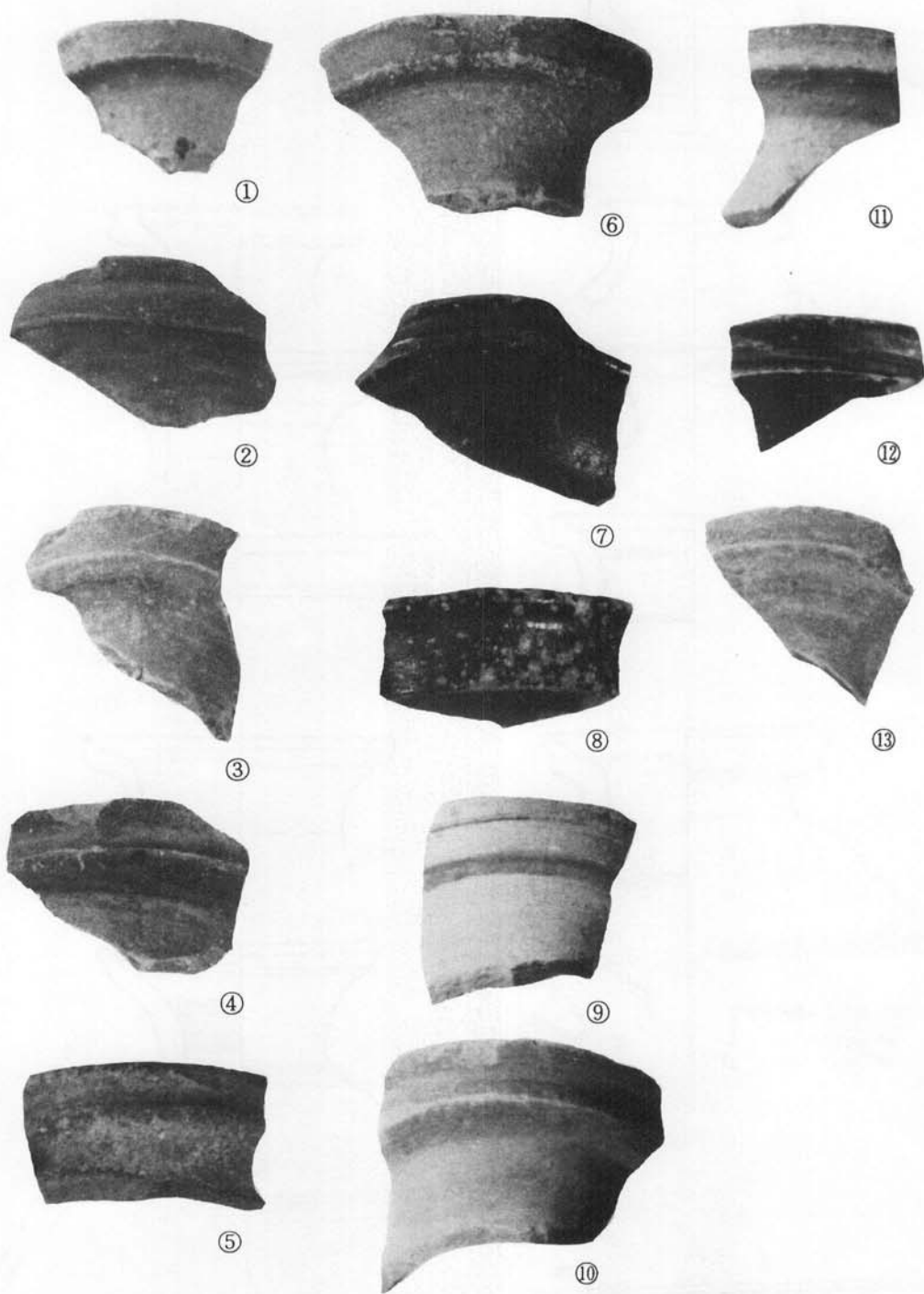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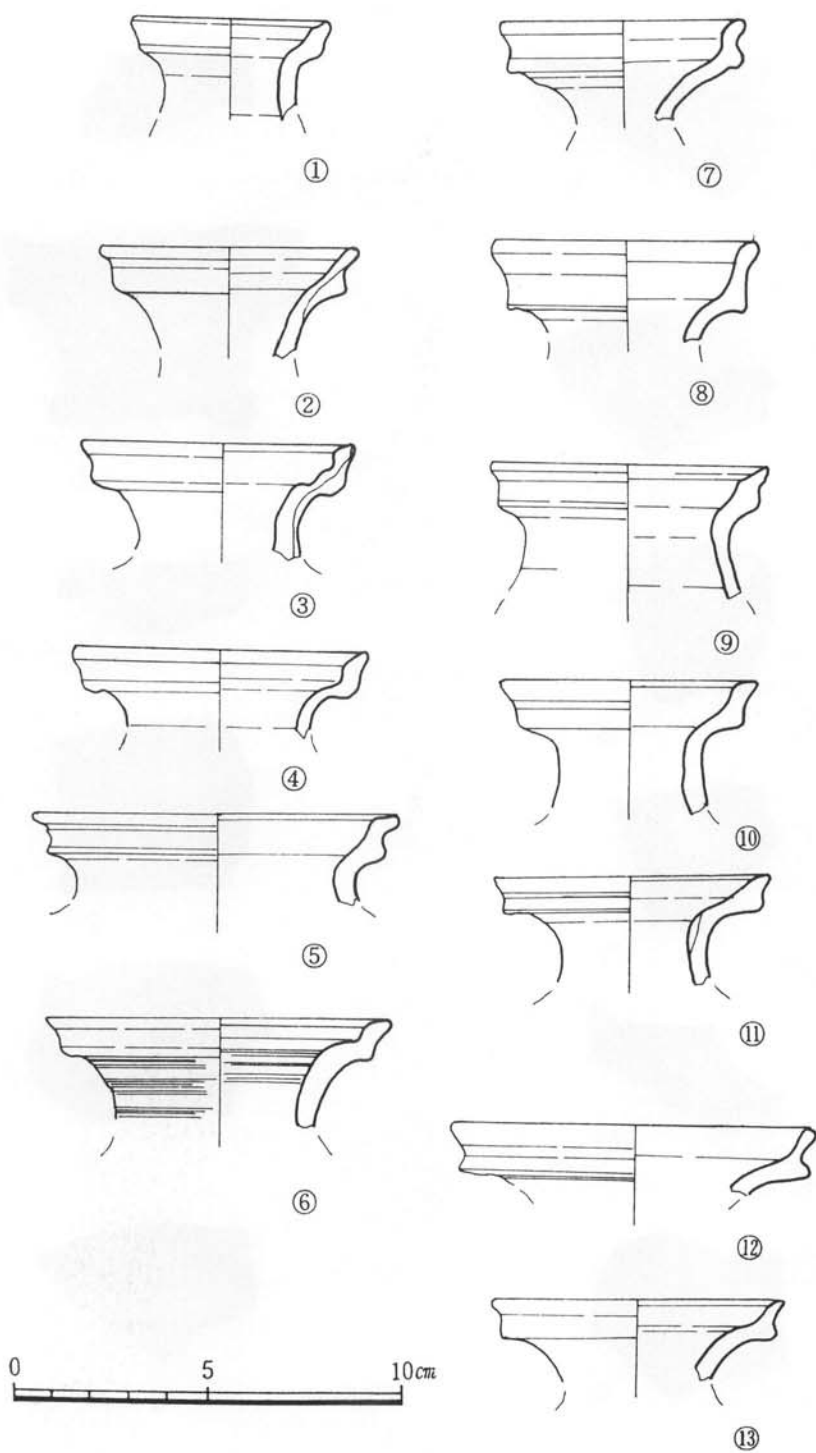


사진39 단경병의 구연부 (4)



도면15 단경병의 구연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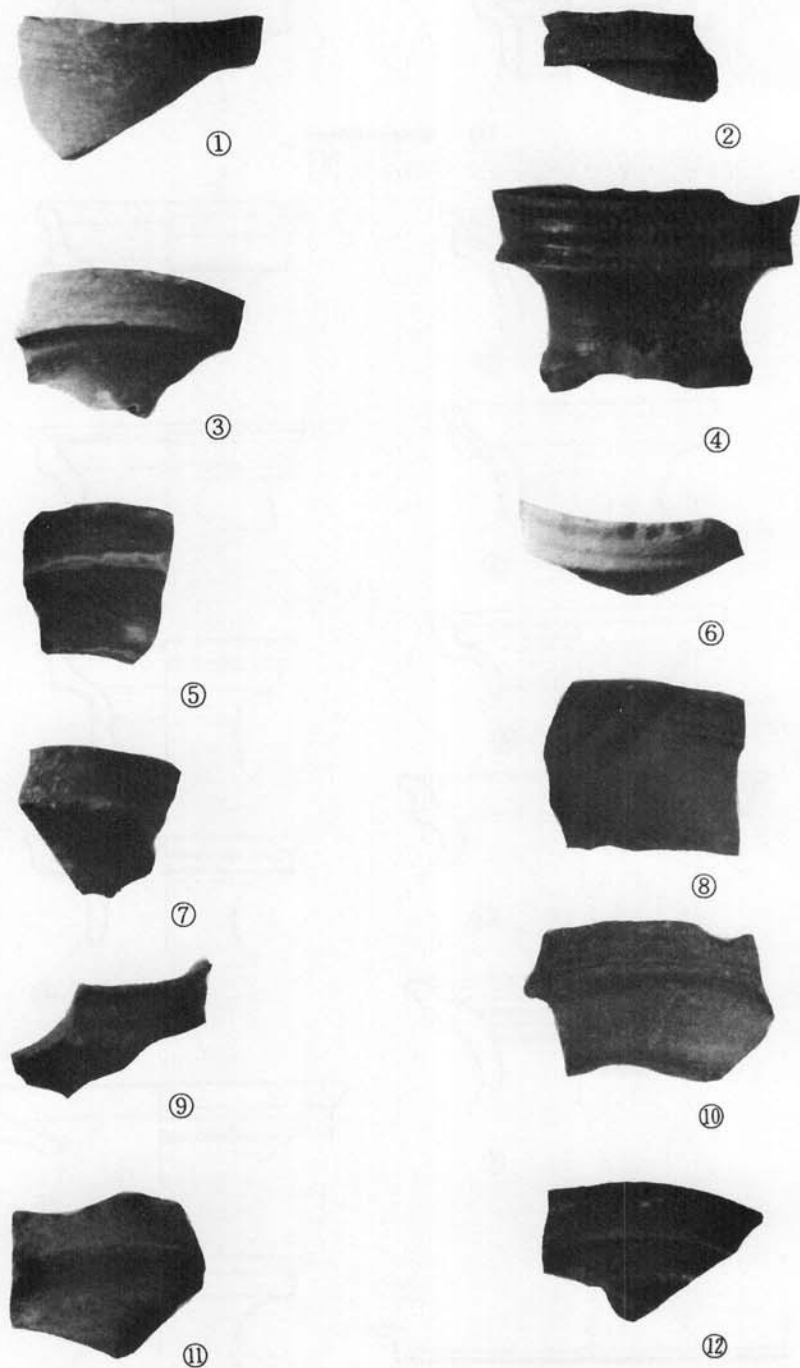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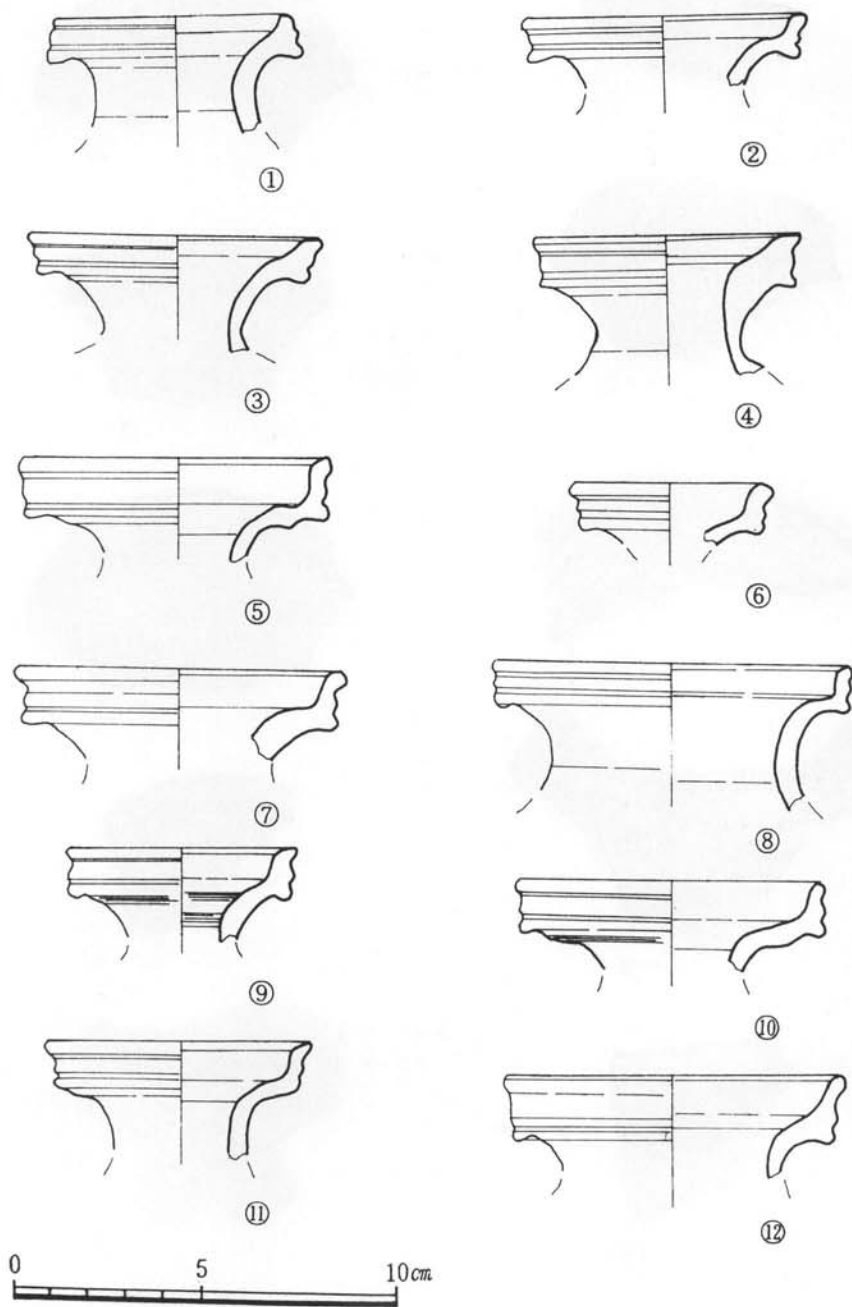


사진40 단경병의 구연부 (5)



도면16 단경병의 구연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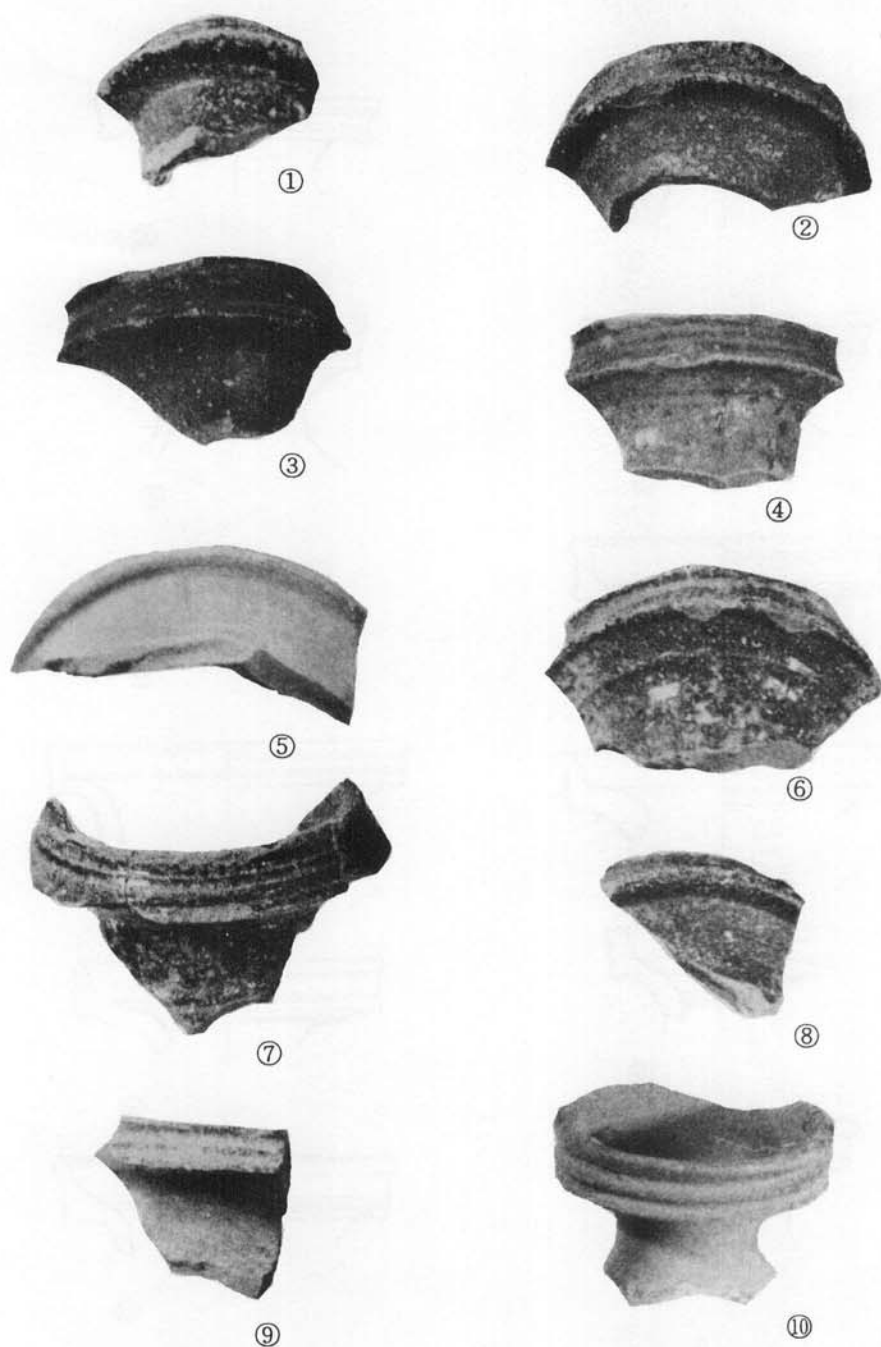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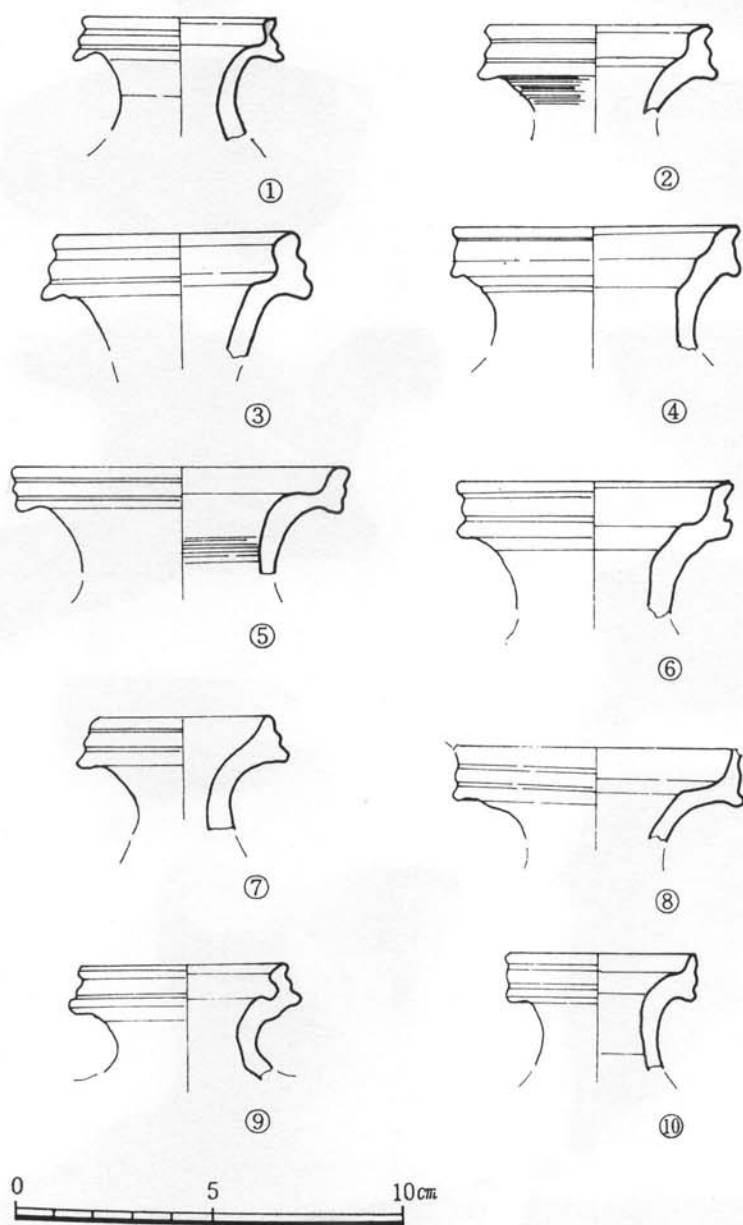


사진41 단경병의 구연부 (6)



도면17 단경병의 구연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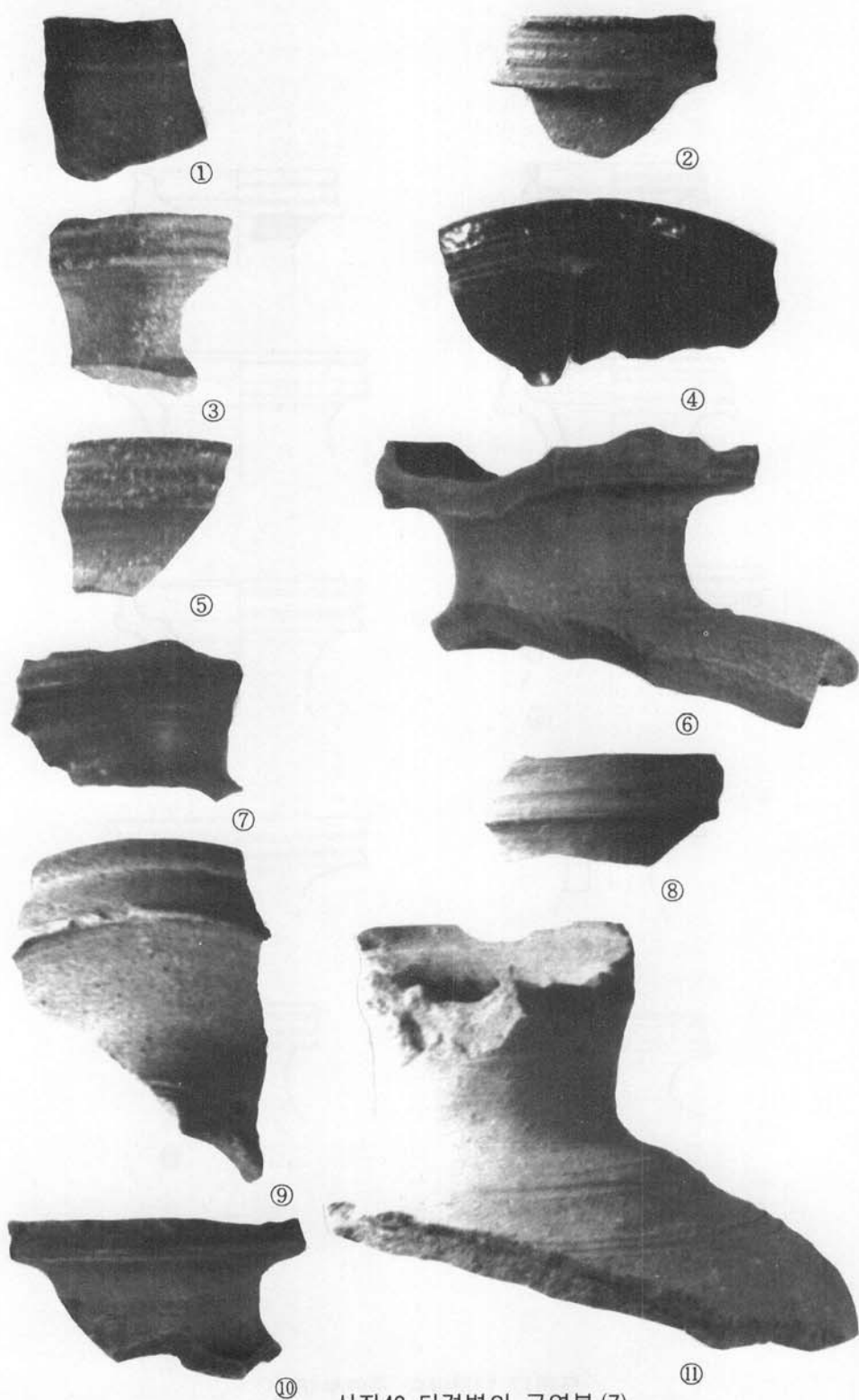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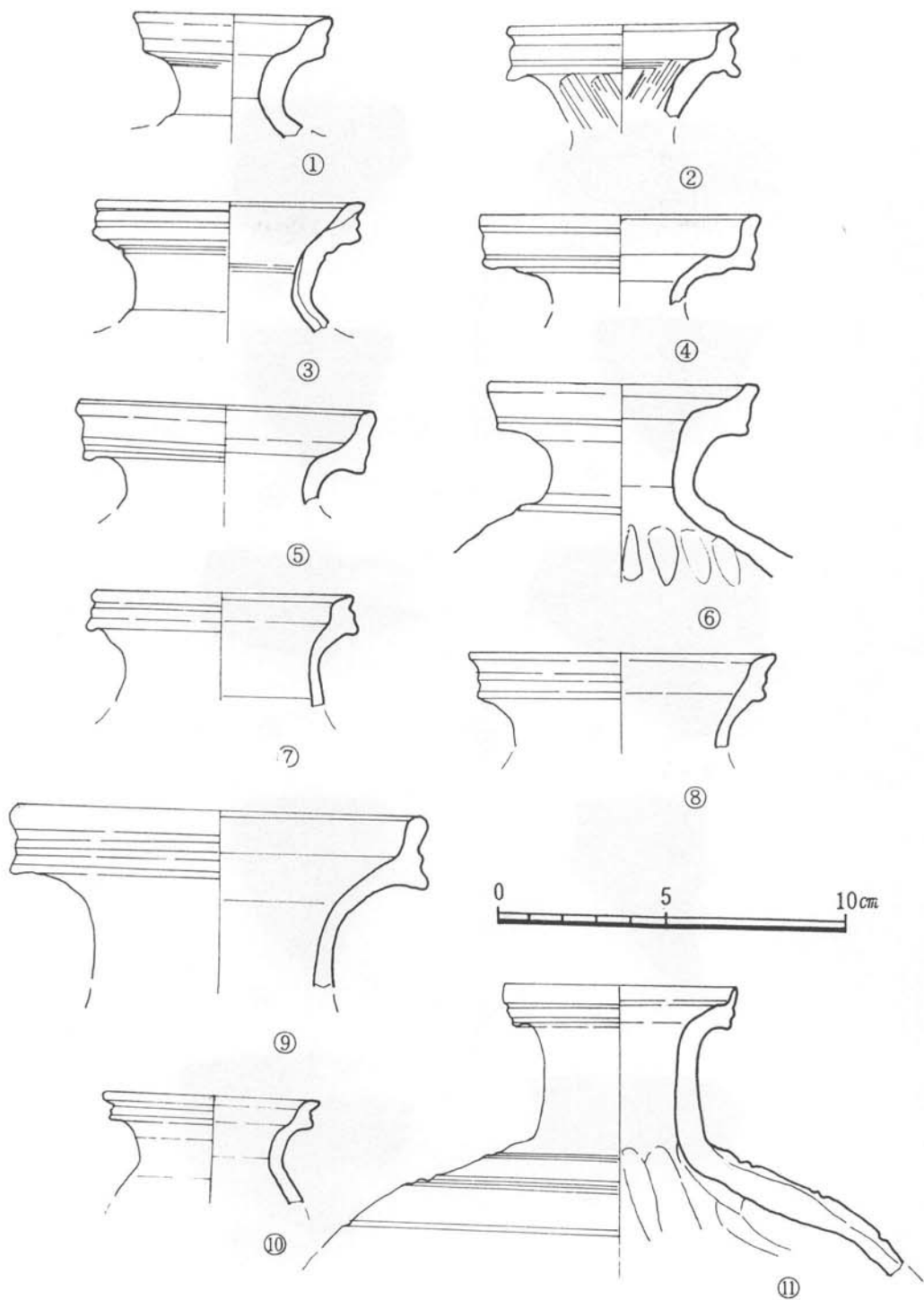


사진42 단경병의 구연부 (7)



도면18 단경병의 구연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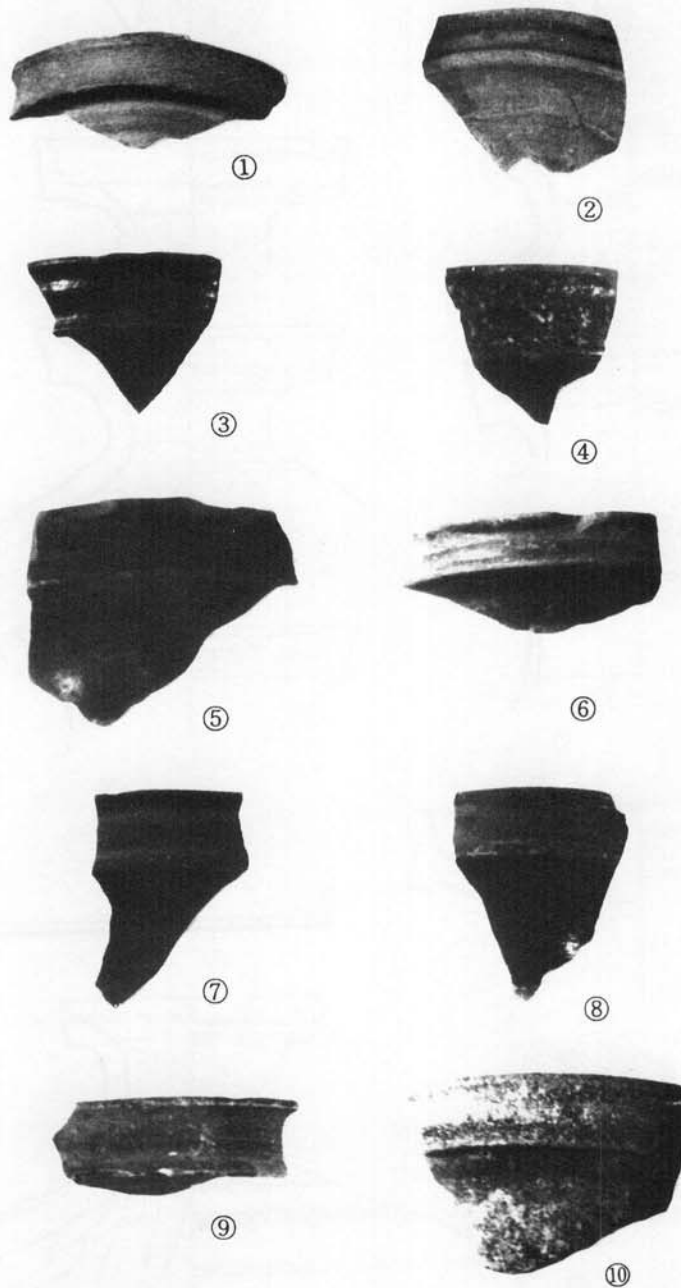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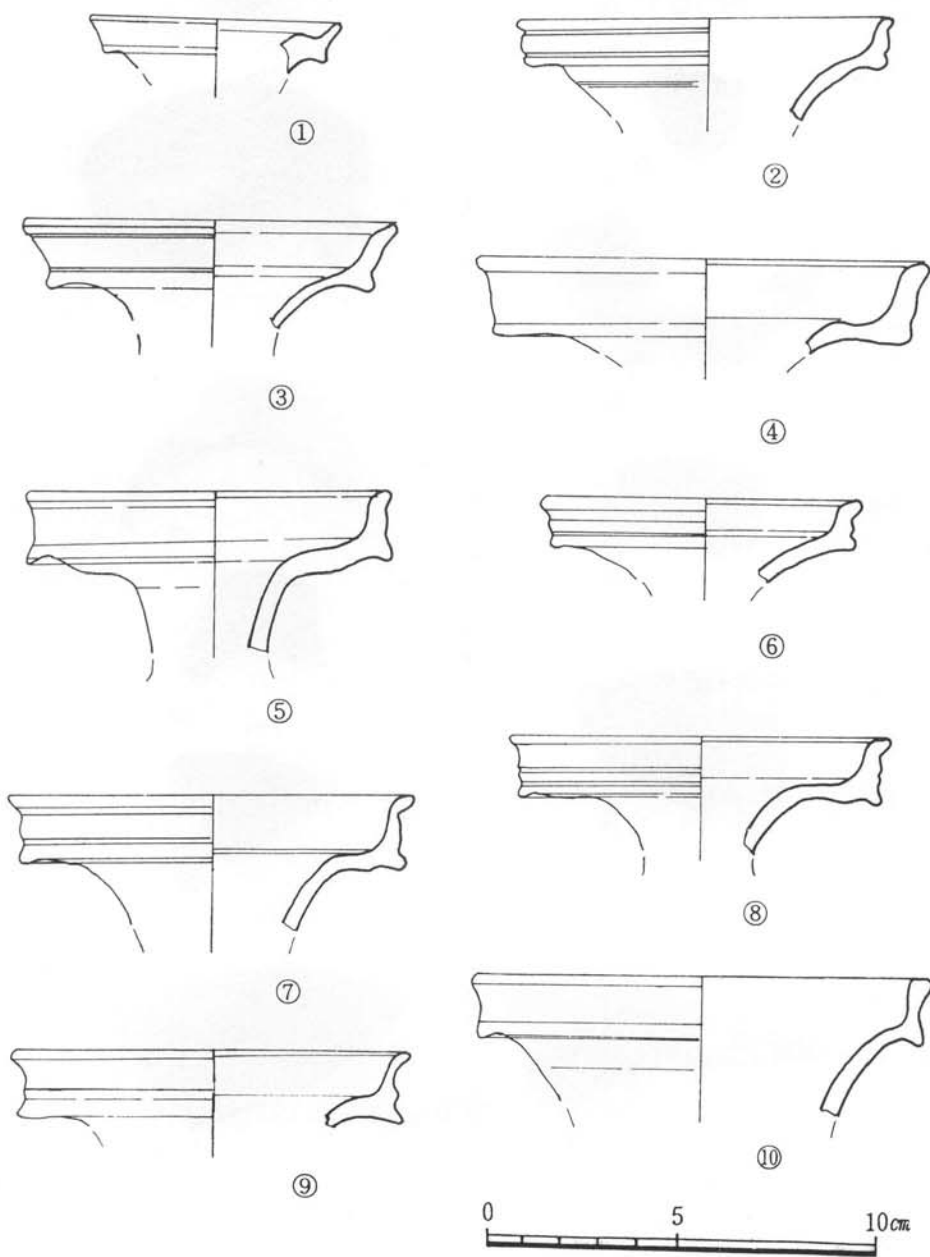


사진43 단경병의 구연부 (8)



도면19 단경병의 구연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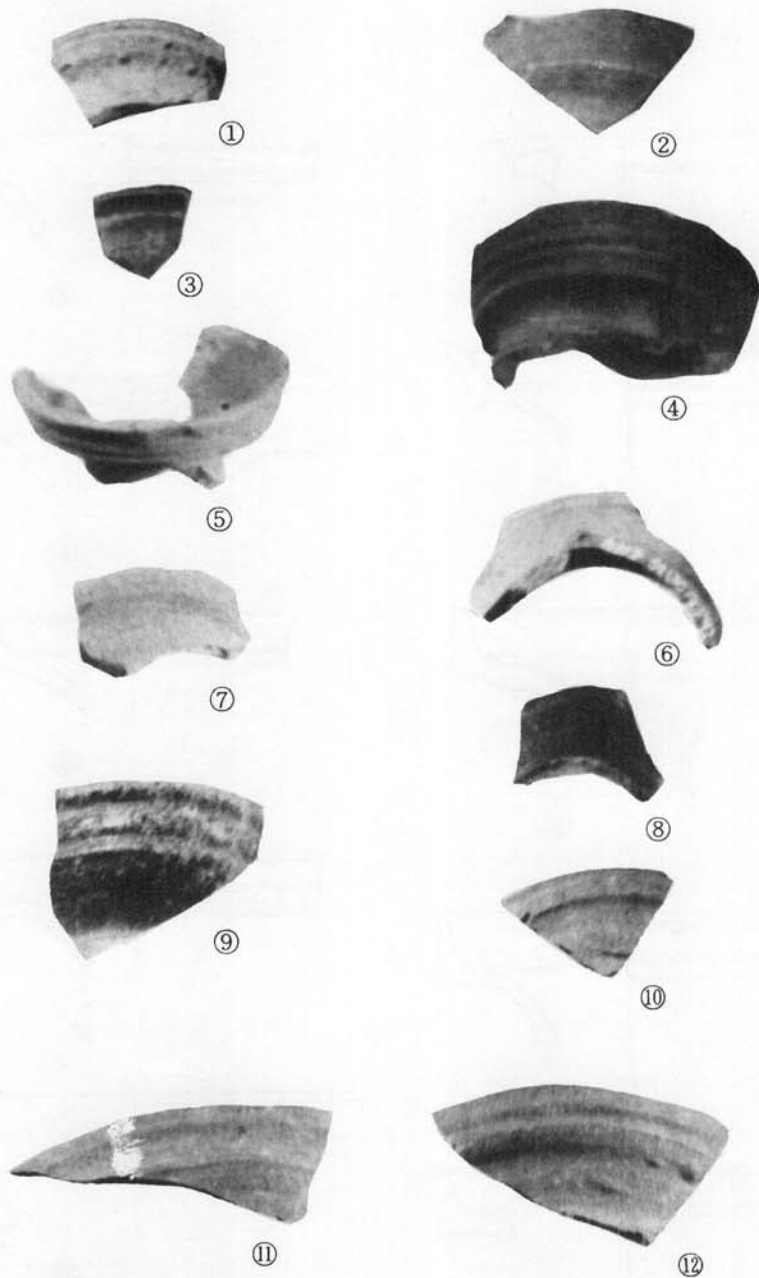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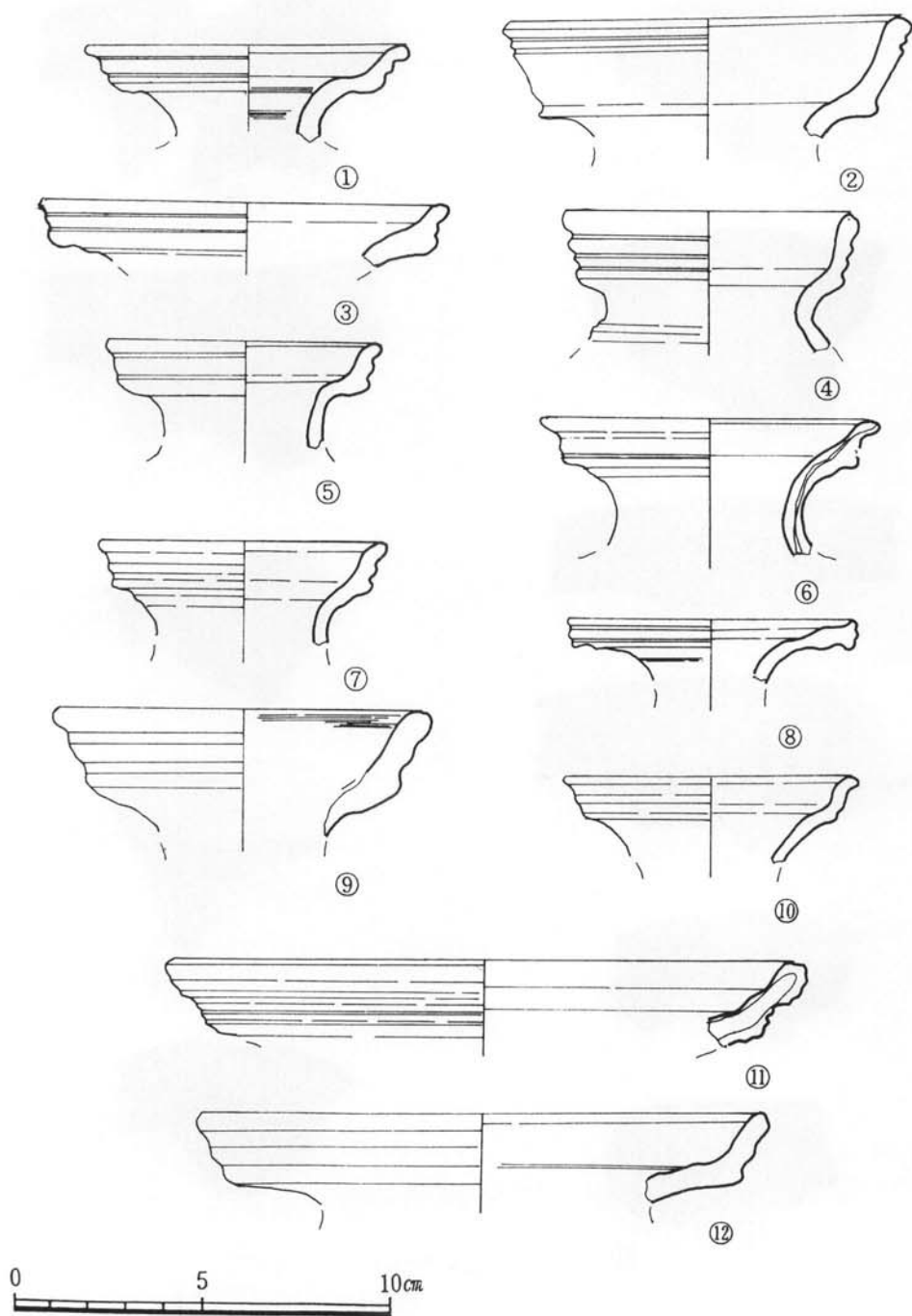


사진44 단경병의 구연부 (9)



도면20 단경병의 구연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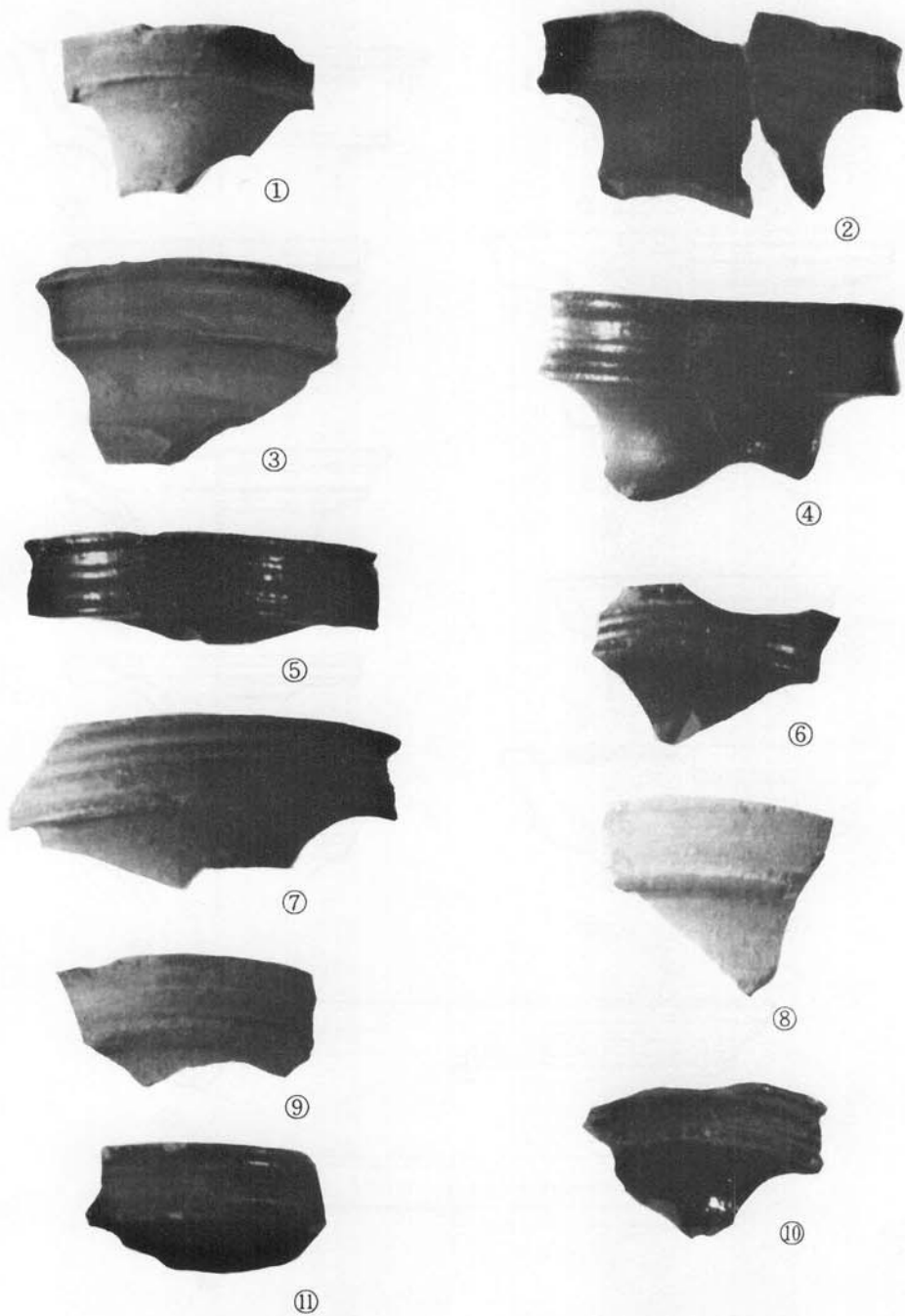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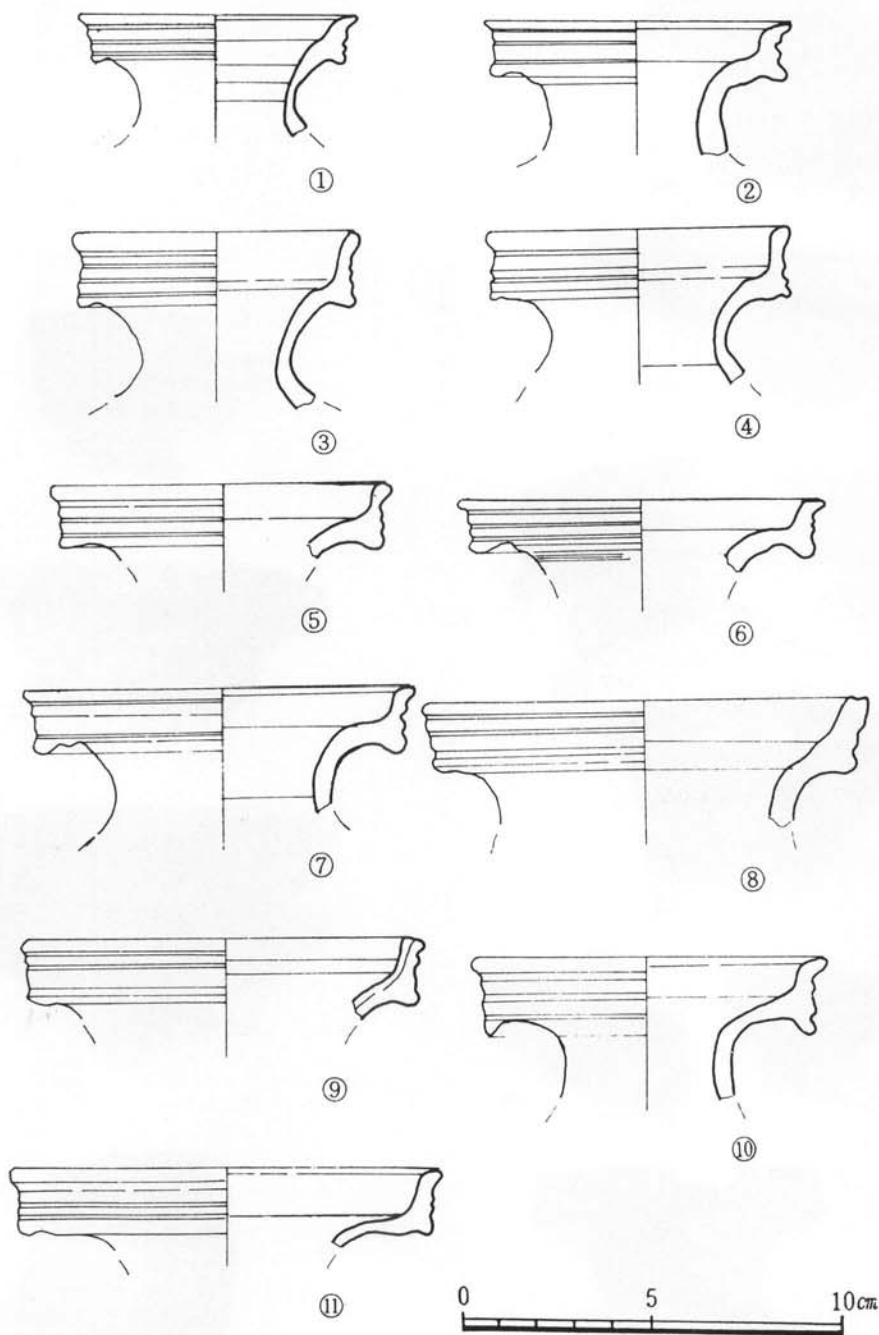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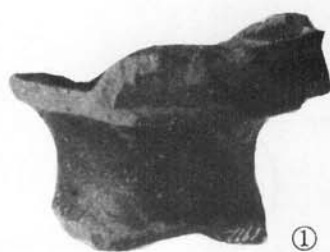


사진45 단경병의 구연부 (10)



도면21 단경병의 구연부 (10)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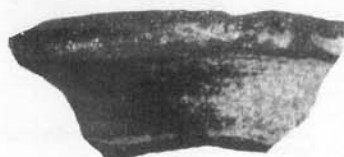
⑥



⑦



⑧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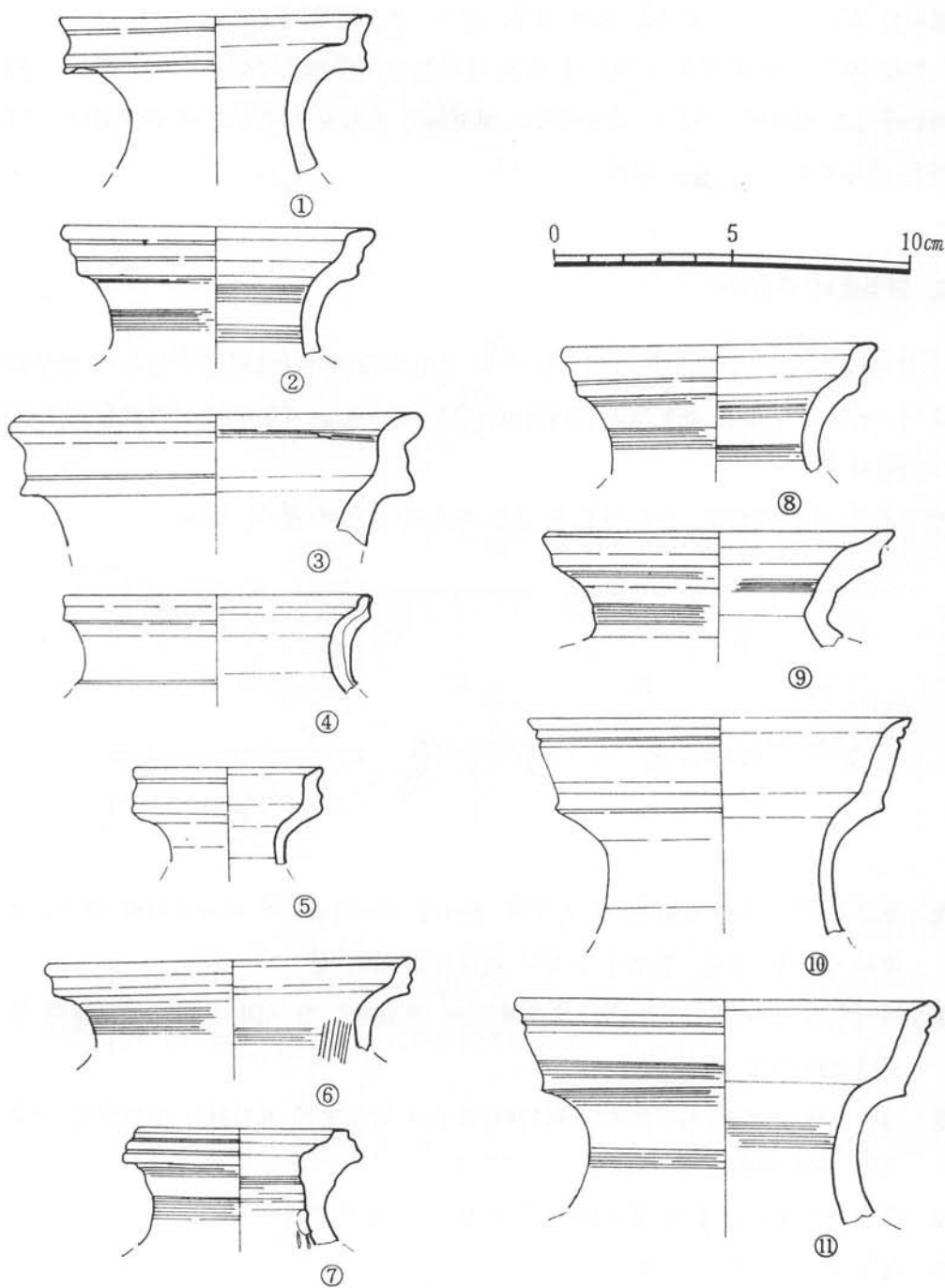


⑩



⑪

사진46 단경병의 구연부 (11)



도면22 단경병의 구연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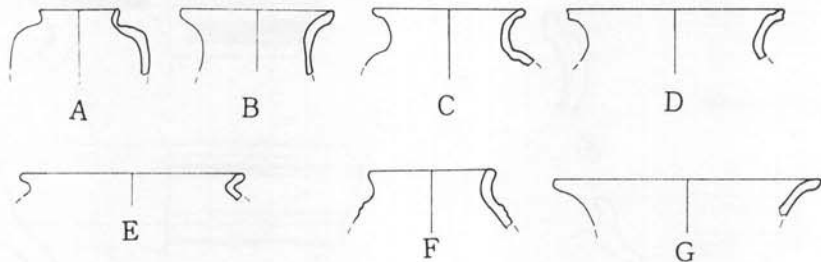
도면22-9는 도기 내외면에 흰 잿물이 입혀져 있고 경부가 외반되면서 미미한 반구부가 형성되어 있다. 속심은 갈색을 띠며 석영, 장석, 운모편이 혼입되어 있다.

도면22-10은 나팔형 경부가 이어져 높은 구단부를 이루며, 구단부는 외반된다. 구단부 하단에 1조 침선대, 구순부 하단에 2조 침선대가 뚜렷하며 회전흔이 관찰된다. 구단 내면은 부드럽게 턱을 지며 내려가고 있다.

3. 단경호의 구연부

우선 단경호의 분류기준을 크게 1) 목의 길이가 5cm미만이고 2) 구단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세경되지 않은 유형으로 3) 10cm미만의 입지름을 가진 그릇아가리를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단경호의 경부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형 : 경부가 직각으로 올라간 형. 경부의 높이가 1cm미만이며 백제초기의 직구단경호와 유사한 형태. 건부가 그릇의 최대폭을 이룬 형.

B형 : 직각으로 올라가던 경부가 구순부에 와서 외반되는 형. 일반적으로 웅형태의 구연에 나타나는 형.

C형 : 광견상의 어깨에 직각으로 올라가던 경부가 순부에서 외반되는 일반적인 단경호의 구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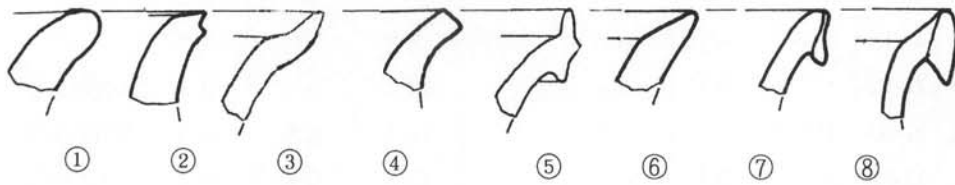
D형 : 구순부에 1단 홈줄이 형성되어 있고 경부가 '('로 이루어진 형.

E형 : 경부가 '〈'로 꺾이는 형.

F형 : 동체에서 경부로 완만하게 올라오던 기벽이 구연부에 와서 비스듬히 외반되는 형.

G형 : 건부에서 경부로 급격히 꺾이며 경부가 45도 이상 벌어진 형.

단경호류의 순부 형태는 대략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둥글게 마감.
- ② 1조 침선대 형성, 둥글게 마감.
- ③ 2조 침선대 형성, 둥글게 마감.
- ④ 경부에서 벌어져 순부에 와서 각지게 마감.
- ⑤ 1조 돌대 형성, 둥글게 마감.
- ⑥ 얇게 마감.
- ⑦ 구순부 성형을 점토띠를 말아 둥글게 환띠를 두른 형으로 순부를 오목하게 처리.
- ⑧ 구순부 성형을 점토띠를 말아 둥글게 환띠를 두른 형으로 순부를 볼록하게 처리.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께	기벽두께	출토위치
23-1	47-1	녹갈색	B④	8.3	?	6.8	0.8	0.6	N70L40-45
23-2	47-2	회청색	B①	10.2	?	7.4	0.8	0.5	
23-3	47-3	회청색	B①	14.6	?	11.2	0.8	0.6	
23-4	47-4	회 색	B①	8.6	?	5.4	0.7	0.8	
23-5	47-5	회청색	B①	12.0	?	9.8	0.5	0.5	
23-6	47-6	암갈색	B①	12.0	?	9.2	0.9	0.4	N21L40-45
23-7	47-7	암갈색	B①	8.0	?	6.4	?	0.8	N50L20-25
23-8	47-8	회청색	B②	11.0	?	8.2	0.6	0.8	
23-9	47-9	회 색	B②	12.8	?	10.2	1.0	0.5	
23-10	47-10	회청색	B①	7.8	?	5.8	0.6	0.5	
23-11	47-11	회청색	B②	11.0	?	8.9	0.8	0.6	
23-12	47-12	회 색	B②	12.4	?	8.8	0.6	0.6	N18L20-30
23-13	47-13	황갈색	B①	10.2	?	8.8	0.8	0.7	
23-14	47-14	회 색	B①	11.4	?	10.0	1.2	0.6	
23-15	47-15	회청색	A①	4.0	0.7	3.8	0.2	0.4	
									N63L20-30

23-16	47-16	회청색	B①	12.4	?	10.6	0.8	0.9	
23-17	47-17	회청색	B①	9.8	?	9.4	0.5	0.5	
23-18	47-18	회청색	A①	8.0	?	8.2	?	0.5	
23-19	47-19	회 색	B①	15.4	?	13.1	0.7	0.4	N25L20-25
23-20	47-20	회청색	B①	13.0	?	10.5	0.8	0.5	N26L20-25
23-21	47-21	회청색	B①	16.8	?	13.8	0.6	0.7	N45L40-45

도면 23-15, 23-18을 제외한 나머지 구연은 모두 B형에 속한다. 태토에 석영과 장석, 운모가 함유된 도기편은 도면 23-1, 23-3, 23-7, 23-9, 23-13, 23-14 도기편이 이에 속한다. 회색연질도기는 도면 23-14, 23-19이며 시유도기는 도면 23-7 도기이다. 도면 23-12 도기 구연부는 벌어지는 각도가 심하고 내면 턱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도면 23-3의 도기는 경부에 사선연속원문이 찍혀 있다.

도면 23-15, 23-18 직구단경호는 모두 소형 향아리편이다. 도면 23-15 도기는 회색자 연유가 입혀져 있고 도면 23-16 도기는 견부에 밀집파상선문과 파상선 아래로 1조 침선 대가 만들어졌으며 내면에는 잔 대칼로 견부를 돌린 흔적이 남아 있다.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 계	기벽두께	출토위치
24-1	48-1	회 색	D①	10.4	1.4	8.2	0.8	0.6	
24-2	48-2	명갈색	D④	14.6	3.0	11.4	0.7	0.6	
24-3	48-3	회청색	D②	14.0	3.4	9.2	0.6	0.6	26(30-35)
24-4	48-4	회청색	C②	12.4	2.4	9.9	0.6	0.4	
24-5	48-5	회청색	C②	10.2	1.8	7.8	0.6	0.4	63(30-40)
24-6	48-6	회청색	D①	14.4	3.1	9.0	1.0	1.0	25(25-30)
24-7	48-7	회청색	D①	11.0	?	9.2	0.7	0.3	
24-8	48-8	암청색	C①	12.6	2.9	8.0	0.6	0.5	
24-9	48-9	회청색	C①	12.2	?	9.9	0.9	0.6	
24-10	48-10	암청색	D③	14.2	?	10.5	0.8	0.7	
24-11	48-11	회청색	D①	11.6	2.6	9.4	0.8	0.8	
24-12	48-12	회청색	D①	12.8	?	9.4	0.8	0.7	
24-13	48-13	회청색	D①	11.6	?	9.2	0.6	0.4	

24-14	48-14	회청색	D②	11.4	2.0	8.8	0.8	0.5	
24-15	48-15	회청색	D①	10.6	?	7.8	0.5	0.3	
24-16	48-16	회 색	D⑤	17.2	?	14.0	1.4	0.6	

도면 24-1, 24-16 도기는 회색연질도기편이다. 전반적으로 도기내면에 회전흔이 남아 있고 도면 24-5 도기는 파상선이 견부중앙에 시문되어 있다.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확인되는 도기는 도면 24-12 도기이다.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견부높이	견부지름	구순부 두께	기벽두께	출토위치
25-1	49-1	회청색	C①	10.8	1.6	8.0	0.6	0.5	63(30-40)
25-2	49-2	담녹색	D②	12.6	?	9.4	0.8	0.4	20(30-35)
25-3	49-3	회청색	D①	11.2	3.1	7.3	0.6	0.6	
25-4	49-4	회청색	D④	14.4	?	12.2	0.9	0.7	18(20-25)
25-5	49-5	담갈색	D①	13.2	?	8.5	0.7	0.5	20(20-30)
25-6	49-6	회청색	D①	14.6	2.4	14.4	0.6	0.6	70(40-50)
25-7	49-7	회청색	F①	9.6	0.7	8.6	0.8	0.6	1991년 Testpit(A)
25-8	49-8	흑갈색	C①	14.4	2.0	9.8	0.9	1.6	-
25-9	49-9	명갈색	C⑥	11.0	2.5	8.8	0.2	0.7	-
25-10	49-10	회청색	C①	13.4	1.6	11.2	0.9	0.4	-
25-11	49-11	회청색	C⑥	8.2	2.8	6.0	?	0.3	-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 등이 함유된 도기편은 도면 25-4, 25-6 도기편이다. 도면 25-4도기는 견부에 2조의 침선대가 둘러지고 견부와 견부경계선에 1조 돌대문이 형성되어 있다. 도면 25-5도기는 순부 바로 밑으로 음각대가 돌아가고 견부경계선에 1조 돌대선, 그리고 견부에 수레질한 사내기무늬가 확인된다. 도면 25-9 도기는 견부 중앙에 1조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고 내면에 회전흔이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도면 25-8 도기는 기포가 심하게 형성되어 있다. 도면 25-11 도기는 견부에 4조 파상선문이 음각되었고 견부경계와 견부에 1조 돌대문과 음각대가 시문되어 있다.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 겹	기벽두께	출토위치
26-1	50-1	회청색	G⑦	16.0	?	12.5	0.6	0.6	63 (30-40)
26-2	50-2	회청색	C④	13.2	0.9	12.2	0.4	0.6	
26-3	50-3	담청색	G②	14.8	?	10.3	0.8	0.5	
26-4	50-4	담갈색	G⑤	14.2	?	9.8	0.9	0.6	20 (30-40)
26-5	50-5	담갈색	G②	16.2	?	12.6	1.0	0.4	
26-6	50-6	담갈색	C②	16.2	?	12.2	1.1	0.6	18 (25-30)
26-7	50-7	회 색	G④	16.2	?	11.5	0.9	0.6	
26-8	50-8	담갈색	D②	16.6	?	12.2	1.0	0.4	
26-9	50-9	회 색	C⑦	13.8	?	9.8	1.2	0.6	62 (20-30)
26-10	50-10	녹갈색	D⑧	16.6	?	12.8	1.0	0.7	
26-11	50-11	담갈색	G②	18.0	?	12.4	1.0	0.5	55 (20-30)
26-12	50-12	담갈색	D②	15.8	?	12.8	0.8	0.5	
26-13	50-13	회청색	B②	16.2	?	13.2	0.6	0.6	21 (30-40)
26-14	50-14	회청색	D⑦	16.4	?	13.0	1.0	0.4	
26-15	50-15	담갈색	G①	14.6	?	9.6	0.9	0.8	64 (20-30)
26-16	50-16	담갈색	D②	15.2	?	12.0	0.6	0.5	
26-17	50-17	담갈색	G②	18.4	?	12.9	0.8	1.0	50 (20-30)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26-1	구순부는 감아서 내려 돌대를 형성. 석영, 장석, 운모가 태토에 함유됨. 자연유 시유.
26-2	구순부 밑에 얇은 1조 침선대.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편 함유. 회전흔 관찰됨.
26-3	자연유 시유. 구순부 내부 하단에 1조 침선대 형성.
26-6	자연유. 구순하단 턱 돌출.
26-8	구순내부 하단에 깊은 1조 침선대 형성. 회전흔.
26-9	구순부 하단 턱 돌출. 회전흔.
26-10	시유 도기. 뚜렷한 회전흔.

26-12	구순부 상단 턱 돌출. 내부에 기포 형성.
26-13	구순부 등글게 말아서 점토띠 형성.
26-15	경부 중간부분을 따로 만들어 부착한 접합 흔적 관찰됨.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 겹	기벽두께	출토위치
27-1	51-1	암갈색	C①	15.0	?	11.7	0.7	0.6	18 (20-30)
27-2	51-2	암갈색	B①	17.6	?	15.1	0.9	0.5	
27-3	51-3	회청색	D①	15.4	?	12.0	0.8	0.6	
27-4	51-4	회청색	B⑧	16.8	?	12.8	0.6	0.4	
27-5	51-5	회청색	B①	16.4	?	14.0	0.7	0.5	50 (40-45)
27-6	51-6	회 색	B②	16.6	?	13.3	0.9	0.6	53 (25-30)
27-7	51-7	암갈색	D⑧	15.2	1.5	12.3	0.7	0.3	20 (30-40)
27-8	51-8	담녹색	D①	17.6	?	14.3	0.8	1.0	69 (30-40)
27-9	51-9	회청색	F⑧	16.2	?	14.6	0.8	0.5	
27-10	51-10	암갈색	E④	15.2	?	13.6	0.6	0.7	
27-11	51-11	회청색	G②	17.6	?	13.8	0.9	0.8	
27-12	51-12	회청색	D①	18.0	?	14.8	0.8	1.0	20 (30-40)
27-13	51-13	암갈색	D②	14.0	?	10.4	0.8	1.0	
27-14	51-14	암갈색	D②	18.4	?	14.6	0.7	0.6	
27-15	51-15	암갈색	D②	16.6	?	13.2	0.6	0.4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27-1	시유도기. 기포형성. 태토 불량.
27-2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 확인됨. 내면에 잿물 형성.
27-3	경부에 상하 빗질 흔적 관찰됨.
27-4	구순부를 말아서 점토띠를 만듦.
27-5	순부 하단에 1조 음각선이 지나감.
27-6	회색연질도기.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 확인됨. 경부 외면에 2조 침선대 형성.

27-7	시유 도기. 구순부를 말아서 점토띠를 만들고 돌출시킴. 태토정선.
27-8	자연유. 구순부 내면에 1조 침선대 형성.
27-9	구순부 점토띠 형성.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 확인됨.
27-10	구순부내부에 음각대 형성.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 확인됨.
27-11	회청색연질도기. 구순부를 날카롭게 처리. 구순부 내부에 넓은 침선대가 형성됨.
27-12	구순부단에 깊은 1조 침선대 형성. 내면에는 깊은 턱 형성.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편이 확인됨.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 겹	기벽두께	출토위치
28-1	52-1	회 색	G④	17.4	0.6	15.8	0.4	0.5	
28-2	52-2	암갈색	G③	20.0	?	15.0	1.0	0.7	53(20-30)
28-3	52-3	회청색	G②	14.4	?	11.0	0.8	0.4	64(25-35)
28-4	52-4	회청색	G②	17.8	?	11.7	0.8	0.5	18(20-30)
28-5	52-5	암갈색	D①	16.2	?	13.6	0.8	0.6	
28-6	52-6	회청색	B②	20.4	?	19.0	0.8	0.67	77(30-40)
28-7	36-7	암갈색	G②	16.6	?	13.4	0.9	0.3	18(30-40)
28-8	36-8	암갈색	B①	17.2	?	13.8	0.7	0.4	
28-9	36-9	회 색	G④	24.2	?	19.4	1.0	0.7	18(20-30)
28-10	36-10	회청색	G②	23.2	?	18.9	0.9	0.7	76(35-40)
28-11	36-11	회 색	G②	21.6	?	16.4	1.2	0.9	18(25-40)
28-12	36-12	회청색	G②	22.6	?	17.6	0.8	0.6	77(40-50)
28-13	36-13	회 색	G④	23.6	?	18.3	0.8	0.5	77(30-40)
28-14	36-14	회 색	G①	31.0	?	25.6	1.3	1.0	20(20-30)

입지름이 15cm 이상되는 도기편인 경우 대형 용이나 호일 가능성이 짙다. 도면 28-1, 28-6, 28-9, 28-11, 28-14, 28-15는 회색연질도기이다. 이 도기는 태토에서 장식편이 관찰되며 내외면에 회전흔이 보인다. 도면 28-5 도기는 암갈색 자연유가 시유되어 있고 구순형태 ②에 해당하며 대부분 회청색색조를 띠며 입지름이 넓다.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께	기벽두께	출토위치
29-1	53-1	회 색	C①	16.4	3.6	13.8	0.6	0.8	18(20-30)
29-2	53-2	회청색	D①	11.0	3.4	9.2	0.7	0.6	
29-3	53-3	회청색	D①	14.3	3.4	11.4	0.7	0.8	
29-4	53-4	황갈색	F①	13.2	1.8	11.4	0.6	0.7	
29-5	53-5	회청색	C④	16.6	5.4	11.2	1.2	1.0	26(25-30)
29-6	53-6	회청색	D④	21.2	?	18.7	0.5	0.5	62(20-30)
29-7	53-7	회청색	C②	23.0	3.8?	18.4	0.9	1.0	63(20-25)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29-1	회색경질도기. 구순부내면에 1조 침선대. 견부에 수레질한 격자문 시문.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편이 보임. 경부와 견부의 경계내면에서 손지문과 빗질흔이 관찰됨.
29-3	순부 하단에 가는 홈줄이 확인되고 견부와 경계 부분은 둔턱시켜 구분.
29-4	옹기태토이며 확실하게 통일신라시대의 소속도기인지는 의문이다. 내면에 회전흔이 보이고 손누름 흔적이 견부 경계부분에서 확인된다.
29-5	구순부를 밖으로 틀면서 말아올렸고 견부에 1조 침선대와 중앙에 수레질한 사내기무늬가 보인다. 토기내면에 의도적으로 그어댄 단선들이 보이고 수법은 상하로 내려그은 빗질흔과 회전흔이다.
29-7	태토에 장석편이 확인되고 매우 정선되어 있다. 대형 항아리 편으로 아마도 동체중간에 그릇의 최대폭을 둔 형으로 여겨진다. 구단부 단에는 1조 침선대가 지나가고 순부 내부에 1조 침선턱이 만들어졌다. 경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그은 빗질흔이 관찰되고, 견부에는 수레질한 승석문이 나타나며, 일부 물손질하여 무늬가 이그러져 있다. 동체 중앙에 1조 침선대가 음각되어 있다.

도 면	사 진	색 조	형	복 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께	기벽두께	출토위치
30-1	54-1	회 색	병구연	13.6	?	?	1.4	0.4	
30-2	54-2	회청색	호D②	16.1	?	13.2	1.2	0.5	
30-3	54-3	회청색	병구연	15.0	?	9.2	1.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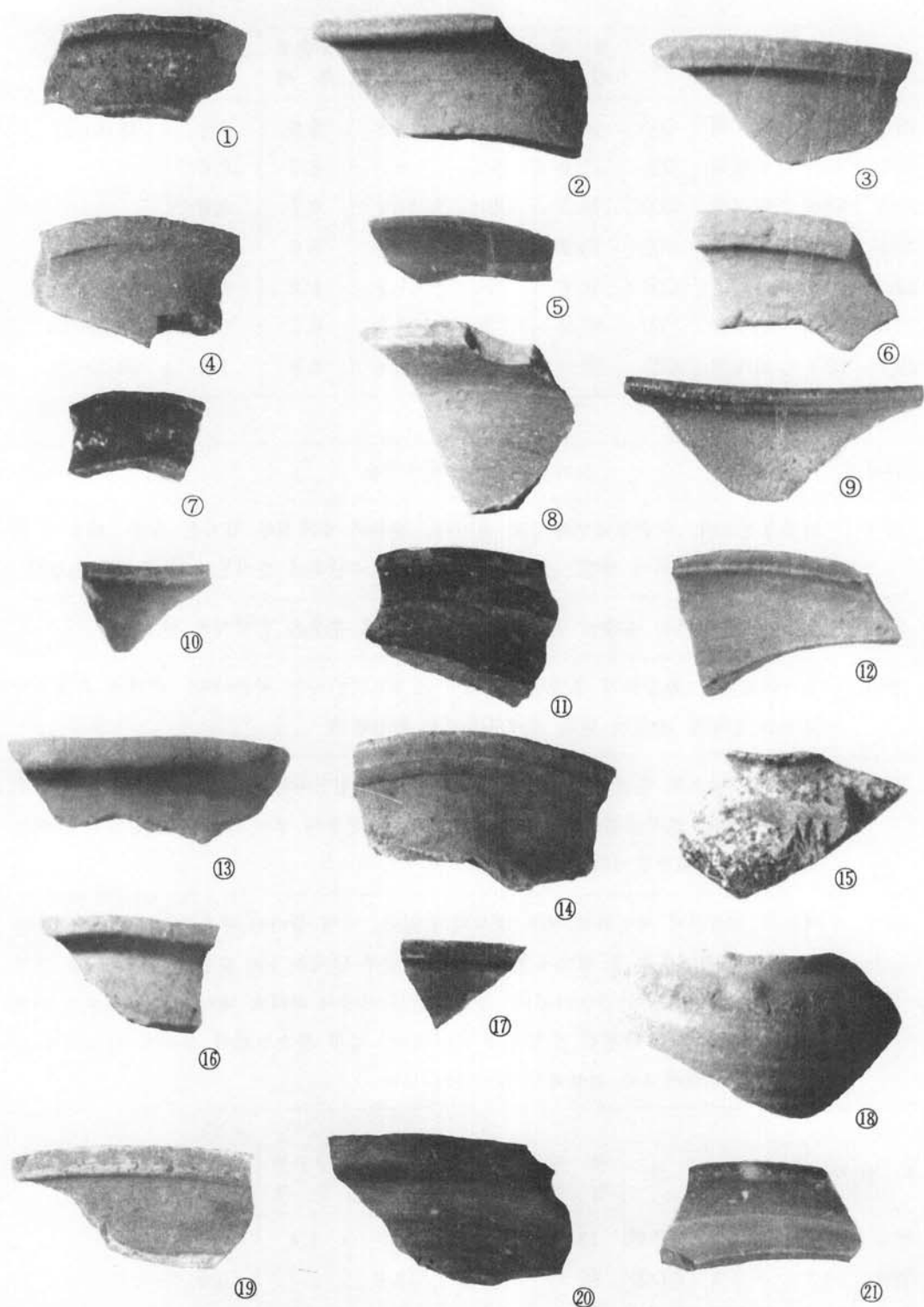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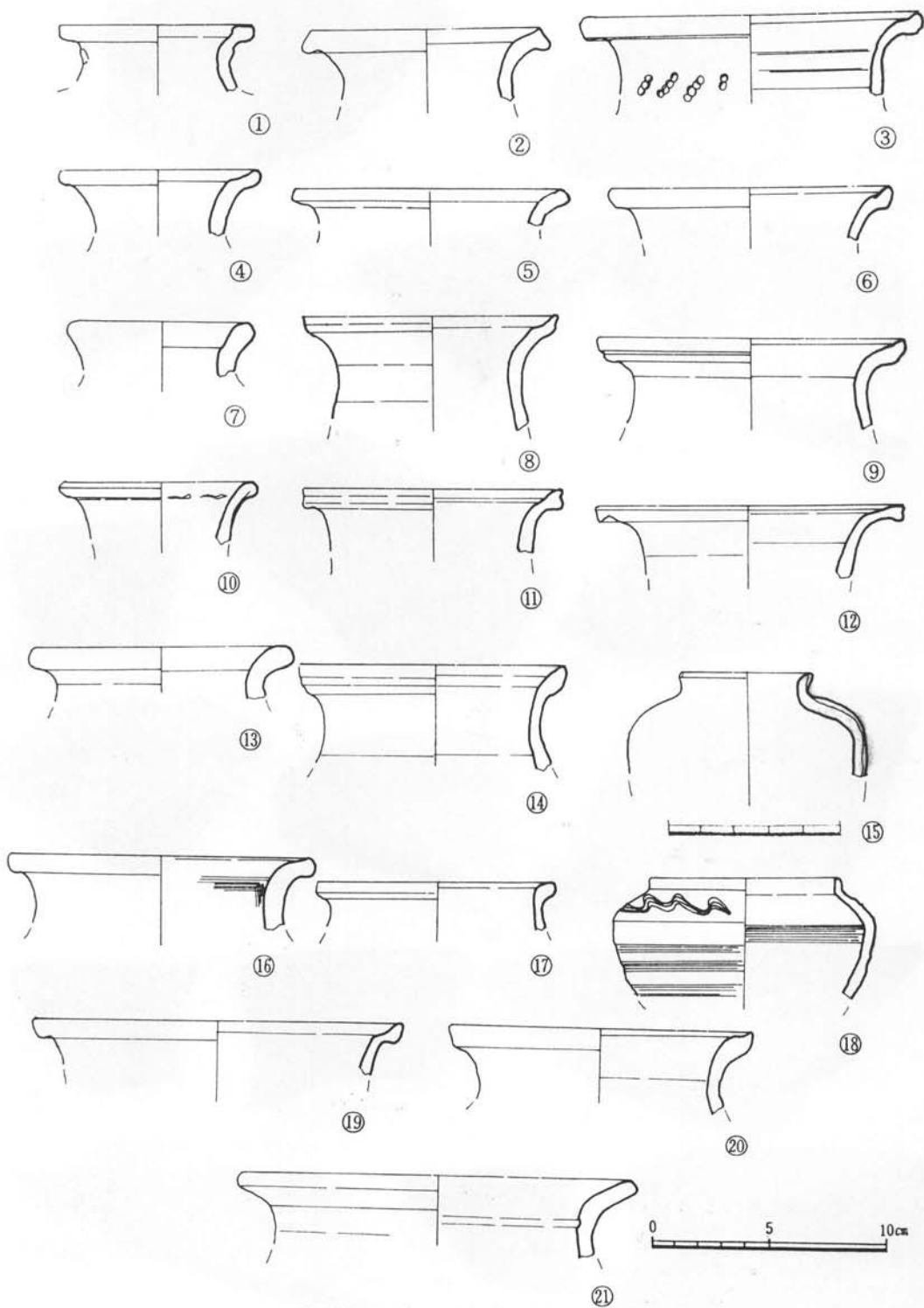


사진47 단경호의 구연부 (1)



도면23 단경호의 구연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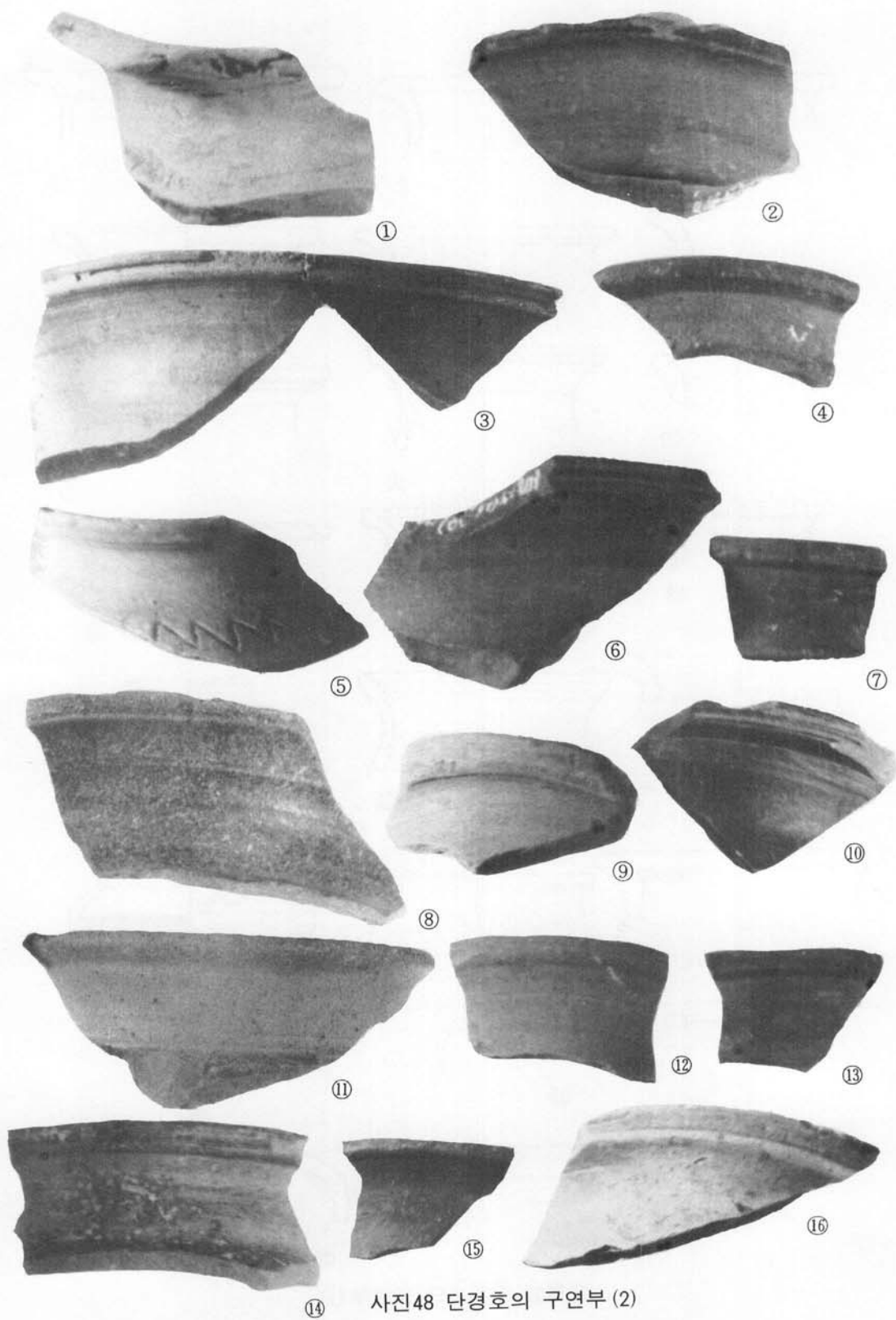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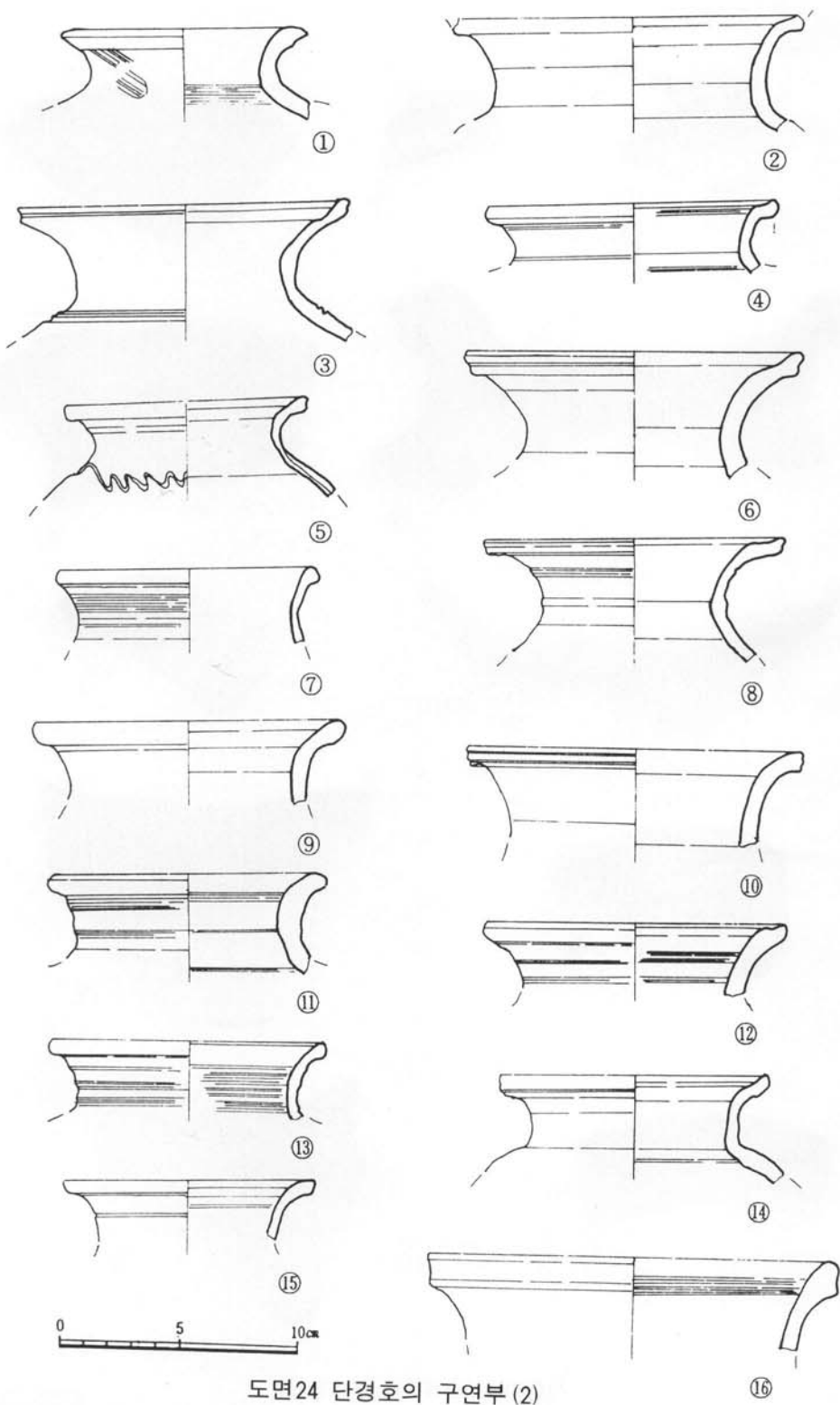


사진48 단경호의 구연부 (2)



도면24 단경호의 구연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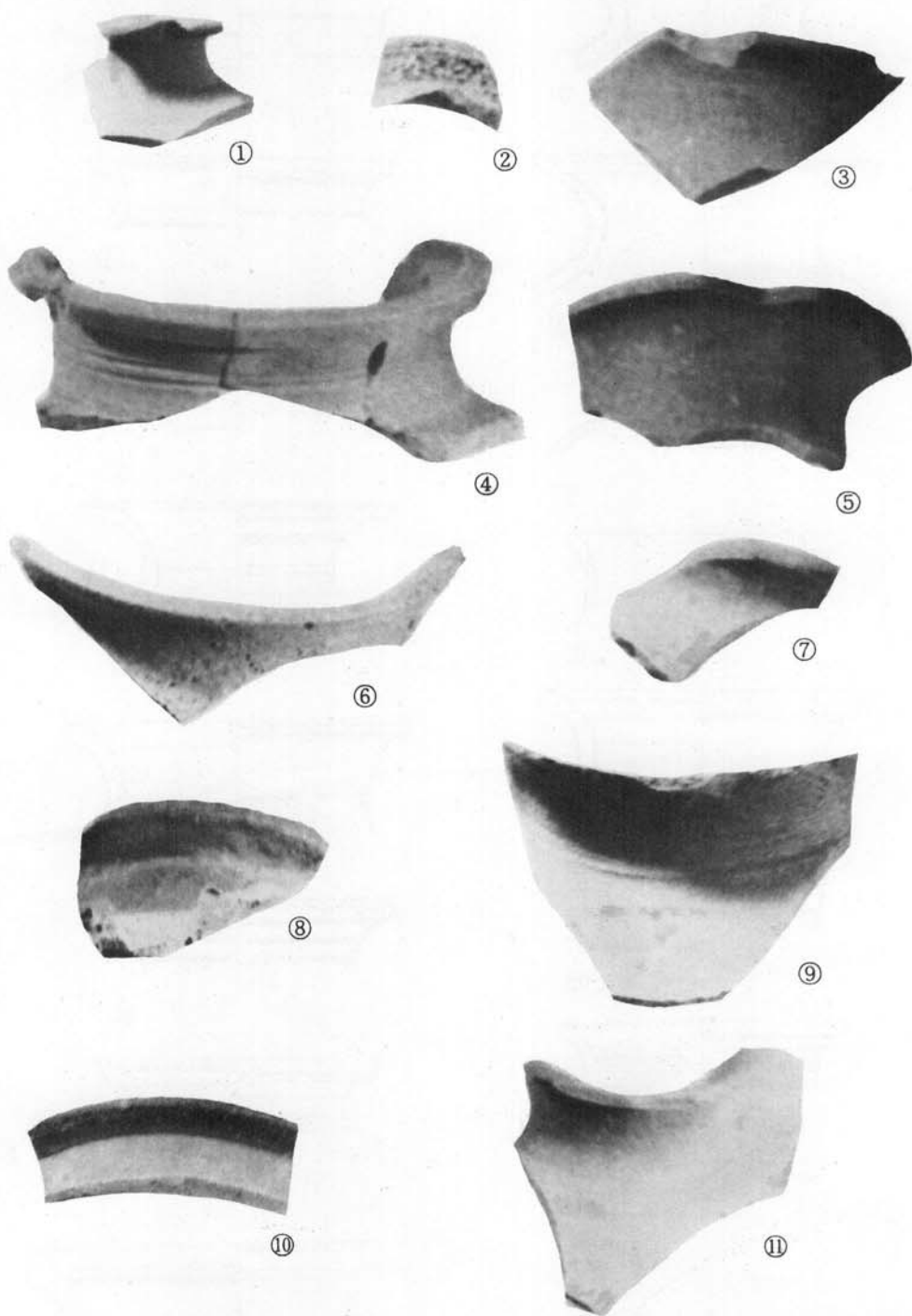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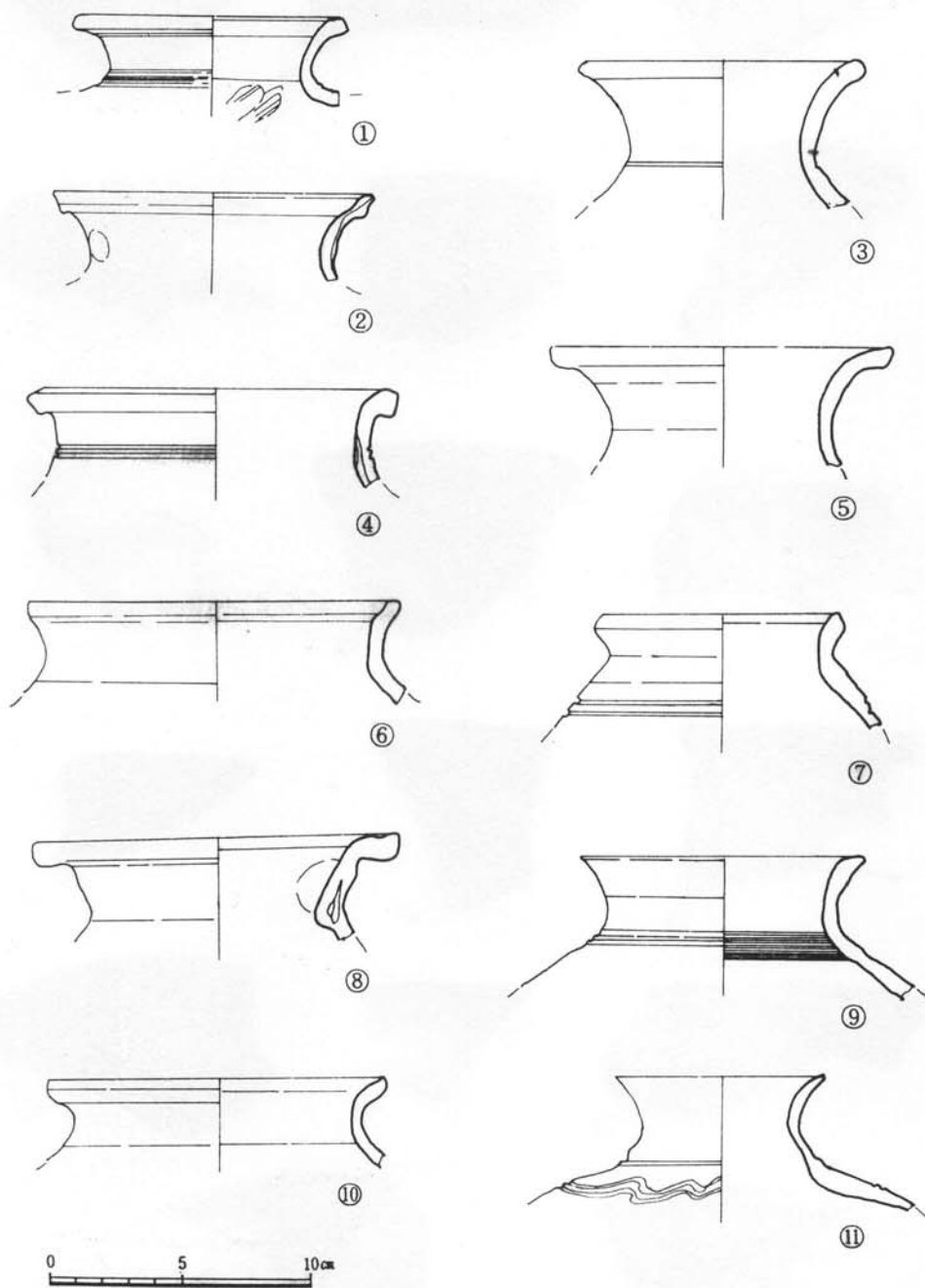


사진49 단경호의 구연부 (3)



도면25 단경호의 구연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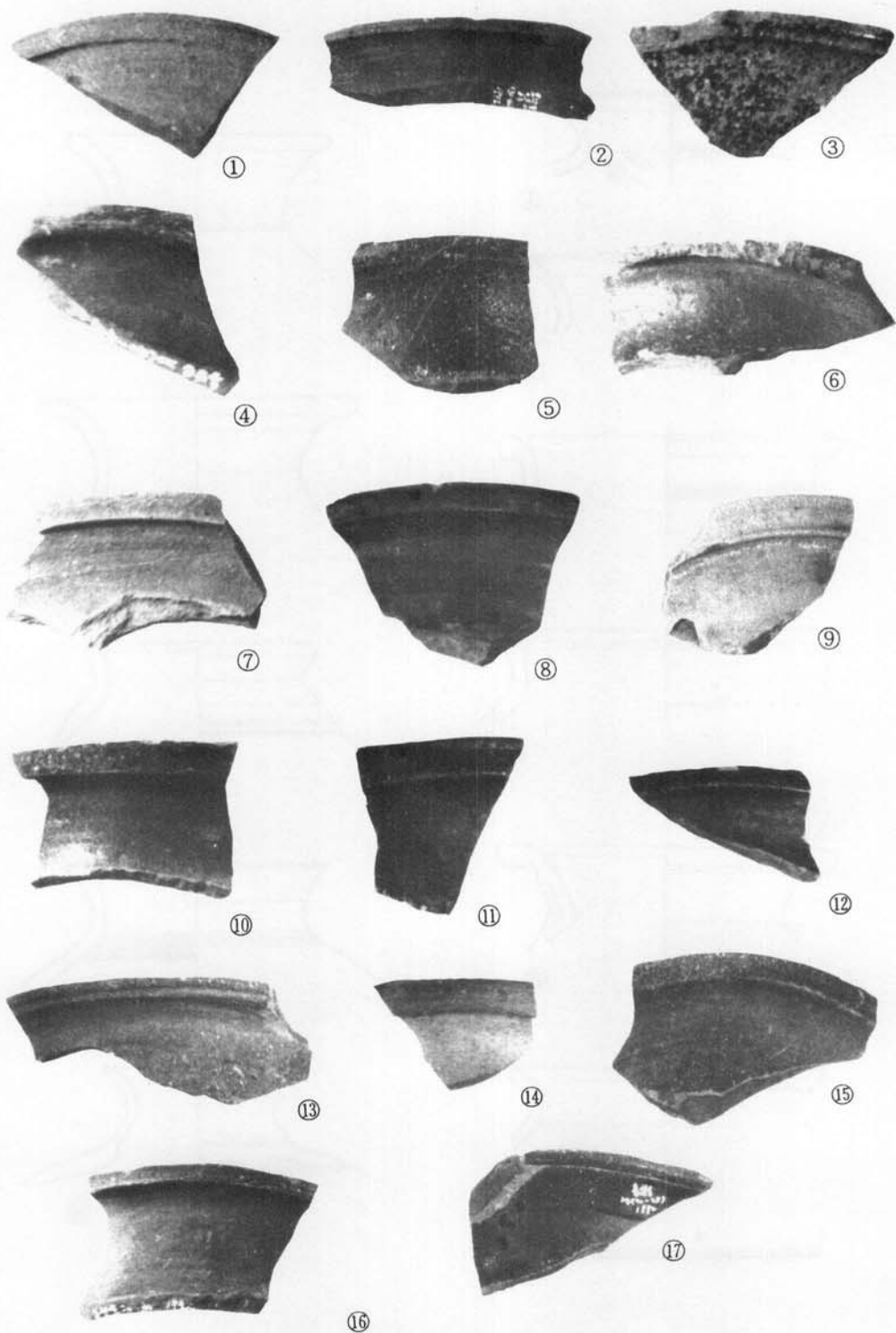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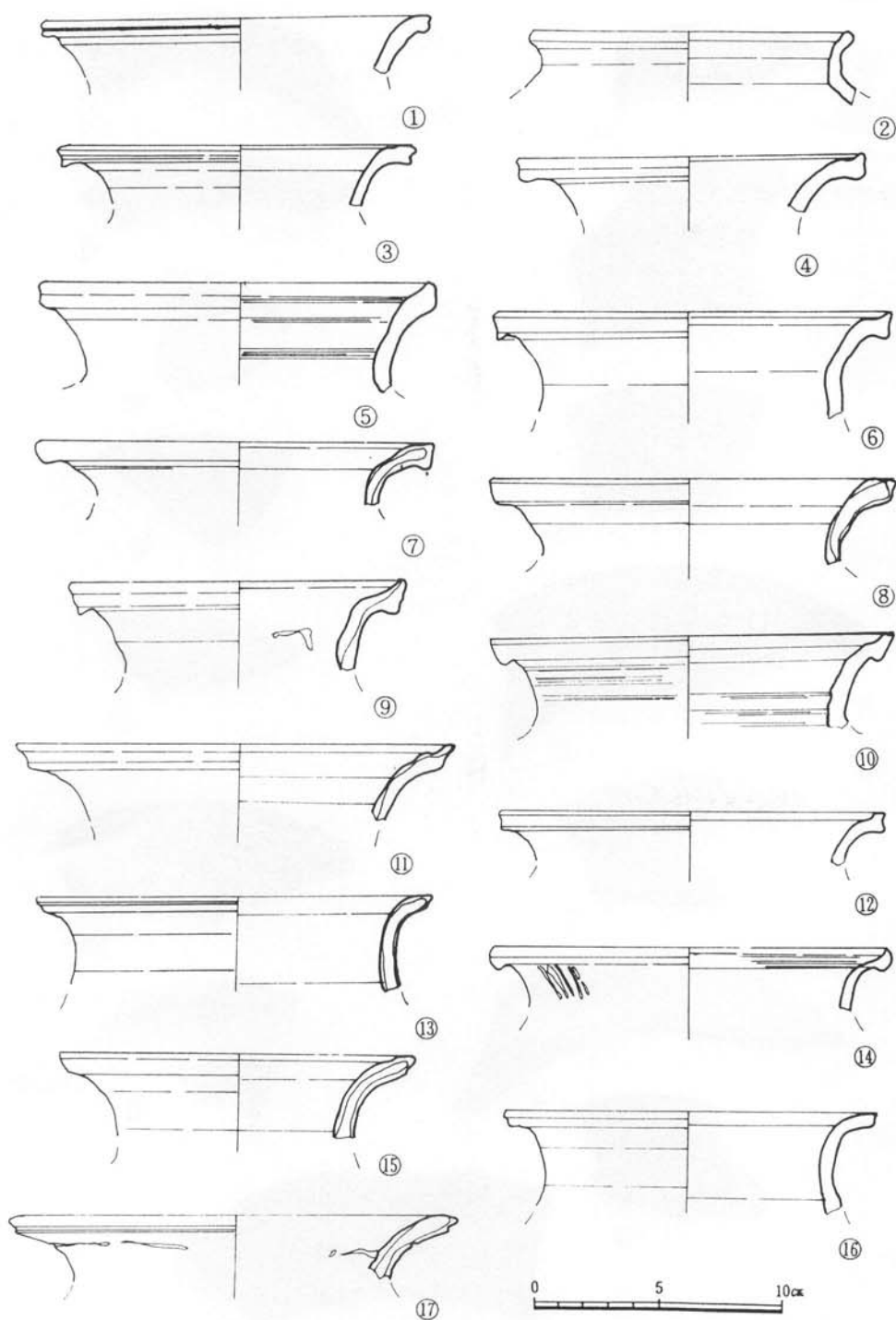


사진50 단경호의 구연부 (4)



도면26 단경호의 구연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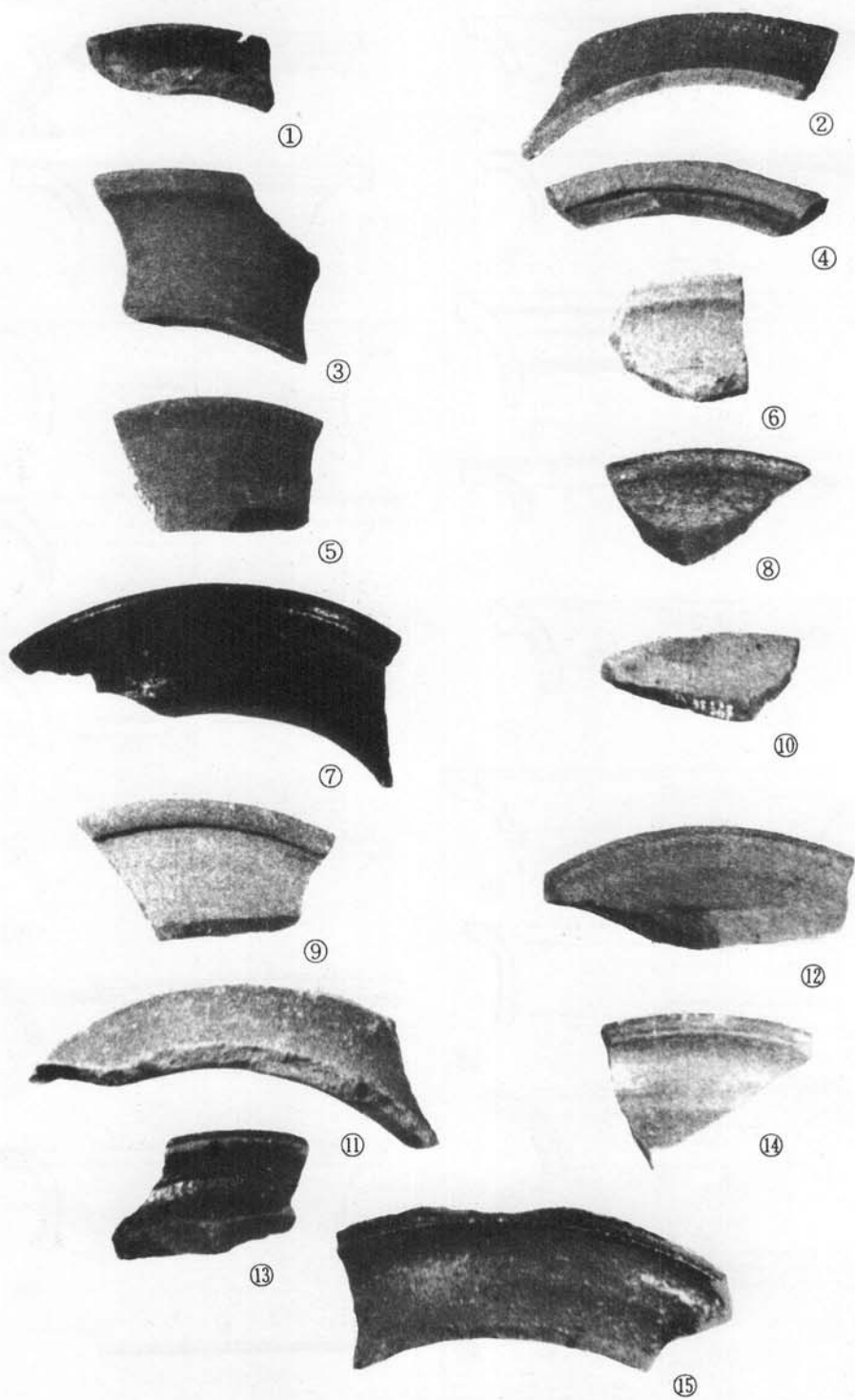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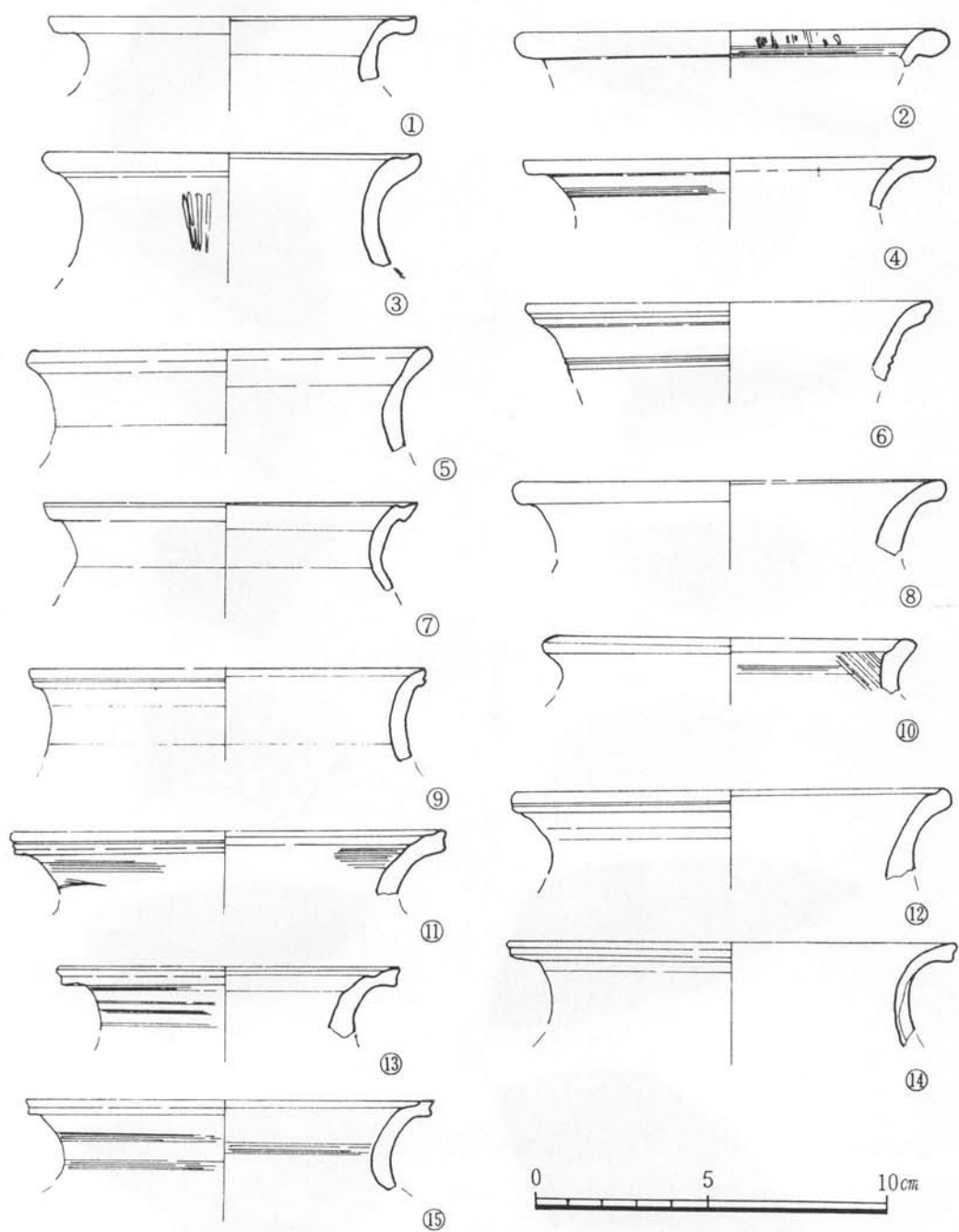


사진51 단경호의 구연부 (5)



도면27 단경호의 구연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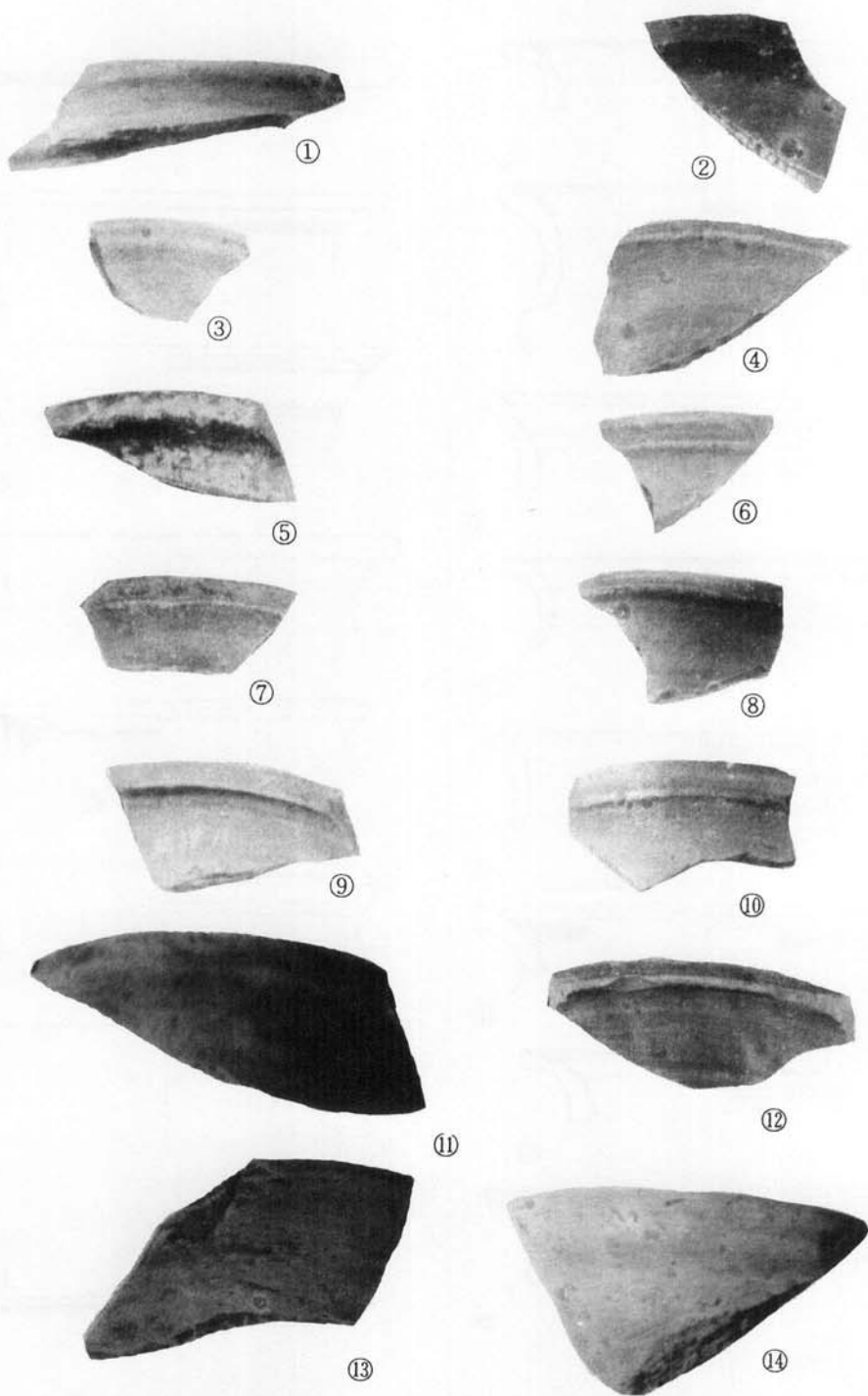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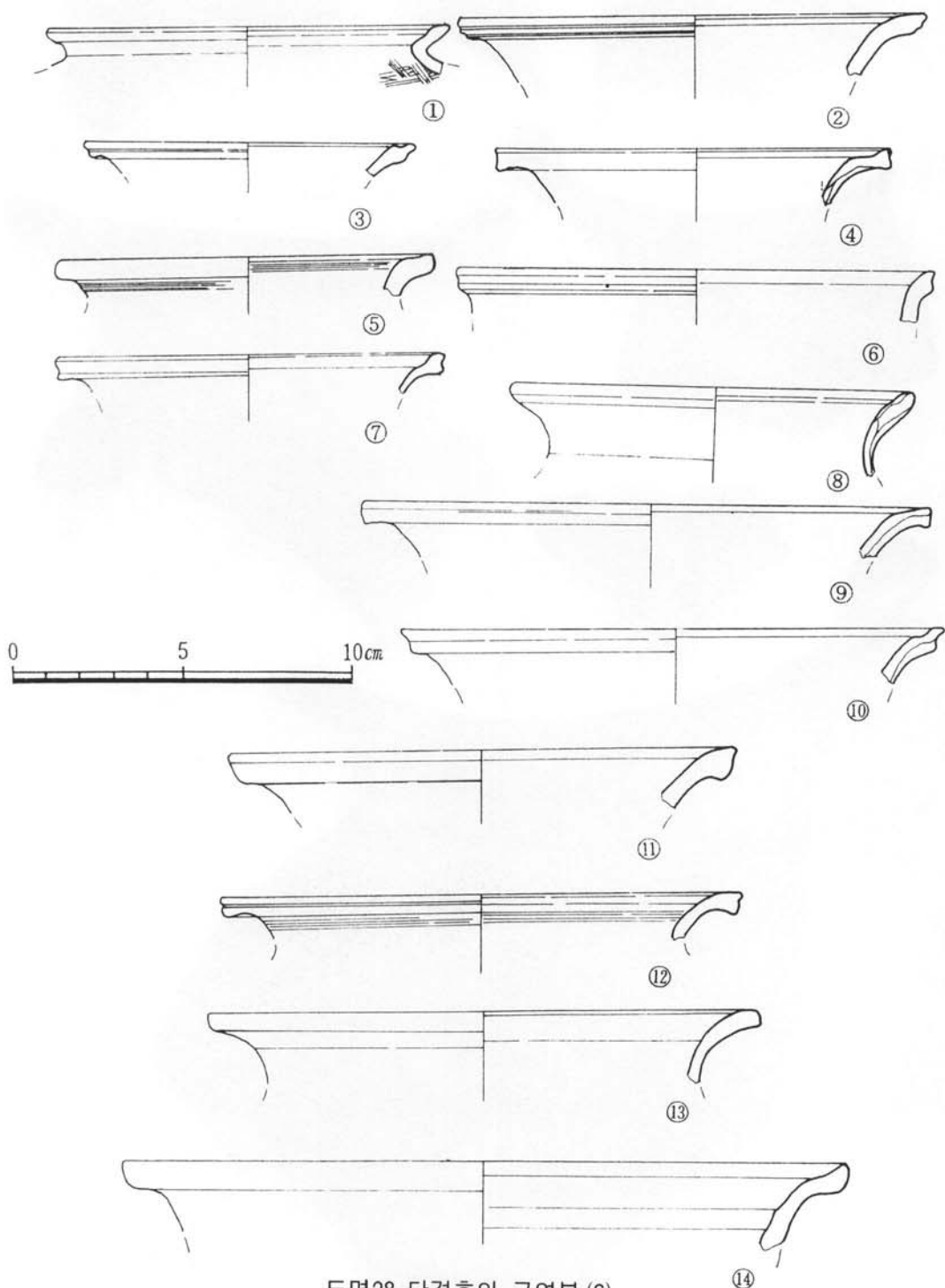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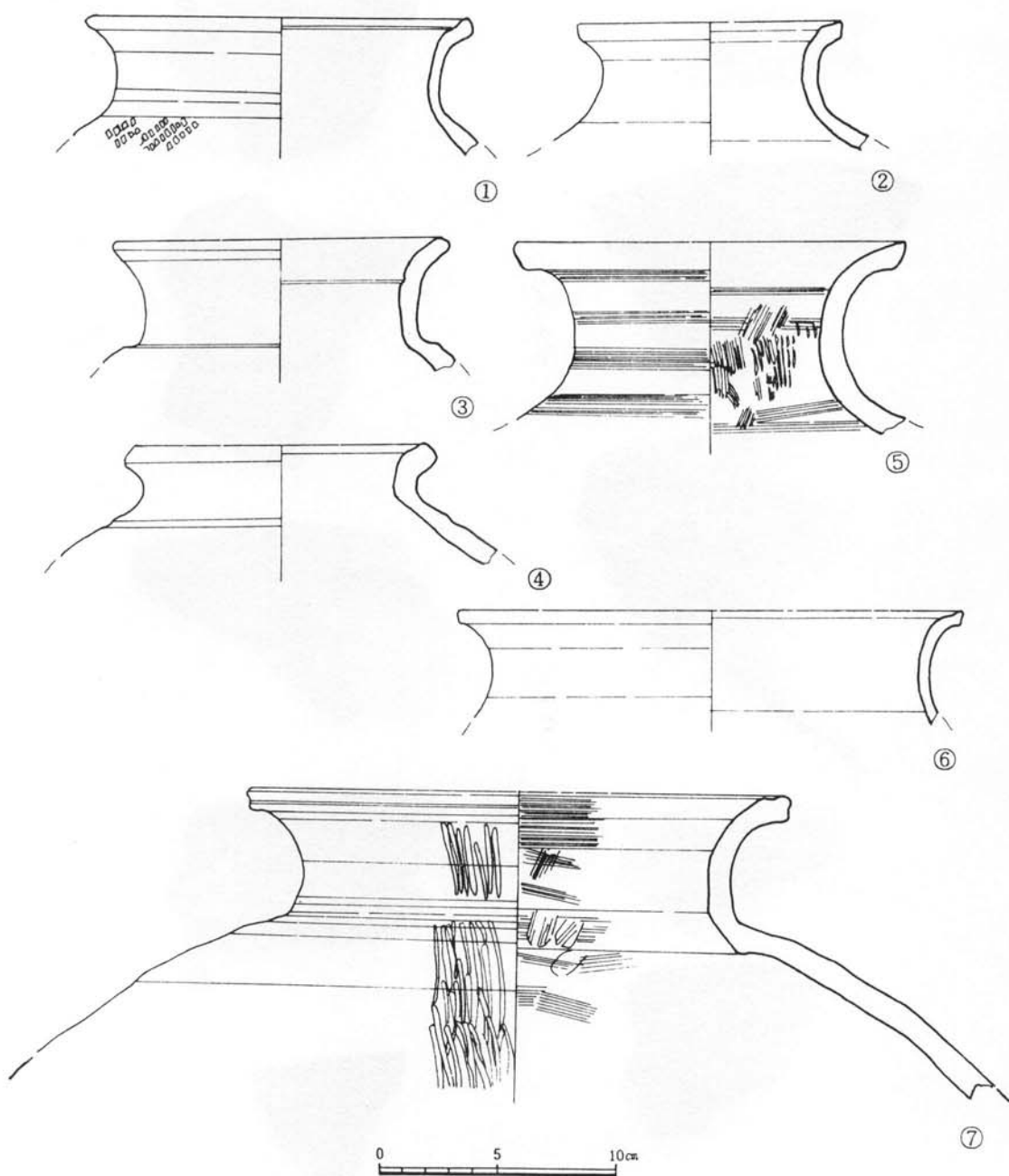
사진52 단경호의 구연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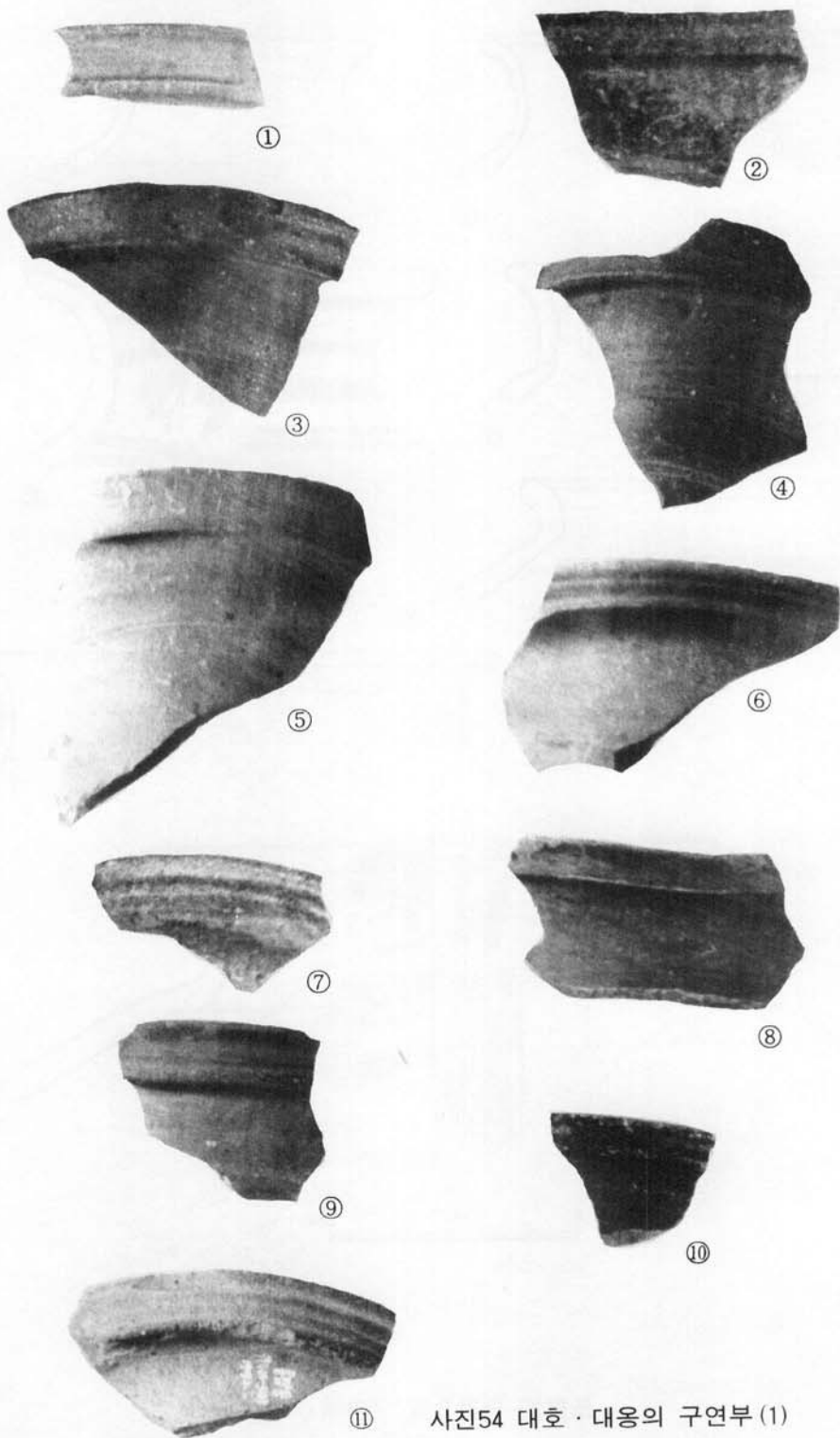
도면28 단경호의 구연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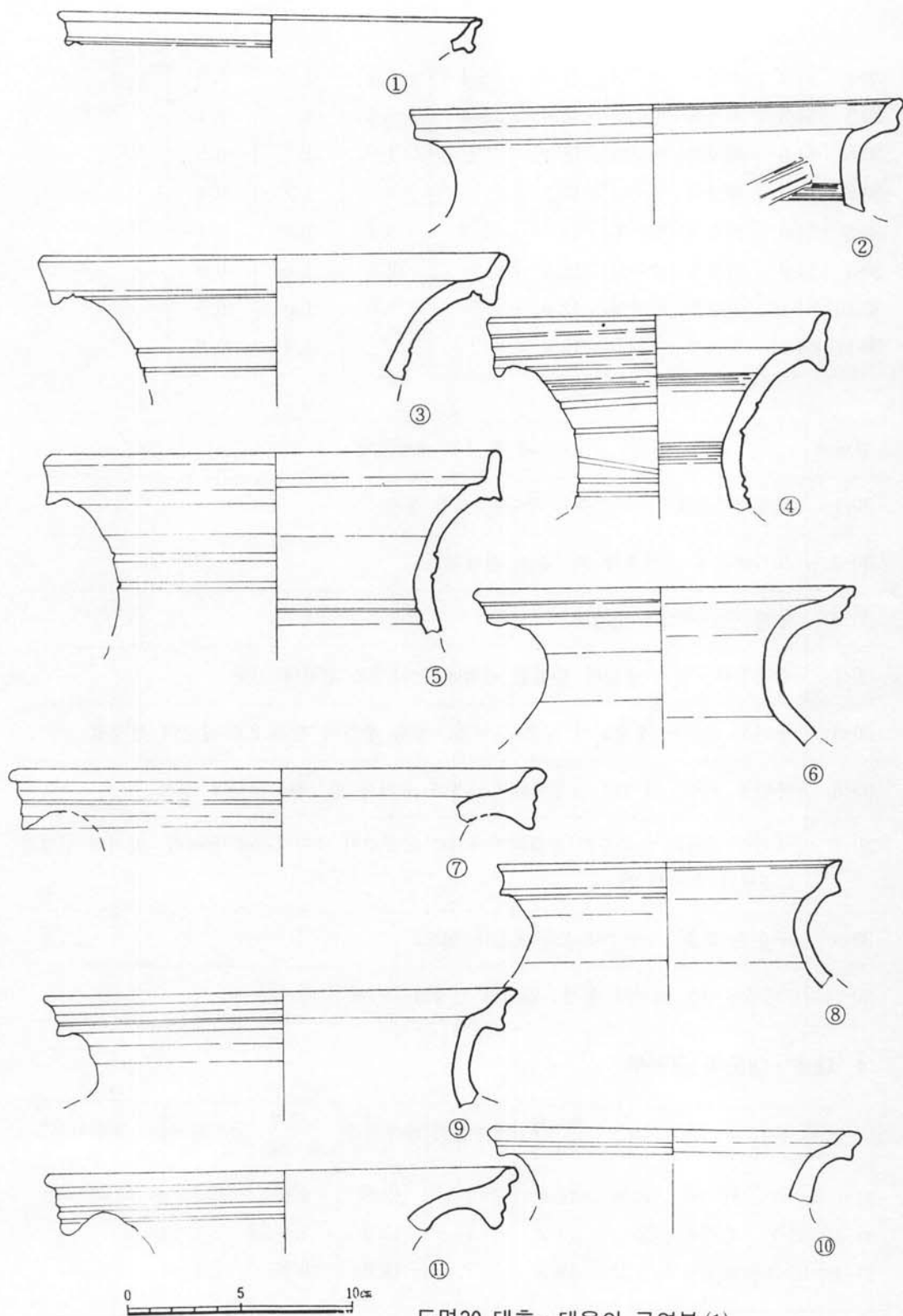
사진53 단경호의 구연부 (7)



도면29 단경호의 구연부 (7)



⑪ 사진54 대호 · 대웅의 구연부 (1)



도면30 대호 · 대웅의 구연부(1)

30-4	54-4	회청색	병구연	11.0	5.4	5.4	1.7	0.5
30-5	54-5	회청색	병구연	15.6	5.4	9.6	1.7	0.4
30-6	54-6	회청색	병구연	12.4	?	7.6	1.1	0.5
30-7	54-7	회청색	병구연	17.2	?	?	1.7	0.4
30-8	54-8	회청색	병구연	11.0	2.9	9.1	1.1	0.4
30-9	54-9	회청색	병구연	15.2	?	12.0	1.4	0.5
30-10	54-10	암갈색	병구연	12.0	?	9.0	1.0	0.5
30-11	54-11	회청색	호D②	15.4	?	?	1.9	0.5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30-1	회청색경질도기. 구순부와 구단부 하단 돌출.
30-2	도기내면에 빗질흔과 회전흔이 관찰됨.
30-3	동체 중간에 2조 침선대.
30-4	장경호류. 동체 중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5조 침선대 시문.
30-5	구단부 하단이 돌출되어 밑으로 처짐. 동체 중간에 깊은 2조 침선대 형성됨.
30-6	구단부 외반. 앞서의 단경병의 C-4형과 유사한 형. 3단 구단부 형성.
30-7	구단부 하단과 구순부가 돌출되면서 3조 침조선이 구단내부에 돌려짐. 앞서의 단경병 C-5형과 유사한 형.
30-9	구순부 돌출. 구단부에 2조 침선대 형성.
30-11	구단부에 3조 침선대 형성. 앞서의 단경병 D-2형과 유사한 형.

4. 대호·대옹의 구연부

도면	사진	색조	형	복원 입지름	경부높이	경부지름	구순부 두께	기벽두께	출토위치*
31-1	55-1	회색	① B	17.0	?	12.8	0.6	0.7	27(30-36)
31-2	55-2	회청색	①	19.2	?	12.9	1.1	1.2	
31-3	55-3	회청색	① D	19.8	?	14.0	0.8	0.5	

* 핏트명, 출토층위에 대한 표시로서 축약 표기하였다. (예 : N27(L30~36) = 27(30~36).

31-4	55-4	회청색	②	19.2	?	16.4	1.2	0.8	
31-5	55-5	회청색	④	24.4	5.9	19.8	1.2	1.1	70 (15-17)
31-6	55-6	회청색	④	25.2	5.4	20.5	0.9	1.3	
31-7	55-7	회청색	④	26.4	9.6	20.0	0.6	0.9	26 (35-37)
32-1	55-1	회청색	④ B	18.2	2.8	10.5	2.6	0.8	27 (25-30)
32-2	55-2	암갈색	② D	15.9	?	12.0	0.6	0.3	
32-3	55-3	담녹색	① C	11.2	1.8	8.6	0.5	0.5	21 (30-40)
32-4	55-4	회 색	① C	12.8	1.6	10.7	0.8	0.6	
32-5	55-5	암갈색	① C	13.0	2.4	10.4	0.9	0.7	
32-6	55-6	암갈색	① C	15.0	3.8	10.2	0.7	1.0	
32-7	55-7	암갈색	② D	14.0	4.8	10.6	0.7	0.7	
32-8	55-8	암갈색	③ C	21.4	3.2	17.8	1.2	1.0	
33-1	55-1	회청색	④ F	18.2	2.8	10.5	2.6	0.8	27 (25-30)
33-2	55-2	갈 색	① C	13.2	1.8	11.3	0.6	0.4	33 (25-30)
33-3	55-3	암갈색	⑧ F	18.0	?	14.4	1.0	0.4	61 (30-35)
33-4	55-4	녹갈색	⑧ E	17.2	1.1	14.3	0.9	0.8	
33-5	55-5	회 색	④ D	18.8	?	12.9	0.9	0.8	
33-6	55-6	회청색	② C	18.8	3.4	14.9	1.1	0.9	
33-7	55-7	회청색	① C	15.4	3.3	12.2	0.8	0.8)	
33-8	55-8	회청색	① B	21.4	?	19.1	1.1	0.7	27 (25-30)
33-9	55-9	회청색	② D	20.4	3.9	17.0	0.9	0.6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31-1	회색연질도기. 장경호의 일부로 여겨진다. 경부가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나간다.
31-2	속심은 회색이고 소성이 불량하여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경부에 회전흔이 보인다.
31-3	구순부는 둥글게 마감하였고 순부 밑으로 2조 돌대선과 경부 하단에 1조 침선대가 지나간다. 속심 황갈색.
31-4	구순상단에 1조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고 경부내외면에 회전흔. 속심은 회색.
31-5	대형항아리의 구연부. 순부가 경부상단에서 거의 직각으로 꺾여 나가고 순부외면이 직각으로 다듬어져 있다. 건부 상단 평면에는 1조 심조대가 돌려져 있다. 경부에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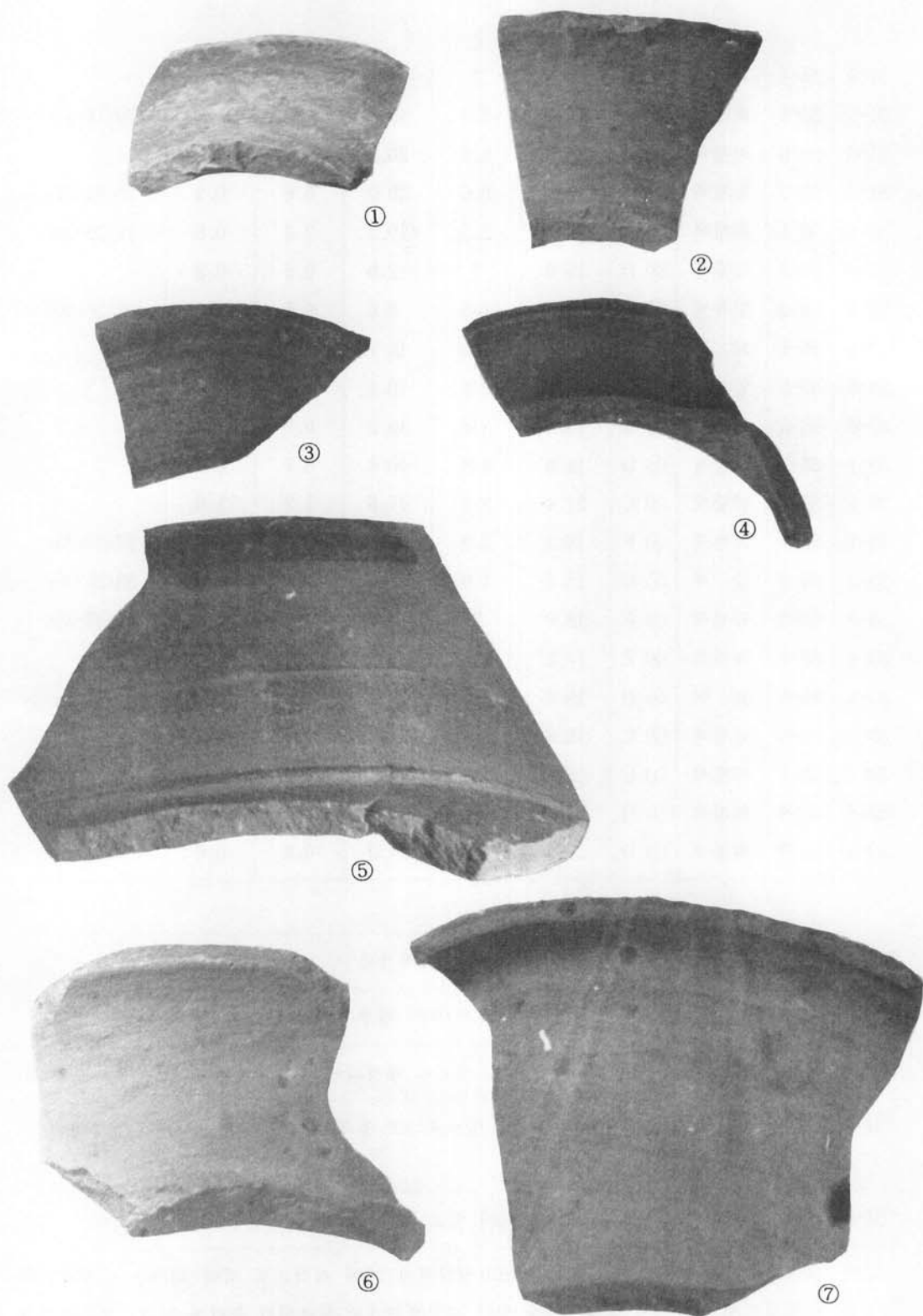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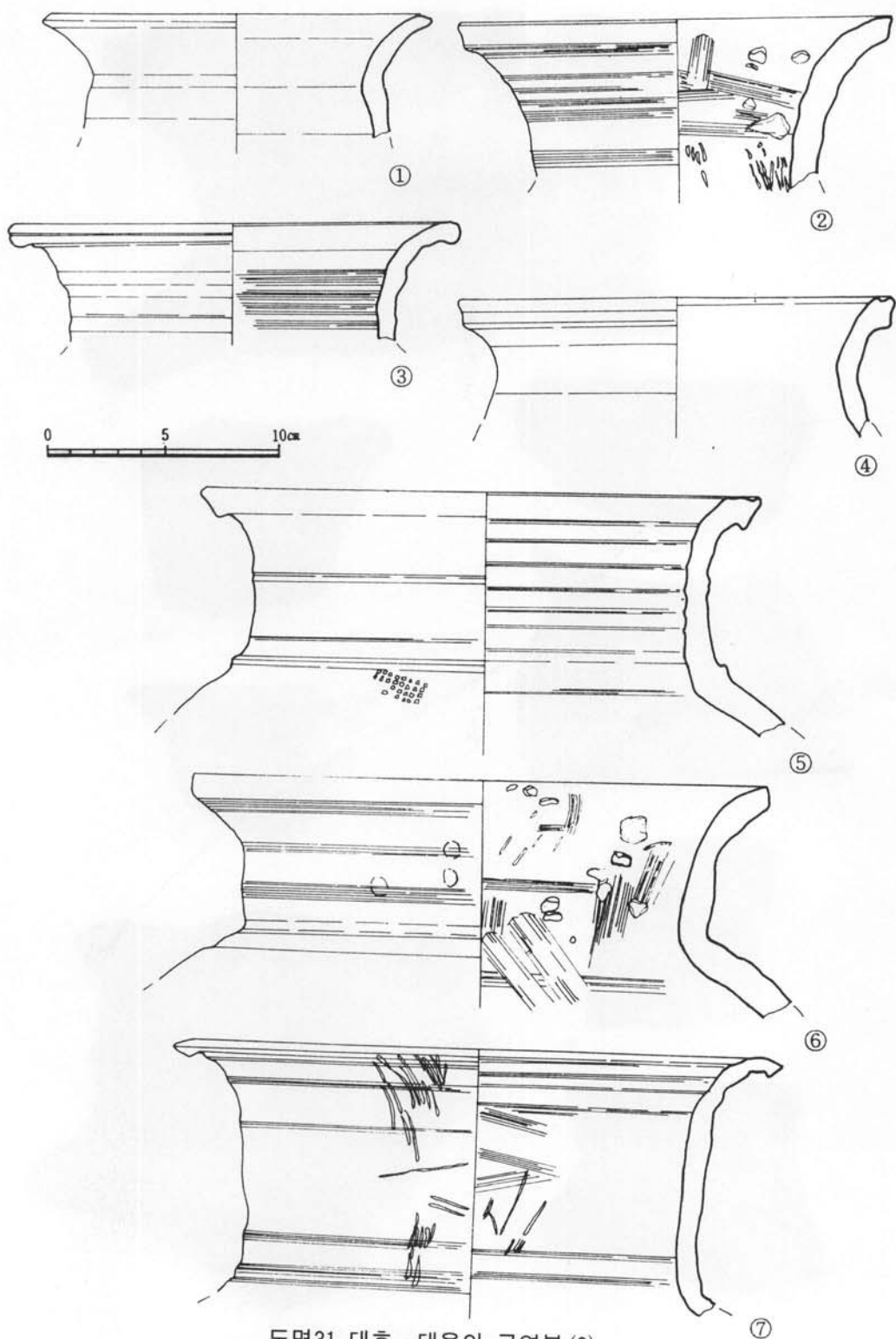


사진55 대호 · 대옹의 구연부 (2)



도면31 대호 · 대옹의 구연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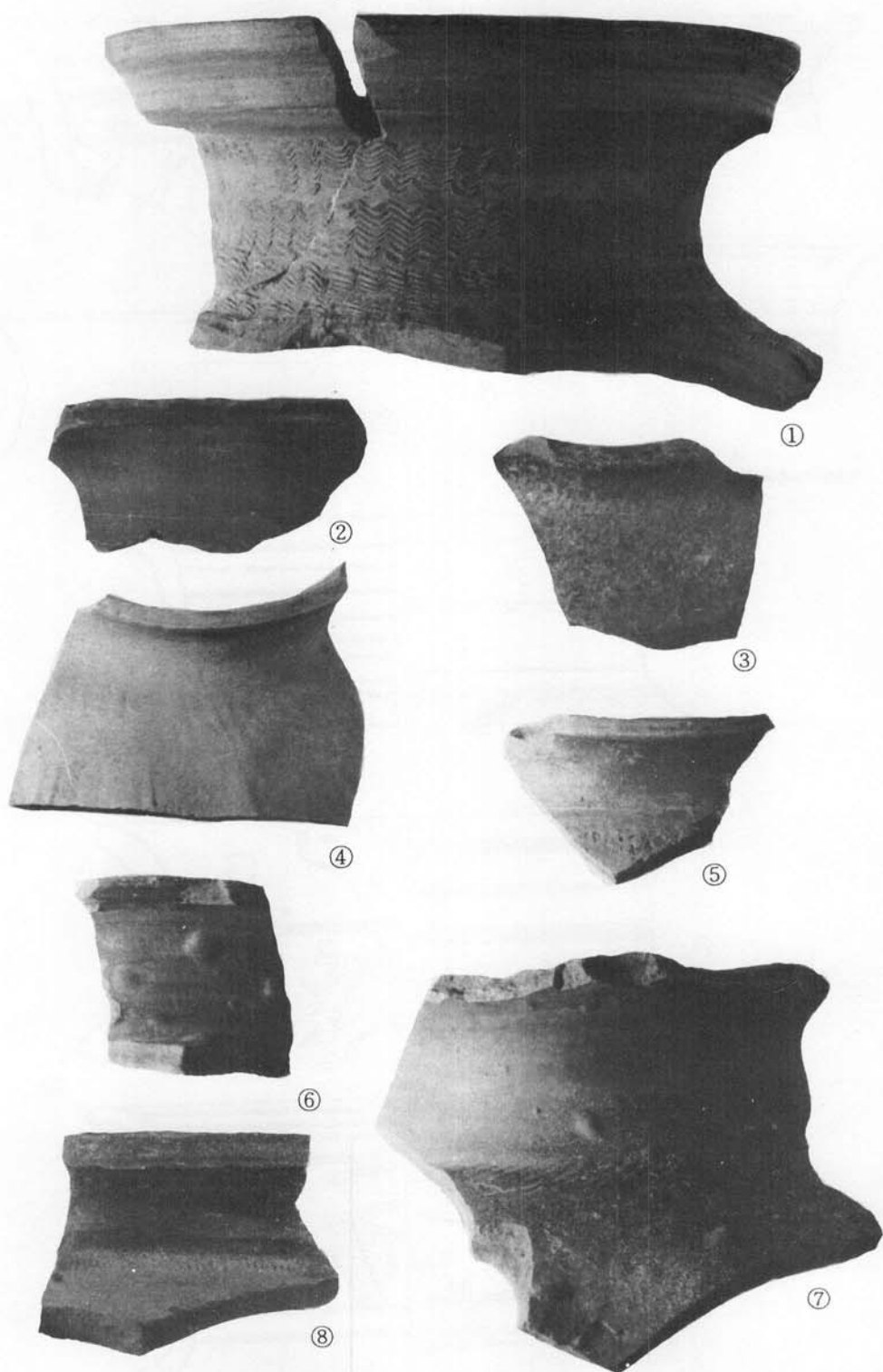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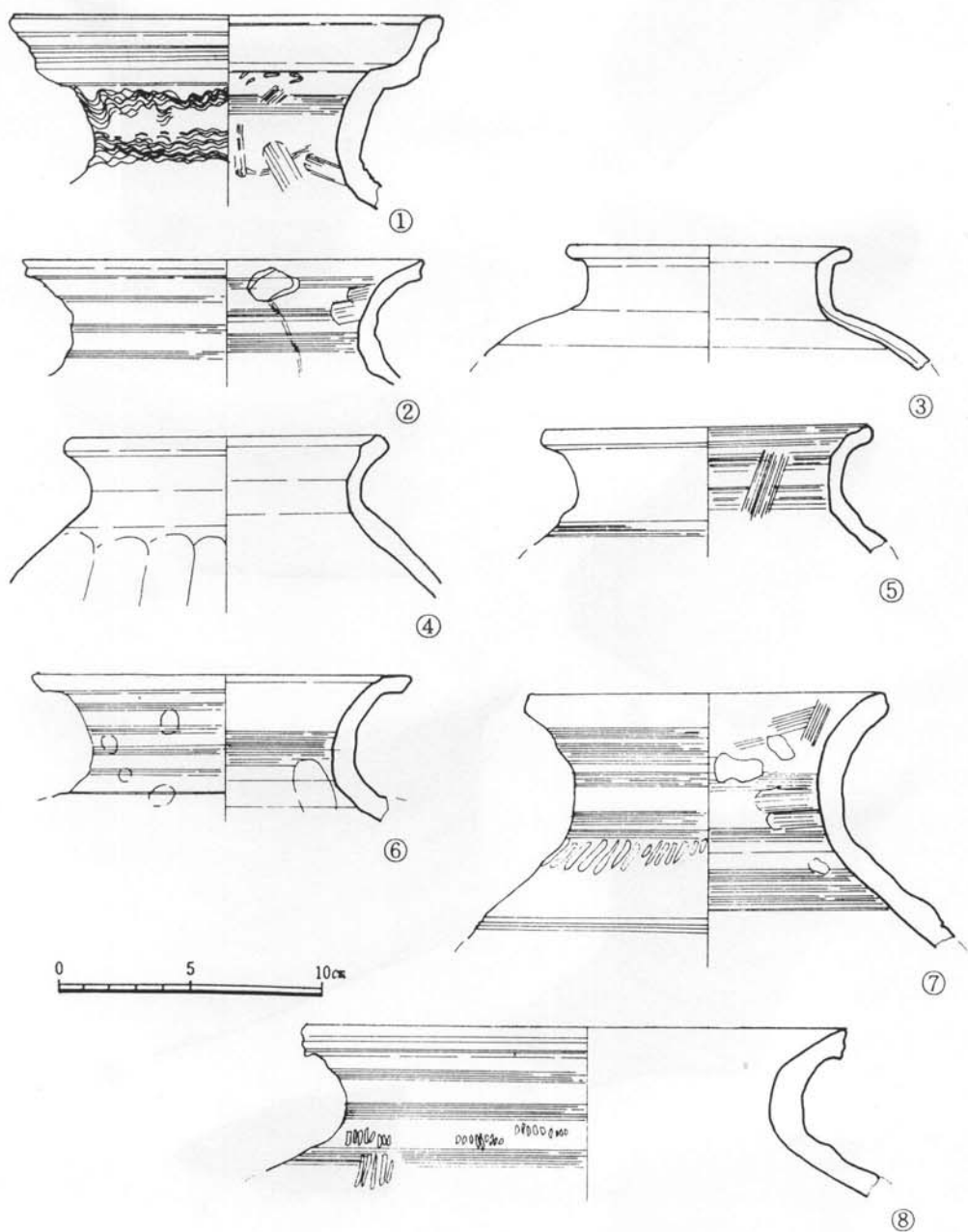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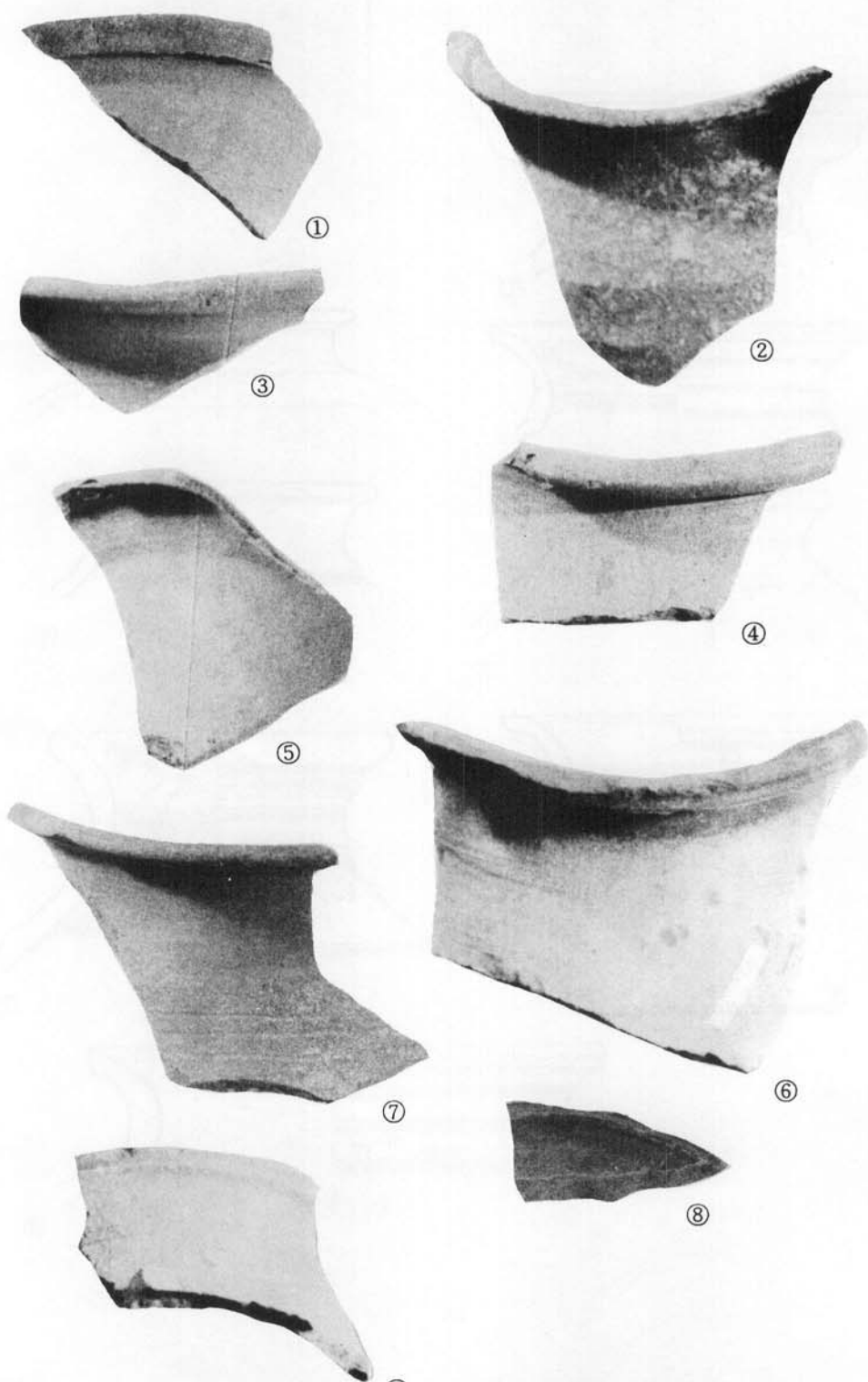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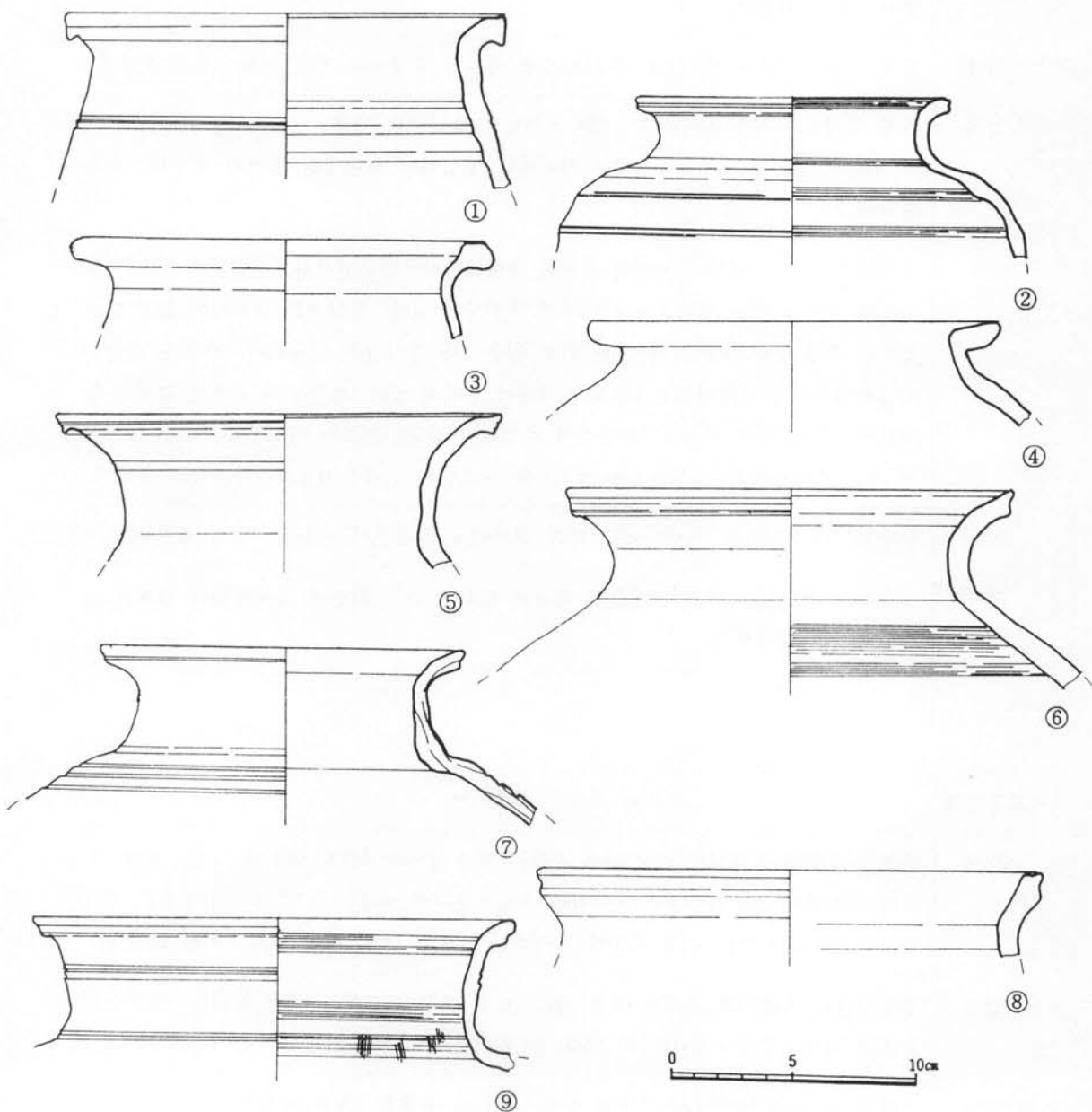
사진56 대호 · 대웅의 구연부 (3)



도면32 대호 · 대옹의 구연부 (3)



⑨ 사진57 대호 · 대옹의 구연부 (4)



도면33 대호 · 대옹의 구연부 (4)

	조 침선대가 만들어졌고 견부와 경부 경계선에는 1조 돌대선이 형성되어 있다. 견부 상단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경부 내면에는 6조의 나선형 음각회전대가 돌려져 있다. 속심 회청색.
31-6	순부가 외반되면서 직각으로 처리되었고 태토가 불량하여 기포 형성. 속심 회청색.
31-7	대형 장경호의 구연부편이다.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던 경부가 순부에서 외반되며 경부 하단에 1조 음각대, 경부내면 하단에는 접합하여 물손질한 흔적이 보인다. 속심 황갈색.
32-1	음각밀집파상선문이 도기전면에 시문된 대형항아리구연부편이다. 외반되는 경부에 부가하여 구연을 만든 형식으로 구단부가 형성되어 있다. 구단부는 외반되어 있고 단부 하단은 두툼하게 만들고 나서 단 위로 깊은 1조 음각대를 만들었다. 순부는 둥글게 처리하였으나 순부상면에는 1조의 침조대가 돌려져 있다. 경부면과 견부의 경계는 돌대없이 막바로 5조 연속밀집파상선이 음각되어 있다. 각조의 파상선은 7개로 이루어져 있고 파상선간의 간격은 2mm 정도이고 각조간의 간격은 0.5cm이다. 속심 황갈색.
32-2	순부가 'く' 모양으로 처리되었고 도기 내외면에 회전흔이 관찰됨. 속심 황갈색.
32-3	자연유로 판단되는 흑갈색 시유가 내면에 입혀져 있고 외면에 녹색젯물이 입혀져 있다. 속심은 황갈색.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32-4	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 견부 상단이 약간 올라와 있다.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가 확인되며 견부외면에는 수레질한 사내기무늬가 보이고 그 무늬가 물손질로 이그러져 있는 상태이다. 견부 내면에 빗질흔과 손누름 흔이 남아 있다. 속심 회청색.
32-5	견부상단을 돌출시켜 경부와 구분지었고 내면 경부 접합부는 깎아 돌렸다. 잔존견부 상에는 사내기무늬가 타날되어 있다. 기포 형성됨. 속심 회청색.
32-6	견부상단은 1조 침선대로 경부와 구분. 회전흔 관찰됨. 속심 회청색.
32-7	견부상단을 연속단사선무늬를 돌려 경부와 구분하였고 견부 중앙에 1조 침선대가 지나간다. 견부 외면에 소성불량으로 기포가 형성됨. 내면에는 자잘한 빗질흔과 물손질, 회전흔이 확인된다. 속심 암갈색.

32-8	순부면이 외반되면서 2조 침선대가 들려져 있다. 건부가 경부에서 내려와 급격히 벌어지면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속심 회청색.
33-1	옹의 구연부편이다. 동체상단에 2조 침선대가 형성됨. 내면에 나선형 음각대 형성. 속심 회청색.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가 확인됨.
33-2	어깨가 그릇의 최대폭을 이루는 광견호편. 석영, 장식, 운모가 태토에 혼입됨. 건부상단을 일단 대칼같은 도구로 깎고 나서 동체에서 직각으로 내려가는 형. 타원형 편병일 가능성이 있음. 속심 회청색.
33-3	옹의 구연부편. 구순부를 둥글게 안으로 말아올림. 건부 내외면에 빗금흔적이 보인다.
33-6	건부에 가는 회전흔이 촘촘하게 돌아가고 건부내면 하단에는 사내기무늬가 2조로 돌아간다. 속심 황갈색. 석영, 장식, 운모편이 태토에 혼입됨.
33-7	순부 하단에 침조대가 형성되어 있고 도기 경부에는 회전흔이 관찰되며 건부 상단에는 3조의 침조대가 돌아간다. 건부 내면은 표면이 거칠고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속심 회청색.
33-9	순부가 '〈'형으로 처리되었고 경부에 2조 침선대, 경부하단에 1조 돌대선이 형성되어 있다. 속심은 회색이고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5. 瓶 · 壺의 胴體部

※ 참조 병 : a 호 : b 광견상최대폭 : ① 광견하최대폭 : ②

도면번호	도판번호	색 조	경 폭	견 폭	경부두께	기벽두께	경 고	현 고	구연지름
34-1	58-1	회청색	① 3.6	11.0	0.6	0.7	?	2.4	?
34-2	58-2	회청색	① 4.8	14.1	0.4	0.8	?	4.4	?
34-3	58-3	회청색	② 4.8	14.8	0.6	1.0	?	7.6	?
34-4	58-4	회청색	① 3.9	11.3	0.5	1.0	?	3.9	?
34-5	58-5	회청색	① 3.2	12.8	0.9	1.1	?	3.5	?
34-6	58-6	회 색	① 8.0	?	0.6	0.6	?	4.0	?
34-7	58-7	회청색	② 8.0	15.0	0.6	0.8	?	4.2	?
34-8	58-8	회청색	① 5.8	15.9	0.8	0.9	?	3.5	?

34-9	58-9	암갈색	② 4.8	?	0.6	0.8	2.8	5.0	8.2
35-1	59-1	회 색a	① 4.2	17.2	0.3	0.4	?	14.8	?
35-2	59-2	암갈색a	① 5.0	13.3	0.6	0.6	?	9.4	?
35-3	59-3	회청색a	① 9.9	17.1	0.4	0.8	?	7.0	?
35-4	59-4	회청색	① ?	16.7	?	0.8	?	9.4	?
35-5	59-5	회청색	② ?	18.7	?	0.9	?	5.5	?
36-1	60-1	회 색a	① ?	11.1	?	0.7	?	2.6	
36-2	60-2	회 색	② 6.0	12.1	?	0.8	?	3.2	
36-3	60-3	회청색	① 8.8	12.8	0.6	0.6	4.4	12.0	
36-4	60-4	회청색	구경 : 8.4 경부폭 : 6.4 기벽두께 : 0.4 현고 : 2.2						
36-5	60-5	회청색a	동체지름 : 13.5 기벽두께 : 0.7 현고 : 4.2						
36-6	60-6	회청색	① 6.1	10.0	0.7	0.7	?	4.4	
36-7	60-7	회청색a	① 4.8	12.7	1.0	1.0	?	10.7	
36-8	60-8	회청색	① 7.4	11.9	0.7	0.7	?	6.3	
36-9	60-9	녹갈색	① 7.4	?	0.9	0.9	?	4.0	
36-10	60-10	회청색	① ?	14.0	0.9	0.9	?	2.9	

도면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기법
34-1	광견병편. 팽창된 건부에서 다소 오무라졌다가 경부와 구분짓는 1조 침선대를 돌리고 나서 경부를 올려 외반시킨 형. 경부 내면에는 縱으로 연속하여 빗금그어져 있고 경부를 성형할때 형성된 손누름 흔적이 연속해서 나 있다. 건부와 동체부로 내려가는 부분은 나무같은 도구 끝으로 누른 흔적이 연속해서 나 있다.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섞여 있다.
34-2	광견상의 단경호편. 건부에서 경부로 올라가는 경계부에 2조 음각대 형성. 내면에는 대칼같은 도구로 건부를 자른 흔적과 손누름, 회전흔이 남아 있음. 태토에 굵은 석영 알갱이와 장석, 운모가 보임.
34-3	그릇의 최대폭이 어깨에서 다소 내려와 형성된 단경호편. 목내외면에 흑갈색 자연유가 입혀져 있고 건부내면 하단에 손누름 흔적과 동체를 내면에서 깎아 내린 턱이 남아 있다.
34-4	단경호편. 건부상에 1조 돌대선을 둠. 속심은 황갈색. 내면에 손누름 흔적과 회전흔이 관찰됨.

34-5	경부가 거의 파손되어 알 수 없으나 단경의 扁瓶편으로 판단됨. 견부 하단에 이르러 직각으로 내려가며 몸통의 평단면은 말각방형꼴이다. 그릇내면에 회전흔이 남아 있으며 견부상단과 견부하단 경계부에 단면이 구분된다.
34-6	단경호편. 광견상의 동체부. 견부와 견부를 구분짓는 뚜렷한 삼각형 돌대문이 형성됨. 견부내면에 회전흔과 견부 상면에 손누름 흔적.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 혼입.
34-7	회색경질도기편. 단경호편.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편이 확인됨. 견부와 견부 경계 부분에 1조 돌대선. 견부내면 부착성형시 형성된 균열이 관찰됨.
34-8	광견상의 단경호편. 동체부 하단에 1조 음각대 형성. 견부상에 1조 돌대문이 나선형으로 돌려져 있고 흑갈색 잿물이 녹아 있음. 내면에 회전흔과 손누름흔적이 보임.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편 함유.
34-9	흑갈색 자연유가 입혀진 단경호편. 견부와 견부 경계부 외면에 돌대선, 내면에 균열선이 관찰됨. 동체 내면에 회전흔이 관찰되고 구순부는 둥글게 마감한 구순형태①에 해당한다. 그릇외면은 흑갈색 자연유 위에 흰 잿물이 반점으로 깔려있는 상태.
35-1	광견상 말각방형편병편. 어깨로 부터 동체로 내려오면서 2조 십조대를 일정간격으로 6중 배치함. 2조 침선대 간격은 위에서 부터 2.0-2.2-2.5-2.7-3.0-3.5cm로 점차 내려오면서 벌어짐. 위에서 부터 다섯번째 십조대간은 0.7-1.22cm의 수직침선문이 0.7-1cm간격으로 연속하여 나선형으로 배치되었고 여섯번째 십조대간에는 5조밀집과상선문이 십조대간 상단에 치우쳐 돌아감. 두번째와 세번째 십조대간에서 광견상의 어깨가 최대폭을 이루며 직각으로 밑동체로 내려간다. 어깨부분에서 기벽이 두터워지며 내면 견부하단과 견부가 최대경을 이루는 부분에서 손누름흔적이 관찰되는데, 물레를 사용하여 말아올릴 때 생긴 손누름으로 여겨진다. 1991년 5월 테스트핏트조사시 지표하 20-25cm에서 출토되었고 1992년 세분발굴핏트상 62-36번 사이에서 같은 개체분이 확인되었다.
35-2	흑갈색사각편병편.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편이 관찰되며 그릇의 최대경을 이루는 견부외면에 2조 침선대가 0.6cm간격으로 나선형 배치되었고 내면에는 깊은 손누름 성형흔이 관찰된다. 견부상단은 견부를 올리면서 뚜렷한 1조 돌기대를 만들었다.
35-3	광견상 말각방형단경병편. 어깨부분에서 최대폭을 이루며 이부분에 1조 침선대가 돌려져 있다. 견부하단에는 1조 침선대가 형성되어 있고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이 뚜렷하다. 견부에서 동체로 내려가는 선은 부드럽게 하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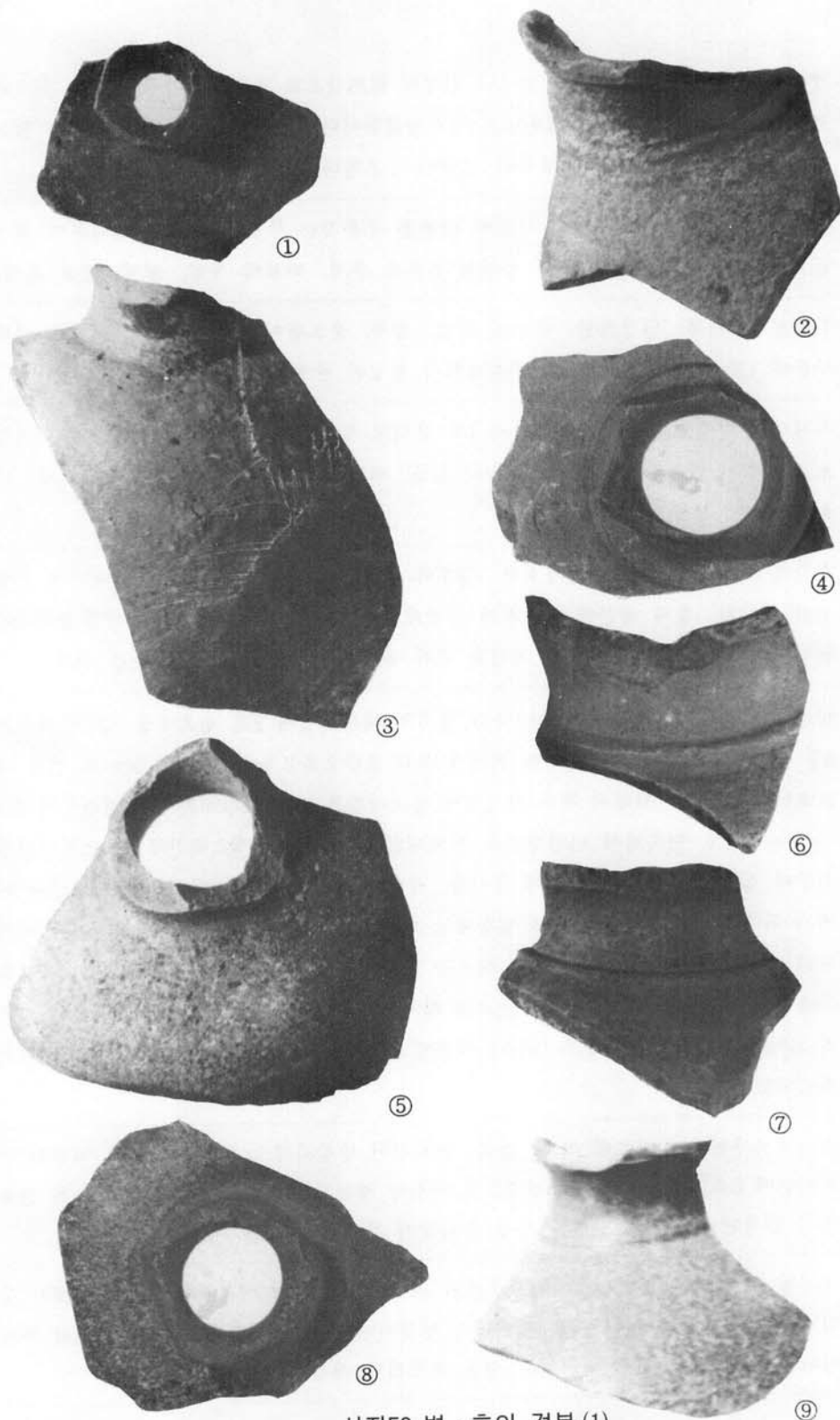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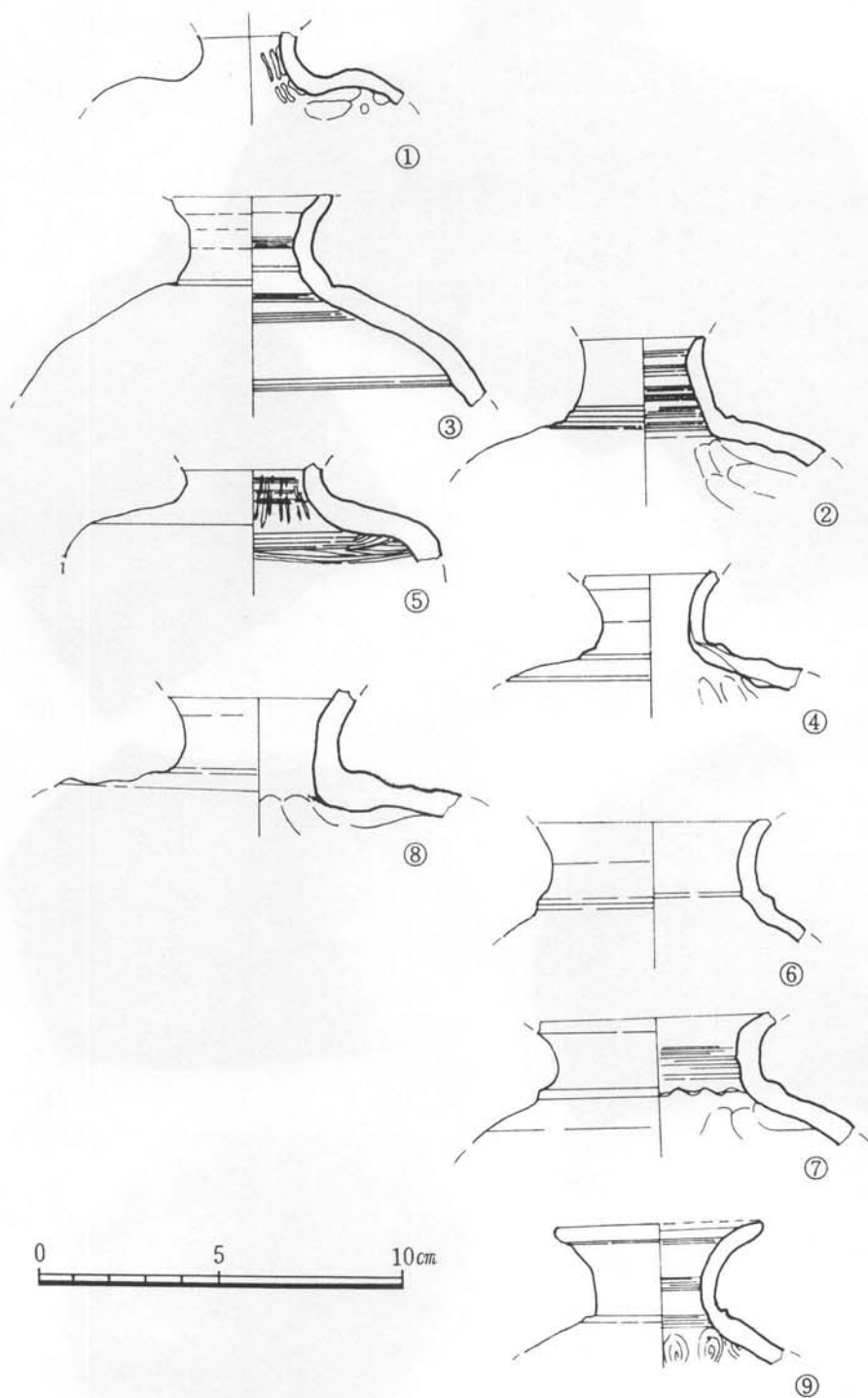


사진58 병 · 호의 견부 (1)



도면34 병 · 호의 견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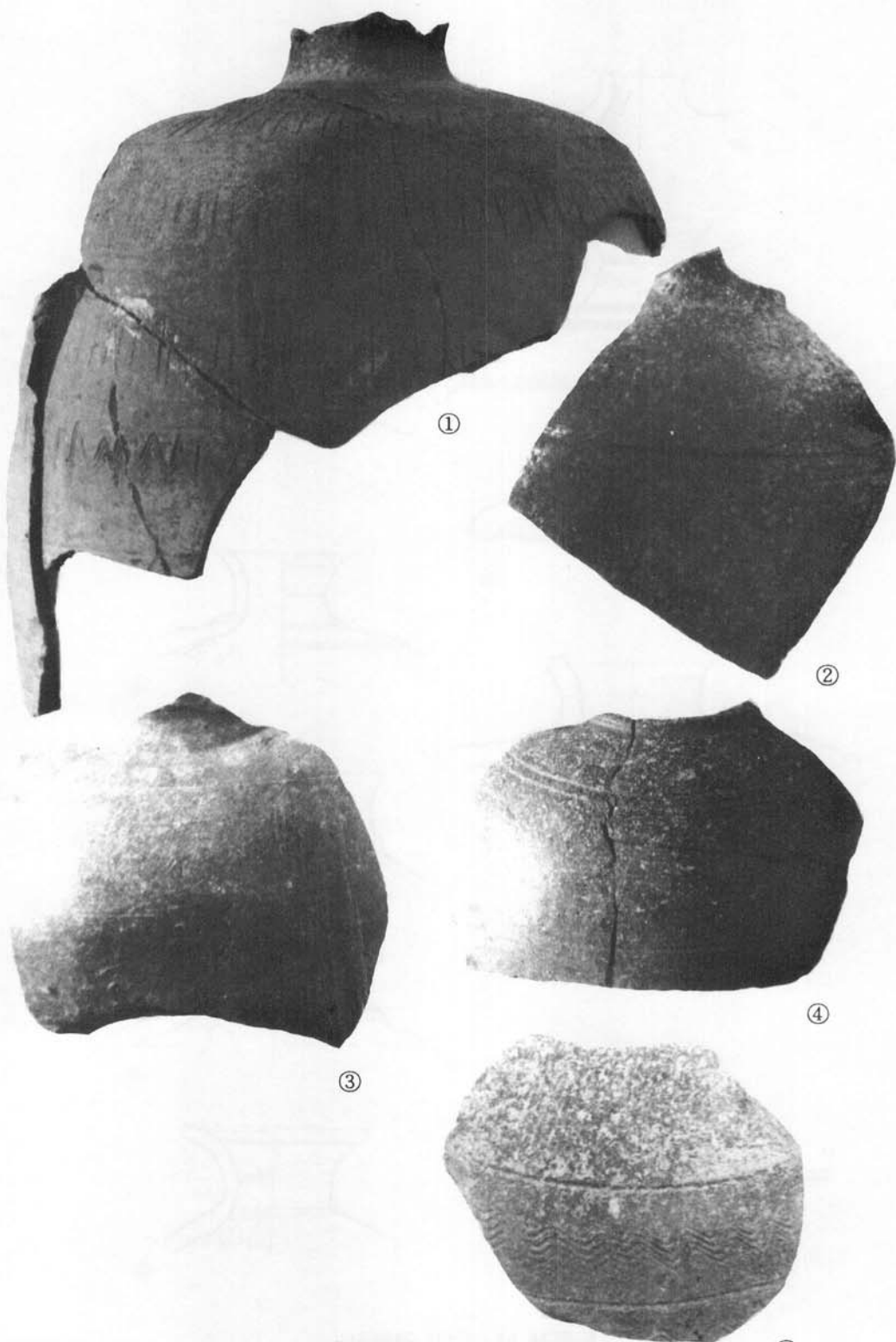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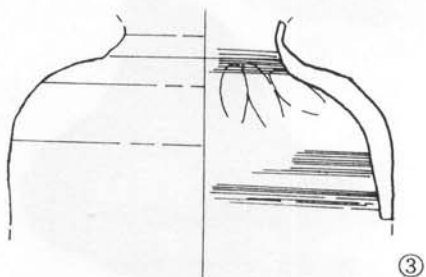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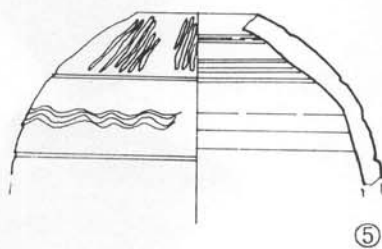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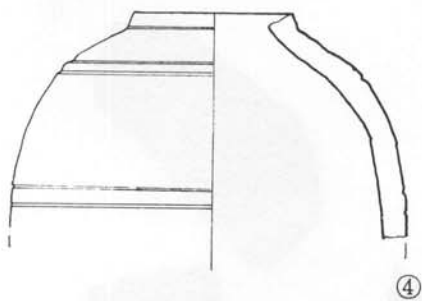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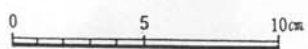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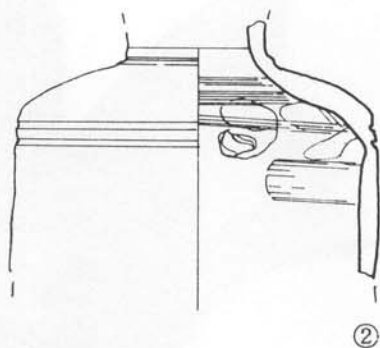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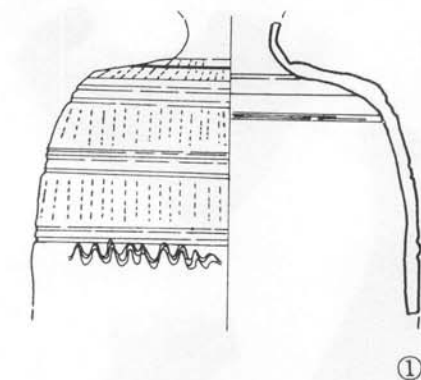


사진59 병 · 호의 견부 (2)

⑤



도면35 병·호의 견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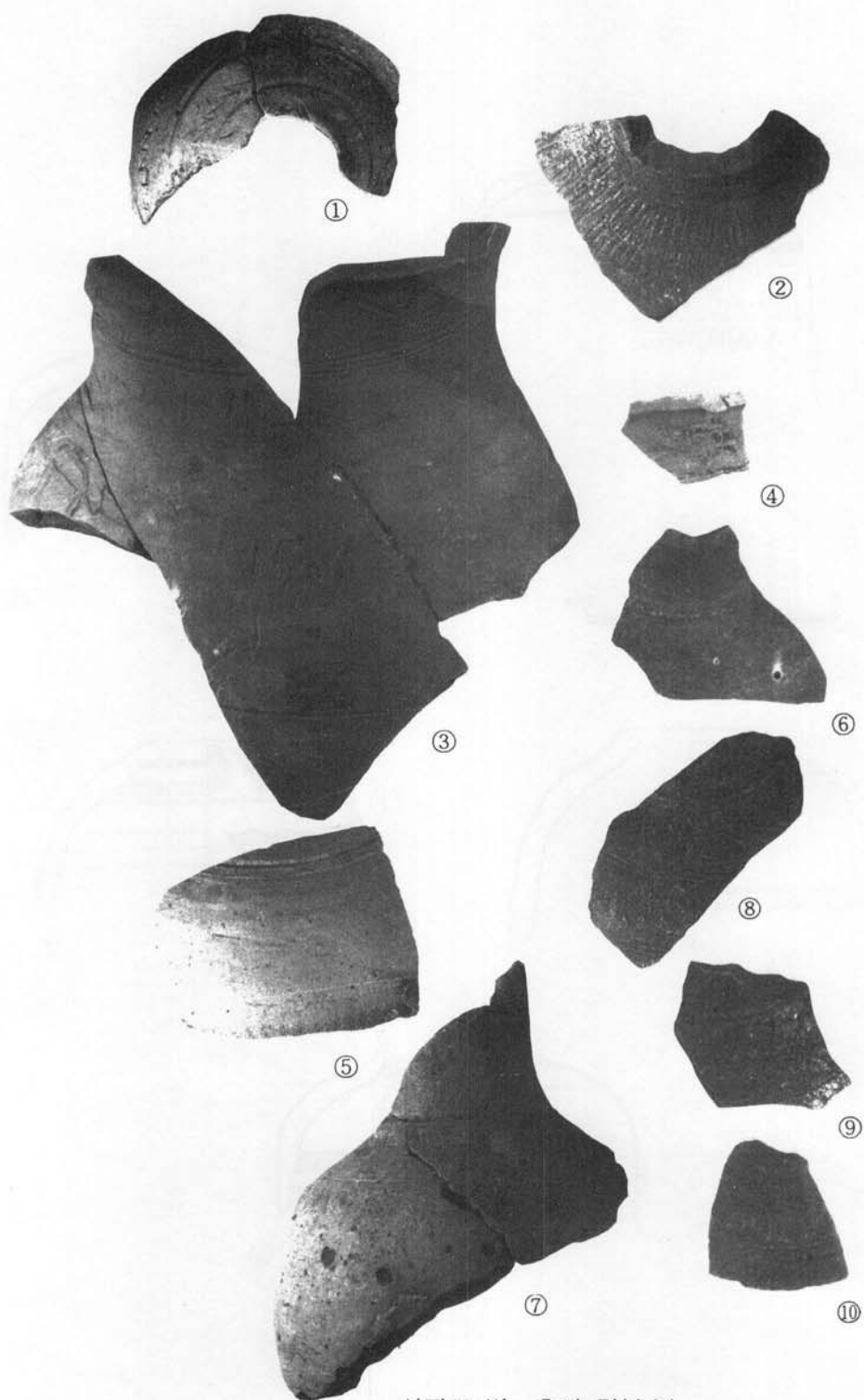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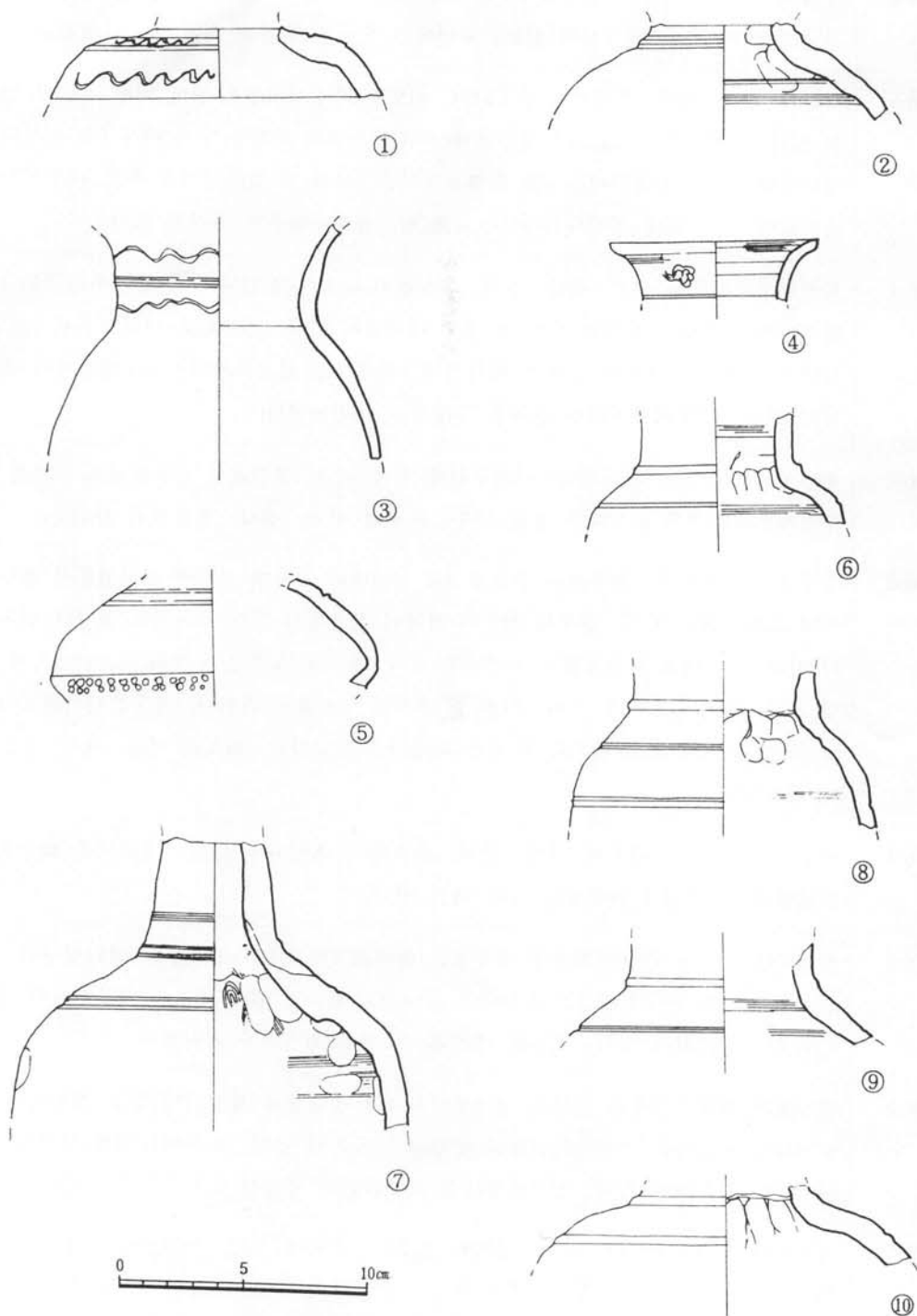


사진60 병·호의 견부 (3)



도면36 병·호의 견부 (3)

35-4	호의 건부. 건부상단과 경부경계부에 1조 돌대문이 형성되어 있고 동체에 2조 침선대가 5.2cm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과 회전흔이 관찰된다.
35-5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편이 관찰되며, 외면은 흑갈색자연유 위에 회색 잿물이 입혀져 있다. 동체상부편으로 1조 침선대와 하단에 3cm의 간격을 두어 다시 1조 침선대가 지나간다. 윗 침선대간에는 4條 密集上下빗줄무늬가 약 2cm간격을 두고 나선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아래 침선대간격에는 4조 밀집음각파상문이 돌려져 있다.
36-1	회색연질광견호의 건부. 석영, 장석, 운모편이 태토에 혼입되어 있다. 건부상에는 1조 십조대가 1.2cm의 간격을 두어 두 줄이 배치되어 있다. 동체하로 내려오면서 1조 침선대가 연속해서 배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건부 1조 십조대간에는 1조파상선이 음각되어 있다. 건부내면처리는 손누름 수법으로 마감하였다.
36-2	광견상의 호편으로 판단된다. 어깨부분에 점사선문이 공간없이 시문되었고 건부상 경부경계부에는 2조 침선대를 돌려 구분.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편이 확인됨.
36-3	장견호의 파편이다. 경부에는 중간에 2조 침선대와 침선대 상하에 파상선문이 불규칙하게 스케치되어 있다. 건부와 경부의 경계에 불규칙한 평행선이 서로 엇갈려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動物文樣이 음각되어 있다. 음각된 동물은 두개의 귀, 네발, 쳐 올린 꼬리, 몸체의 형태로 보아 말(馬)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문양아래로 1조 침선대가 그어져 있고 밑으로 폭 넓은 파상선이 지나간다.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편이 확인된다.
36-4	단견호의 경부편.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편이 혼입되어 있고, 내외면에 회전흔이 뚜렷함. 경부중앙에 飛雲文이 돌려 찍혀 있다.
36-5	육지부에서 흔히 7~8세기대에 유행했던 扁球細頸盤口瓶의 편구부와 동일형이다. 목으로 올라가는 편구상에 1조 침선대가 지나가고 편구의 꺾여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중 원권문이 印紋되어 있다. 외면에 빗질흔, 내면에 회전흔이 관찰된다.
36-6	광견호의 건부. 건부와 경부의 경계부에는 1조 돌대문이 형성되어 있고 건부에서 그릇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는 1조의 침선대가 돌려져 있다. 건상에는 6조 밀집음각파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경부내면에는 오무리면서 형성된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36-7	광견상의 장경병편이다. 회색연질계에 가깝다. 태토에 석영, 장석편이 관찰되며, 경부는 장경형태로 B형의 목에 A형의 문양수법을 가진 형이다. 경부하단의 건부와 경계부는 2조의 침선대를 돌려 구분시켰고 이 2조 침선대 3cm 밑으로 다시 밀집된 2조 침

	선대로 견상을 돌렸다. 그 밑으로 침선대 구분없이 밀집음각파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상단 심조대간에는 6조 음각파상밀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경부와 견부상단 접합부 내면에는 경부를 오무리서 올릴 때 형성된 손누름과 조우기 수법이 관찰된다.
36-8	호의 견부. 경부와 견부경계선에 1조의 돌대선과 견부상에 3.5cm 간격을 두어 2조 선조대가 돌려져 있다. 견상 선조대간에는 5조 밀집음각파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속심은 황갈색이고 내면에는 경부를 오무리면서 올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36-9	견부상단과 경부 경계부에 1조 돌기대, 견부상에 2조 침선대, 침선대간에는 5조 파상문이 시문됨. 속심 회청색.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혼입됨.
36-10	견부상단에 굵은 돌기대와 돌기대에서 견상으로 3.6cm 내려와 굵은 2조 침선대가 돌려짐. 그 중간에 서로 다른 점선문이 시문되었는데, 상단은 점사선문(/////), 하단은 점수직선대()가 배치되어 있다. 다시 견부 심조대밑으로 수직점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속심은 회청색이고 경부에는 오무리며 성형할 때 형성된 손누름 흔적이 남아있다.

6. 굽저부

굽저부는 밀동체선과, 굽에서 저부로의 이음형태를 가지고,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형 : 밀동체선이 부드럽게 내려오며 밑저부는 수평으로 마감된 형.

B형 : 밀동체선과 밑바닥이 같은 각도로 처리된 형.

C형 : 밀동체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밑저부가 들린 형.

대부분이 A형에 속하며 B, C형은 일부에 해당한다. 다시, 굽저부의 굽다리형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 굽다리 끝이 수평으로 끝나는 형.

b : 굽다리 끝이 뾰족하게 마무리된 형.

c : 굽다리 끝이 경사지면서 끝만 거의 수평으로 처리된 형.

* 용담동출토도기 굽저부 속성표

도면	도판	형	색조	현고	저부지름	굽지름	굽높이	굽들린 높이	저부두께	기벽두께
37-1	61-1	B-b	회청색	4.3	8.8	9.5	1.0	1.0	0.6	0.8
37-2	61-2	A-c	암갈색	5.0	7.6	8.0	1.7	1.0	0.4	0.5
37-3	61-3	B-b	회청색	6.1	9.4	9.1	1.0	1.0	0.9	0.6
37-4	61-4	B-a	회 색	2.8	10.4	10.5	0.6	0.5	0.6	0.6
37-5	61-5	C-c	암갈색	3.6	5.6	6.1	1.1	0.4	1.0	0.4
37-6	61-6	A-b	회청색	3.4	8.8	8.8	1.0	0.8	1.0	0.8
37-7	61-7	A-b	회 색	3.2	7.2	8.1	1.0	0.2	0.4	0.7
37-8	61-8	A-b	회 색	6.4	10.6	10.8	0.4	0.4	0.5	0.6
37-9	61-9	A-a	회청색	1.8	9.2	9.2	0.2	0.4	0.6	0.4
37-10	61-10	A-b	회청색	5.4	13.2	13.6	1.1	0.6	0.3	0.6
37-11	61-11	A-a	회청색	5.2	10.3	10.3	0.9	0.4	1.6	1.0
38-1	62-1	A-a	암갈색	9.0	8.8	9.0	2.7	1.8	0.4	0.8
38-2	62-2	B-b	회청색	3.4	9.8	10.0	1.3	0.3	0.6	0.5
38-3	62-3	C-a	회청색	6.4	8.2	8.4	1.4	1.0	0.8	0.7
38-4	62-4	A-b	흑갈색	4.8	11.1	11.3	0.6	0.4	0.8	0.8
38-5	62-5	B-c	회청색	2.6	11.8	12.5	1.4	0.4	0.5	0.6
38-6	62-6	A-b	회청색	3.5	12.6	13.2	1.0	0.8	0.4	0.3
38-7	62-7	B-b	회청색	4.0	7.8	8.6	0.8	0.8	0.8	1.0
38-8	62-8	B-b	회 색	5.4	11.2	11.6	1.0	0.7	0.6	0.5
39-1	63-1	C-b	암갈색	7.1	9.1	9.9	1.3	0.2	1.0	1.0
39-2	63-2	A-b	회청색	2.4	9.4	10.2	0.8	1.0	0.7	1.1
39-3	63-3	A-b	암갈색	3.6	10.3	11.5	1.4	1.5	0.7	1.0
39-4	63-4	A-c	회청색	3.4	8.4	9.3	2.1	1.3	0.4	1.0
39-5	63-5	C-b	암갈색	3.2	4.9	5.8	0.8	0.3	1.4	1.0
39-6	63-6	A-b	회청색	1.9	7.0	7.9	1.5	1.1	0.7	0.8
39-7	63-7	A-b	녹갈색	1.3	8.5	8.8	1.0	0.4	0.9	0.9
39-8	63-8	A-a	암갈색	1.3	6.4	6.8	0.7	0.2	0.5	0.6
39-9	63-9	A-a	암갈색	1.4	7.2	7.0	0.5	0.3	0.4	0.6
39-11	63-11	B-b	회청색	2.6	11.8	12.5	1.4	0.4	0.5	0.6
39-12	63-12	C-c	회청색	3.0	7.1	7.6	0.6	1.4	0.6	0.6

도면 번호	도기의 특징과 제작 기법
37-1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 확인됨. 굽저부의 외면(슬립)이 벗겨져 나감. 내면의 물손질 수법이 정연하지 못함. 태토 보강제 알갱이가 밖으로 돌출됨. 속심 회청색.
37-2	외면 물손질이 정연함. 빗질흔과 손지문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회전흔이 관찰됨. 굽다리끝에 소분 알갱이가 형성시 잘못되어 부착됨.
37-3	굽다리 내면이 오목하게 올라온 형. 동체상에 2조 심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심조대위로 3조 밀집음각파상선이 지나감. 굽저부 바닥에 '井'자가 그어져 있음. 굽다리 부분만을 밀바닥부분과 따로 만들어 부착한 흔이 단면에서 관찰됨. 속심 회색.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편이 확인됨.
37-4	굽다리를 따로 만들어 부착한 부분이 굽바닥에서 균열로 나타남. 속심 회청색. 굽다리 끝은 수평으로 처리함.
37-5	소형병이나 호의 저부편. 내면에 나선형 돌기대가 돌려져 있고 바닥면에는 회전대가 형성되어 있다. 태토에는 굵은 석영알갱이가 관찰된다. 굽다리접합선이 확인된다.
37-6	그릇 내외면에 회전흔이 확인되며 굽다리와 밑동체의 접합부에 돌기대가 미미하게 형성되어 있음. 속심 회색.
37-7	굽다리를 밖에서 감아 올려 부착함. 내외면에 빗질흔. 속심 회색. 태토에 석영, 장석이 확인됨.
37-8	평저에 가깝게 아주 낮게 굽다리가 형성됨. 내면은 깎기 수법과 물손질, 빗질흔. 속심 회청색.
37-9	속심 황갈색. 낮은 굽. 굽다리 끝은 둥글게 마감.
37-10	내면에 빗질흔, 물손질 정면.
37-11	도기 전면에 기포 형성. 소성 불안전. 밑동체 외면에는 녹색 자연유가 입혀짐. 잔존 동체에 상하로 세로줄 돌기대가 형성됨. 돌기대 간격은 3cm이고 돌기대의 폭은 0.6~0.7cm임. 굽다리와 저부 경계부에 1조 음각대를 돌림. 내면에 회전흔과 물손질 흔적이 관찰됨. 태토는 석영편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음. 속심 회청색.
38-1	굽다리의외면에 2조의 음각대가 돌려져 있음. 속심 회청색.
38-2	굽다리 다소 결실. 속심 회청색. 내외면에 회전흔 잔존.
38-3	밑동체부 외면에 폭넓은 6조 음각파상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저부에서 동체로 연결되는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이 관찰됨.
38-4	기포 형성. 도기내면에 엇갈려 그은 빗질흔이 관찰됨.
38-5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고 속심은 황갈색. 굽다리 끝은 수평으로 마감. 흑갈색 시유 도기편. 매우 조밀하고 정선된 회전흔이 뚜렷함.
38-6	속심 황갈색. 내면에 회전흔.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가 혼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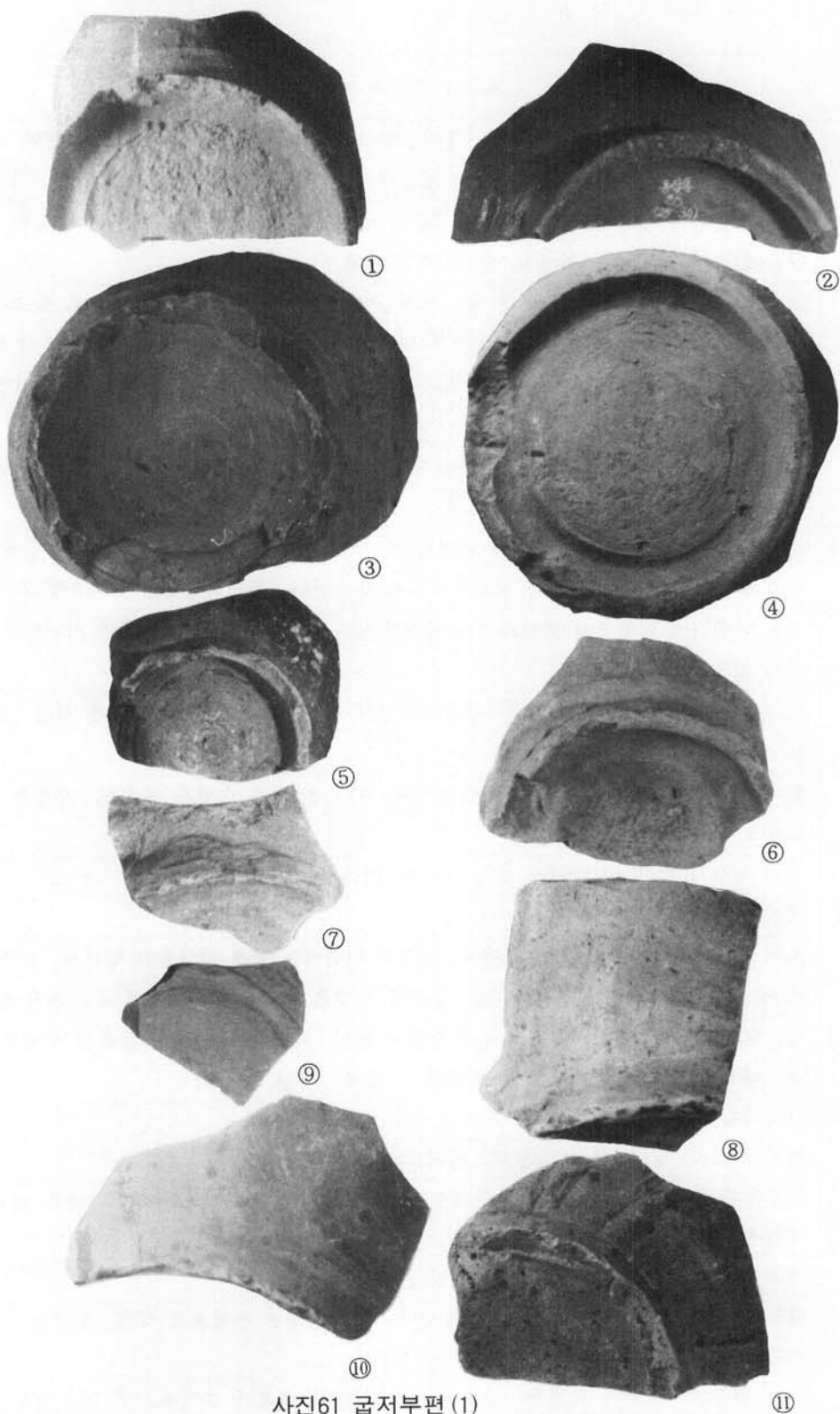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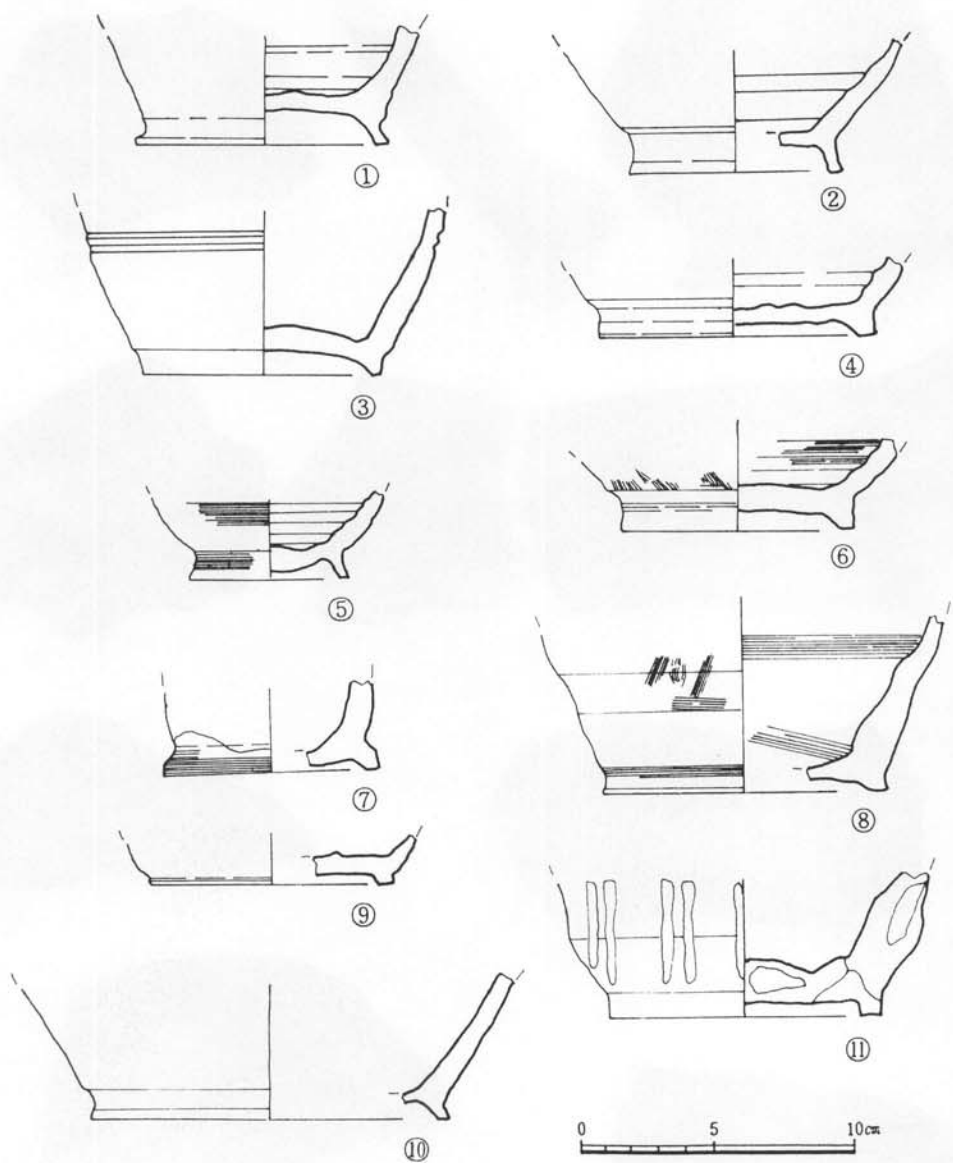


사진61 굽저부편 (1)



도면37 굽저부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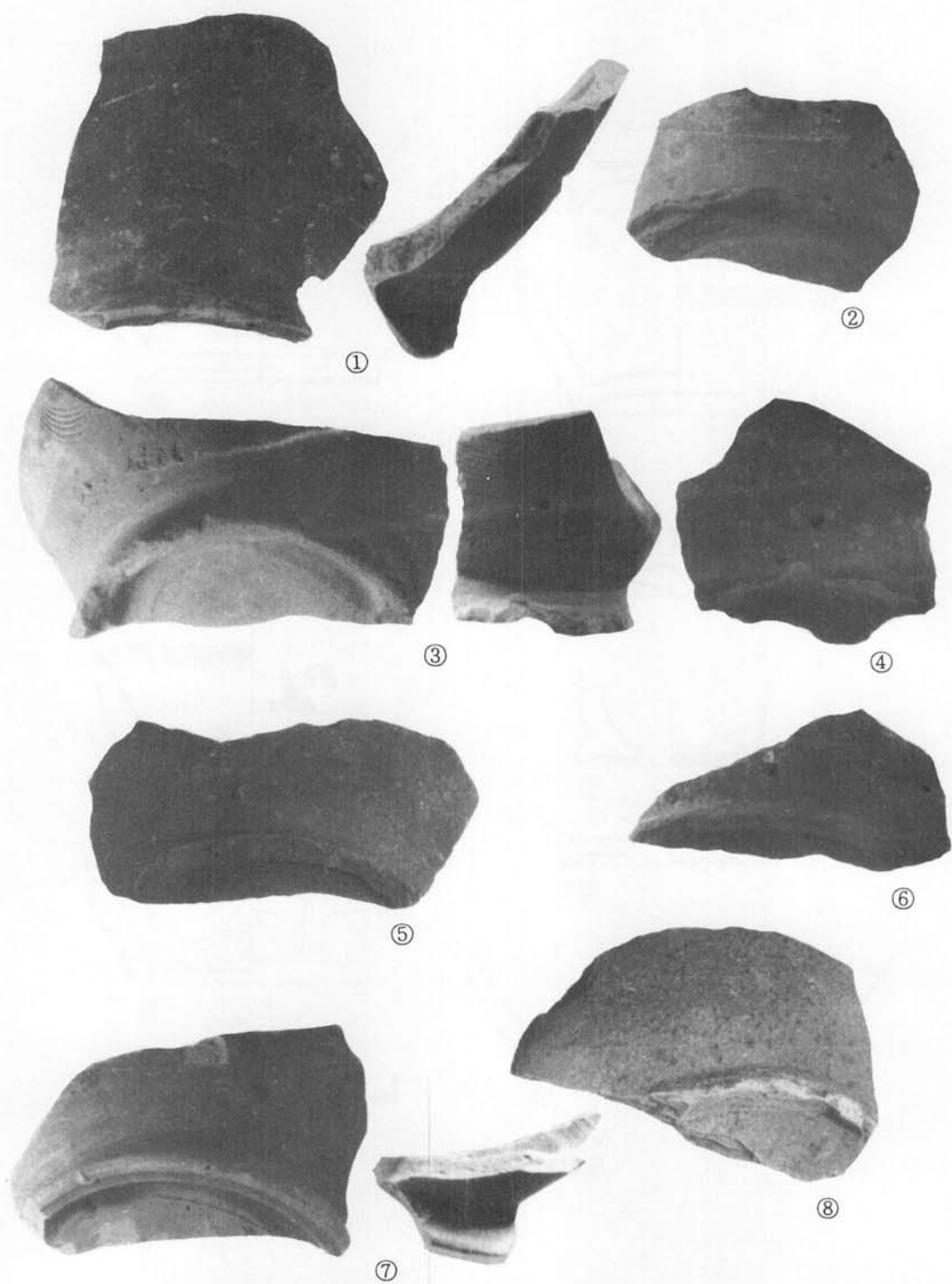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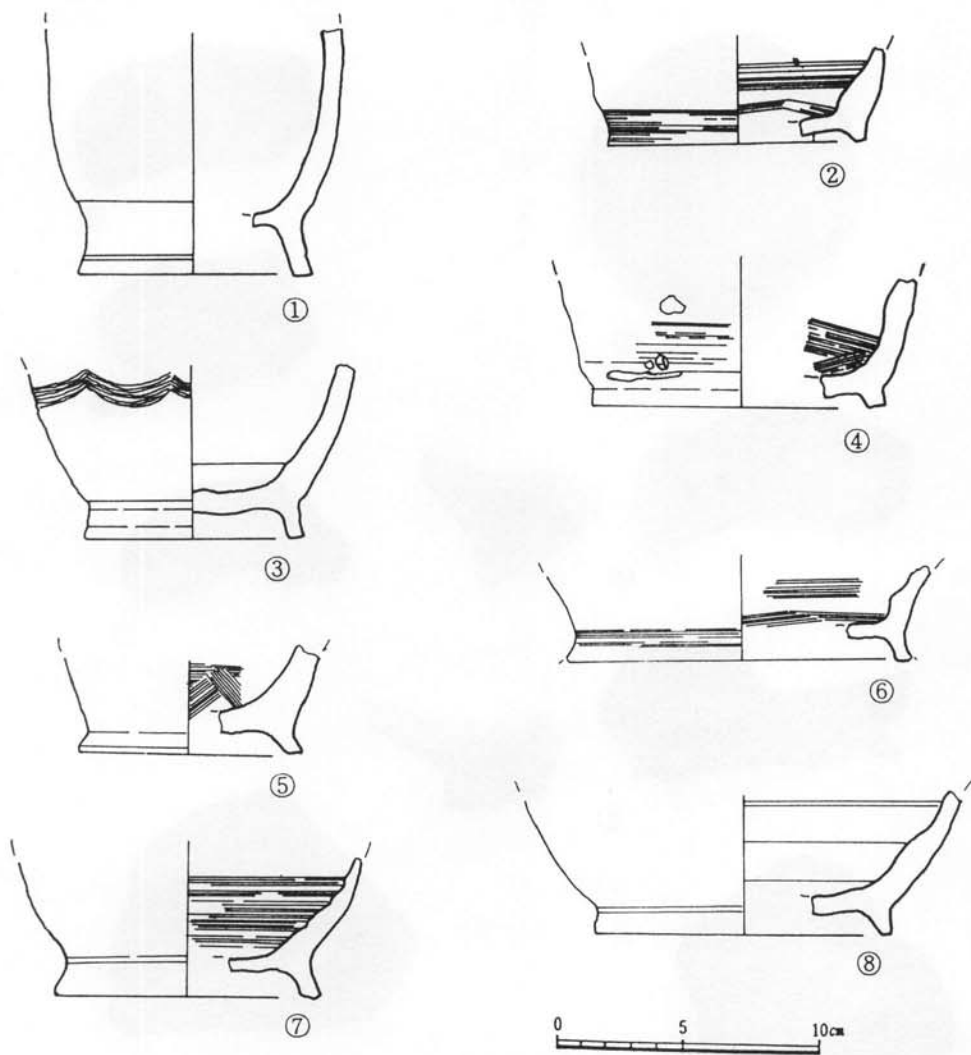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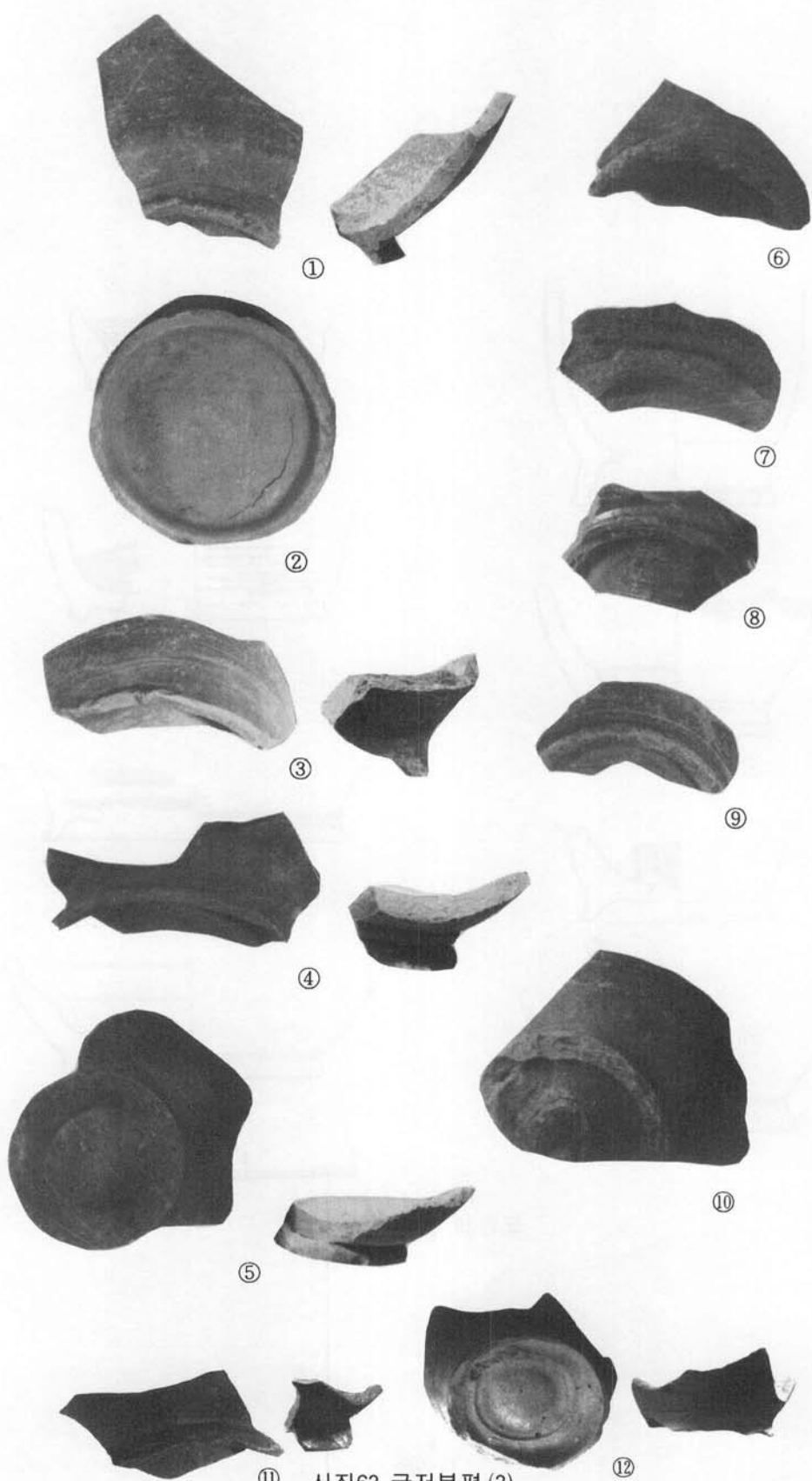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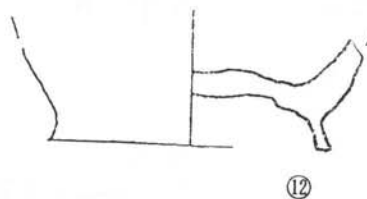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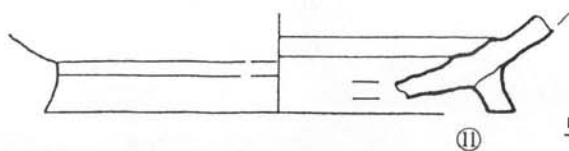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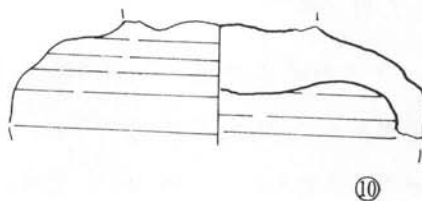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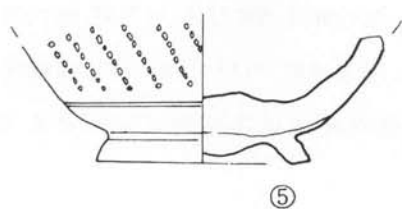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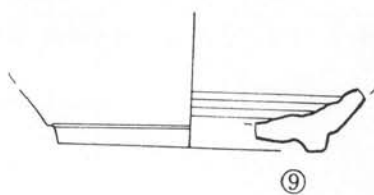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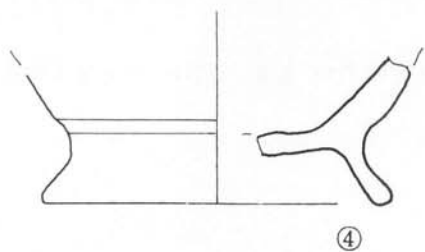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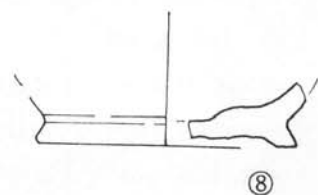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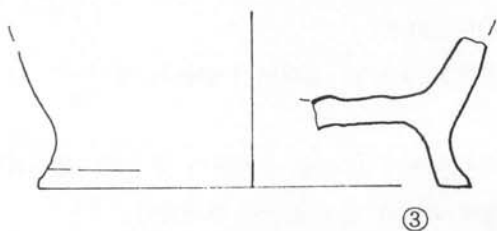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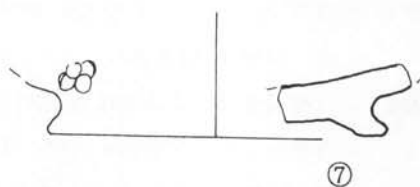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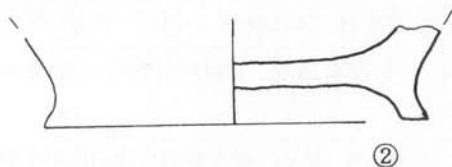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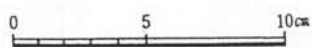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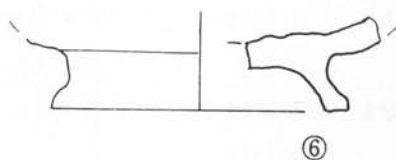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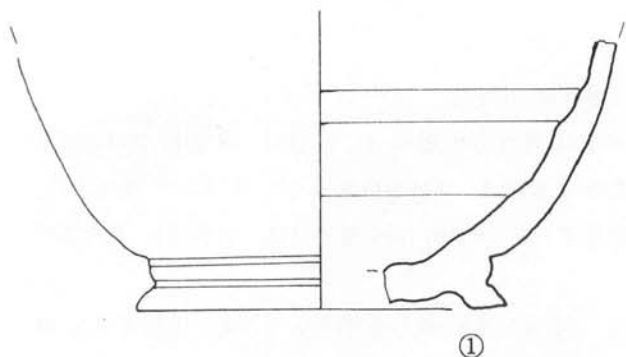
사진62 굽저부편 (2)



도면38 굽저부편 (2)



⑪ 사진63 굽저부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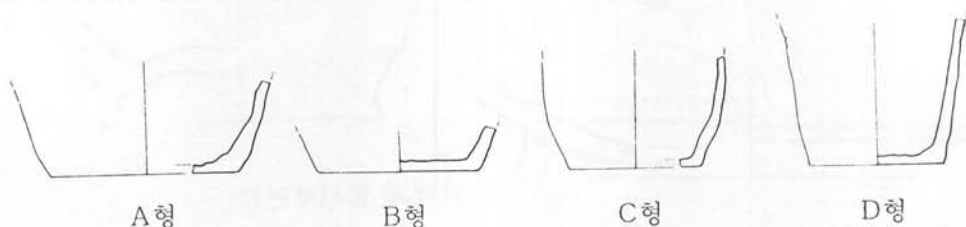


도면39 굽저부편 (3)

38-7	속심 회청색. 내면에 엷갈려 친 빗질흔이 관찰됨.
38-8	굽다리완편일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편이 확인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내면은 깎기수법으로 단을 만들었고 굽다리는 부착흔이 관찰된다. 내면상단에서 1조 음각대가 확인된다.
39-1	굽다리부분은 2단 음각대로 구분하였고 도기내면에 나선형돌기대, 외면에는 회전흔이 관찰된다.
39-2	굽다리와 밑바닥을 따로 접합하였고 그릇내면에는 회전음각대가 형성됨. 바닥에서도 회전흔이 관찰됨.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가 확인됨.
39-3	그릇외면에 불규칙한 음각대가 그어져 있고 중앙에 's'모양이 그려짐. 속심 회색.
39-4	태토 정선. 굽다리 밖으로 외반. 굽다리 끝은 둥글게 마감. 굽다리외면에 1조 음각대 형성. 내면에 회전흔.
39-5	소형그릇편. 굽다리와 밑바닥은 심하게 오무라지며 형성. 밑동체하단에 점사선문이 밀집해서 /////형으로 연속 시문됨. 그 아래로 밀집음각대가 형성됨. 도기내면에 나선형 음각대가 만들어 짐. 속심 회색. N16 L30-40.
39-6	도기내면에 나선형 회전돌기대 형성. 외면은 물손질. 굽다리가 급하게 벌어지는 밑동체부. 속심 황갈색.
39-7	태토에 석영, 장석, 운모편이 혼입되었으며 내면에 나선형 음각대가 형성됨. 굽다리에서 밑동체로 급하게 올라가는 데, 이 밑동체 외면에 밀집원문이 찍혀있다.
39-8	시유 도기. 굽과 밑동체가 '〈'로 꺾여 올라가며 내외면에 회전흔이 남아 있고 내면에 음각돌기대가 형성되어 있음.
39-9	연질. 낮은 굽. 굽상단의 꺾이는 부분에 1조 음각대 형성. 내면에 나선형음각대가 형성됨.

7. 평저부

이 유적에서 출토된 도기저부편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8세기대 이후의 도기저부는 보편적으로 평저인 점과 일치한다. 평저인 경우 밑동체와 바닥이 연결되는 형태에 따라 크게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도기의 기형과 관련있는 것으로 편년이나 자료통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밑동체에서 저부로 내려오는 형태에 따른 분류

- A형 : 동체의 선이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 오는 형 (약 60도).
 B형 : 동체의 선이 45도정도 경사지게 바닥에서 벌어지는 형.
 C형 : 동체의 선이 A형보다 급하게 올라가면서 약간 내반하는 형 (70도).
 D형 : 바닥에서 이어져 올라가는 동체의 선이 직각인 형 (각병 유형).

(2) 바닥끝선이 정리된 모양에 따른 분류

- a형태 : 바닥끝이 둥글게 처리된 형태.
 b형태 : 바닥끝이 날카롭게 꺾인 형태.
 c형태 : 바닥끝이 불룩하게 처리된 형태.
 d형태 : 바닥끝이 오목하게 처리된 형태.

(3) 도기의 외면, 내면, 속심색의 분류

- ① 회청색 ② 암갈색 ③ 회색 ④ 황갈색 ⑤ 녹갈색 ⑥ 명갈색

(4)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의 혼입여부

- 0 : 혼입된 경우
 x : 혼입되지 않은 경우

* 표를 읽는 방법 : 예) A-a-①-②-③-0 : 바닥에서 동체로의 연결이 완만하게 올라가며
 바닥끝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표면색은 회청색, 내면은 암
 갈색, 속심은 회색 계통을 띤다. 태토에는 석영, 장식, 운모가
 보강제로 혼입되어 있다.

* 용담동유적출토 평저부의 속성표

순 번	도면 번호	현고	저부 지름	기벽 두께	바닥 두께	속성분류	태 토	외 면	내 면	바닥수법
40-1	64-1	4.2	10.2	0.8	0.8	A-a-①①①	0	자연유, 빗질흔	불규칙한 빗질	실로자른 흔적
40-2	46-2	4.1	15.6	1.2	0.8	D-a-①①①	x	물손질, 자연유	음각대, 회전흔	짚자국
40-3	64-3	2.2	14.2	0.5	0.7	A-a-①①①	0	자연유, 면고른 흔적	나선형음각돌기대	짚자국
40-4	64-4	9.4	12.0	0.7	0.7	C-b-①①①	0	빗질흔	회전흔, 세리질자국	기포자국, 거침
40-5	64-5	7.0	13.2	1.2	1.0	A-b-①③①	0	상하빗질자국, 하단 균열	밀집음각회전대 기포	바닥 따로부착 소분자국

순 번	도면 번호	현고	저부 지름	기벽 두께	바닥 두께	속성분류	태 토	외 면	내 면	바닥수법
40-6	64-6	4.2	13.6	0.9	0.8	D-a-⑤①③	0	면고른흔적, 자연유	밀집음각회전흔	
40-7	64-7	5.2	11.8	0.8	0.9	D-a-①①①	0	면고른자국	엇갈려 빗질	
41-1	65-1	5.7	12.0	0.8	0.7	A-a-①①①	0	면고른자국	빗질, 손누름자국	
41-2	65-2	2.2	11.0	1.2	1.2	B-b-①①①	0	면고른자국	음각선대	소분이 빠져나간 자국
41-3	65-3	4.4	8.8	0.5	0.5	A-a-②⑤③	0	시유도기, 하단음각 대, 빗질흔	회전흔, 바닥중앙내 저원	네모꼴자국
41-4	65-4	3.4	10.4	0.5	0.5	A-a-①①①	x	물손질	밀집음각선, 회전흔	
41-5	65-5	4.1	8.6	0.5	0.5	D-a-①①①	x	물손질	회전흔	평평하게 처리 물손질
41-6	65-6	4.2	11.2	1.2	0.7	A-a-①①①	x	한단에 1조 선조대	음각밀집나선형	바닥따로성형, 짚흔적
41-7	65-7	3.0	10.6	0.7	0.7	A-a-⑥①③	0	물손질	빗질흔	미세한 나이테자국
41-8	65-8	3.2	10.7	0.6	0.6	A-a-②⑥⑥	0	자연유	나선형음각회전대	짚흔적
41-9	65-9	3.4	12.8	0.5	1.2	A-a-①①①	0			
41-10	65-10	3.4	12.3	0.9	0.9	A-a-③③③	0	면고른자국 상하밀집빗질흔	나이테형회전흔	소분자국
41-11	65-11	6.5	10.1	1.2	0.7	A-a-③①③	0		나선형회전흔	
42-1	66-1	3.6	10.6	0.6	0.6	A-a-③③③	0	상하빗질밀집 음각대	바닥 가장자리에 내저원, 물손질	가장자리 단사선 형 소분자국
42-2	66-2	4.6	11.1	0.4	0.8	A-b-①①①	0	상하빗질흔	서리기수법관찰 회전흔적	
42-3	66-3	8.2	10.0	0.7	0.6	C-b-②①④	0	자연유, 물손질	회전흔	
42-4	66-4	3.8	8.7	0.7	0.6	A-b-①①④	x	물손질	물손질	바닥따로부착, 물손질 일부툽니흔
42-5	66-5	4.2	9.8	0.9	0.8	A-c-⑥⑥④	x	수평으로 빗질흔	바닥가장자리로 손누름흔적, 빗질흔	
42-6	66-6	2.4	10.2	0.5	0.5	B-b-①①①	x		빗질흔	물손질
42-7	66-7	4.4	9.0	0.5	0.6	A-b-⑥④④	x	물손질	빗질흔	바닥얕게처리, 소분
42-8	66-8	6.4	13.0	2.1	3.0	D-b-③③③	0	균열, 기포	기포형성, 감아올린 흔적	물손질, 바닥따로 부착 흔적
42-9	66-9	5.6	9.0	0.4	0.6	C-b-④④④	x	물손질	물손질, 빗질흔 부분적으로 손누름	석영소분
42-10	66-10	5.2	12.2	0.6	0.9	A-a-②①①	0	물손질, 균열, 시유	회전흔	석영소분
42-11	66-11	5.6	11.8	0.6	0.8	A-a-②②①	0	물손질	회전흔	석영소분
43- 1	67-1	4.8	9.2	0.7	0.8	A-a-①①①	0	회전흔	회전흔	석영소분, "x" 자국
43- 2	67-2	2.3	12.6	0.5	0.8	A-a-①①①	0	빗질흔	회전흔	바닥 따로 부착
43-3	67-3	7.6	13.5	0.5	1.2	C-a-②②①	0	표면에 잿물비짐 알갱이 노출		바닥면 실로자른흔
43-4	67-4	5.2	12.1	1.2	2.0	C-b-②②③	0	물손질, 기포형성	나선형회전흔	바닥 따로성형, 짚흔
43-5	67-5	4.8	11.3	0.6	1.0	C-a-①①①	x	물손질	내저원, 나선형회전대	바닥 따로부착
43-6	67-6	5.2	11.2	1.4	0.6	A-a-①⑥⑥	0	빗질, 회전흔	손툽자국, 빗질	실로 자른흔적
43-7	67-7	4.4	14.1	0.7	0.8	D-a-②①①	0	자연유, 물손질	빗질	바닥 따로부착

순 번	도면 번호	현고	저부 지름	기벽 두께	바닥 두께	속성분류	태 토	외 면	내 면	바닥수법
43-8	67-8	4.2	11.4	0.8	1.0	D-c-①①④	0	물손질	빗질, 손누름	실로 자른흔적
43-9	66-9	6.0	10.7	0.9	0.7	C-a-③①①	0	회전흔, 빗질 비집알갱이 노출	회전흔	바닥따로부착
43-10	67-10	11.2	0.7	0.7	x	D-c-①①①	x	상하빗질, 물손질	빗질흔	
43-11	67-11	5.3	12.2	0.6	0.7	C-a-①①①	0	빗질	빗질, 바닥내부 손 누름	실로 자른흔적
44-1	68-1	5.7	13.0	0.6	1.3	A-a-②①④	x	자연유, 물손질 손누름	회전흔	바닥 따로부착
44-2	68-2	5.0	16.2	0.5	0.9	A-a-③③③	0	불규칙한 빗질	빗질, 손누름	소분탈공흔
44-3	68-3	4.4	14.4	0.9	1.2	A-b-①⑥④	x	세로빗질흔, 물손질	물손질, 빗질, 대칼흔 물손질	바닥 따로부착
44-4	68-4	4.6	14.6	0.5	0.8	A-a-④④④	0	물손질	회전흔	소분흔적
44-5	68-5	7.4	12.5	0.7	0.8	A-b-②①①	0	기포형성, 빗질 물손질불량	회전흔, 빗질흔	물손질
44-6	68-6	6.8	14.2	0.6	0.7	A-a-①①①	x	상하빗질, 물손질	회전흔, 빗질흔	물손질
44-7	68-7	5.3	11.2	0.9	0.9	A-a-①①③	0	밀저부를 돌아가며 「ㄱ」가 그어짐	비집알갱이노출 빗질	바닥 따로 부착 소분
44-8	68-8	4.6	14.4	0.6	0.9	A-a-①①①	0	빗질	바닥테두리빗질	
44-9	68-9	4.8	15.7	0.7	0.6	C-c-①①①	x	물손질, 바닥위 대칼질	빗질, 회전흔	
45-1	69-1	11.0	10.4	0.7	0.7	D-a-①①①	0	물손질, 상단에 불규 칙한 2조선조대	손누름, 엇갈려빗질 바닥선회전빗질	바닥에 ㄱ모양으로 있고 물손질
45-2	69-2	13.7	12.4	0.7	0.7	C-a-③③③	0	물손질, 빗질	나선형밀집선회전대	실로 끊어낸 자국 비집알갱이 노출
45-3	69-3	7.9	13.0	0.7	0.8	D-a-②①①	0	물손질, 시유	태토정선, 빗질, 손톱누름흔적	물손질, 면평평하게 고른 흔적
45-4	69-4	6.4	16.7	0.8	0.9	A-a-①①①	x	빗질, 회전흔	소분흔적	
45-5	69-5	5.9	20.0	0.9	1.0	D-a-①①④	0	비집알갱이노출 상하빗질	회전대, 빗질	소분흔적
45-6	69-6	7.0	12.0	0.6	0.6	D-a-②①④	0	중간에 1조선선대 비집알갱이노출	회전흔, 바닥오목 처리	소분흔적
45-7	69-7	8.2	12.0	0.6	0.5	C-b-⑤①①	0	밀집음각선조회전 대형성	회전흔, 비집알갱이	실로자른흔적
45-8	69-8	9.6	14.2	0.7	0.9	D-a-②③③	0	밀에 1조음각선조대 형성, 물손질, 빗질	음각회전대, 바닥 부분 손누름흔적	그은자국 ㄱ
46-1	70-1	4.8	13.9	0.7	0.9	A-a-②①④	0	자연유, 물손질	회전흔	바닥 따로부착
46-2	70-2	3.8	13.4	0.5	0.7	B-c-①①①	0	상하빗질흔, 벗겨짐	회전흔, 빗질, 수평 칼자국	
46-3	70-3	3.6	12.6	0.7	0.7	A-a-①①①	x	빗질흔, 물손질 불량	손누름, 태토정선 자리에 ㄱ그어짐	저부 따로부착, 바닥
46-4	70-4	3.6	14.7	0.5	0.9	A-b-①①①	x	빗질흔	바닥중앙손누름 회전흔	바닥 자리에 ㄱ그어짐
46-5	70-5	7.0	12.8	0.5	0.9	C-a-②①①	0	상하빗질	빗질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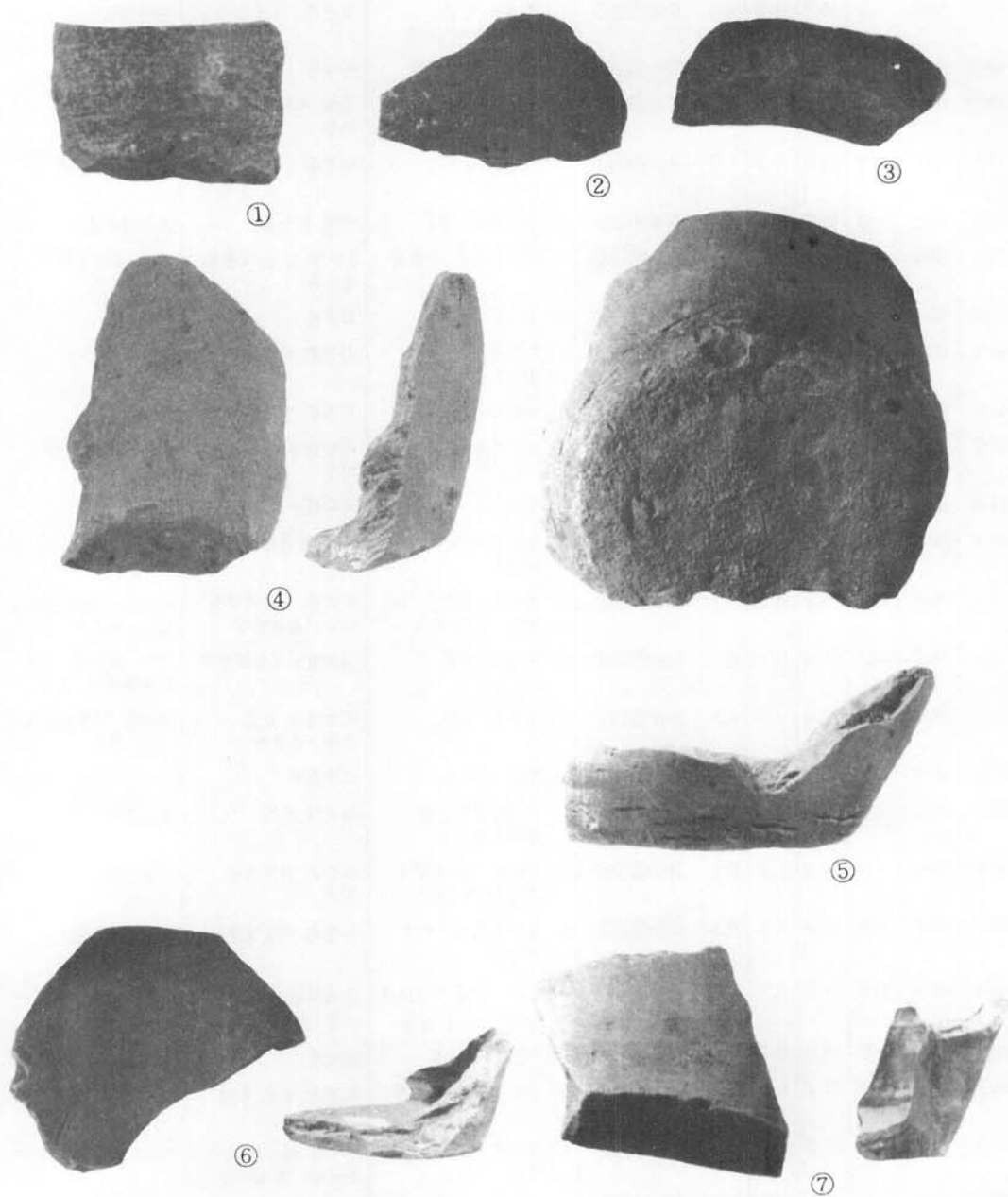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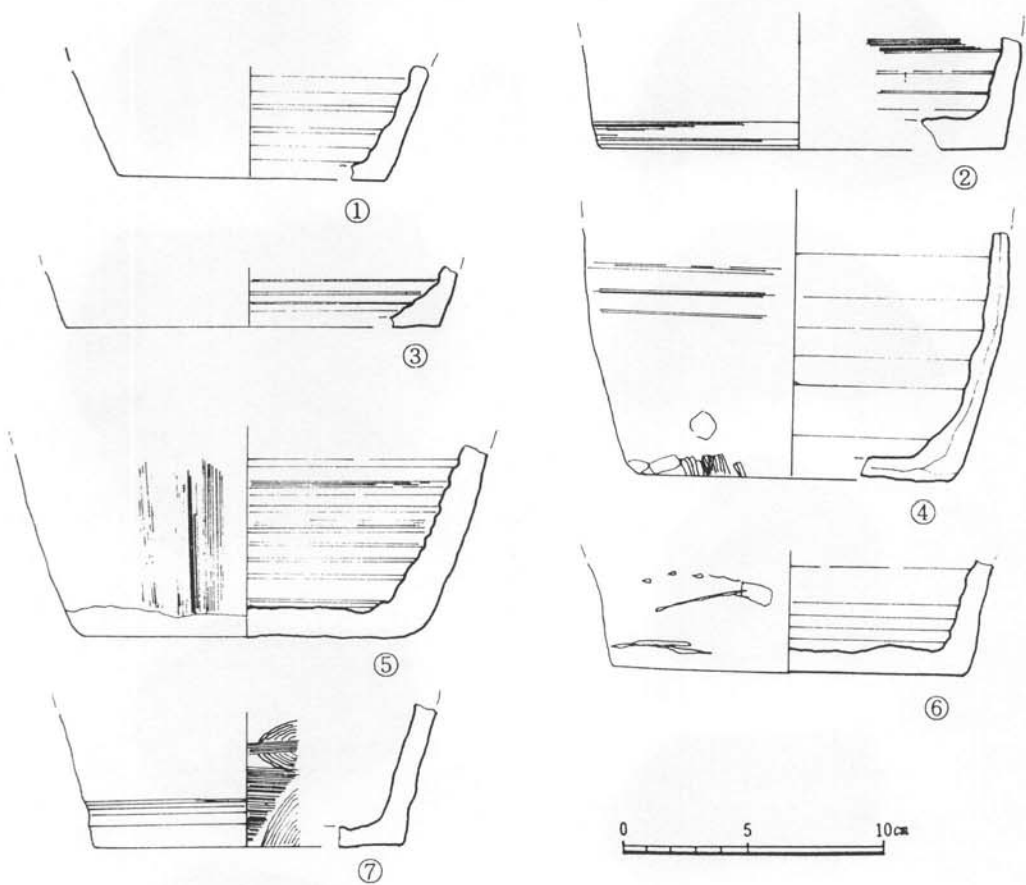


사진64 평저부편 (1)



도면40 평저부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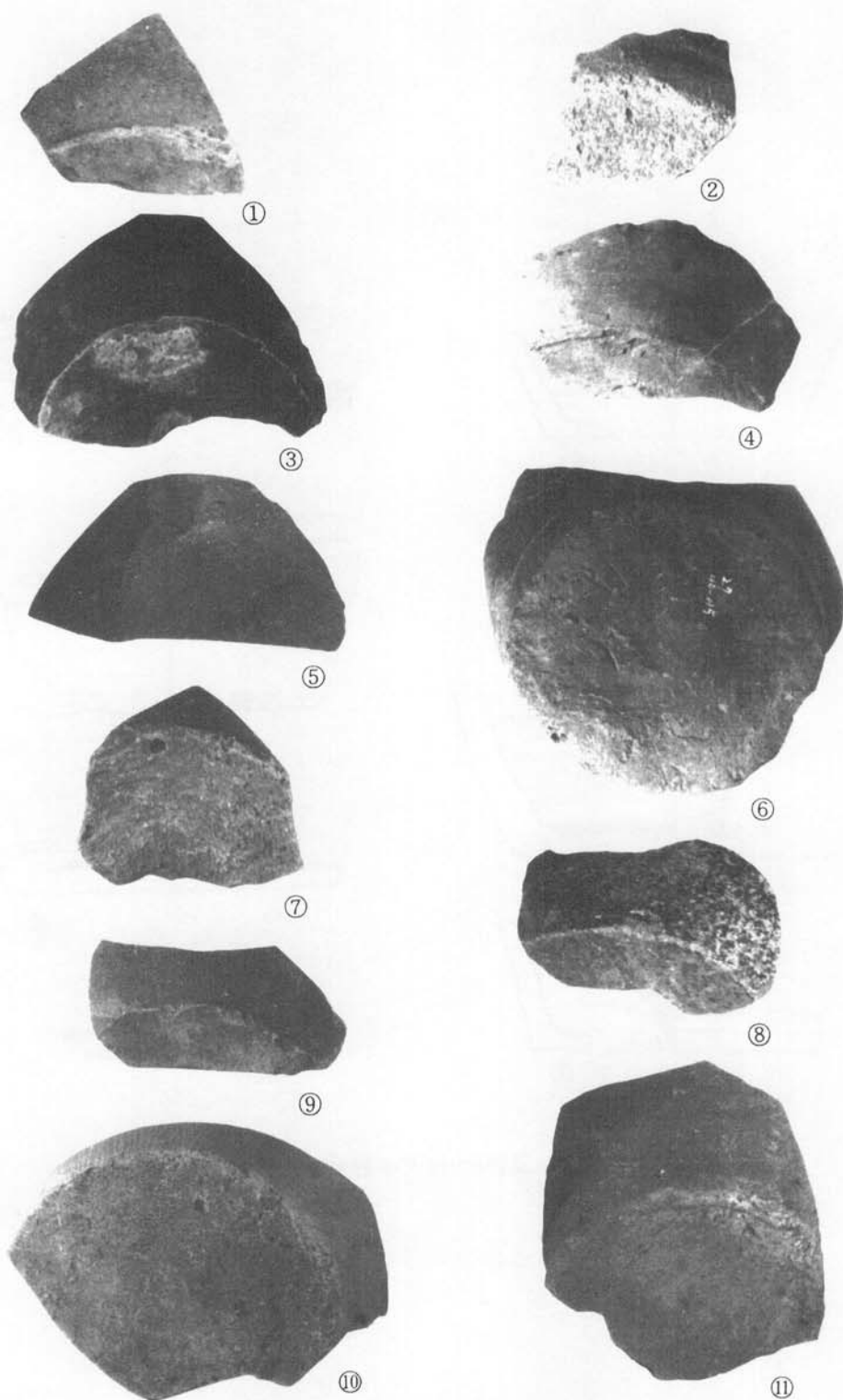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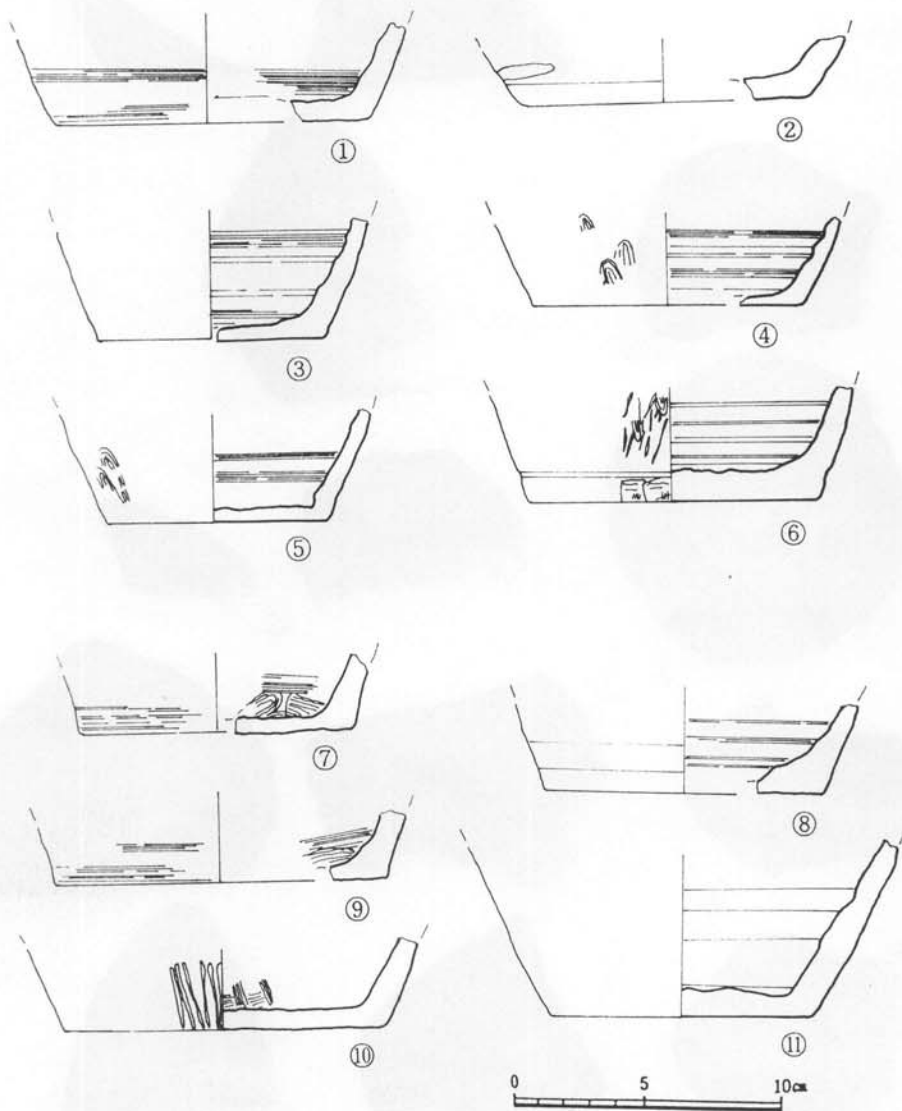


사진65 평저부편 (2)



도면41 평저부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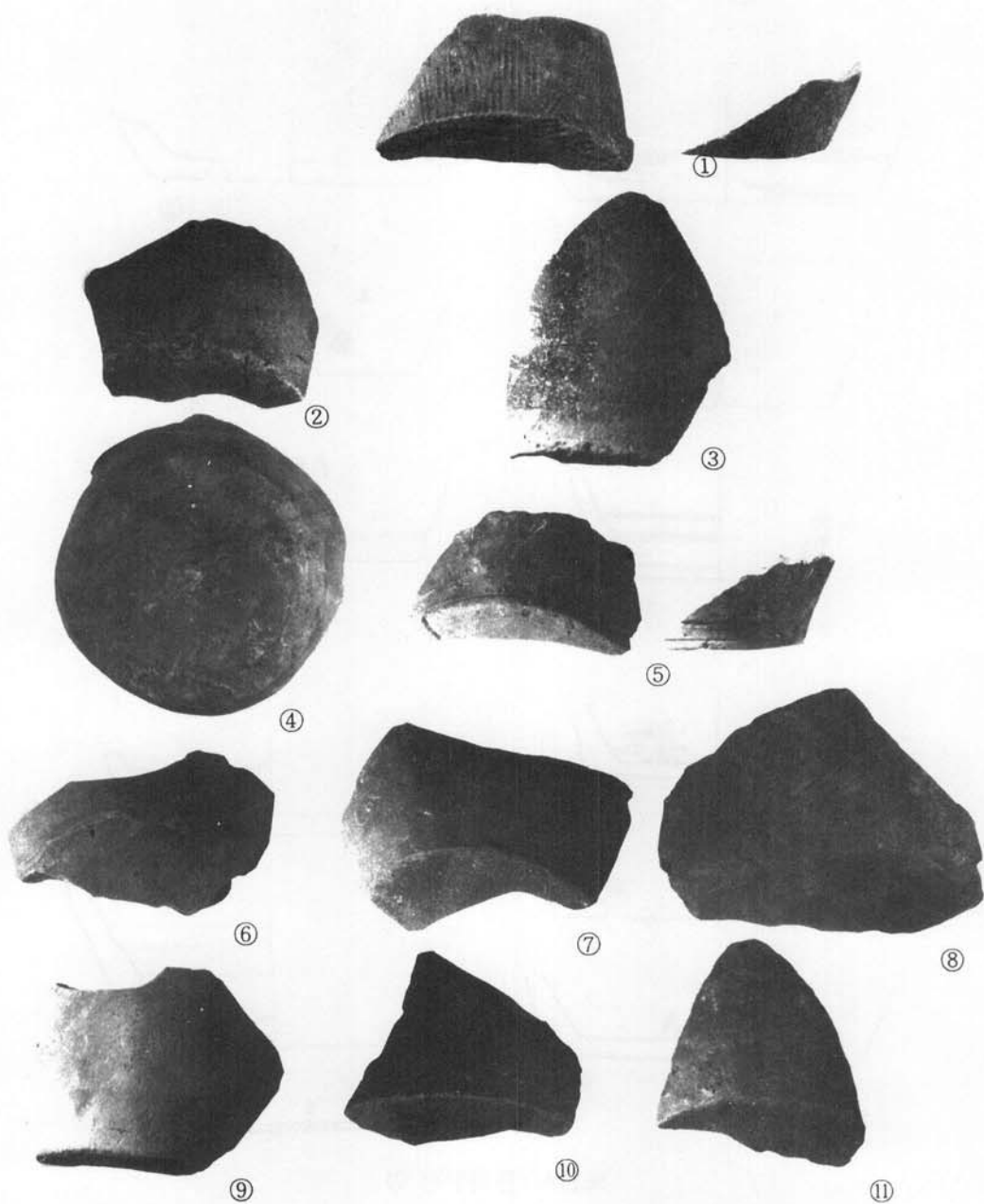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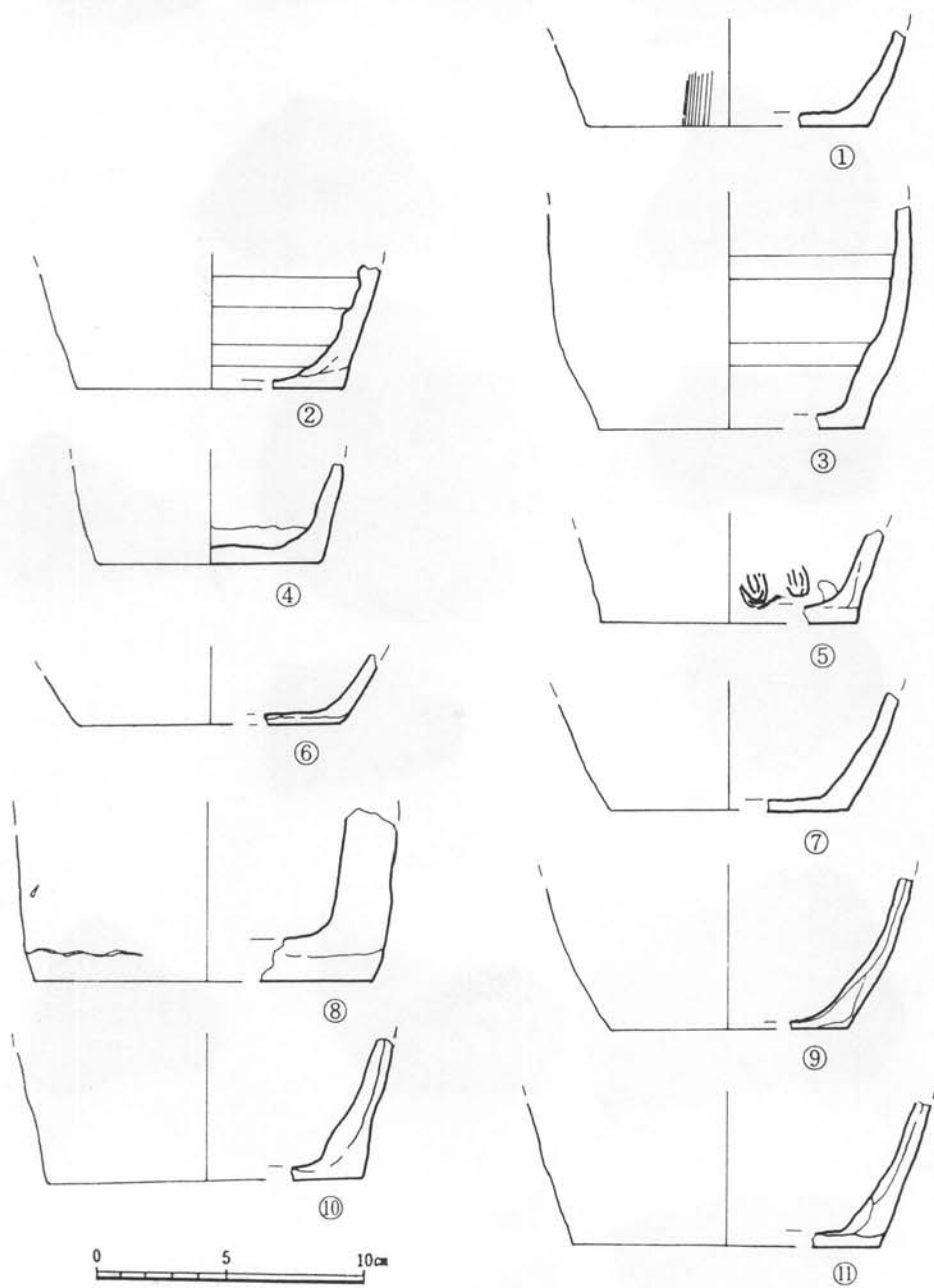


사진66 평저부편 (3)



도면42 평저부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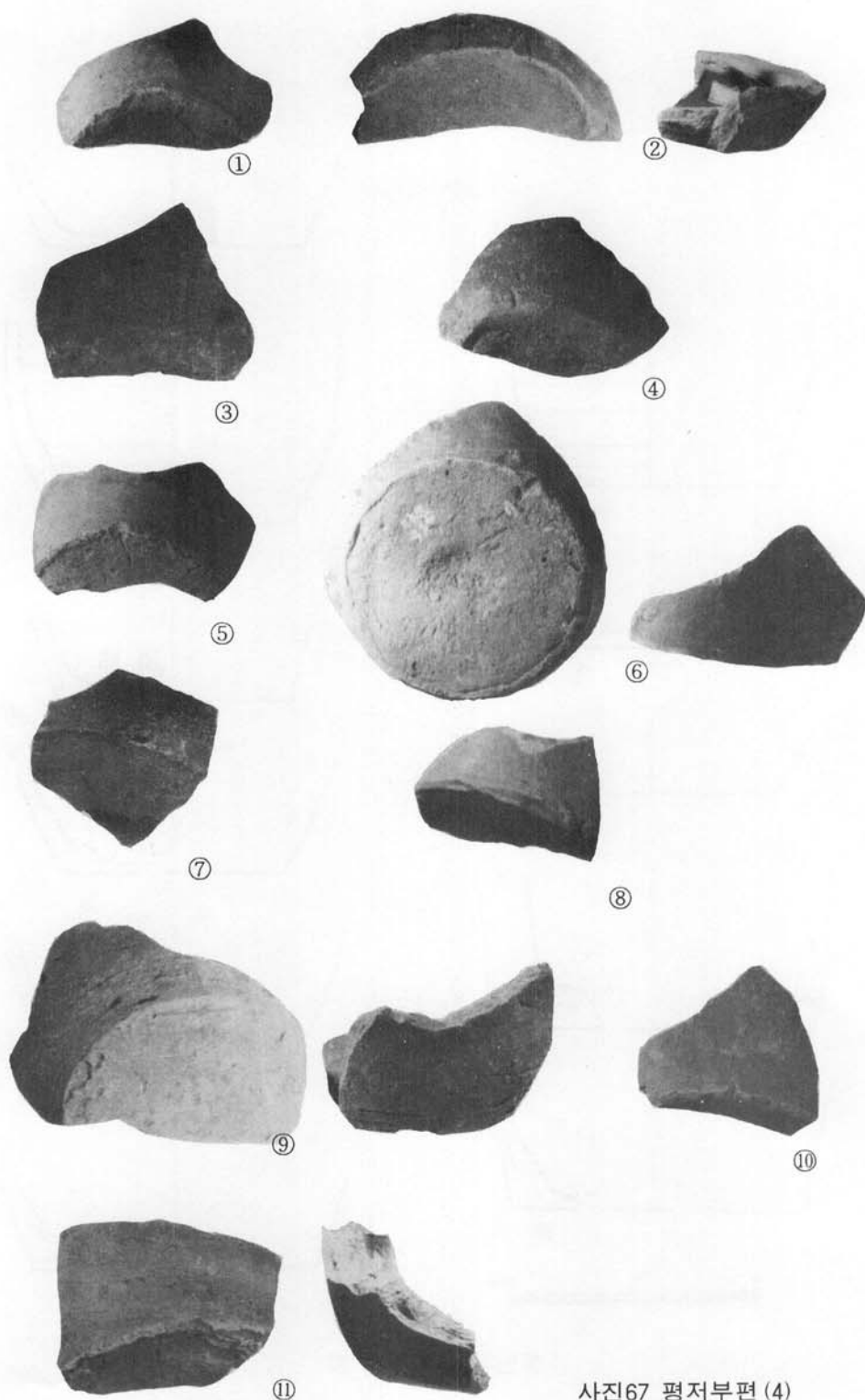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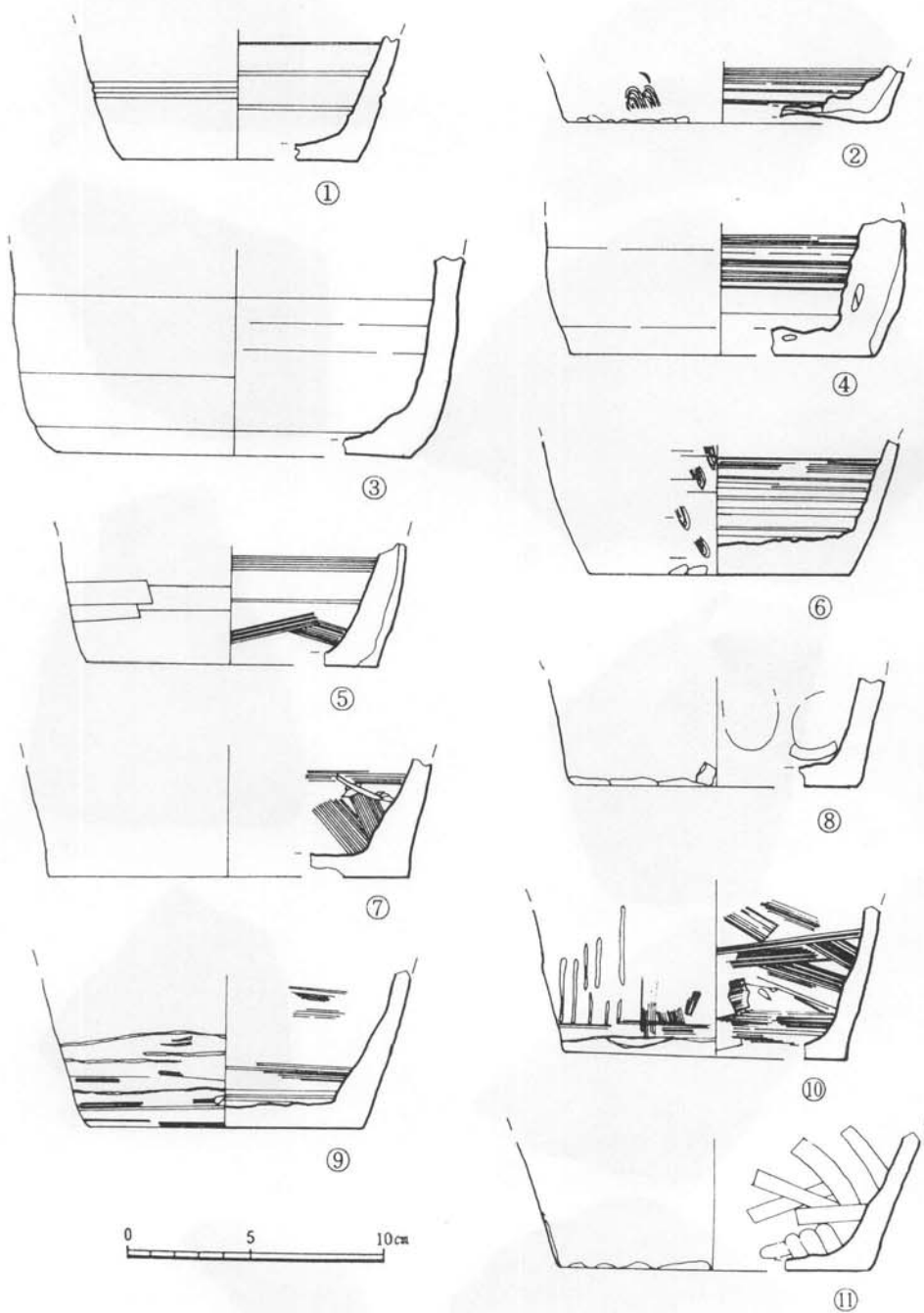


사진67 평저부편 (4)



도면43 평저부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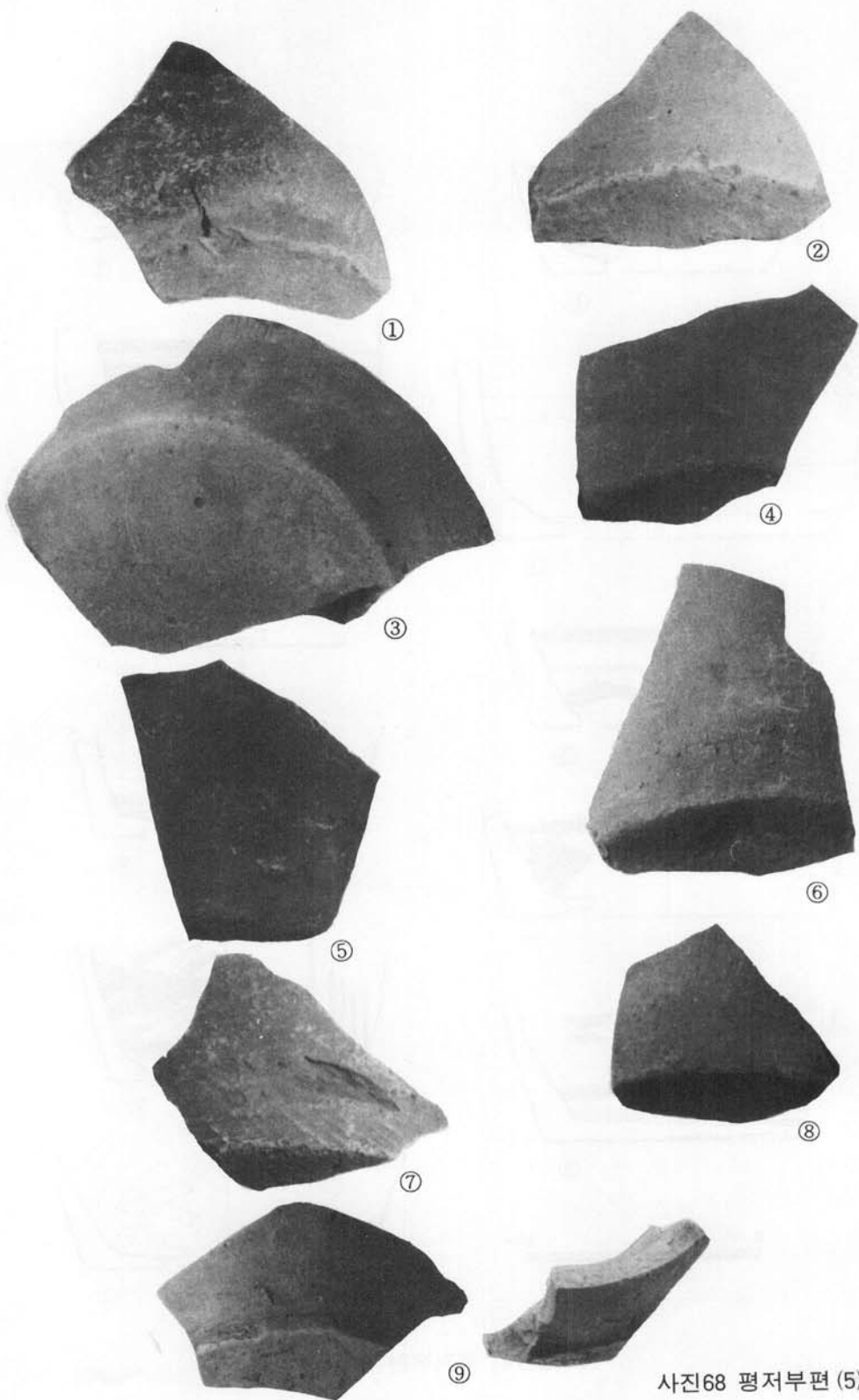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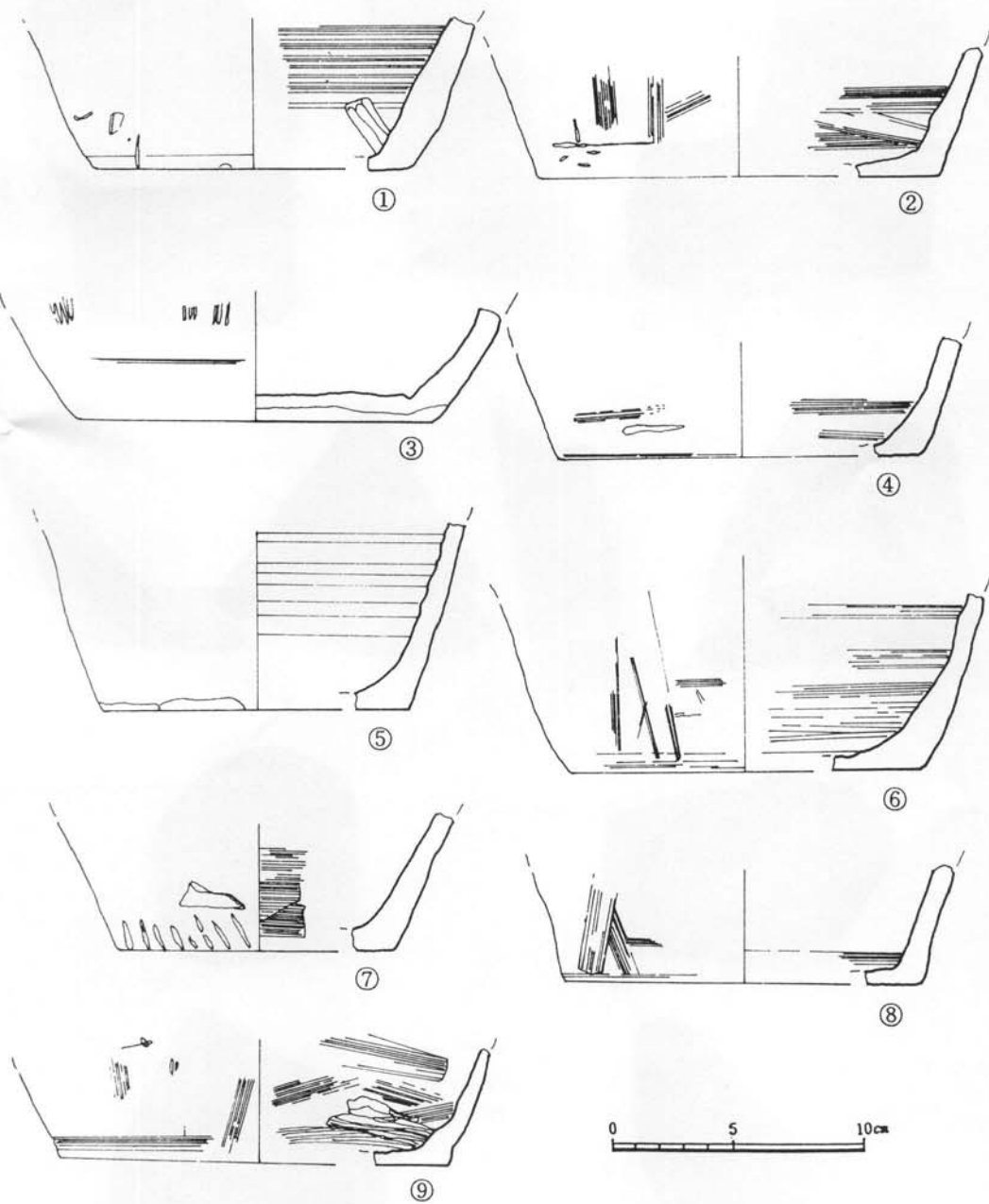


사진 68 평저부편 (5)



도면44 평저부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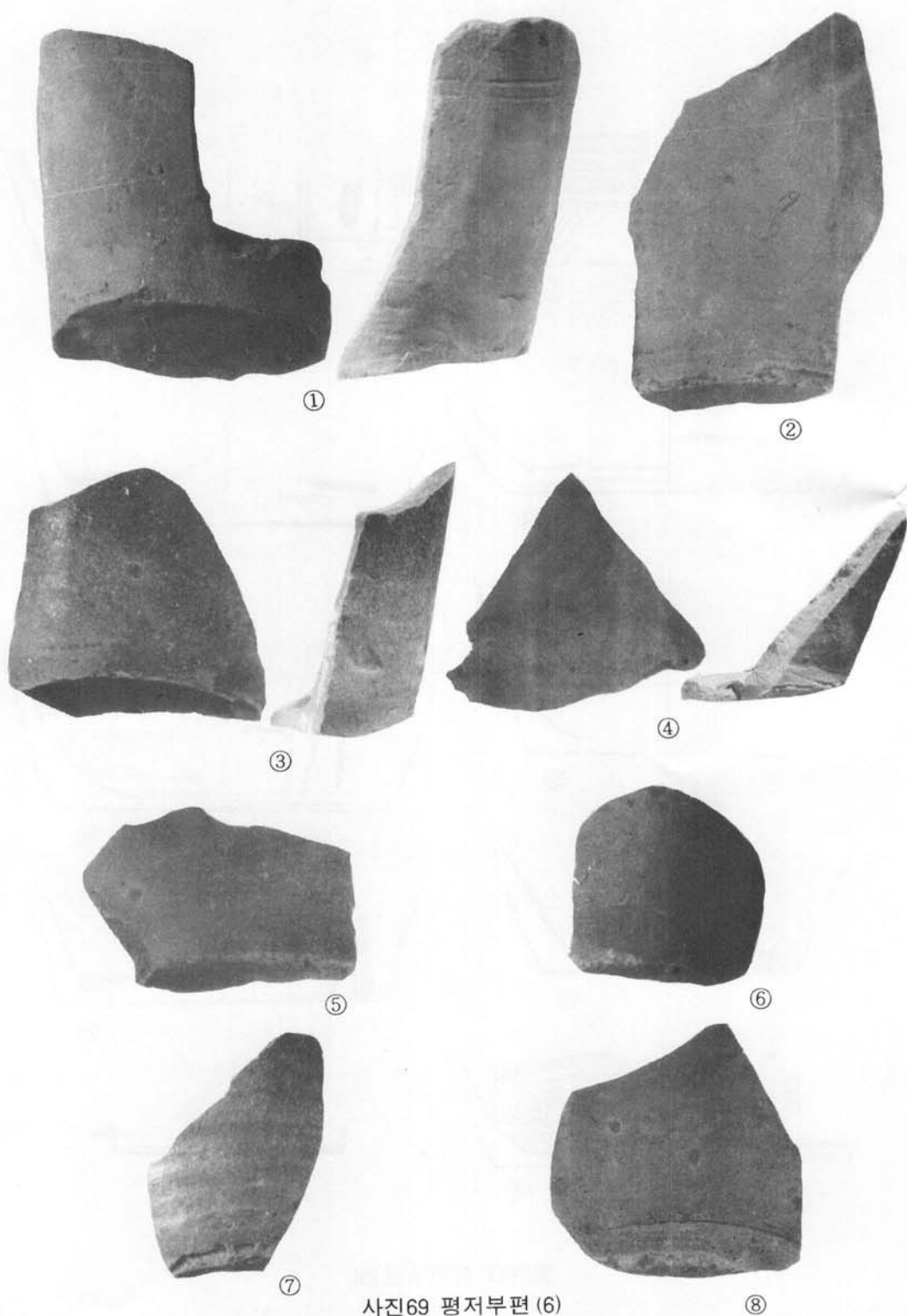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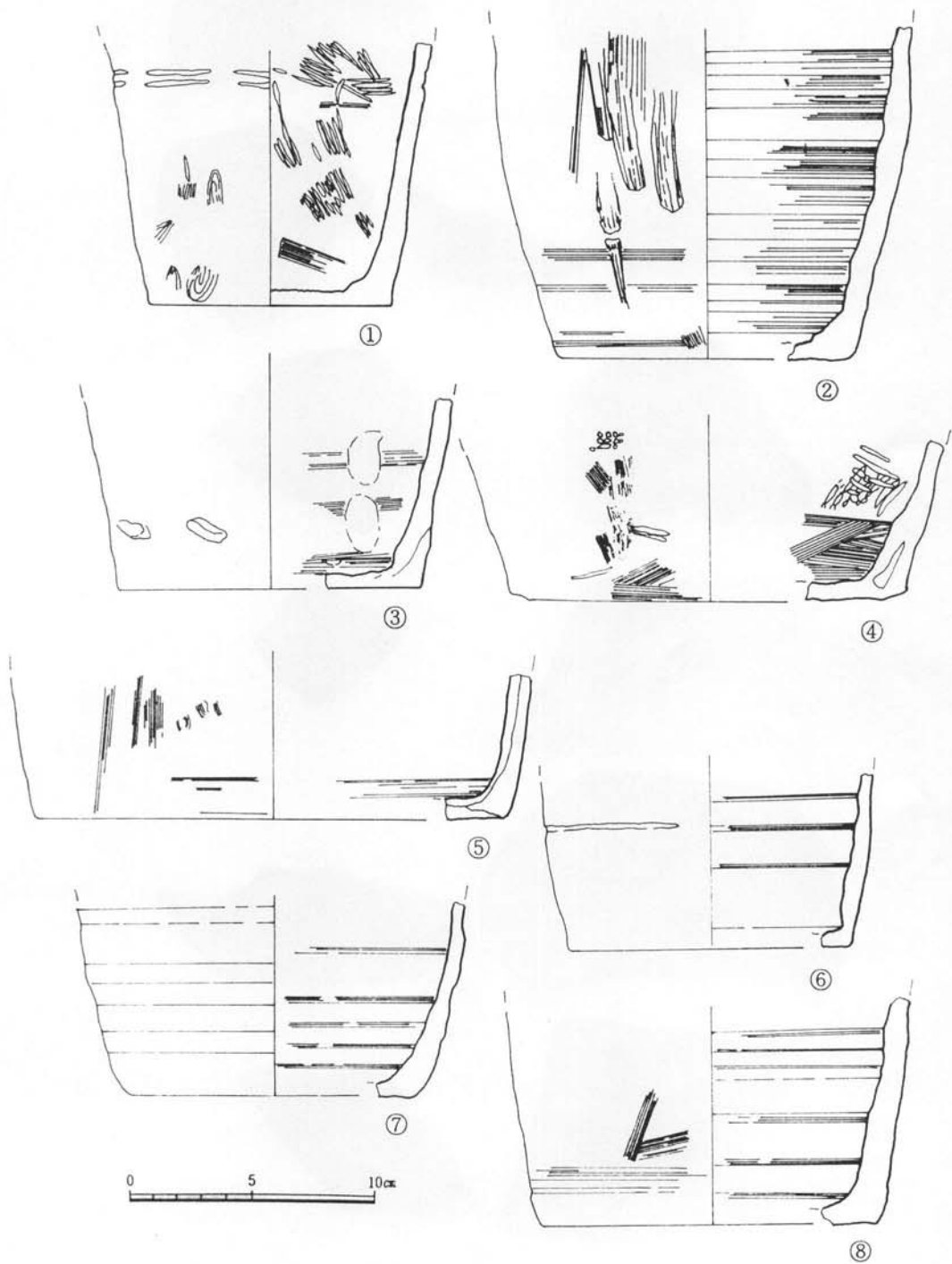


사진 69 평저부편 (6)



도면45 평저부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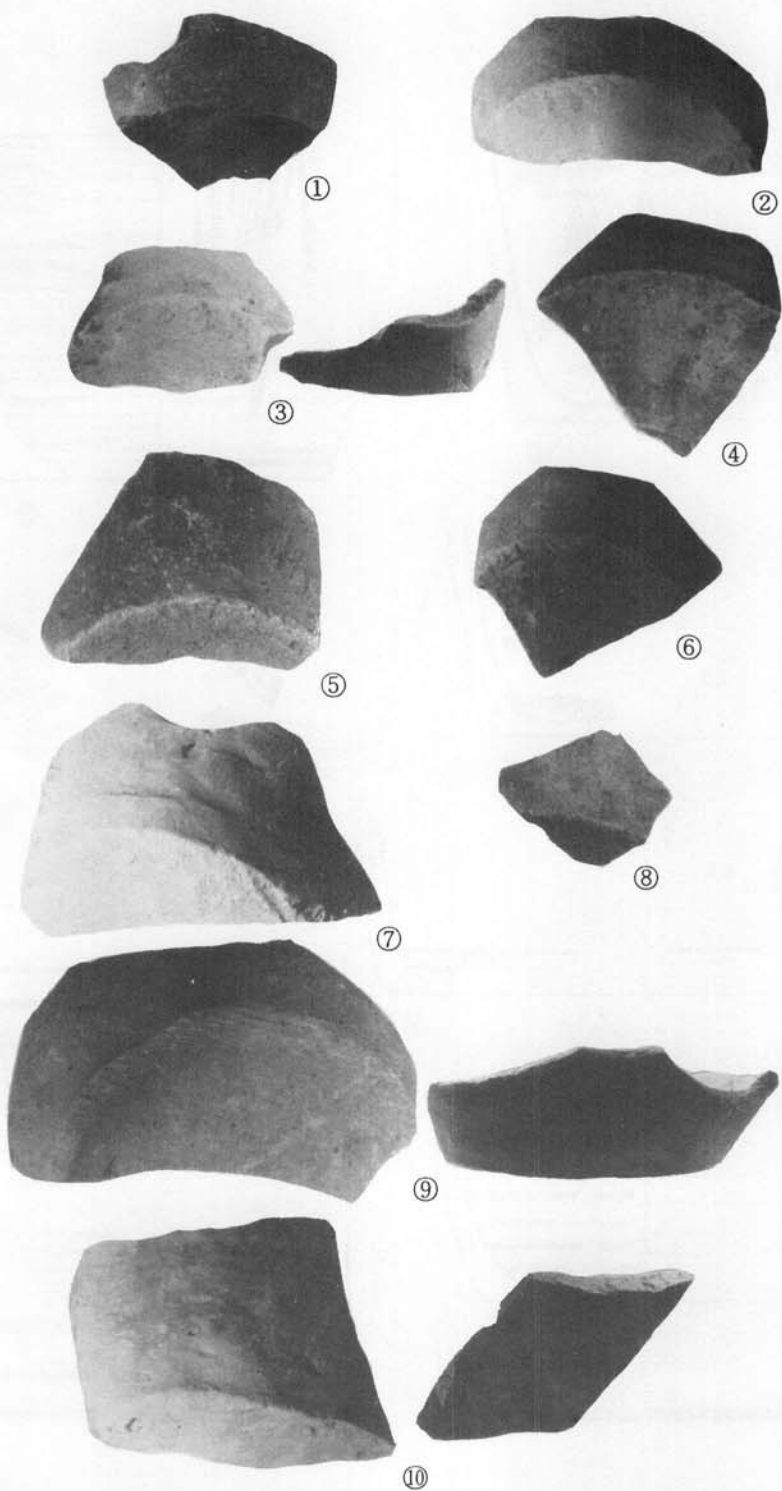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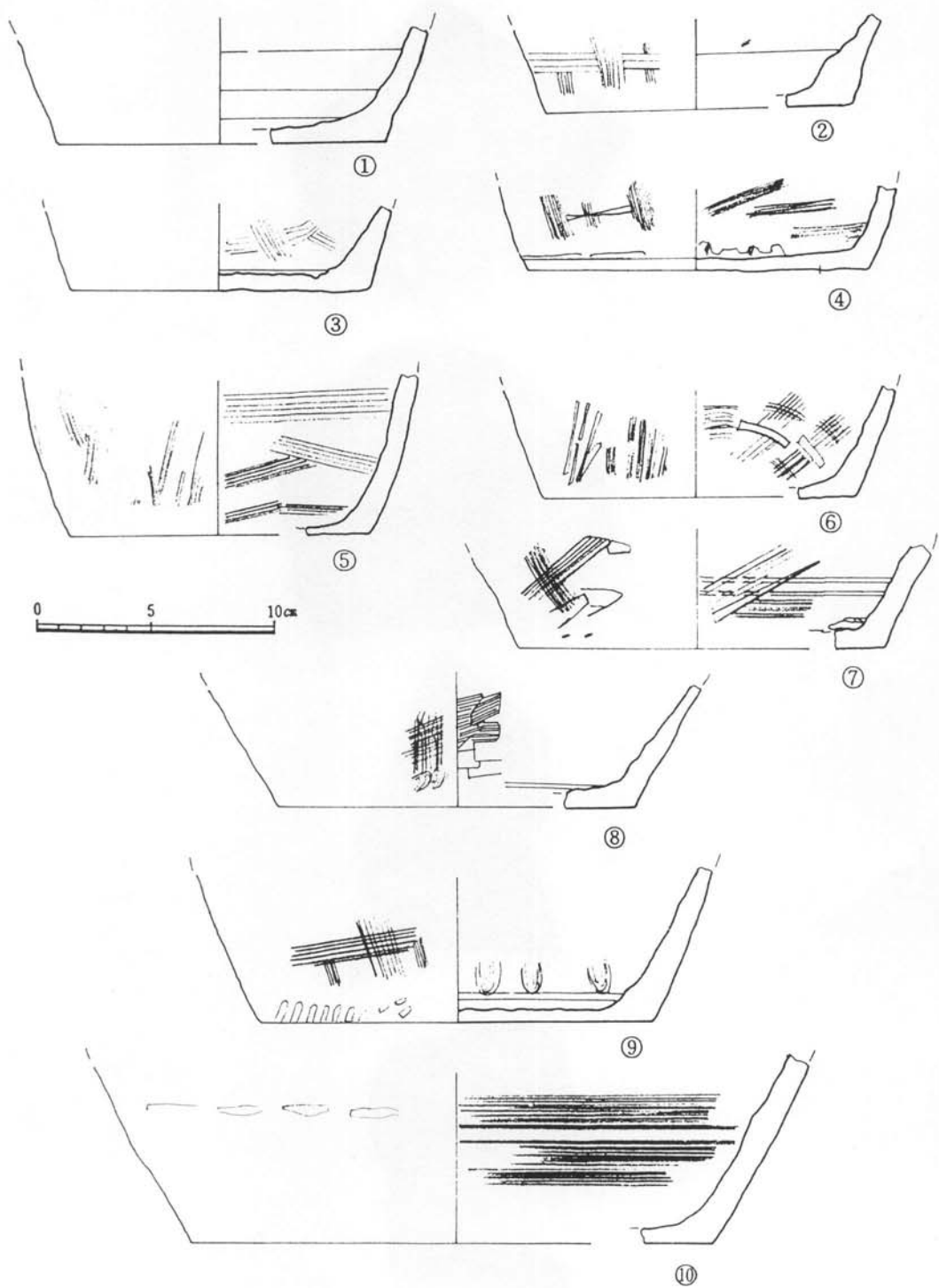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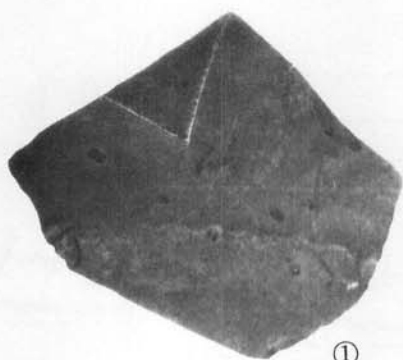


사진70 평저부편 (7)



도면46 평저부편 (7)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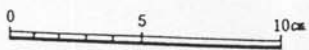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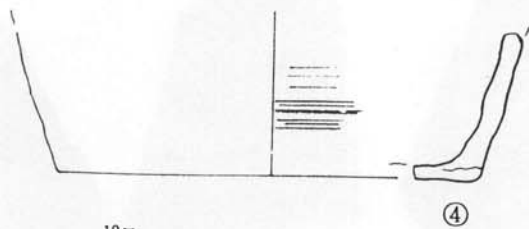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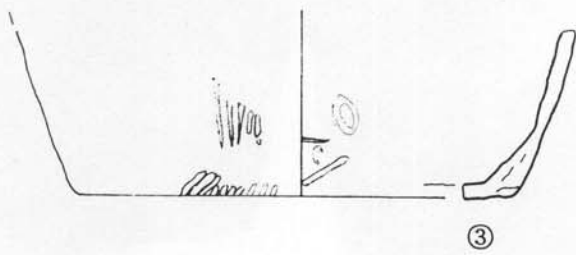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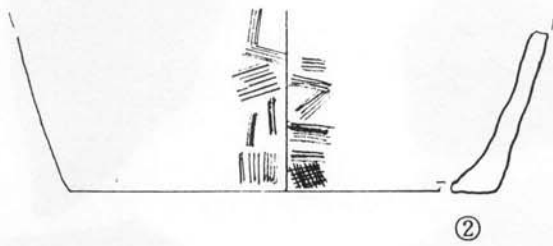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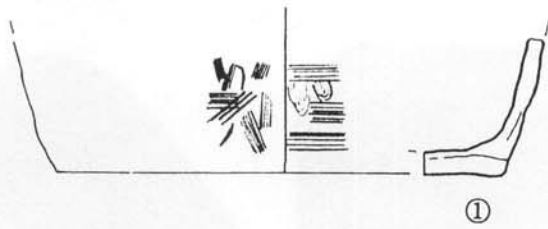


③



④

사진71 평저부편 (8)



도면47 평저부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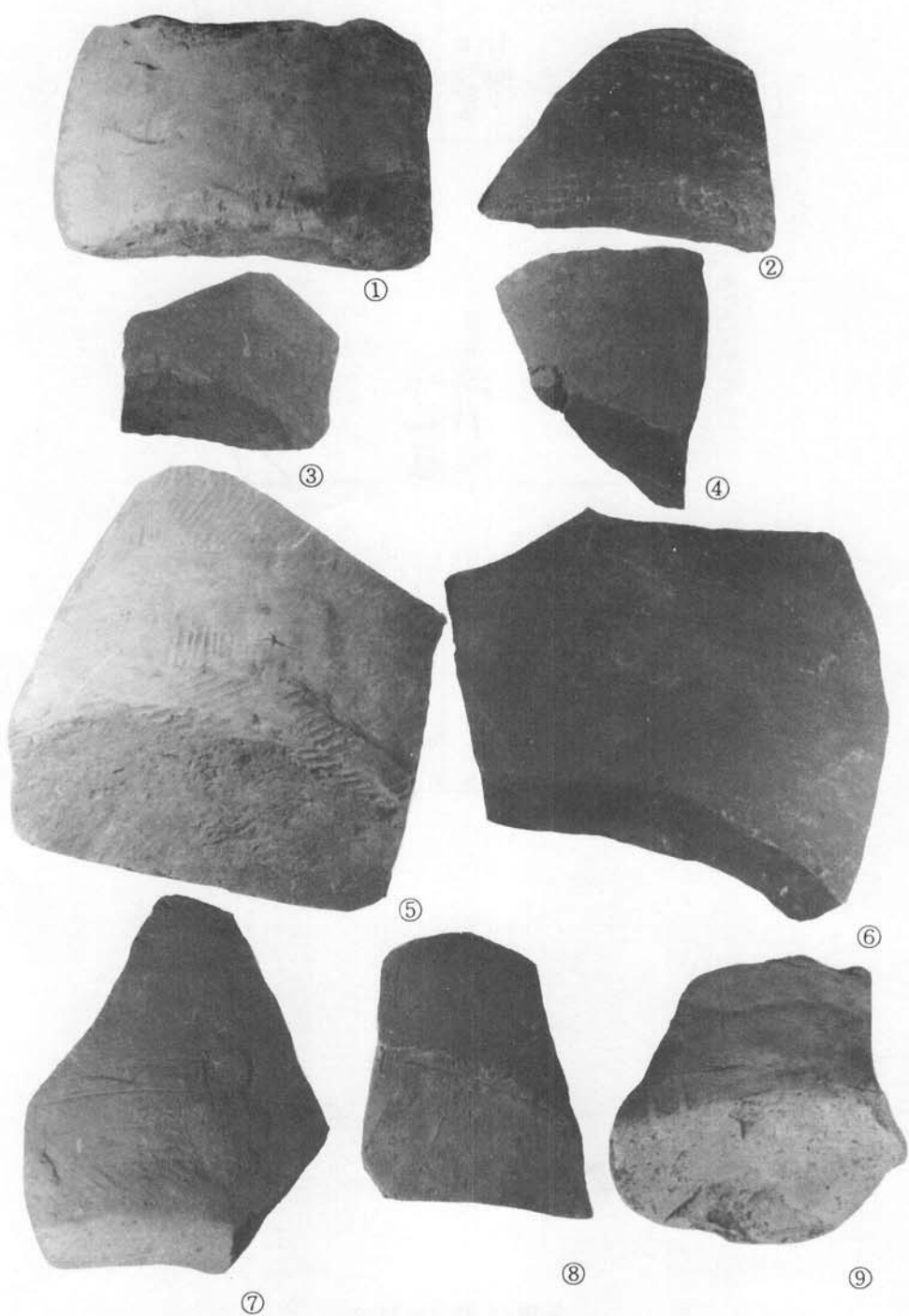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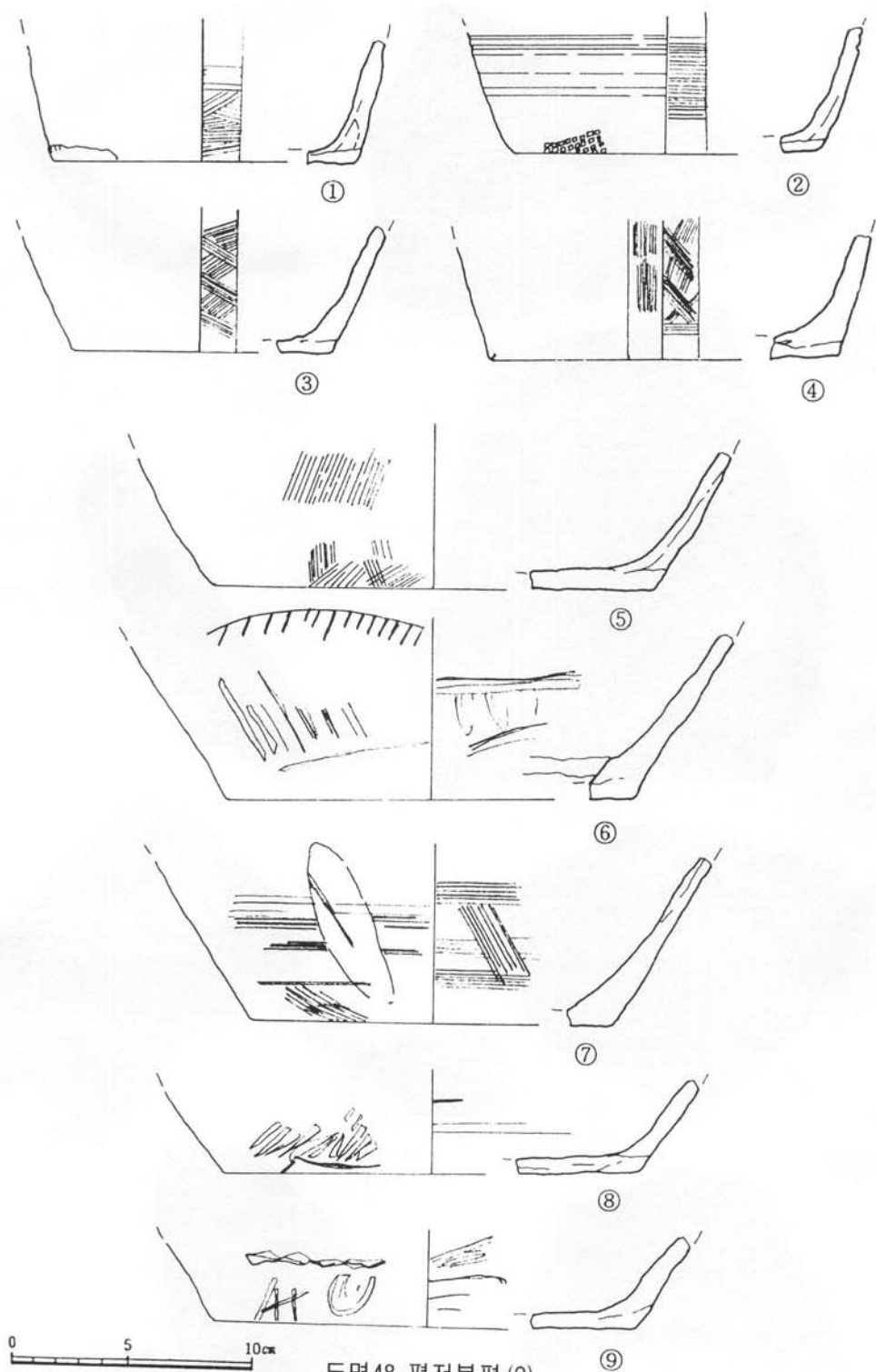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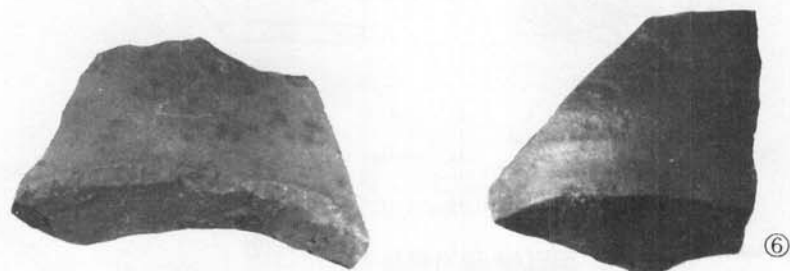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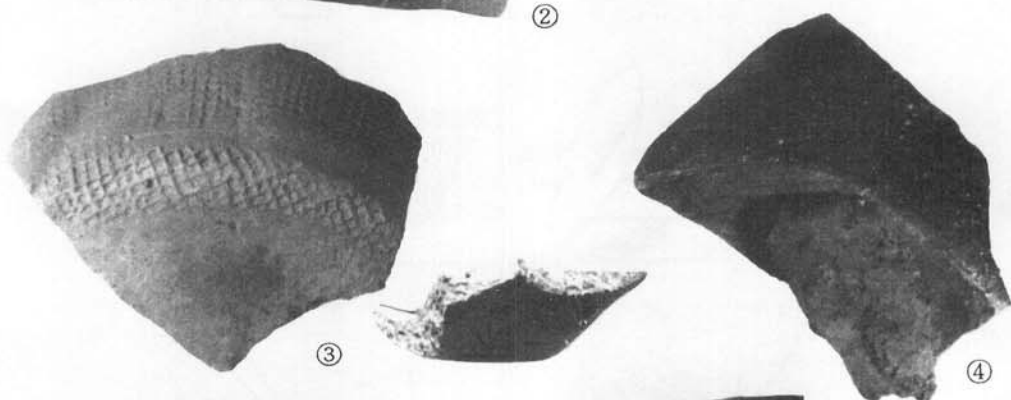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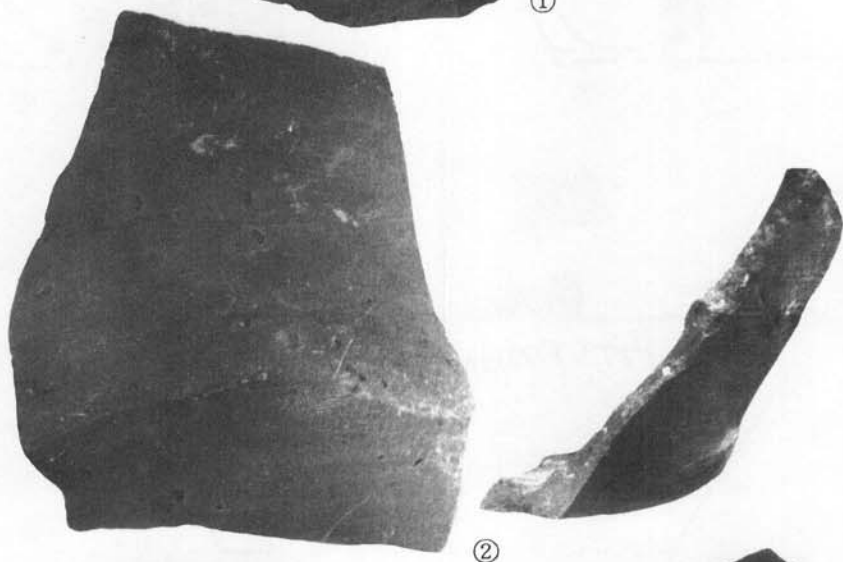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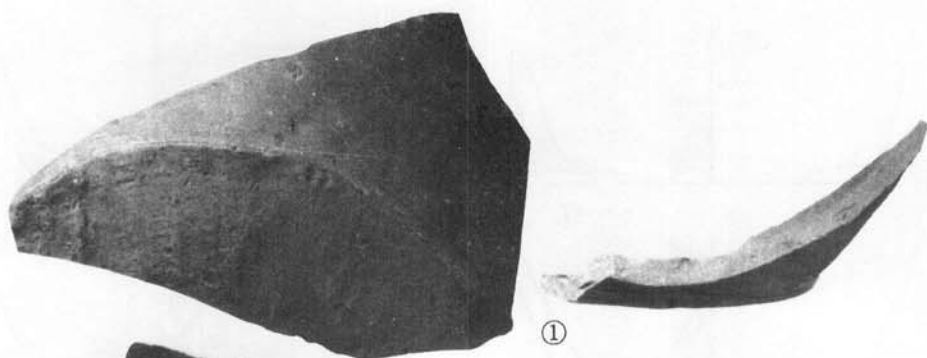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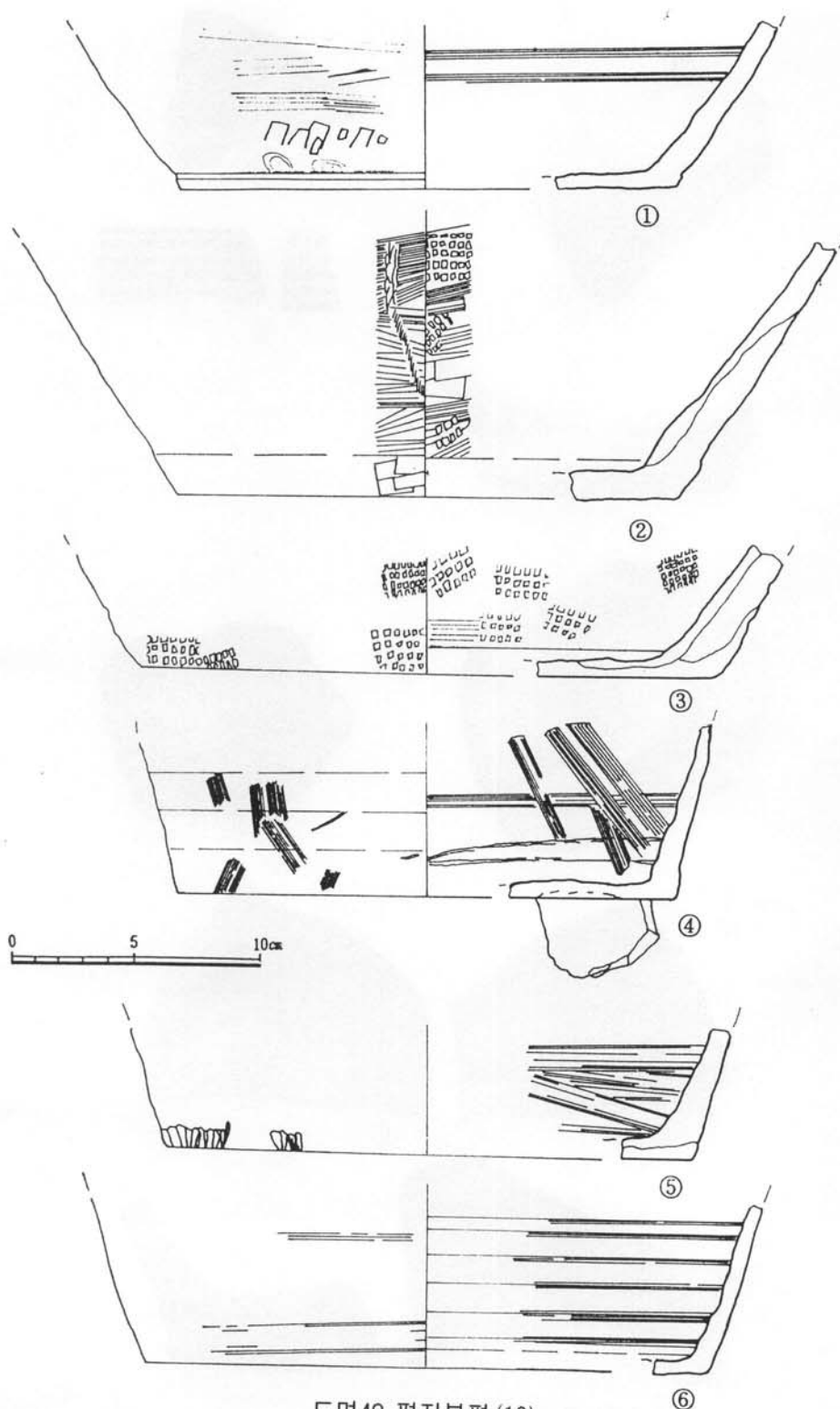
사진72 평저부편 (9)



도면48 평저부편 (9)



⑤ 사진73 평저부편 (10)



도면49 평저부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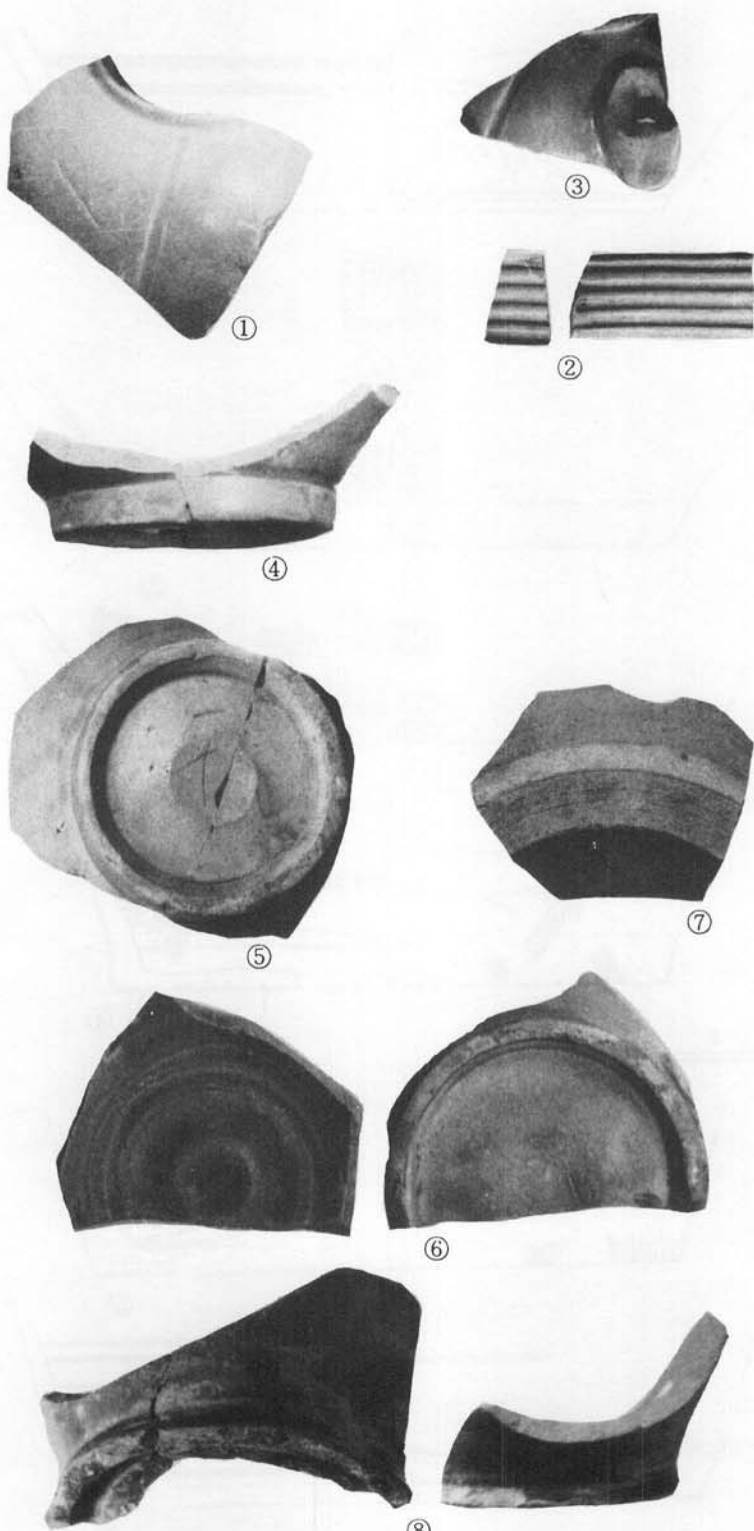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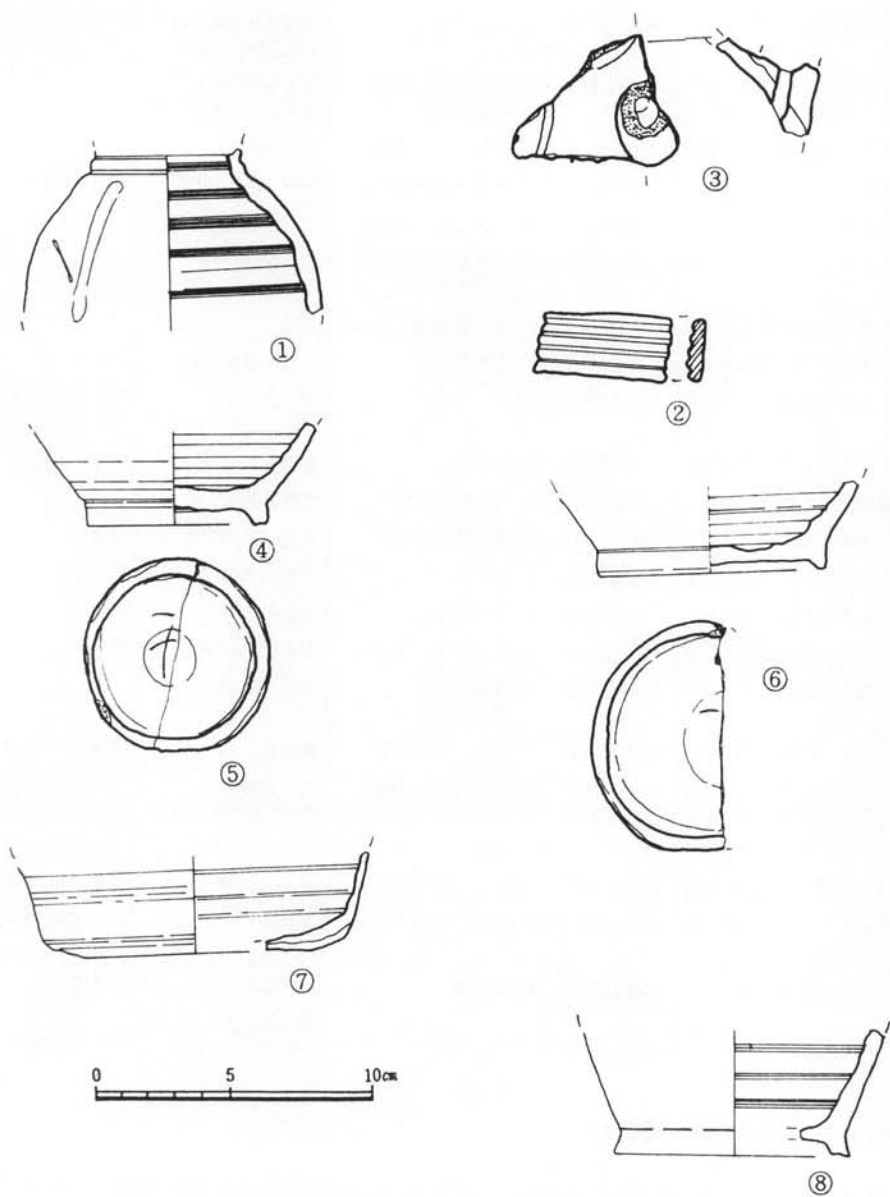


사진74 중국도자기편



도면50 중국도자기편

순번	도면번호	현고	저부지름	기벽두께	바닥두께	속성분류	태도	외면	내면	바닥수법
46-6	70-6	4.7	13.4	0.5	0.7	A-c-①①①	x	상하빗금, 물손질	엇갈린 빗질흔	소분흔적 「ㄱ」 그어짐 물손질
46-7	70-7	3.9	15.9	0.9	0.9	B-a-①①①	0	손누름, 빗질흔	빗금, 빗질흔, 바닥 회전흔	
46-8	70-8	5.4	15.4	0.7	0.5	B-a-③④①	0	균열, 빗질	내면붉은산화소성 회전2조선조대	비점알갱이노출
46-9	70-9	6.4	16.8	0.6	0.7	B-a-③③③	0	비점알갱이노출 슬립벗겨짐	빗질, 회전흔 바닥손누름흔적	
46-10	70-10	7.5	22.2	0.7	1.0	A-a-①①①	x	손누름자국, 물손질	빗질, 회전대	저부 따로부착, 기포
47-1	71-1	5.0	17.0	0.9	0.7	C-a-①①④	x	빗금, 빗질, 물손질	전면 엇갈린빗질	
47-2	71-2	6.0	16.0	0.5	0.7	C-a-①①①	0	빗금, 빗질, 물손질	빗질, 손누름, 대칼	물손질
47-3	71-3	6.0	16.6	0.5	0.7	C-b-①①①	x	바닥말에 「ㄴ」 흔적 타날흔적	손누름, 물손질	
47-4	71-4	5.4	16.0	0.5	0.8	C-c-①①①	0	물손질, 빗질	빗질	2조선시대형성 바닥자리격자문타날
48-1	72-1	5.0	12.8	0.6	0.5	C-b-③④④	x	물손질	엇갈려전면빗질	
48-2	72-2	5.2	12.8	0.7	0.6	C-b-②①①	0		빗질흔	가장자리대칼.
48-3	72-3	5.4	11.0	0.6	0.8	C-c-①①④	0	빗질흔	빗질흔	
48-4	72-4	5.0	14.8	0.9	0.7	C-c-①①④	x	가로세로빗질흔	전면엇갈려빗질	물손질
48-5	72-5	5.4	18.4	0.8	0.7	B-c-③③①	x	전면단사선타날	술질, 손누름흔적	
48-6	72-6	6.6	17.0	0.8	0.7	B-a-①①①	x	빗질흔	손누름, 빗질흔	물손질
48-7	72-7	6.8	15.0	0.6	0.7	B-b-①①①	x	단사선타날	빗금흔	
47-8	72-8	3.5	17.4	0.7	0.8	B-a-①①①	0	단사선타날, 빗금	회전흔, 빗금흔	물손질
48-9	72-9	3.9	17.4	0.7	0.8	B-b-③③③	x	격자문타날 손누름흔적	빗질, 손누름	
49-1	73-1	6.9	20.8	0.5	0.9	B-d-③①④	x	윗면 2조선조대	회전흔	대칼로 자른흔적
49-2	73-2	10.6	20.8	1.3	1.0	B-c-①①①	0	빗질, 술질, 회전흔	격자문타날	
49-3	73-3	5.5	24.0	0.8	1.6	B-a-①①①	0	물손질, 격자문전면 타날	격자문타날후 물손질	물손질, 격자문타날
49-4	73-4	7.0	20.6	0.6	0.6	D-a-②①①	0	빗질, 물손질	빗질, 대칼흔	
49-5	73-5	5.2	20.8	0.9	1.0	A-c-①①①	x	전면에 빗질	물손질	현무암석 부착 테두리에 톱니날 처럼 그음
49-6	73-6	7.0	23.2	0.6	0.7	A-a-①①④	x	물손질	전면빗질 음각회전흔	

8. 중국도자기편 (도면50, 사진74)

도기유물이 집중적으로 매립된 부위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나머지 2점은 지표채집되었다. 도면 50-1, 50-2, 50-3, 50-4, 50-5는 동일개체이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녹색이며 도면50-1은 세로 음각대가 있는 견부, 도면50-2는 그릇에 종으로 부착된 연속주름무늬손잡이, 도면50-3은 주부, 도면50-5는 바닥편이다. 이 파편들은 모두 산발적으로 상층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도면	도판	형	색조	현고	저부지름	굽지름	굽높이	굽들린 높이	저부두께	기벽두께
50-5	74-5	B-b	연두색	3.6	7.2	5.7	1.1	0.6	0.9	0.8
50-6	74-6	A-a	연두색	3.0	9.2	8.4	1.2	0.3	0.9	0.8
50-7	74-7	평저부	청 색	3.6	11.4	-	-	-	0.7	0.3
50-8	74-8	A-b	암갈색	4.7	8.6	9.0	1.0	0.7	0.4	0.5

도면 번호	도자기의 특징
50-5	N1E1pit의 맨상층에서 사각편병과 섞여 출토되었고 도기외면에 회전대가 돌려져 있고 내면에는 나선형 돌기대가 관찰된다. 바닥 밑은 '一十'가 그어져 있다.
50-6	연두색조의 저부편이다. 내면은 나선형 돌기대가 연속되고 외면은 매끈하게 정면되어 있다. 바닥 밑에 '一'이 그어져 있으나 반파되어 있어 도면50-5의 바닥과 같은 '一十'으로 여겨진다.
50-7	말각평저로 바닥면은 2단으로 꺾여 처리되었다. 내외면 모두 청색을 띤다. 균열없이 수비질이 잘 되어 있다. 두터운 바닥에서 가늘게 동체로 이어진다.
50-8	태토가 매우 정선되어 있고 속심은 황갈색이다. 굽다리 끝은 수평으로 마감하였다. 정선된 회전흔이 뚜렷하다.

제2절 철제품 및 기타

1. 금동제 · 철제 과대금구(도면51, 사진75)

이 유적에서 발견된 금동제 · 철제 · 과대 · 금구는 모두 16점이 확인되었다. 유물이 집중확인되는 지점에서 모두 출토되었는데,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 흩어져서 출토되었다.

도면 번호	도판 번호	과판 길이	과판 폭	두께
51-1	75-1	2.8	3.4	0.7
51-2	75-2	2.1	1.6	0.5

51-3	75-3	3.0(판부)	2.1	0.5
51-4	75-4	3.1	2.1	0.1
51-7	75-7	2.9	3.8	0.7
51-8	75-8	2.9	1.3	0.3
51-9	75-9	1.9	2.7	0.2
51-10	75-10	2.0	1.6	0.2
51-11	75-11	3.3	2.3	0.7
51-12	75-12	2.9	2.7	0.4
51-13	75-13	3.2	3.1	0.8
51-14	75-14	2.5	2.6	0.4

도면51-1(도판75-1)은 금동제 장방형과판이다. 과판구는 윗판(표판)과 아랫판으로 구분되며 윗판과 아랫판은 각 모서리에 위치한 4개의 작은못으로 연결되어 있다. 윗판이 아랫판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 졌고 두텁다. 윗판의 표면에는 아랫부분에 세장방형 구멍을 제외하고 당초문장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아랫면의 구멍의 크기는 길이 1.85cm, 폭 0.72cm정도이며 모서리는 정교하게 각지게 처리되어 있고 구멍은 아랫판까지 똑같은 크기로 뚫려져 있다. 구멍의 제작은 아랫판에서 윗판으로 투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판구 사각의 못도 아랫판의 배면에서 박아 윗판의 배면에 부착한 것 같다.

도면51-2(도판75-2)는 원래는 장방형의 과판으로 판단되며 모서리부분만이 남아 있다. 나무판에 금동제의 얇은 판구를 씌워 교정하였다. 금동제판의 테는 1조 음각대를 사각으로 돌려 테부분을 구분시키는 동시에 부각시켰다. 현재 모서리끝에는 금동제 교정 못이 확인되어 표판에서부터 박은 것을 알 수 있다.

도면51-3, 51-5, 51-6은 과대금구, 도면51-3, 51-5는 금동제, 도면51-6은 철제품이며, 도면51-4는 금동제 혁대장식이다. 장방형의 몸체에 현재 상단 우측모서리 구멍이 확인된다.

도면51-7에서 51-14는 모두 鐵製革帶飾金具이다. 이들 금구는 위아래의 길이가 같고 상변을 둥글게 처리한 형(도면 51-8, 51-9, 51-10, 51-11, 51-12, 51-13)과 각 모서리가 각지게 처리된 방형모양(도면 51-7, 51-14)으로 나누어 진다. 전자는 상변에 가까운 영 모서리에 직경 2mm정도의 작은 못이 박혀 있다. 후자는 사각에 작은 못이 박혀 있다.

2. 鐵製劍片 (도면52 사진76)

여기서 발견된 검편도 여러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검편은 모두 파편이어서 전체 길이나 복원형태는 알 수 없다. 검신의 자른면은 렌즈형이고 도면52-1·2는 검신의 중간부분이며 상하로 긴 균열이 나 있고 도면 52-3은 검의 하단부로 스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검신길이	검신폭
52-1	76-1	4.6	2.2
52-2	76-2	5.3	2.5
52-3	76-3	5.2	2.1
52-4	76-4	2.3	2.0
52-5	76-5	4.7	2.9

3. 鐵製刀片 (도면53 사진77)

유물밀집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발굴된 철제도편 모두가 파편이어서 전체 길이나 형태 등은 알 수가 없다. 칼몸의 자른면은 모두 삼각형이나 날과 등부분 모두 마모와 균열이 심하다. 도면53-1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칼몸만이 남아 있다. 도면53-1은 병부에서 칼몸으로 가는 경계부에 동제금구를 고정하였다. 동제금구는 폭 0.6cm, 두께 1.2cm이고 금구내에 목질이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 스페부의 자른면은 사각형이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검신길이	검신폭
53-1	77-1	3.8	2.2
53-2	77-2	7.3	2.7
53-3	77-3	5.2	1.8
53-4	77-4	4.0	2.1
53-5	77-5	6.6	1.5
53-6	77-6	5.4	2.5
53-7	77-7	3.6	2.1
53-8	77-8	4.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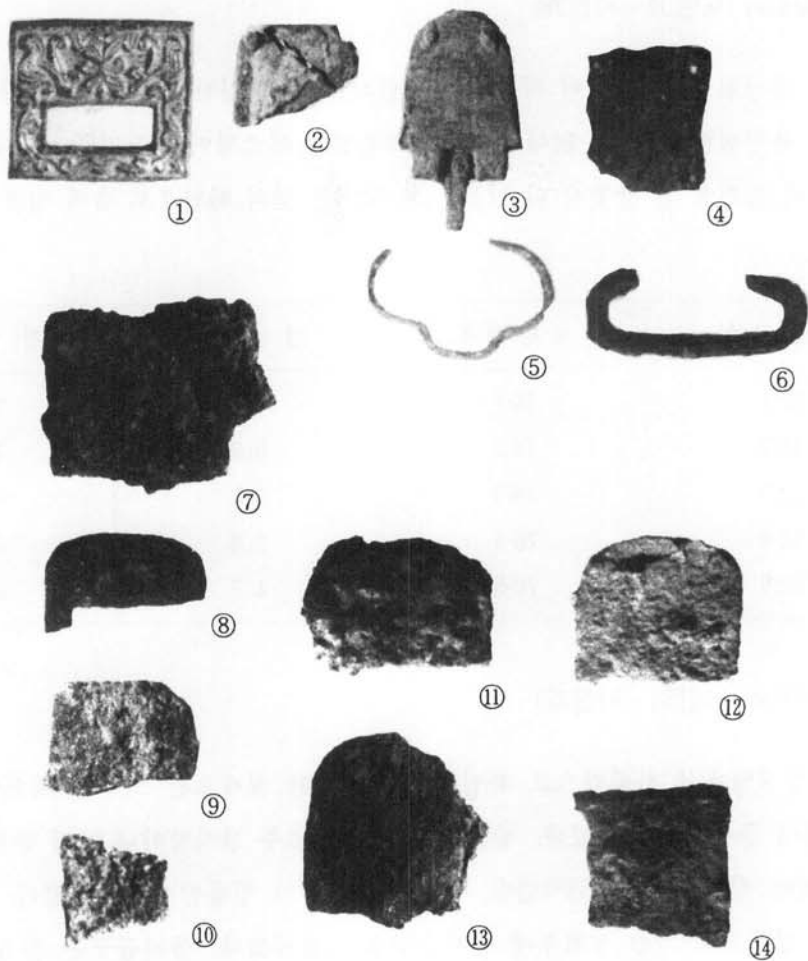


사진75 금동 · 철제 과대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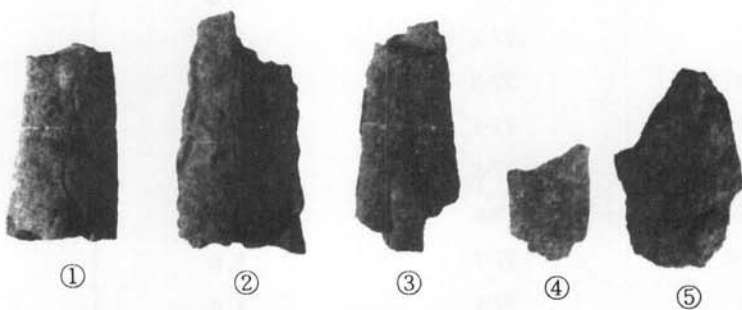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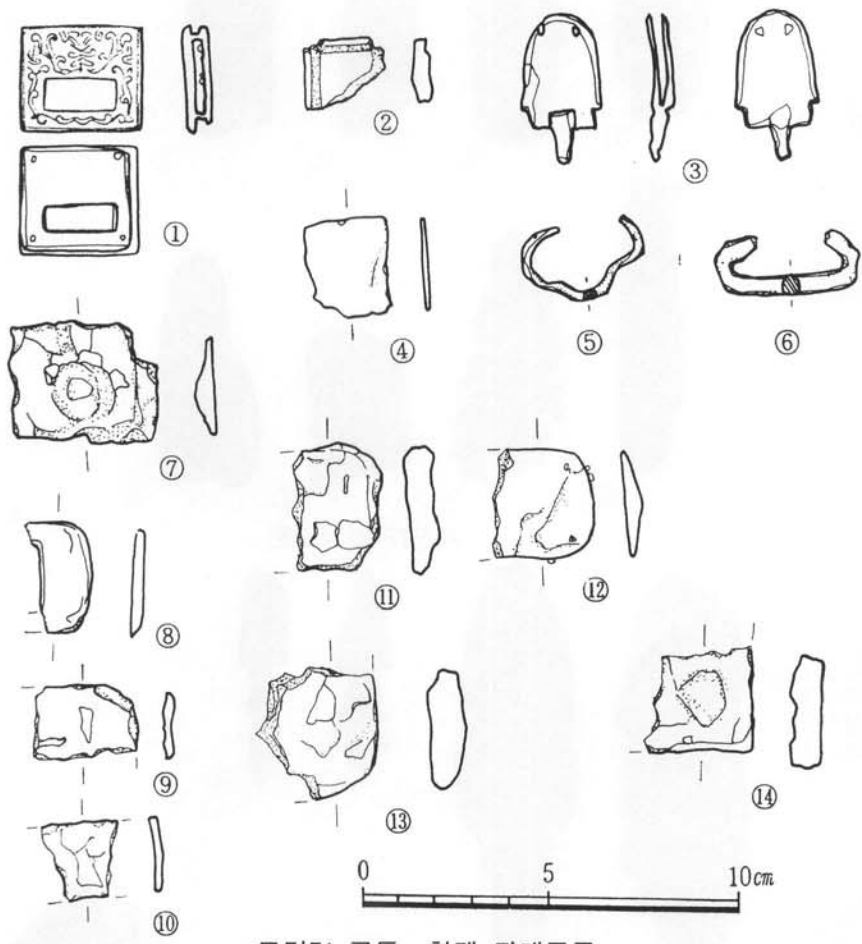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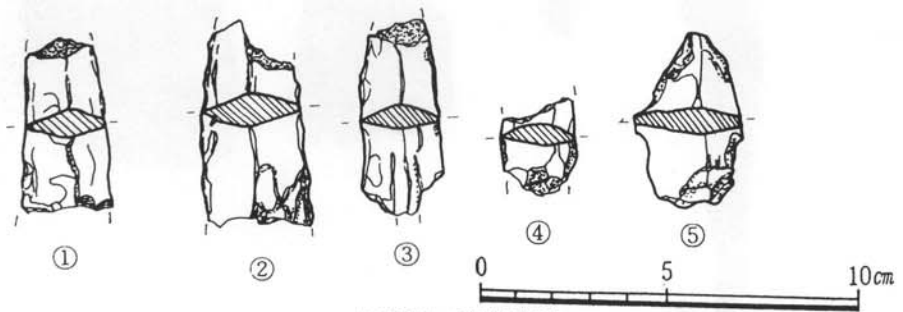


사진76 철제검편



도면51 금동 · 철제 과대금구



도면52 철제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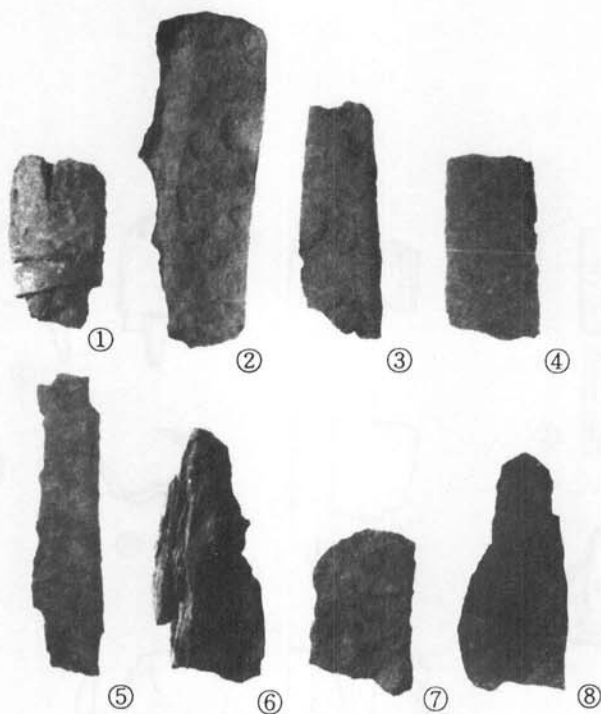


사진77 철제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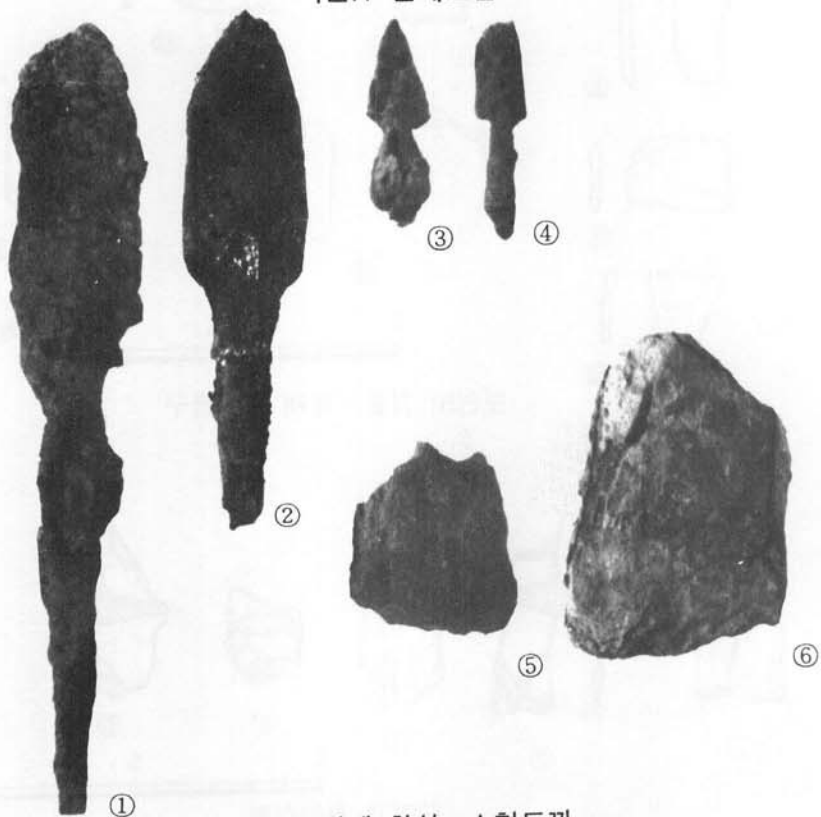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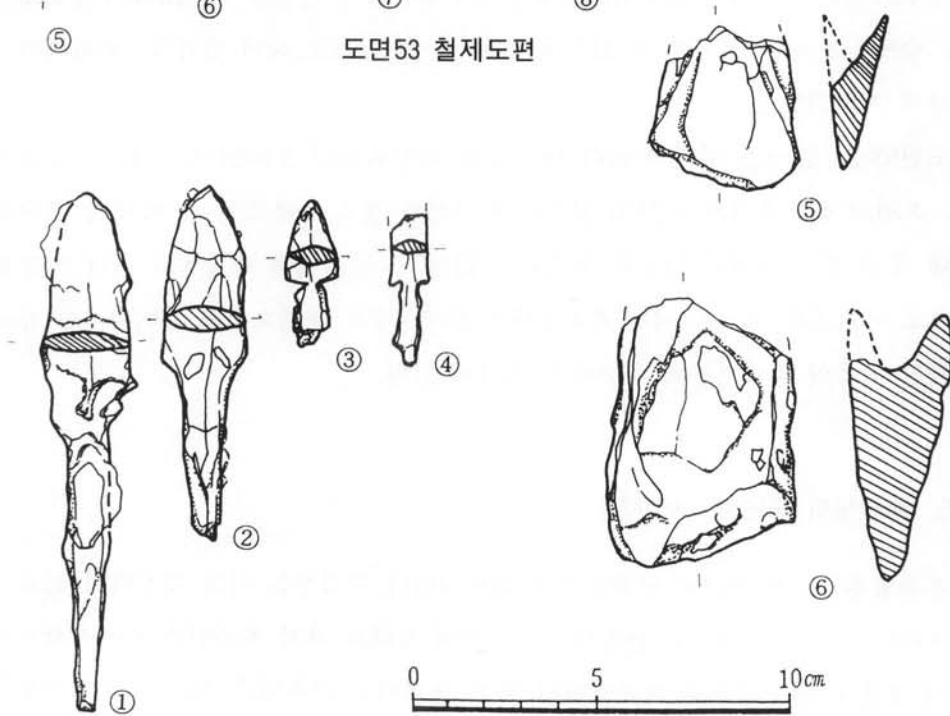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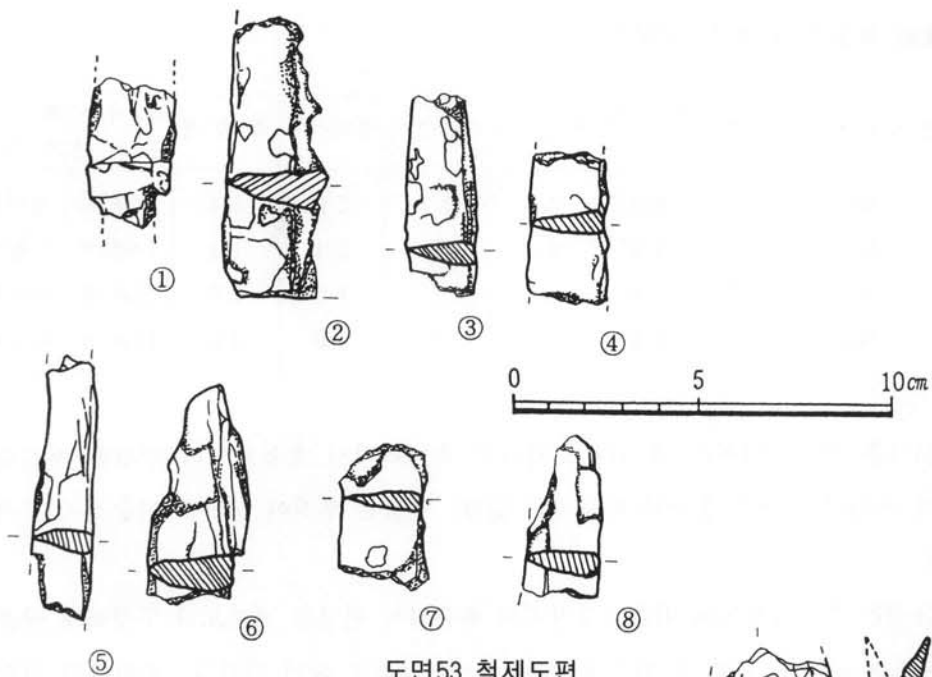


사진78 철제 화살 · 소형도끼



4. 鐵製 화살촉 (도면54 사진78)

도면번호	도판번호	전 장	촉 머 리 길 이	촉몸길이	슴베길이	촉머리폭	촉 몸 폭	촉 머 리 자 른 면	촉 몸 자 른 면
54-1	78-1	13.5	6.3	3.5	3.7	2.2	1.4	볼록렌즈형	장방형
54-2	78-2	9.0	4.6	4.4	?	2.1	1.1	볼록렌즈형	장방형
54-3	78-3	3.7	2.1	1.6	?	1.3	1.0	볼록렌즈형	타원형
54-4	78-4	4.0	1.8	2.2	?	0.9	0.6	볼록렌즈형	타원형

도면54-1은 긴버들잎형의 촉머리 모양이고 촉머리에서 촉몸으로의 연결은 부드럽게 연결되며 촉머리 선단은 둥글게 마모되어 있다. 결면은 부식이 심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도면54-2는 촉머리모양이 버들잎모양이나 촉몸과의 연결은 전자보다 뚜렷하게 구분된다. 스페부는 나무를 끼울 수 있도록 상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촉머리의 선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도면53-3, 53-4는 길이 4cm미만의 소형 화살촉으로 도면54-3의 촉머리모양은 삼각형, 도면54-4는 부식되어 알수 없으나 사각형인 것으로 추측된다. 스페가 잔존하고 있는데 둥근 몸에 갑자기 가늘게 처리되고 있다. 도면54-4는 살상용이 아닌 연습용 화살촉으로 여겨진다. 도면54-4의 촉몸플랜은 삼각형꼴로 내려오면서 두터워지고 스페는 두터워진 촉몸의 중앙부분에 둥근띠로 내려와 있다.

5. 鐵製도끼 (도면54 사진78)

유물집중지에서 벗어난 남쪽편에서 확인되었다. 투겅부는 거의 경질되어 있고 몸통만이 남아 있다. 도면54-6은 잔존하는 투겅부의 형태로 보아 자른면은 직사각형으로 여겨지며 몸통은 날부분으로 내려가면서 퍼진 형태이고 자른면은 모줄임 직사각형꼴이다. 날의 모서리는 각지게 처리되어 있으나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있다. 도면54-5는 투겅부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배면만이 약간 잔존 할 뿐 파손품이다. 몸은 날부분으로 가면서 넓어지며 날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몸의 단면은 모줄임 타원형꼴이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전체길이	몸 길 이	날 폭	두 겹	공부길이
54-5	78-5	4.0	2.7	3.7	0.9	1.3
54-6	78-6	6.9	5.4	5.1	2.4	1.5

6. 철제 못 (도면55 사진79)

유물집중확인지 전 범위에 걸쳐 고루 확인되었다. 출토된 모든 못에 사용흔이 있고 거의 파손품이다. 못머리의 형태는 원형으로 모두 圓頭釘이다. 모든 철제품이 부식이 심하고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각 철제못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전체길이	머리길이	뿌리길이	최고두께	못뿌리자른면	상 태
55-1	79-1	2.7	0.5	2.2	0.5	사각형	완형
55-2	79-2	2.6	0.3	2.3	0.4	사각형	완형
55-3	79-3	3.2	0.5	2.7	0.5	사각형	완형
55-4	79-4	2.8	0.7	2.1	0.4	사각형	결손
55-5	79-5	2.6	0.4	2.2	0.4	사각형	결손
55-6	79-6	2.8	?	?	0.7	사각형	결손
55-7	79-7	3.5	?	?	0.5	사각형	결손
55-8	79-8	2.4	?	?	0.7	사각형	결손
55-9	79-9	2.3	0.4	1.9	0.6	사각형	결손
55-10	79-10	2.3	0.5	1.8	0.6	사각형	결손
55-11	79-11	1.8	0.5	1.3	0.5	사각형	결손
55-12	79-12	1.8	0.5	1.3	0.6	사각형	결손
55-13	79-13	3.2	?	?	0.7	사각형	결손
55-14	79-14	2.3	?	?	0.6	사각형	결손
55-15	79-15	2.6	?	?	0.4	사각형	결손
55-16	79-16	2.4	?	?	0.5	사각형	결손
55-17	79-17	2.4	?	?	0.5	사각형	결손
55-18	79-18	4.6	?	?	0.6	사각형	결손
55-19	79-19	2.9	?	?	0.4	사각형	결손
55-20	79-20	2.9	?	?	0.5	사각형	결손
55-21	79-21	2.6	0.4	2.2	0.5	사각형	완형

55-22	79-22	2.5	?	?	0.4	사각형	결손
55-23	79-23	2.4	?	?	0.5	사각형	결손
55-24	79-24	2.7	?	?	0.4	사각형	결손
55-25	79-25	2.2	?	?	0.4	사각형	결손
55-26	79-26	2.0	?	?	0.5	사각형	결손
55-27	79-27	2.2	?	?	0.6	사각형	결손
55-28	79-28	2.0	?	?	0.5	사각형	결손
55-29	79-29	1.7	?	?	0.6	사각형	결손
55-30	79-30	2.0	?	?	0.4	사각형	결손
55-31	79-31	1.6	?	?	0.5	사각형	결손
55-32	79-32	1.8	?	?	0.5	사각형	결손
55-33	79-33	2.2	?	?	0.4	사각형	결손
55-34	79-34	1.4	?	?	0.5	사각형	결손
55-35	79-35	1.8	?	?	0.7	사각형	결손
55-36	79-36	1.5	?	?	0.3	사각형	결손
55-37	79-37	1.6	?	?	0.4	사각형	결손

7. 철제 환 및 기타 철제품 (도면56 사진80)

기타 유물은 파손이 심하여 형태를 정확히 기술할 수 없는 것들이다. 현재의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각 철제유물의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현길이	최고두께	자른면	일 반 설 명
56-1	80-1	6.2	1.0	원 형	철제환편.
56-2	80-2	5.7	1.1	원 형	철제환편.
56-3	80-3	5.9	1.7	타원형	문고리편.
56-4	80-4	2.4	0.8	원 형	철제환편.
56-5	80-5	2.4	0.5	방 형	철제밑이 구부러짐.
56-6	80-6	2.1	0.3	원 형	끝을 뾰족하게 처리. 낚시바늘편(?).
56-7	80-1	3.5	0.8	타원형	촉 혹은 도자의 습배. 부식 심함.
56-8	80-2	2.9	0.9	타원형	용도미상.
56-3	80-3	2.5	1.2	타원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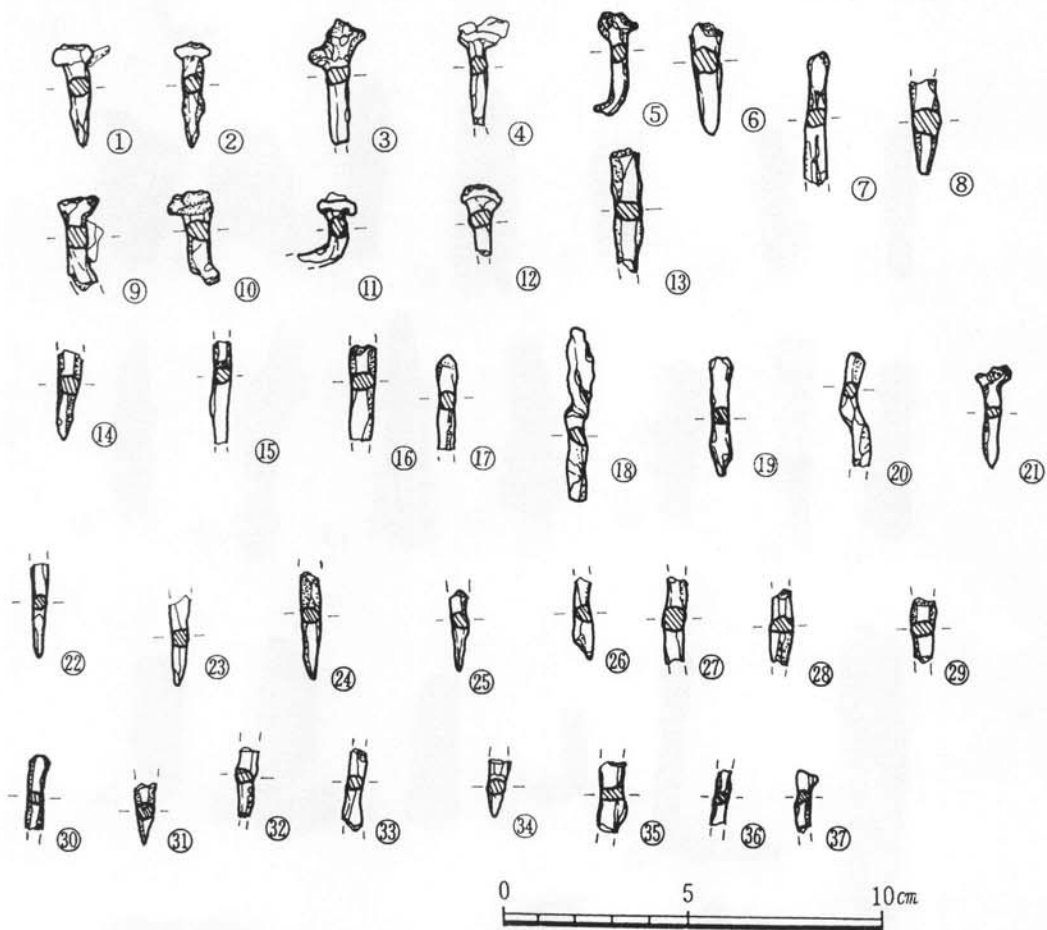
56-9	80-4	4.3	1.3	타원형	"
56-10	80-5	3.7	1.5	타원형	"
56-11	80-6	2.9	1.9	타원형	"
56-12	80-7	3.3	1.9	타원형	"
56-13	80-8	3.6	1.0	원 형	"
56-14	80-9	4.2	0.9	장방형	과판편(?).
56-15	80-10	3.3	1.5	타원형	과판편(?).
56-16	80-11	3.6	1.4	타원형	용도미상.
56-17	80-12	4.7	0.8	타원형	"
56-18	80-13	5.0	1.3	타원형	"
56-19	80-14	3.8	0.8	타원형	도자끝부분.
56-20	80-15	6.4	1.5	굽 은 타원형	용도미상. "
56-21	80-16	4.1	0.6	원 형	꺾쇠편.
56-22	80-17	2.0	0.5	타원형	용도미상.
56-23	80-18	3.2	1.1	장방형	"
56-24	80-19	4.2	0.9	ㄱ자형	"
56-25	80-20	2.9	1.1	원 형	철제환편. 부식 심함.
56-26	80-21	4.9	0.9	원 형	마구와 관련된 부속도구편(?).
56-27	80-22	4.5	1.1	원 형	꺾쇠편.
56-28	80-23	9.1	2.8	타원형	도자편이나 이물질 다량 부착.

8. 유리구슬 (도면57 사진81)

도면번호	도판번호	구슬지름	두 계	구멍지름	색 깔
57-1	81-1	0.2	0.2	0.1	청녹색
57-2	81-2	0.3	0.3	0.1	청 색
57-3	81-3	0.3	0.4	0.2	청 색
57-4	81-4	0.4	0.3	0.2	청 색
57-5	81-5	0.6	0.2	0.4	검정색
57-6	81-6	0.8	0.4	0.1	명녹색
57-7	81-7	1.2	0.8	0.2	흰 색



사진79 철제 못



도면55 철제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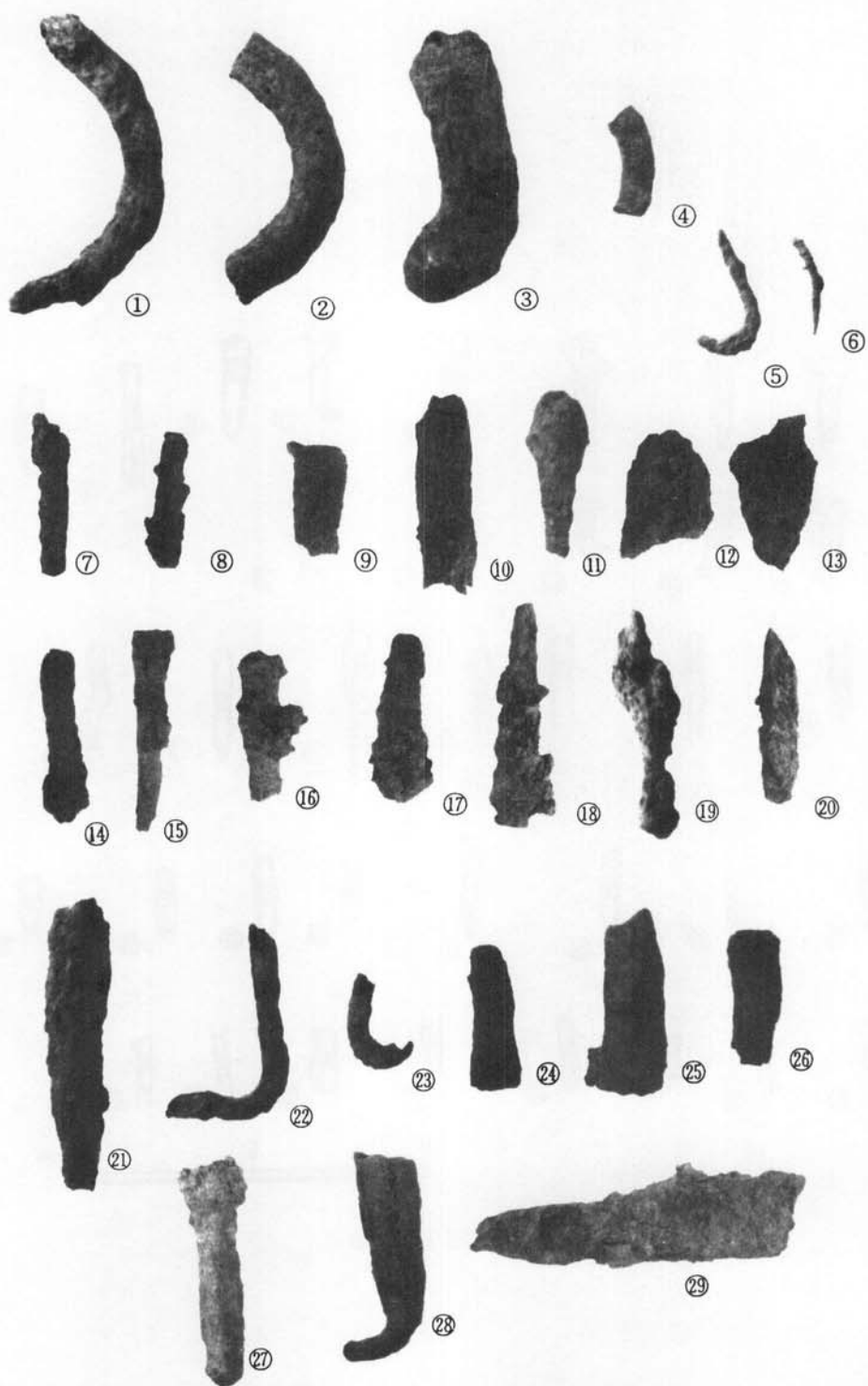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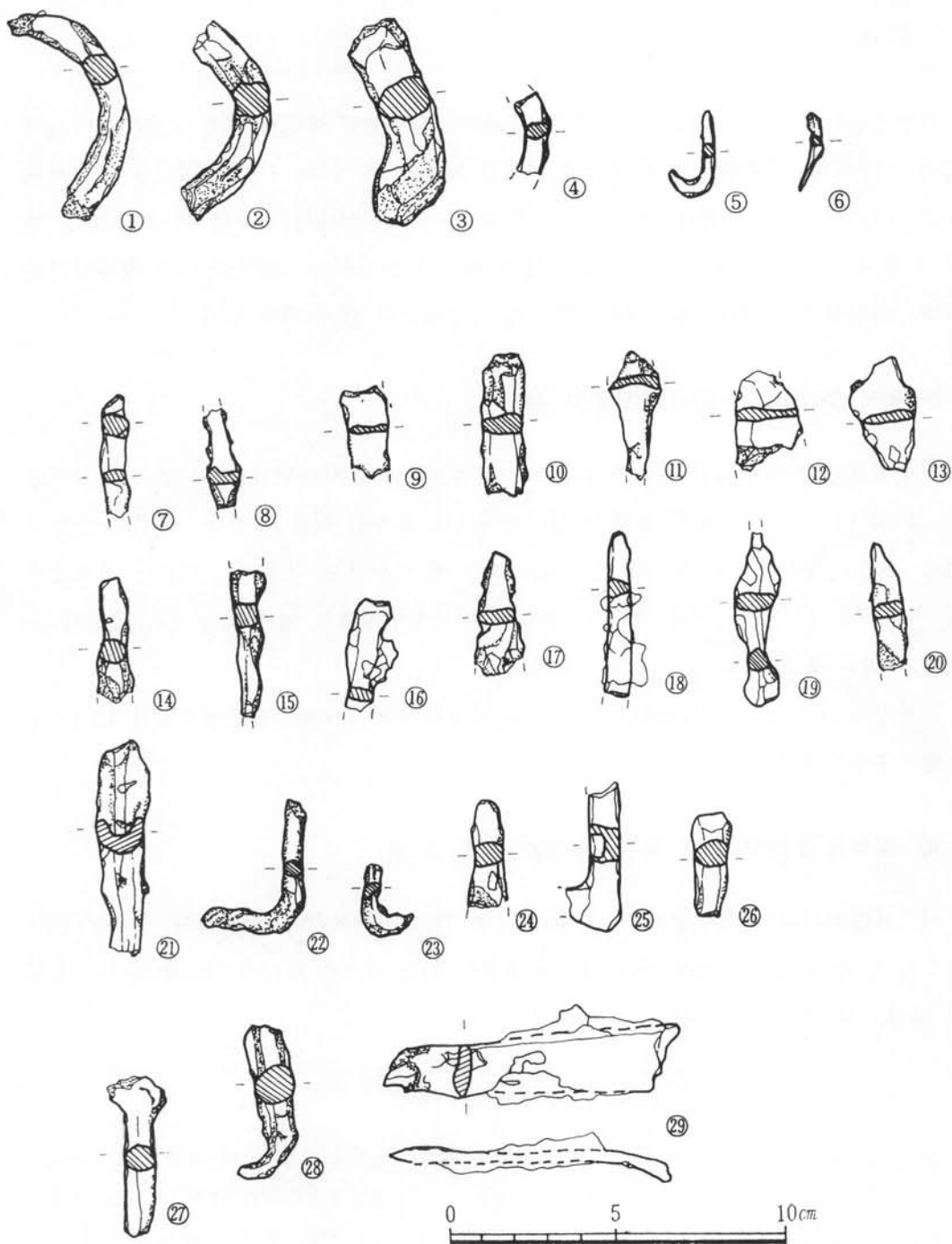


사진80 철제 환 및 기타 철제품



도면56 철제 환 및 기타 철제품

57-8	81-8	1.5	1.0	0.3	회 색
57-9	81-9	1.7	0.8	0.4	검정색
57-10	81-10	2.0	1.2	0.4	연두색

도면 57-1~57-4는 4mm미만의 작은 구슬이며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구슬이다. 도면 57-5는 타원 형 환구슬로 어떤 물건을 끼웠던 제품일 듯 싶다. 도면57-7은 말각 타원형으로 구멍지름이 매우 좁다. 모양은 '○' 꼴이다. 도면57-9는 구슬의 위·아랫면을 갈아서 활처럼 휘게 처리되었고 구멍을 뚫은 정도가 정연하다. 도면57-10은 횡종단면이 원형, 타원형으로 처리되었고 구멍 윗면이 아랫면보다 넓게 되어 있다.

9. 동제 숟가락(도면57-11 도판81-11)

집중산포된 세분핏트면 지표하 40-42cm 적석틈새에서 확인되었다. 시면은 절반이상이 결실되어 있으나 선단이 뾰족한 장타원형으로 오목한 면을 가진다. 병부는 중앙이 가장 가늘고 병부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데 병단부는 결실되어 있으나 이부분에서 최대폭을 둔 숟가락이다. 병부의 횡단면은 세장방형으로 병부의 두께는 균일하다. 시면과 병은 종으로 「S」형으로 이어져 있다.

전체길이 22.6cm, 시면최대길이 9.5cm, 시면최대폭 3.9cm, 잔존병부길이 13.1cm, 병부중앙폭 0.5cm, 두께 0.12cm.

10. 방추차(도면58-1·2·3·4 도판82-1·2·3·4)

지표채집되거나 유물집중산포구역내 지표하 10cm이내에서 확인되었다. 소속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주변에 다른 시기의 유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기사용시기와 동일시 된다. 각 방추차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지 림	높 이	구멍지름	색 깔	특 징
58-1	82-1	4.4	1.8	0.6	적갈색	삿갓모양. 테두리 일부 결실. 윗면 중앙구멍주위가 삿갓머리처럼 돌출
58-2	82-2	4.1	1.5	0.7	회 색	원반모양. 현무암알갱이가 노출. 구멍 불규칙하게 투공.

58-3	82-3	2.9	1.4	0.6	회갈색	주판알모양. 횡단면이 둥근 타원형. 태토에 석영, 장식, 운모가 섞임. 구멍은 정교하게 투공.
58-4	82-4	4.3	1.9	0.5	적갈색	원반모양. 중앙윗구멍부위는 부드럽게 연결 돌출시켜 평삭. 아랫면에 '+'가 그어져 있음.

11. 숫돌 (도면58-5, 6 도표82-5, 6)

도면 58-5는 세분핏트 25번의 지표하 25cm사이에서 출토되었다. 상하가 둥글게 마모되었고 윗면, 아랫면, 양측면이 모두 사용되었다. 몸체는 장방형, 자른면은 사각형이고 옆면의 마모 정도가 심하다. 전체길이 15.3cm, 너비 4.0cm.

도면 58-6은 유물이 집중산포된 30핏트의 지표하 10cm하단에서 출토되었다. 둥글게 마모된 장방형의 평면이며, 자른면은 사각형이다. 전체 사각면이 모두 사용되어 오목하게 패여 있다. 윗면에는 지름2mm정도의 구멍이 사각으로 관통되어 있다. 이 구멍은 줄을 메어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길이 8.9cm, 너비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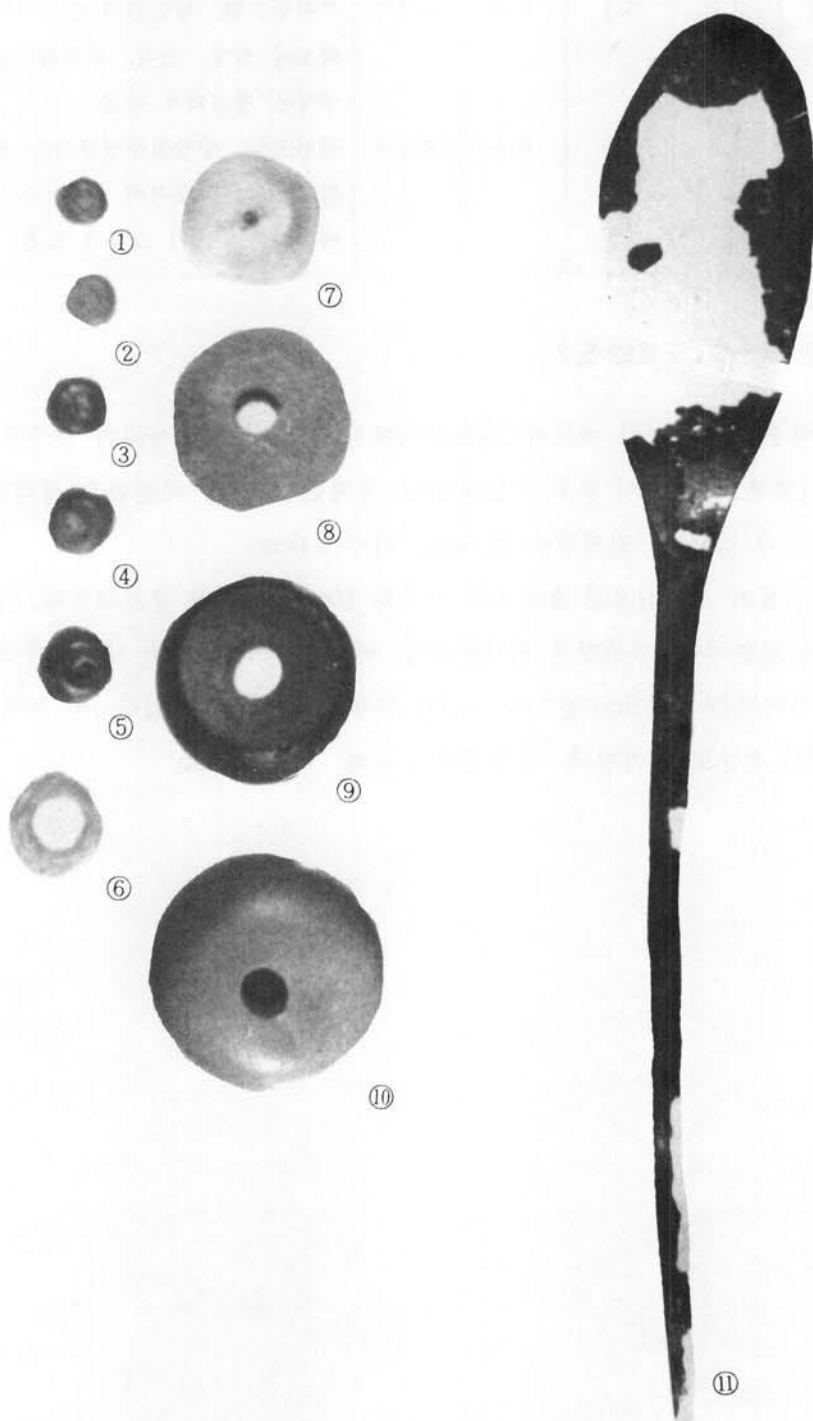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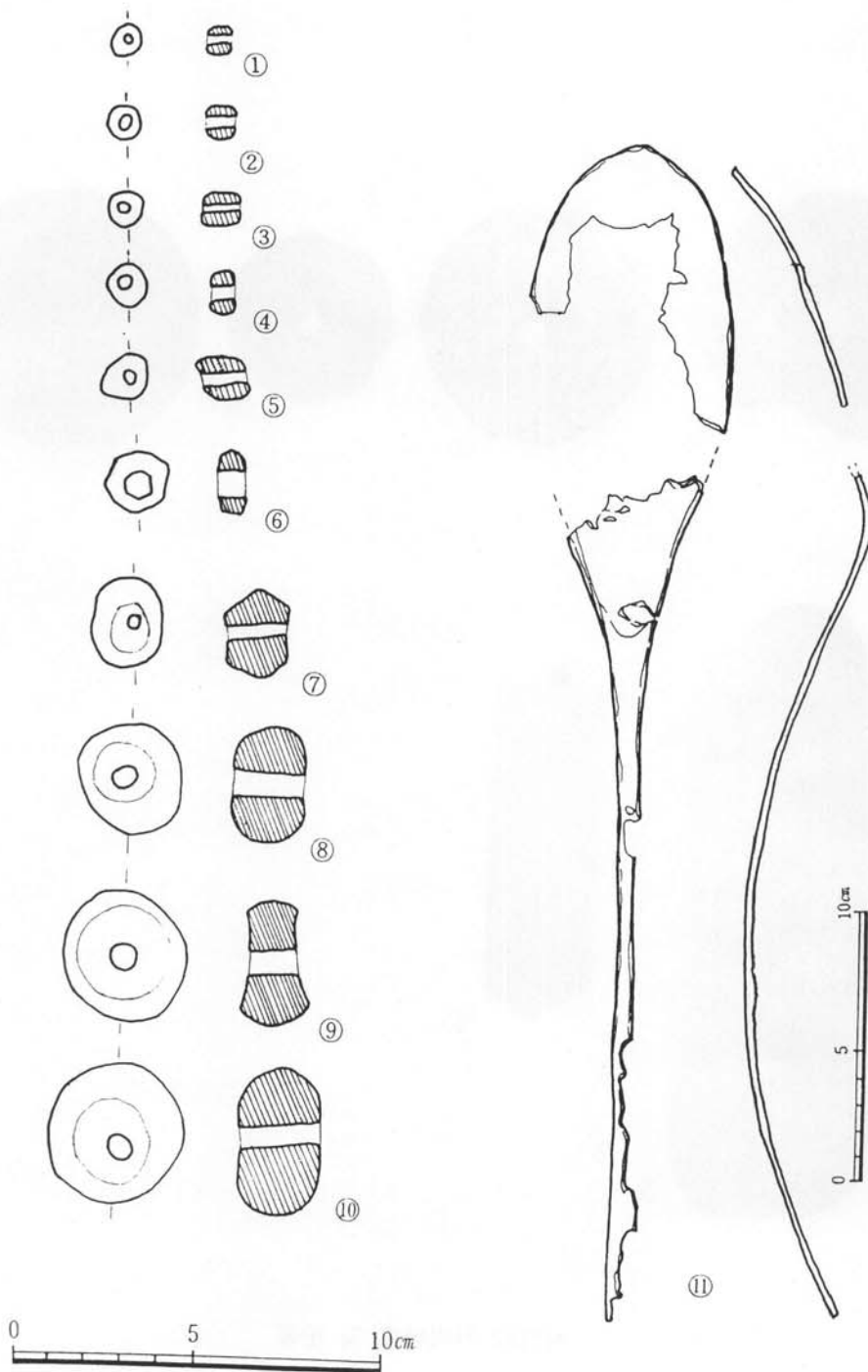


사진81 유리구슬 및 동제 숟가락



도면57 유리구슬 및 동제 숟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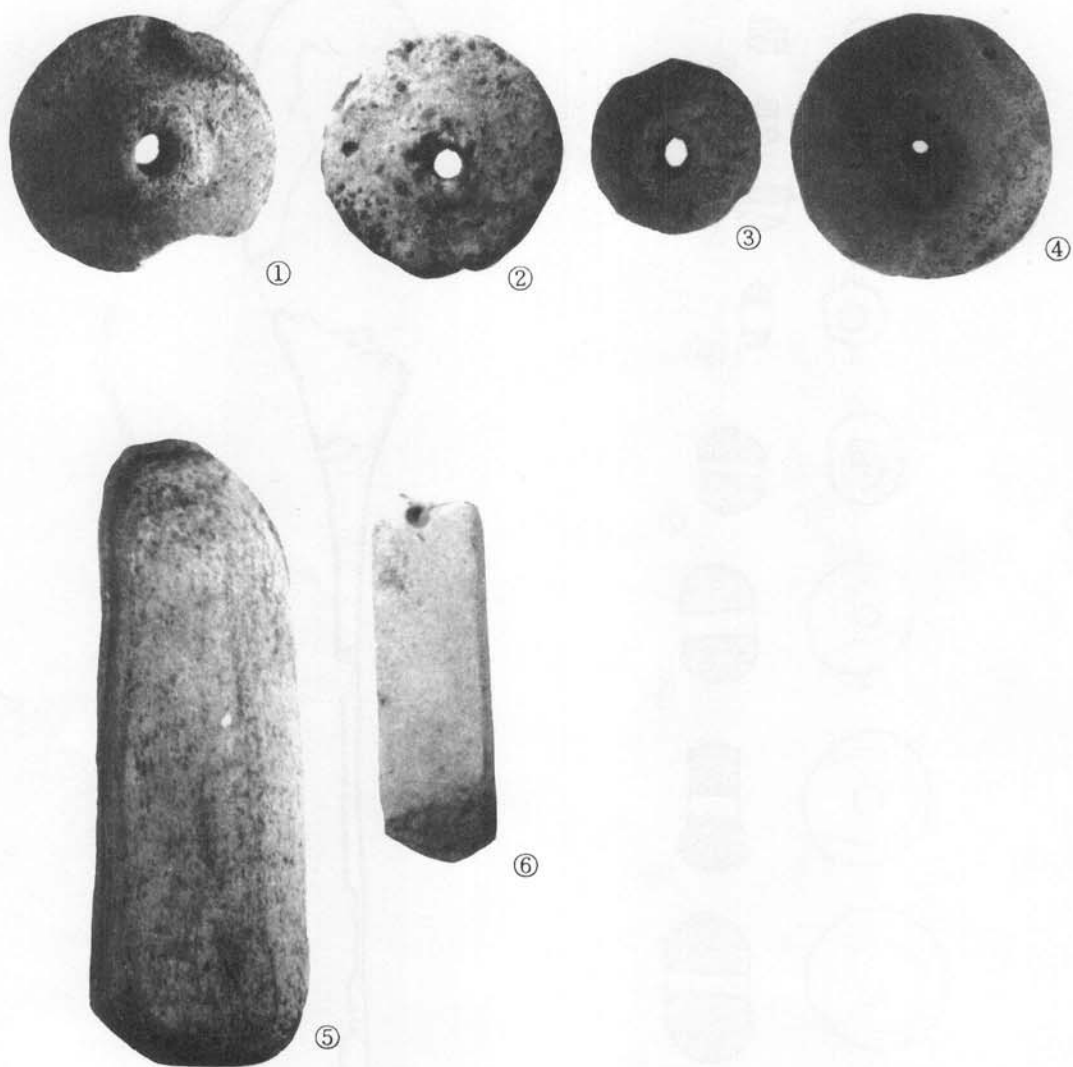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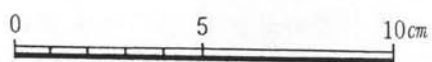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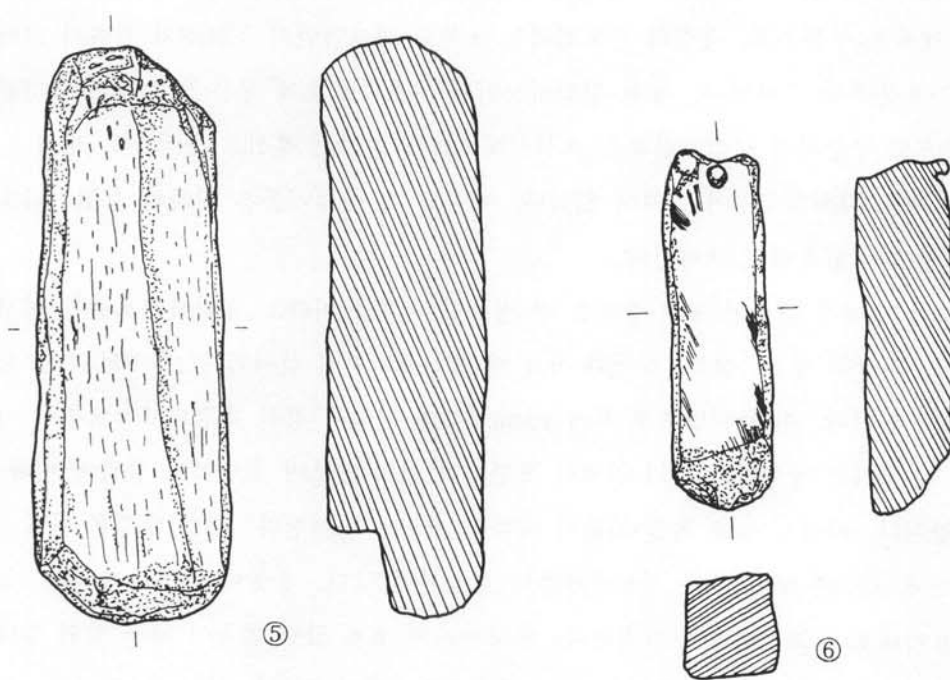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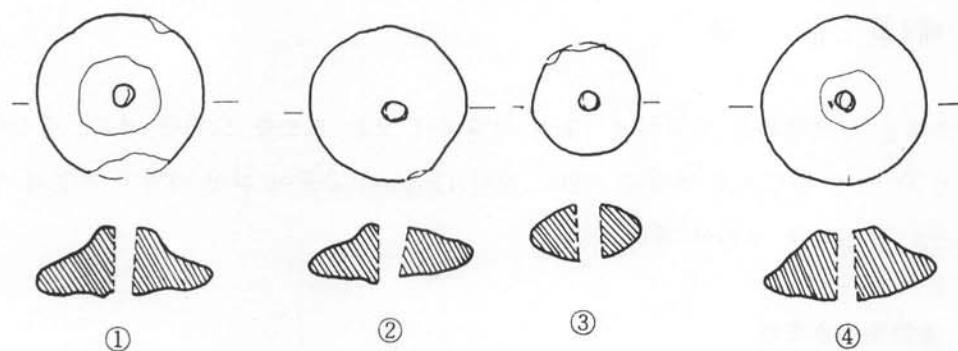


사진82 가락바퀴 및 숫돌



도면58 가락바퀴 및 숫돌

제5장 考 察

제1절 유 구

발굴대상 전체면적을 지표아래 10cm 레벨에서 모든 핏트를 노출한 결과, 중심독의 교차점(D.P.)를 중심으로 좌우에 폭2m, 길이 11.2m의 유물이 다량 매립된 부분과 적석 무더기로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었다.

1. 遺物集中廢棄部

1) 이 부분은 동쪽암반레벨이 서쪽으로 오면서 내려가는 경사레벨에 잡석과 도기편으로 꽉 채워진 부분으로, 유물의 분포범위는 동쪽의 생토암반의 下降線과 서쪽의 교란층의 중간부분까지 드러났다. 동편 암반하강면과 유물분포층의 구분은 소량의 도기편과 잡석군으로 구분되며 서편교란층은 조선시대이후에 교란된 부위로 잡석으로 채워져 있고 생토까지 타원형구덩이로 패여 있었다. 아마도 이 구덩이들은 원래의 통일신라도기廢棄面을 파괴했으리라 보아진다.

2) 유물이 집중 분포된 곳의 층위는 맨 상층인 지표층 아래로 흑갈색점토층이 형성되어 있고, 자갈한 냇돌, 잡석, 할석과 함께 다량의 토기편이 섞여 있는 유적의 주된 문화층으로 판단된다. 이 층위밑으로 두께 10cm정도의 점성이 강한 흑갈색부식토층이 이어졌다. 이 층위는 상층과는 달리 자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물량도 상층에 비해 매우 소량이다. 아마도 상층 유물이 흘러 내려온 것으로 여겨진다. 맨 아래층은 유물포함층에 한해 지표하 52cm부터 생토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동편은 지표아래로 생토암반층이 연결된다. 동고서저의 생토 암반 굴곡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유물분포구역내 층위는 굳이 구분하면 2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지만, 토층내에 포함된 자갈과 유물의 함유량의 차이에 의해 구분하였을 뿐 시기차가 있는 層序로 해석하기엔 어렵다. 동 유적의 층위는 유물의 출토 상태에 따른 뚜렷한 층위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고 또한 생토암반층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경사져 내려가고 있어, 동편과 서편의 유물포함층의 구분도 애매하였다. 발굴 당시 몇개의 도기편에 한해 동일 개체편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개체의 편이 상층과 하층 구분없이 여기저기에서 출토되어 층 위상의 변화는 읽을 수 없었고 또한 당시 낮은 쪽으로 유물이 버려진 시기상의 변화를 고찰하기도 어려웠다.

3) 유구의 전면 노출 결과, 도기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범위는 동서방향의 장축 11.2m, 단축 5.4m로, 유물군은 중심독을 경계로 사방 4개의 핏트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유물집중부의 북동쪽경계는 생토암반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간간이 도기편이 확인되며 생토암반의 굴곡이 심하여 유물분포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쪽경계는 대형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이 부위는 잡석만으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다.

4)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면, 지표하 10-25cm지점은 기준점중심의 4개 핏트에 한해 잡석보다 도기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층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유물은 흑유장경병편, 사각편병저부편, 중국계 도자기저부편, 대호편, 솥돌 등이 노출되었다. 지표하 25-35cm지점에서는 냇돌과 할석이 적석된 인공적인 유구시설물이 드러났고 청동제유물과 철제화살촉, 파상밀집대호편, 금동제과관, 세로줄주름무늬병편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유물과 잡석군이 섞인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표하 40cm지점은 잡석이 전혀없고 구슬과 과대편이 확인되었다. 도기유물이 극히 소량 분포하고 있었다. 바닥부분은 대형 할석이 군데군데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2. 積石部

이 부분은 유물집중 분포구역에서 벗어난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매립된 구성물 중 잡석 무더기 속에 광지1식적갈색토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매립부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유 물

1. 기 종

용담동 유적에서 출토된 도기는 크게 병과 향아리(壺)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직 모든 도기의 복원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내릴 수는 없지만 서로 상이한 구연부와 구연개체가 확인되지 않은 저부, 동체편으로 대략적인 최소개체수를 통계내 보면,

다음 「表」¹⁾와 같다.

〈표 1〉 용담동유적 도기의 기종 구성표

瓶類	長頸瓶	—	—	—					
	短頸瓶	—	—	—					
	小形瓶	—							
	四角扁瓶	—							
壺類	短頸壺	—	—	—					
	廣肩壺	—	—	—					
	直口壺	—							
	大壺	—	—						
大甕 (?)		—							
中國陶磁器		—							
최소개체수		0	10	20	30	40	50	60	70 100-

2. 문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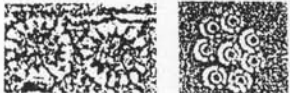





용담동유적에서 출토된 문양도기편은 시문수법에 따라 그은 무늬와 찍은 무늬, 두드림무늬²⁾, 돌대무늬로 나누어진다. 그은무늬와 두드림무늬는 회색연질도기편에 주로 나타나며 찍은무늬는 회청색경질도기에 국한된다.

가. 찍은무늬(도면59-61 사진83)

- 1) 이표에 누락된 陶器類는 두껍편과 완의 구연부편으로, 각 1점씩 확인되었다. 이외에 보 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채 확인되지 못한 도기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아마도 극히 소량일 것으로 판단된다.
- 2) 그은무늬는 시문구를 통해 물레가 돌아가는 동안 토기표면에 문양을 그어내어 시문한 무늬로 삼국시대의 회청색경질토기나 고려시대의 1-2조의 波狀文(파도무늬)을 시문할 때 쓰는 방법이다(이기길, 1991, 「고려시대 질그릇의 제작기법」, 「고려시대질그릇」, 연 세대학교박물관도록 12, p. 13.). 찍은무늬는 무늬가 있는 도장을 사용하여 그릇표면에 말 그대로 찍어낸 무늬, 도장무늬이다. 두드림무늬는 김해식토기의 제작기법처럼 그릇 벽정면시 격자문이나 승석문이 박힌 도박을 사용하여 두드리면 나타나는 무늬이다. 가 장 전통적이고 후대까지 지속된 무늬로 그릇 내외벽에 모두 나타난다.

찍은무늬 도기의 문양은 크게 점선문, 원문, 화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 「표」와 같다.

〈표 2〉 용담동유적출토 찍은무늬도기의 문양

點 線 文 系	連續세로줄 點線文		圓 文	密集圓文	
	가로줄 點線文			密集圓圈文	
	지그재그형 點線文		國 花 文		
	全面密集 點線文		花 文		
	連續長三角形 點線文		連續馬발굽文		
			圓 點 文		

이 표를 보면 點線文系의 찍은무늬로 ① 연속세로줄 점선문 ② 연속가로줄 점선문 ③ 밀집점선문 ④ 연속장삼각형 점선문이 확인된다. 圓文系는 ① 밀집원문 ② 집원권문이, 花文系는 ① 국화문 ② 화문 ③ 연주문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통일신라도기편에 주로 나타나는 連續말굽文이 있다.

현재 관찰되는 파편에서의 문양 복합관계는 세로줄 점선문인 경우 돌대문세로줄무늬와 관련이 있으며 평행(가로줄)점선문은 국화문과 돌대문이 복합시문되어 있다. 지그재그형점선문은 1조-2조의 선조문대간에 시문된 경우가 많으며 삼각점선문의 복합문은 국화문과 결합하고 있다. 밀집원문, 중권문, 연주문은 동시에 복합되어 나타나는 예가 많다. 연속마적문은 주로 광견상의 견부상에 나타난다. 화문은 동체부에 시문된 것과 단경병의 경부에 시문된 것이 확인되었다. 7세기 중엽이후에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골호등의 장식시문으로 유행했던 영락문이나 二重菱形文, 樹滴文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은 한

강유역의 동시기 적은무늬도기 출토 양상³⁾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점선문은 통일신라후기(8세기중반이후)의 동구림리도요지출토 도기에서 주된 문양수법으로 확인되었다.⁴⁾ 아직 이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릇전면에 從으로 점선문이 시문된 소형단지가 소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발견된 적은무늬도기편들은 단경병이나 단경호에 시문된 것으로 판단되며 문양의 모티브는 7세기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도기의 문양과 동일⁵⁾하나, 전반적으로는 경주지역에서 벗어난 변방지역(특히, 한강유역)에서 발견되는 동시기의 문양종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문양의 소속시기는 나팔형 장경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8세기 이후로 판단된다.

나. 그은 무늬(도면 63-67 사진84)

그은무늬는 모두 선문이다. 파상선문과 삼각선문, 수직선문, 雨降文(빗줄기무늬)으로 나누어 진다. 그중 파상선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 파상문도기의 문양 분류

형	1조파상선	2-5조의 파상선	밀 집 파 상 선	산맥형파상문	날개형파상선문
문 양					

3) 김병모·심광주, 1991, 「二聖山城-三次發掘調査報告書」, 한양대학교박물관보고서 12, p. 435.

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1988, 「영암구림리토기요지발굴조사보고-제1차발굴조사중간보고」, p. 56.

5) 이들 경주중심의 복합적은문양의 각 단계별 발생전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잘 기술하고 있다.

최병현, 1987, 「신라후기양식토기의 성립시론」, 김원룡박사정년퇴임기념논총(고고학편), pp. 563~591.

이 파상선문은 대부분 1-2조의 선조대간안에 시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조 파상선문은 백제토기에서 등장하여 통일신라도기의 후반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고려도기에서도 정형화되지 못한 문양수법으로 항아리유형에 잘 나타난다. 2-5조의 파상선문은 육지부의 신라, 가야, 백제의 모든 그릇에 유행했던 시문으로 2-3열씩 밀집되어 나타난다. 산맥형파상문은 등간격으로 역 'U'자형으로 4-5조의 파상선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시문은 백제지역에서 발견되며⁶⁾ 제주도 곶지리4지구 조개무지에서 확인되었다. 날개형파상문은 회색연질도기 대호의 견부에 시문된 것으로 스치듯 그어댄 무늬이다.

앞에서 서술한 장경병의 구연에 시문된 파상선문은 4-5의 파상선이 경부중앙의 2조 심조대를 사이에 두고 상하에 1열씩 배치되어 있다(장경병 A-a형참조). 이러한 유행의 장경병이 8세기초반부터 등장하였다고 고찰하였는데 이로 볼 때, 파상선의 시문양식은 통일신라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그외의 그은 무늬 중, 삼각열문은 국화문, 원문과 복합되지만 파상문과는 복합되지 않는 것이 용담동도기문양의 특징이다. 파상문과 결합하는 그은무늬는 점사선문이다. 이는 점사선문의 본격적인 사용시기와 인화문의 존속시기, 그리고 파상선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사항이다.⁸⁾

다. 두드림무늬(도면68 사진84)

두드림무늬는 격자, 승석문 등을 도박으로 때려 시문한 무늬로, 무늬를 의식적으로 시문한 것이 아니라 그릇 벽을 정면하는 과정에서 생긴 무늬이다. 의도적인 시문이 아니라 벽을 다듬는 과정에서 파생된 무늬라는 것은, 문양이 그릇의 내벽과 바닥의 이음새 부분에서도 나타나며(사진73-3), 때린후 물손질로 이그러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6) 부여 박물관 소장 四耳付長頸瓶에서 확인되는 무늬이다.

안승주, 1985, 「백제토기의 연구」, 마한백제문화연구소.

7) 인화문도기=통일신라시대토기라는 개념은 그 발생 및 전개와 관련된 것이지 그 도기만이 사용됐다는 논제는 아니다.

8) 그은 사선, 직선문이 찍은무늬와 복합되지 않는 예는 동구림리요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동구림리요지의 사용시기가 통일신라후기라는 점에서 이해될 점이다(주4)의 같은 책, pp. 36-48). 이 보고서에 실린 도기편의 문양을 보면, 1-2조의 미미한 파상선문이 지속되고 있으나 뚜렷한 파상밀집선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을 통해 알 수 있다.

승석문과 격자문을 일관하여 두드린 것이 대부분이나, 도박을 달리해서 격자와 승석문, 줄곧무늬 등을 복합하여 두드린 문양도 있다(도면68-4).

라. 돌대무늬(도면62 사진83)

돌대문은 회전대위에서 그릇면에 가늘게 말은 흙띠를 덧붙이고 물집게로 손질하면 나타나는 무늬이다.⁹⁾ 이 유적에서 발견되는 돌대무늬가 부착된 도기는 동체상에 나타나는 무늬로 기형상, 경부 하단에 1조 돌대턱을 두른 대호편의 일종이다. 이러한 돌대문 대호는 정림사지우물지, 보령진죽리, 영암구림리, 양주대모산성 등에서 출토되며 편년자료는 미륵사지출토大中二年(858년) 銘대옹이 있다. 이러한 대호류는 통일신라후기에 유행했던 도기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제작기법

1) 장경병은 밑바닥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기형의 제작기법은 알 수 없다. 목부분의 제작기법을 관찰하여 보면 대체로 경부와 건부를 따로 만들어 부착하거나 손을 경부 안으로 넣어 말아 올려 성형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그릇 내면에 건부와 경부의 확실한 경계를 알 수 있는 연속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도면11-6). 경부와 건부의 경계 외면은 침선대나 돌대문을 돌려 구분하고 있다. 경부내면에는 위아래로 빗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2) 단경병은 경부를 동체에서 조여 말아 올리면서 성형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경부에 무늬는 시문되지 않으며 건부와 경부의 경계부는 돌기대를 돌려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릇의 최대폭을 어깨에 두는 소위 廣肩瓶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면에는 보편적인 물손질 수법과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장경병의 몸체 및 제작수법과 비슷하나 경부 처리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廣肩狀의 병의 동체에는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것으로 파악되나 완전한 그릇이 없어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없다.

3) 장경호는 주로 대호의 구연으로, 크게 구순을 둥글게 처리하거나 혹은 말아올려 띠를 성형하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경부에는 문양시문없이 1-2조의 침선대를 성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부에서 경부로 돌리는 부

9) 주2)의 같은 책. p. 135.

분에 1조 돌대문을 돌렸고 그릇 내, 외면 모두 물손질과 빗질로서 정면하였다. 동체의 문양도 일부 파상문을 시문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 무문양이다.

4) 단경호의 頸部는 크게 ① 경부가 직각으로 올라가게 만든 것, ② 원통형의 순부에 와서 외반되게 한 것, ③ 廣肩狀의 어깨에 직각으로 올라가던 경부가 순부에서 외반되는 것 ④ 동체에서 경부로 완만하게 올라오던 기벽이 구연부에 와서 비스듬히 외반되게 한 것, ⑤ 경부를 'く'로 꺾이게 처리한 것, ⑥ 구순부에 1단 홈줄이 형성되어 있고 경부를 'ι'로 만든 것, ⑦ 전부에서 경부로 급격히 꺾이게 만든 것으로 나눌수 있다. 臂部는 ① 둥글게 마감한 것, ② 1조심선대를 만들고 나서 둥글게 마감한 것, ③ 2조 침선대를 만들고 둥글게 마감한 것, ④ 각지게 마감한 것, ⑤ 띠를 만들면서 둥글게 마감한 것(단경호 G-⑦), ⑥ 알게 마감한 것, ⑦ 구순부 성형을 점토띠를 말아 둥글게 환띠를 두른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경호의 내면처리 수법을 보면 회전흔과 물손질수법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전부와 목의 경계부에서 손누름흔적이 보인다. 이 손누름은 목을 만들면서 조여 올라간 것으로 여겨지며 경부 내면의 회전흔은 조여 올라간 경부에 손가락을 넣어 회전시킬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 굽저부편에서 관찰되는 것은 굽부분과 저부를 따로 만든 흔적이 단면에서 나타나며(사진 63-2), 굽의 끝처리는 ① 수평하게 처리한 것, ② 각지게 처리 한것, ③ 경사지게 처리한 것으로 나누어 진다. 바닥면에는 회전흔과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6) 평저부편에서는 일부, 밑바닥과 동체를 따로 만들어 부착 성행한 수법이 관찰된다.¹⁰⁾ 바닥의 테두리에는 가장자리 바닥을 성형할때 방망이로 때리거나(사진73-3), 예리한 나무칼, 실같은 도구로 자른 듯한 흔적이 보인다. 바닥밑에는 석영, 장식같은 알갱이들이 부착되어 있거나¹¹⁾ 나이트자국, 네모꼴자국, '一十'자국들이 관찰된다. 대형 그릇편인 경우 동체하단벽에 격자, 승석문이 나타난다. 이는 대형그릇의 벽은 방망이로

10) 이러한 수법은 제주도 심발형 적갈색토기(곽지2식토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제작기술상의 동일성에서 비교 연구가 요망된다.

제주대학교박물관, 1985, 「郭支貝塚」,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1집, pp. 34~45.

11) 이를 '소분'이라 한다. 이러한 알갱이는 우연하게 끼어든 것이 아니고 일부러 뿌려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젖은 흙의 밀창이 물레판에 들러붙으면 그릇을 완성한 뒤 떼어낼 때 잘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기길, 1991, 「고려시대 질그릇의 제작기법-물그릇 만들기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질그릇」, pp. 129-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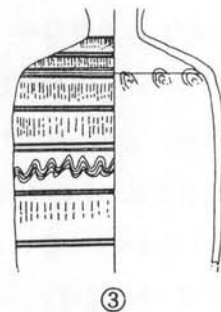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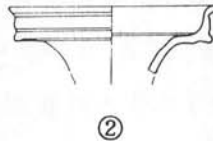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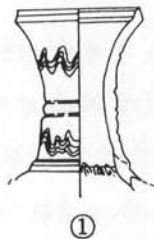
두드려 성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도기의 중성자방사화 분석자료*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하여 중성자방사화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수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자료

도 면	명 칭	출 토 위 치	층 위
1	장경병의 구연부	1991년 발굴 테스트핏트내	유물층 (1), L20-30
2	장경병의 구연부	중심독 근처	유물층 (1), L25-27
3	돌대문대호편	세분핏트	유물층 (1), L30-35



2) 분석결과

〈표 4〉 용담동유적 출토도기의 중성자방사화 분석

도 면	K (%)	Na (%)	Fe (%)	Cs (ppm)	La (ppm)	Ce (ppm)	Lu (ppm)	Th (ppm)	Cr (ppm)	Sm (ppm)	Sc (ppm)	Hf (ppm)	Rb (ppm)	Co (ppm)
1	0.54	0.45	2.15	6.83	33.5	78.0	0.142	15.8	74.6	2.60	10.6	5.95	96.5	6.87
2	0.55	0.43	1.96	6.94	35.8	86.8	0.172	15.2	72.2	2.85	10.1	6.46	102	7.82
3	0.50	0.52	2.02	5.38	35.9	85.8	0.133	14.0	58.9	2.80	8.57	5.00	111	11.8

* 이들 분석자료의 연구는 추후 진행할 계획임.

제3절 유적의 성격과 편년

1. 편 년

이 유적에서 출토된 도기의 문양과 기종에 의한 편년을 일단 상정 할 수 있다.

확인되는 문양은 크게 적은무늬와 그은 무늬로 나누어 진다. 적은무늬는 점선문, 원문, 화문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고 그은 무늬는 선문과 파상선문이다. ① 파상선문은 삼국시대로부터 계승성이 강하게 조선시대까지 지속된 문양수법인 바, 여기서 편년자료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密集波狀線文과 엇갈린 파상선문대는 8세기대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³⁾ ② 적은무늬계열은 경주 花山里 새터부락 土器窯址에서 출토된 토기문양 조합상중 영락문이나 연속번개문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하다.¹⁴⁾

출토된 도기의 기종 중 편년자료로 제시 할 수 있는 것은 장경병과 세경병, 돌대문대호, 주름무늬병이다.

① 장경병은 흔히 長頸盤口臺附瓶으로, 통일신라 유적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경병의 용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그릇이 출토된 예는 울릉도 천부동 2,3호분¹⁵⁾, 가탐리폐사지¹⁶⁾, 안압지¹⁷⁾, 진죽리요지¹⁸⁾, 구림리요지¹⁹⁾ 등을 들 수 있다. 광견상의 어깨에 장경의 목을 가진 병은 당진구룡리요지²⁰⁾, 이성산성제2우

13) 李殷昌, 1982, 「新羅伽耶土器窯址」,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p. 201.

14) 이 유적은 출토된 인화문도기류와 채유인화문도기류가 그 기형과 문양에 있어 다종 다양하고 그 색조와 문양에 있어서 화려하여 전성기의 인화문도기窯址로 파악하고 있다. 그 년대는 7세기말에서 9세기 중엽으로 잡고 있다. 주13)의 같은 책, pp. 362~363.

15) 金元龍, 1963, 「鬱陵島」, 國立博物館古蹟踏查報告 第4冊.

16) 小田富士雄, 1979, 「百濟 土器」, 「世界陶磁全集」17-韓國古代-, 小學館, pp. 210~211.

17)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78, 「雁鴨池遺蹟發掘調查報告書」.

18)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7, 「統一新羅·高麗 질그릇」.

19)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靈岩郡, 1988, 「靈岩鳩林里土器窯址發掘調查 -1次發掘 調査 中間 報告-」.

20) 李浩炯, 1992, 「唐津九龍里 收拾調査 概要」, 「考古學誌」4, pp. 205~230.

물지²¹⁾, 호암산성 제2우물지²²⁾에서 확인된다. 이들 장경병의 흐름은 중국의 영향을 받고 백제권에서 출발한 듯하다²³⁾. 적어도 7세기 이전에 장경병은 나주대안리 5호분 출토병²⁴⁾, 논산표정리출토병²⁵⁾ 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용담동 유적에서 출토되는 장경병은 廣肩狀의 장경병으로, 7세기이전의 고분출토의 백제병이나 9세기대의 진죽리나 구림리요지에서 출토되는 납작한 편구병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 대체로 이러한 광견상의 장경병의 출현시기는 이성산성과 호암산성내 제2우물지내의 유물의 조합상, 경주 안압지출토 대부장경반구병으로²⁶⁾ 보아 8세기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세경병은 외반되는 짧은 목위에 구단부가 없어진 형으로 2cm미만의 반구형태를 이룬 병이다. 흔히 반구병이라고 호칭되는 것들이다. 반구형의 구단부가 흠줄대로 세경되는 형태의 병은 죽죽리폐사지²⁷⁾, 안압지, 양주대모산성, 이성산성, 호암산성, 천부동, 구림리요지, 진죽리요지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유형의 병중 3~4줄의 흠줄을 형성하면서 정교하게 반구형태를 구비한 형태의 반구병(보고서의 단경병 C-4·5형)은 호암산성 제2우물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늦은 시기의 울릉도 천부동 2, 3호분, 동구림요지에서 다량으로 확인된다.

③ 돌대문대호는 전부상단에 1-2조의 돌대턱으로 경부와 경계를 짓는 평저의 대형항아리로 진죽리요지, 구림리요지, 木川土城²⁸⁾ 등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유형의 대호는 통일신라후기에 유행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²⁹⁾.

④ 돌대 혹은 점선으로 세로줄이 연속해서 시문되는 주름무늬병은 5점이 출토되었다. 이 주름무늬병은 이성산성 2차저수지, 안압지와 천부동2호분, 양주대모산성³⁰⁾, 진죽리,

21) 漢陽大學校博物館, 1991, 「二聖山城」, 漢陽大學校博物館叢書 第12輯, pp. 110~111.

22) 서울大學校博物館, 1990, 「한우물」, p. 164.

23) 백제의 병은 중국의 영향에서 출발하였다는 학설이 있다.

徐聲勳, 1980, 「百濟土器瓶 考察」, 「百濟文化」30, pp. 27~30.

24) 최몽룡, 1978, 「나주대안리 5호분 석실분조사보고서」, 전남대학교박물관.

25) 尹武炳, 1979, 「蓮山地方 百濟土器의 研究」, 「百濟文化」10, p. 32.

26) 주29)의 같은책 p. 99.

27) 國立晉州博物館·慶尚南道, 1986, 「陝川竹竹里廢寺址」, 합천수물지구조사보고11.

28) 尹武炳, 1984, 「木川土城」, 忠南大學校博物館·獨立紀念館建立推進委員會, pp. 18~27.

29) 崔健, 1988,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도기에 관하여-특히 기종별 재료와 질의 변천을 중심으로-」, 「통일신라·고려질그릇」, pp. 113~116.

30)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陽州大母山城發掘調査報告書」.

구림리요지 등에서 출토된다. 이러한 주름무늬병의 출발은 이성산성 2차 저수지의 상한을 8세기초반으로 잡고 있어 대략 8세기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⑤ 청동제 순가락은 안압지³¹⁾와 호암산성 제2우물지 최하층³²⁾에서 출토된 순가락과 같은 것으로, 대략 8~9세기대에 유행했던 유물로 판단된다.

문헌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신라가 당의 세력을 축출한 후, 신라가 탐라를 使略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탐라 외교권이 신라에 위임되는 본격적인 신라부용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오히려 탐라는 백제관직명인 좌평을 그대로 갖고 있다. 8세기 초반경, 신라가 중앙집권적 전제왕권체제를 확립한 후 탐라는 신라에 실질적인 부용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담동유적의 출토도기는 대체로 8~9세기에 해당하며 역사적으로는 탐라국이 신라와의 실질적인 부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6. 유적의 성격

1) 유적은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시 앞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濟州牧城의 서쪽으로 흐르는 한천과 병문천하류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언덕이다. 제주 바다와 드넓은 한드기벌판이 한 눈에 들어오는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³³⁾

2) 금번 발굴한 유구는 陶器가 다량으로 廢棄되어 있는 폭 4m, 길이 11m의 크기의 遺物廢棄部이다. 동편의 생토암반이 서쪽으로 심하게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에, 낮은 서쪽부위에 크고작은 할석과 괴석, 도기를 廢棄하여 동일한 높이로 형성하고 있었다. 생토암반부위에서는 조선시대의 구덩이와 쟁기질한 고랑 등이 확인되었으나 통일신라시대의 시설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언덕위에 시설물을 만들어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31) 주17)의 같은 책, p.

32) 주22)의 같은 책, p. 167.

33) 濟州漢川와 併門川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지도 1.2참조).

한내의 바다 연접부는 조선시대의 제주부임 목사들이 밤 뱃놀이로 유명한 장소이다(龍淵夜泛). 七年大旱에도 기우제를 올리면 비가 내린다는 龍淵祈雨祭로도 알려진 장소이다.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濟州市의 文化遺蹟」,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9집, pp. 130~348.

에는 어려운 지형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3) 적석유물매립부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瓶類과 壺類에 국한된다. 특히 병류중 장경병과 광구편구병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장경병이 20여점이상 출토된 유적은 한반도에서도 흔하지 않다. -통일신라시대 패총으로 알려진 광지패총 4지구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장경병은 출토되지 않았다.³⁴⁾ 따라서 이 유적에서 장경병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점은 이 유적의 성격과 관련되어 해석되어진다. 일부 확인된 중국도자기편중 注子片은 酒瓶의 기능으로 판단된다.

4) 제주도의 통일신라시대(탐라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토기는 광지2식 심발형토기로 파악되고 있다. 이 토기는 동 유적에서 동쪽으로 700m 떨어진 제주목관아지 최하층³⁵⁾과 제주의 광지패총 4지구³⁶⁾에서 통일신라시대 도기와 공반된다. 그러나 이 용담동에서는 공반되지 않는다. 광지2식토기는 제주도산 태토로 빚어졌으며 바닥과 동체를 따로 성형 부착하였고 물레판과 구순부를 대칼로 깎아 각지게 처리하는 수법을 가진 토기다. 이 토기는 회색도기의 영향을 받아 개량발전된 적갈색경질토기로, 제주도 자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남한지방에서 수입되므로 대량보급이 어려운 회색도기를 대신하여 제작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³⁷⁾ 경질도기가 끓이는 용도로 쓰이지 못하므로 아마도 이 용도를 대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동 유적을 생활유적으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

5) 용담동에서 출토된 도기는 모두 제주도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선 석영, 장석, 운모 등의 산지가 없으며 제주도산 현무암 태토로 그릇을 빚을 경우 1,200도 이상의 환원염에서는 녹아 내린다는 점이다.³⁸⁾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때, ① 용담동 유적은 해안이 觀望되는 언덕에 立地하고, ② 장경병 등의 병류와 호류만이 출토되며, ③ 생활지유적에서 확인되는 발·완·점시·시

34) 제주대학교박물관, 1986, 「제주도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2집, pp. 63~71.

35)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조선시대제주문물전」 제주대학교박물관도록4, pp. 20~21.

36) 주34)의 같은 책, p. 69.

37) 이청규, 1993, 「上古時代 濟州島文化의 研究」, 한국상고사학회발표요지, p. 27.

38) 이러한 연구는 窯業工學的인 側面 뿐만아니라 제주도 도기의 原產地 推定에 중요한 자료로 현재 연구 계획중에 있다.

루·반·동이 등이 발견되지 않고³⁹⁾ ④ 제주곽지2식심발형토기가 공반되지 않으며, ⑤ 유구에 있어 도요지, 건물지 등의 특정시설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특별한 의식행위와 관련된 장소로 판단된다.⁴⁰⁾ 즉, 이 유적은 특별한 의례를 목적으로 하여 당시 고급 그릇인 도기만을 폐기한 것으로 여겨진다.⁴¹⁾

39) 한강유역의 통일신라토기유적에서 나타난 유적별 기종 구성은 다음 「表」와 같다.

任孝宰·崔鐘澤, 1990, 「한우물 - 出土遺物에 대한 考察」,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刊 16, p. 45. 「表 7」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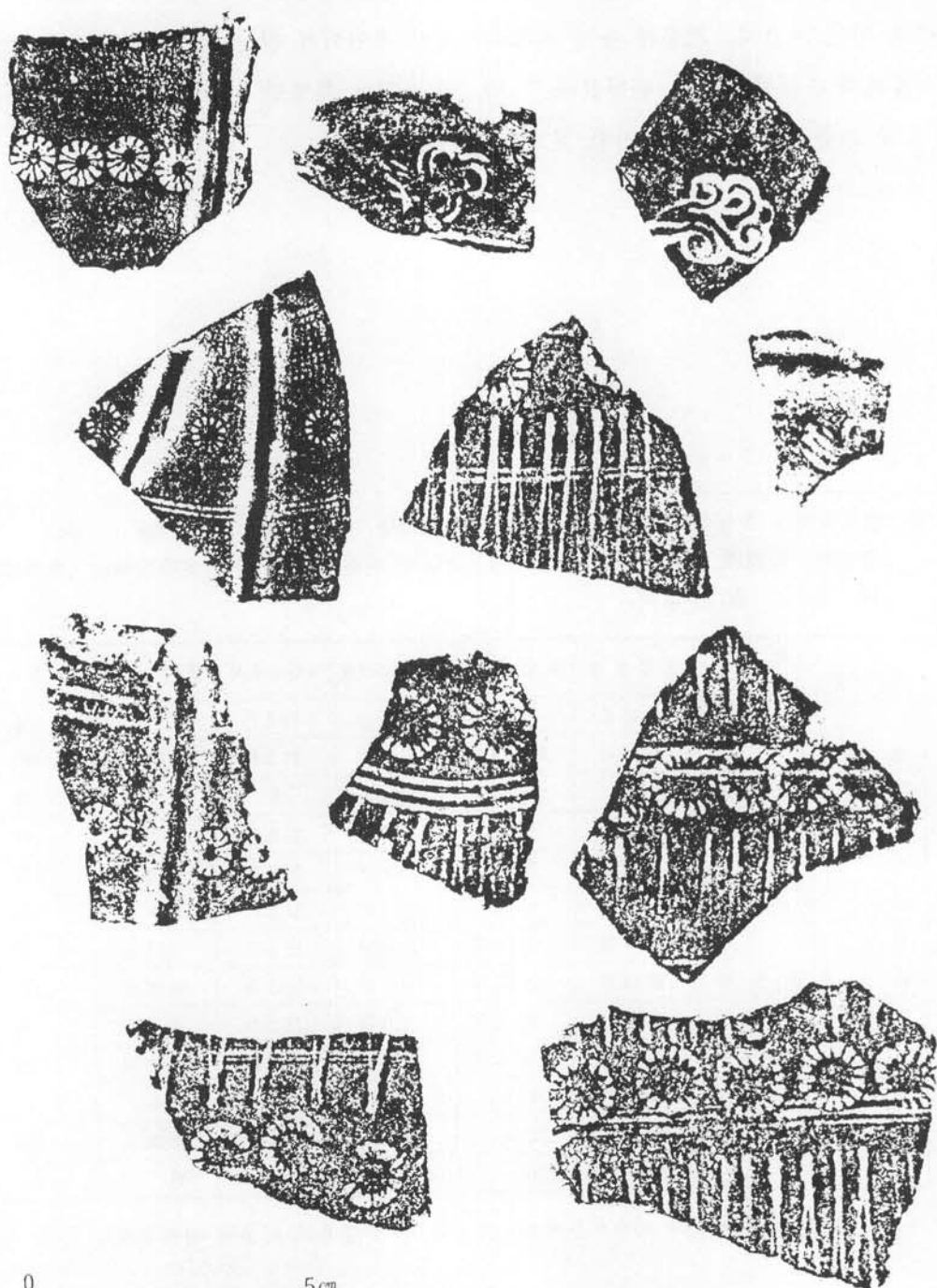
기 종	이 성 산 성	호 암 산 성	양주대모산성	사당동요지	행 주 산 성	계
고 배 류	47(16.8)	57(4.3)	16(10.1)	1(2.7)	12(7.5)	133
완 류	31(11.1)	393(29.9)	18(12.0)	2(5.4)	16(10.0)	460
등 잔 류	0	6(0.5)	12(8.0)	0	0	18
대 부 완 류	36(12.9)	91(6.9)	19(12.7)	3(8.1)	5(3.1)	154
뚜 경 류	47(16.8)	75(5.7)	25(16.7)	7(18.9)	5(3.1)	159
접 시 류	5(1.8)	21(1.6)	2(1.3)	1(2.7)	0	29
시 루 류	15(5.3)	22(1.7)	2(1.3)	1(2.7)	9(5.6)	49
파 수 부 등 이 류	40(14.3)	332(25.3)	18(12.0)	5(13.5)	46(28.8)	441
대 부 호 류	2(0.7)	33(2.5)	1(0.7)	1(2.7)	2(1.3)	39
병 류	24(8.6)	59(4.5)	20(13.3)	6(16.2)	17(10.6)	126
외 반 구 연 소 호 류	6(2.1)	19(1.4)	1(0.7)	1(2.7)	0	27
호 · 용 류	27(9.6)	205(15.6)	16(10.1)	9(24.3)	48(30.0)	305
계	280	1,313	150	37	160	1,940

이 표를 보면 완류와 파수부동이류, 호·용류, 뚜경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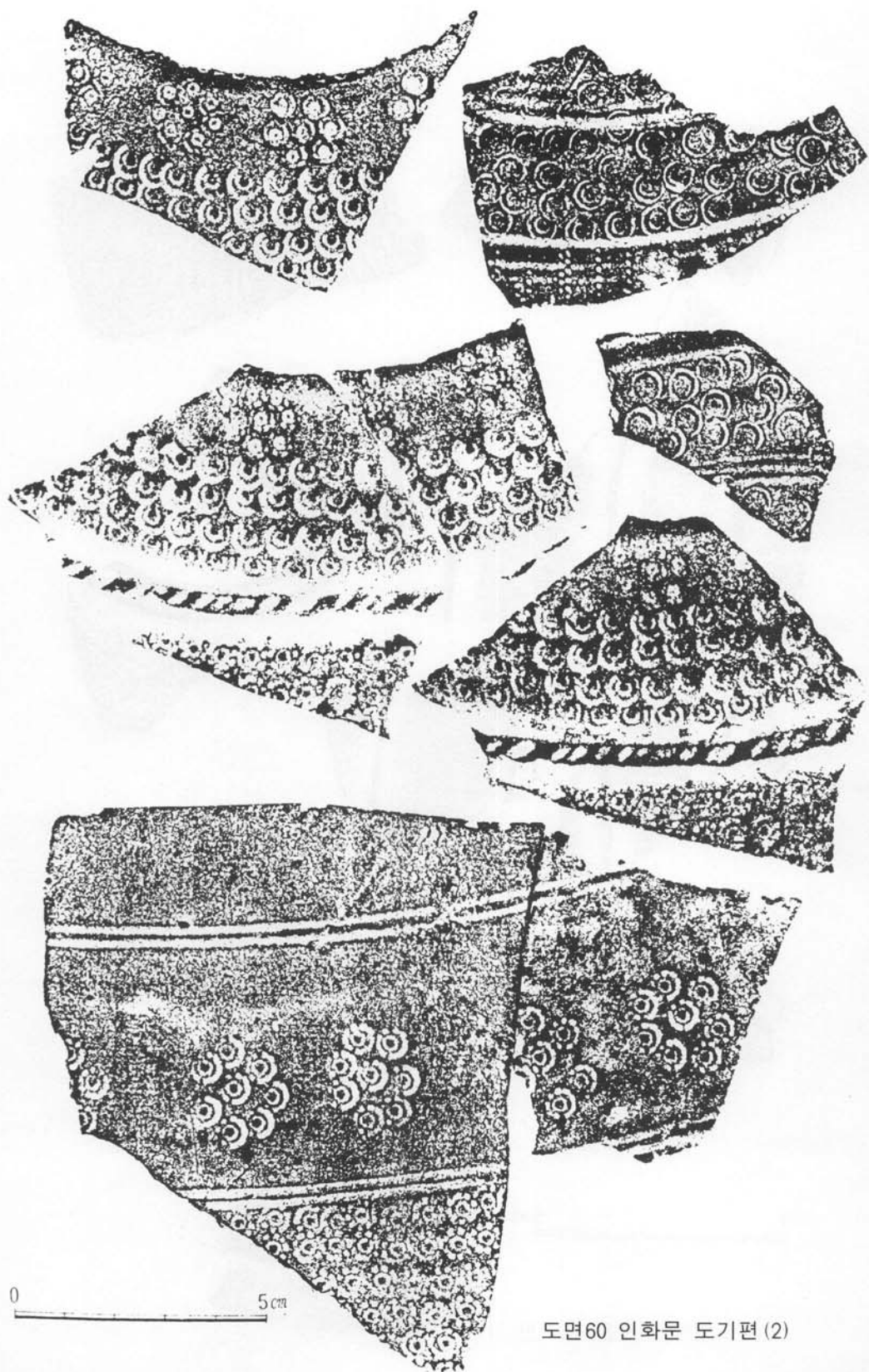
40) 탐라국시대로부터 耽羅王이 주도하는 농경과 관련된 祭祀기록이 전한다.

李源祚, 「耽羅錄」 立春日帖韻, p. 201 「……是耽羅王續田遺俗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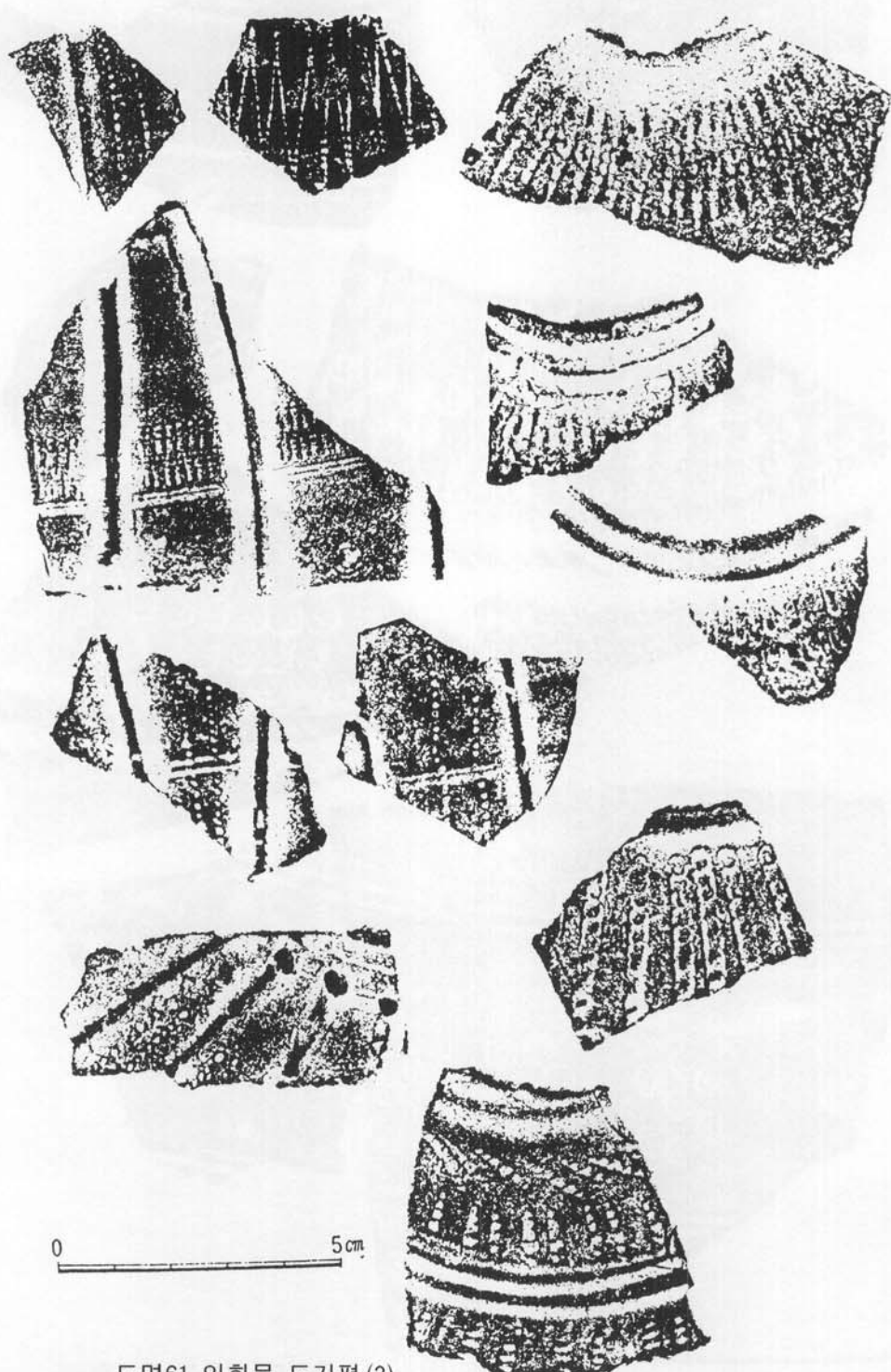
41) 장경병의 다량존제는 의식행위와 관련된 祭酒用 瓶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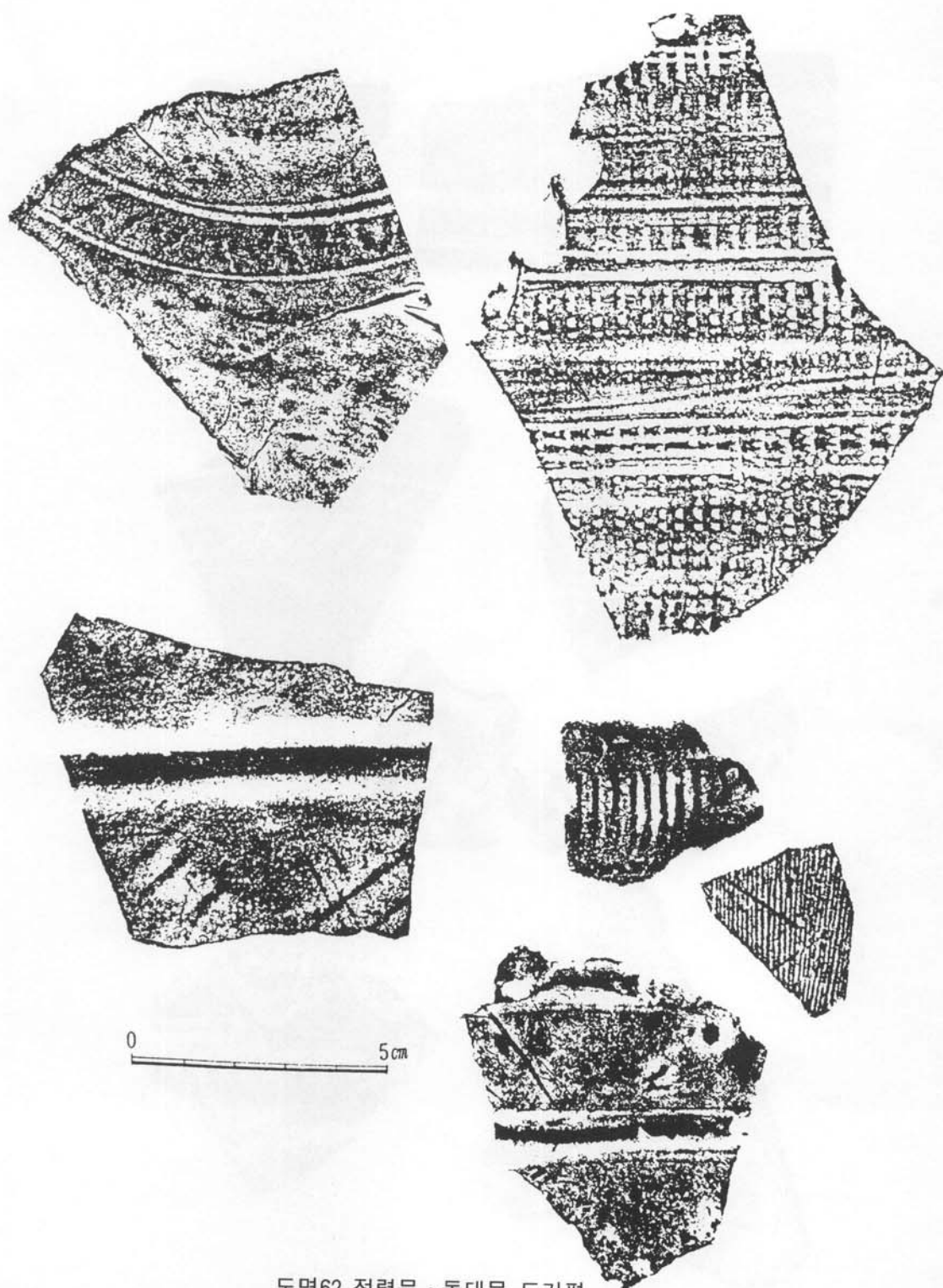
도면59 인화문 도기편 (1)



도면 60 인화문 도기편 (2)



도면61 인화문 도기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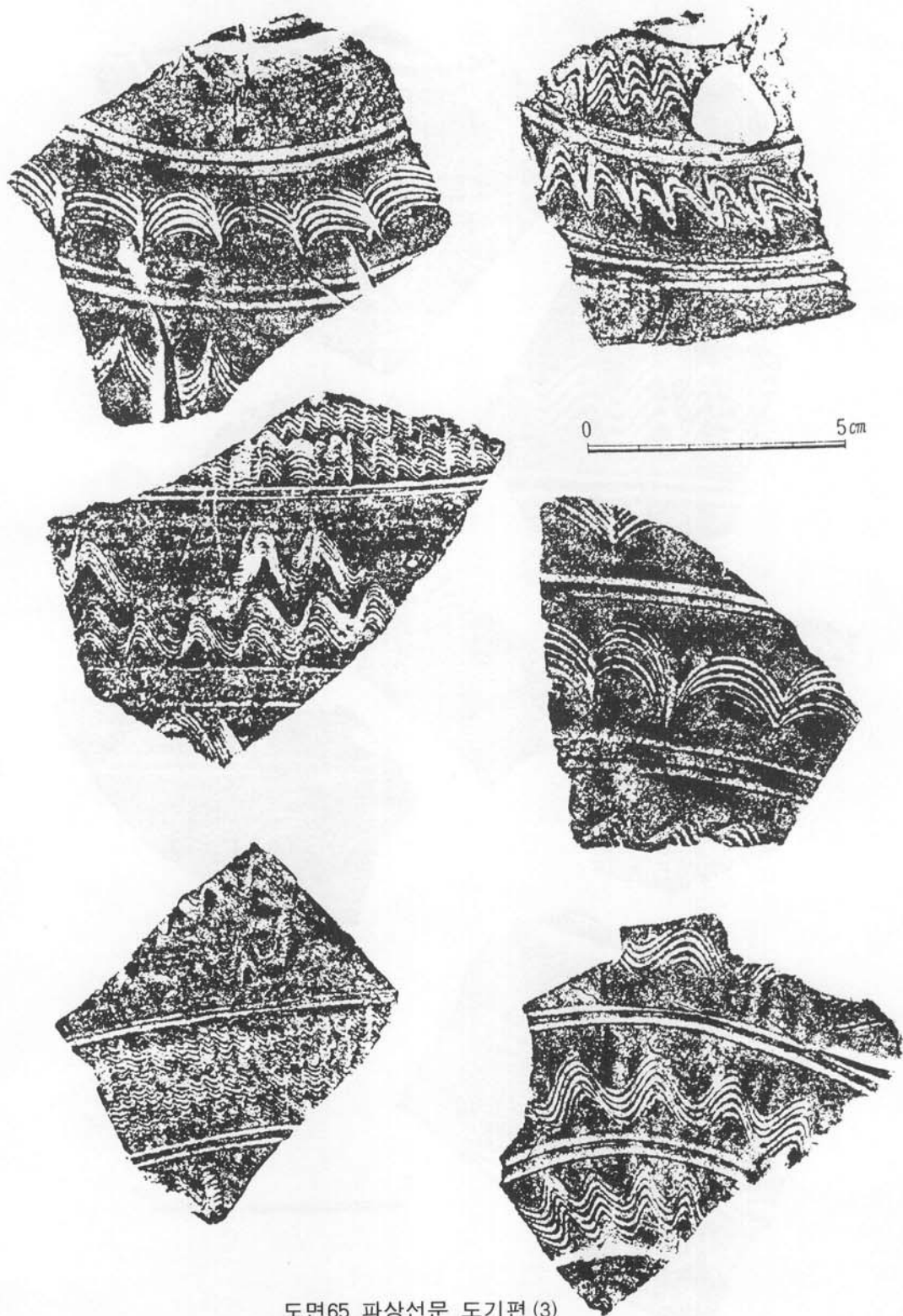
도면62 점렬문·돌대문 도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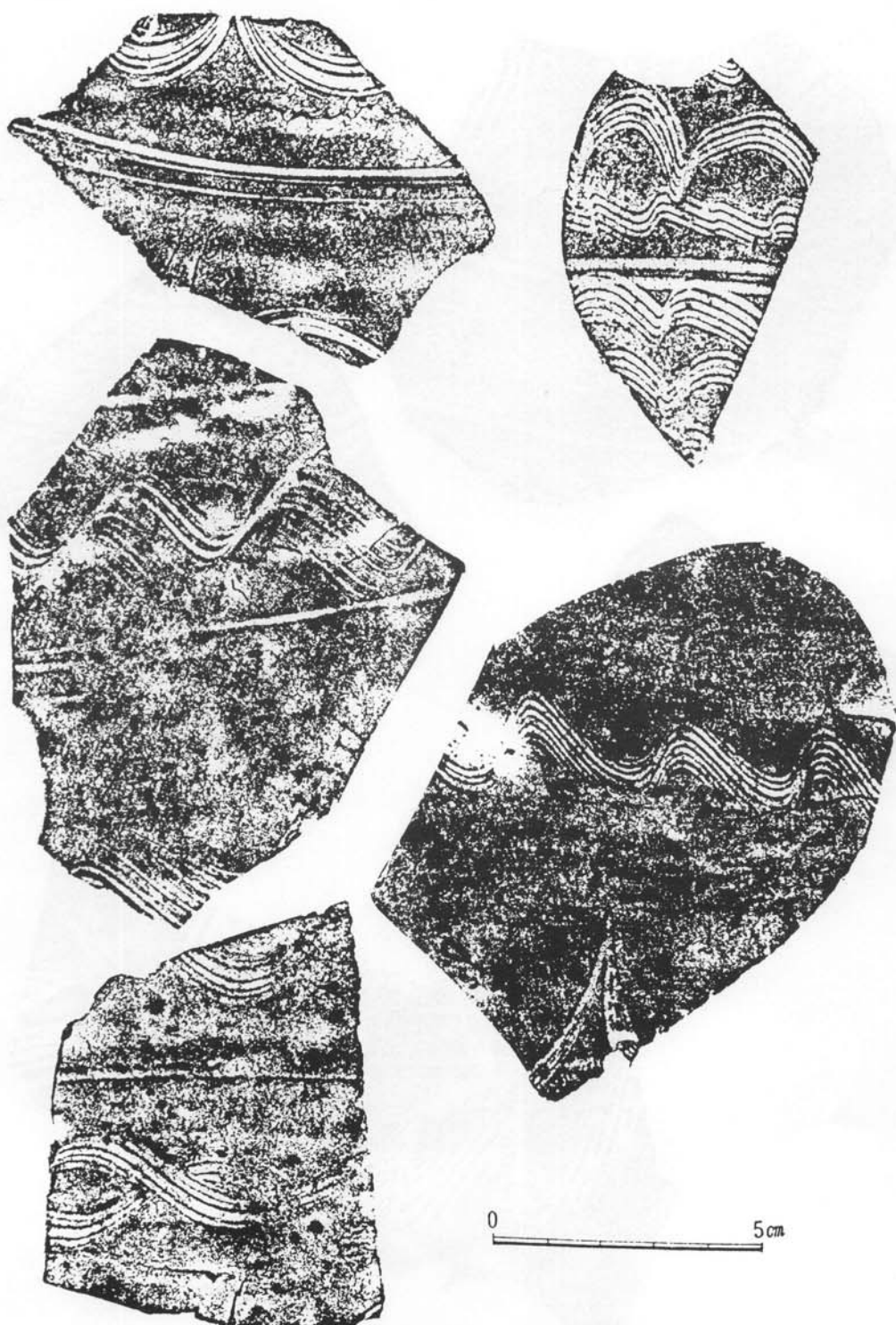
도면63 파상선문 도기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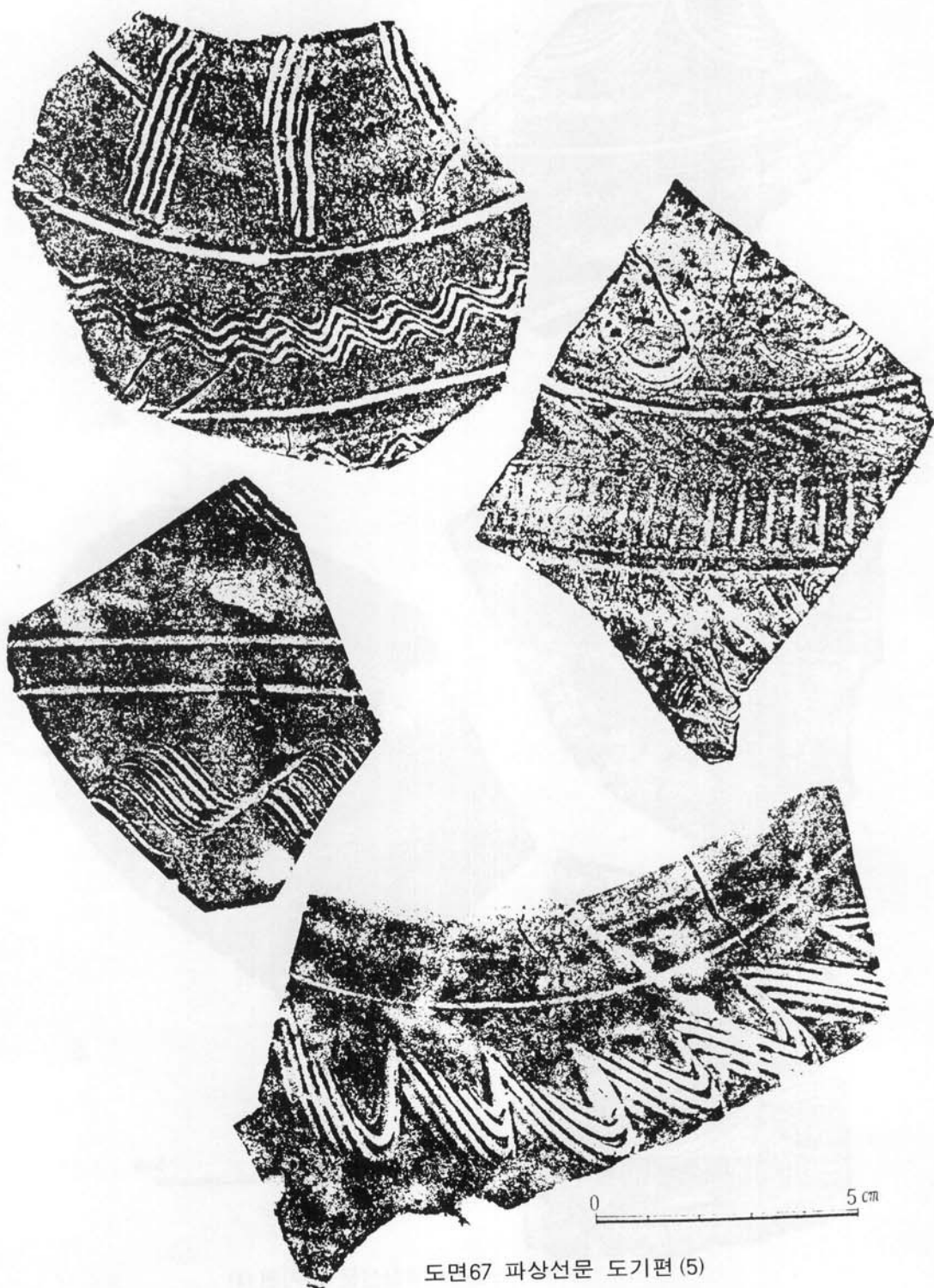
도면64 파상선문 도기편 (2)



도면65 파상선문 도기편 (3)



도면66 파상선문 도기편 (4)



도면67 파상선문 도기편 (5)



도면68 격자문 도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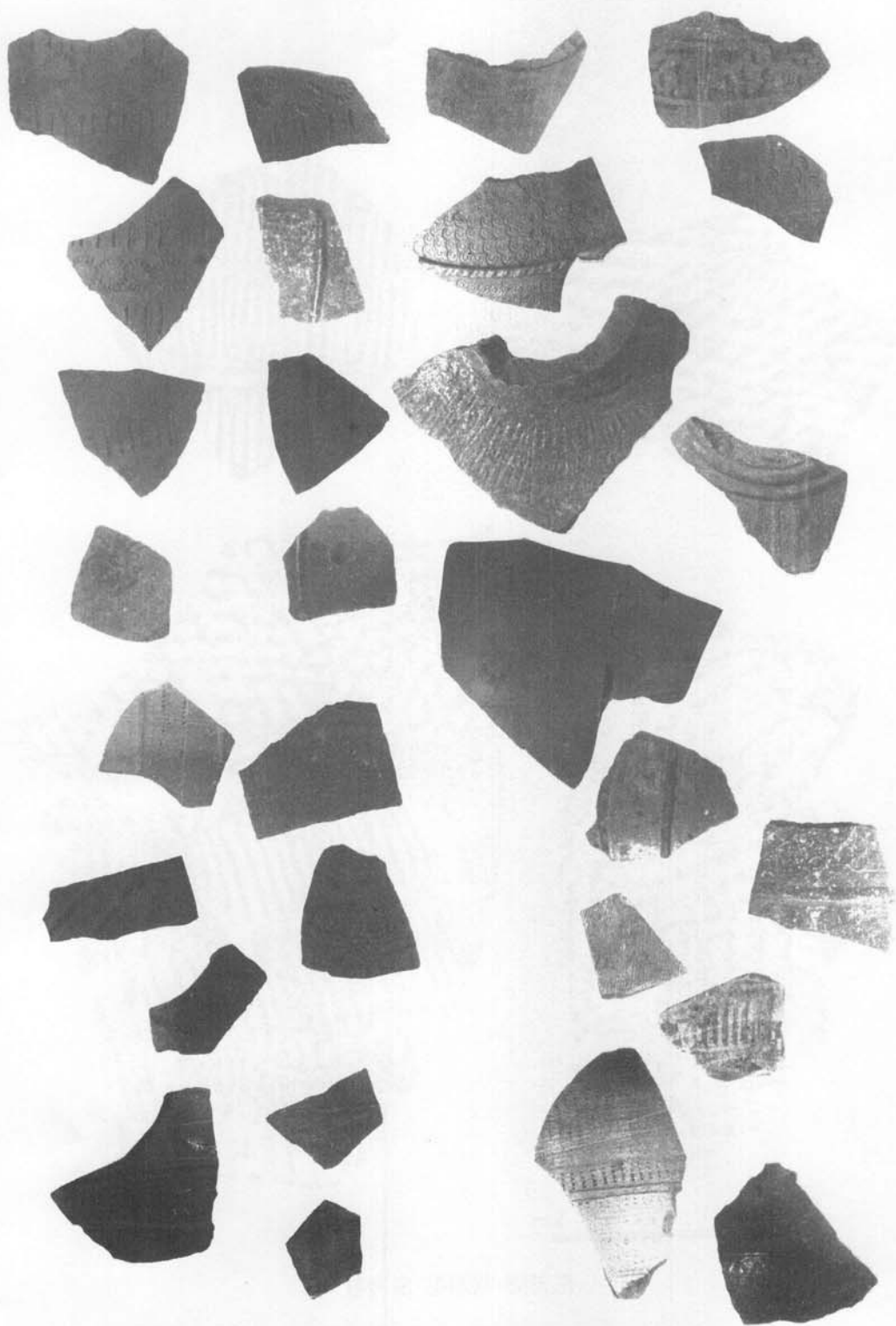


사진83 인화문도기편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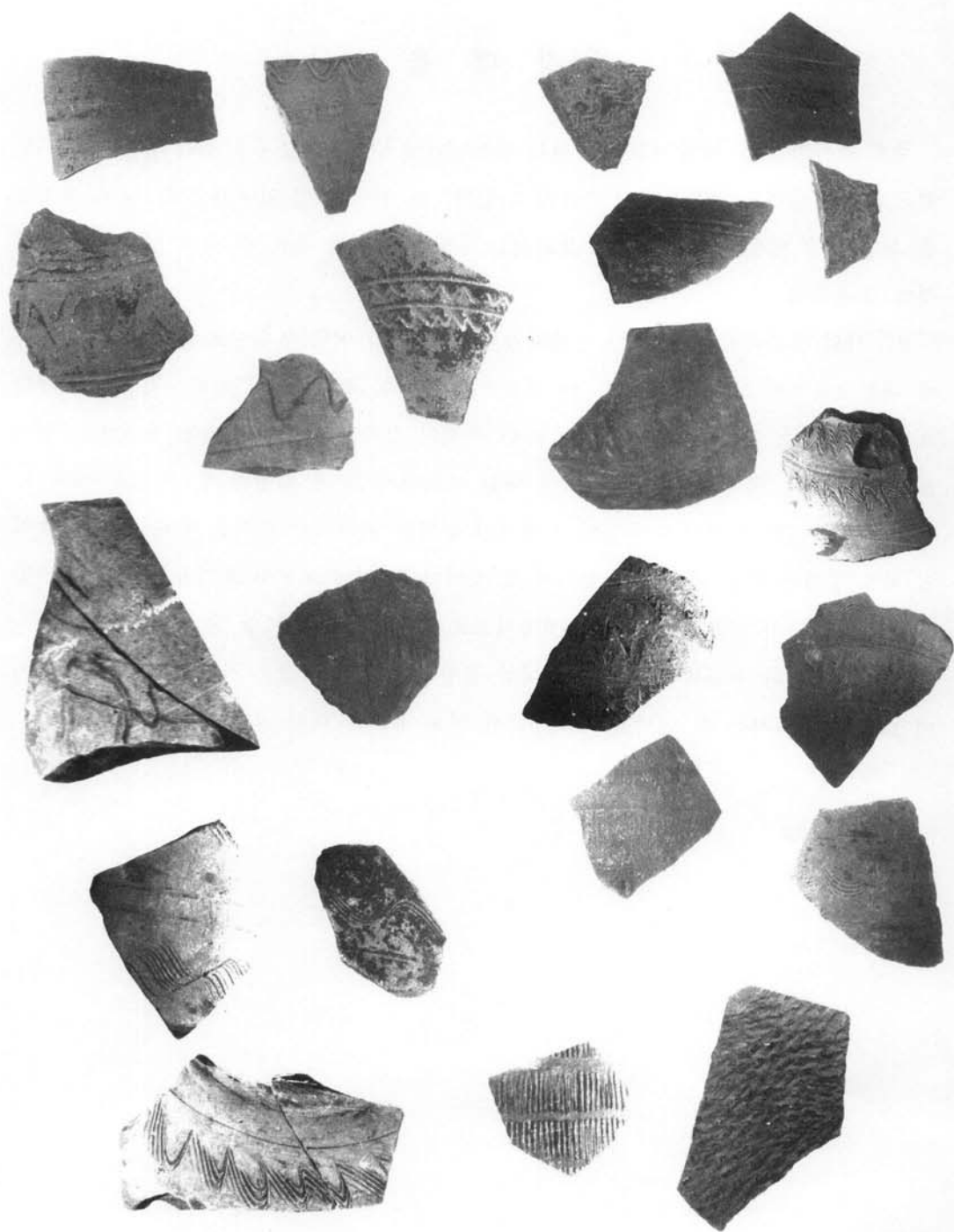


사진84 파상선문 도기편 일괄

제6장 맺 음 말

금번 조사기간중, 발굴지점 70여평의 면적이외에 주변지표조사를 통해 발굴지점의 동편으로 통일신라도기편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 이 언덕 능선 일대가 모두 당시 유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용담동 유적의 자료 중 극히 일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보고서의 발간작업은 3개월간 진행되었다. 보고자의 연구 부족으로 인해 유구와 유물에 대한 1차적인 보고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유물의 복원상태의 미비, 기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주어졌다. 또한 유적의 성격은 祭祀에 관련된 유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이는 차후 좀더 관계유적에 대한 자료의 검토 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실린 도기편은 유물의 전체적인 복원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자료 종합에 뜻을 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에 보고한 도기유물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도 1차 자료로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줄 안다.

유적의 성격과 유물의 전개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언덕능선에 자리한 전체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망된다.